

2013년 명칭사학회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 주변에서 본 명 · 칭시대

■ 일시 : 2013년 7월 4일(목) 13:00~18:30

2013년 7월 5일(금) 13:00~18:10

■ 장소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신앙인문정보학술관  
국제회의실(302호)

■ 주관 : 명칭사학회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 후원 : 동북아역사재단

이 발표논문집은 2013년도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 <프로그램 순서>

-제 1 일

---

## ◆ 대회등록 및 개회

<13:00~13:30> 대회등록

<13:30~13:50> 개회사 \*최진규 회장

---

사회 : 조영현 (고려대)

## ◆ 1부 : 중화제국 내·외 변경의 시각

<13:50~14:40>

- 명대의 苗亂과 苗疆 : 말기의 苗糧과 苗墻을 중심으로

발표자 : 김홍길 (강릉대)

토론자 : 이준갑 (인하대)

<14:40~15:30>

- 우량카이 3衛와 몽골·明 관계\*

발표자 : 윤은숙 (강원대)

토론자 : 송미령 (전북대)

\*제목이 '몽골의 관점에서 본 『명사』 「달단전」의 모순과 한계'에서 변경됨

<15:30~16:00> 중간휴식

## ◆ 2부 : 주변부 사회와 주변인

<16:00~16:50>

- Diaspora, Empire, and Frontier : Cantonese Migrant Students and Civil Examinations in the West River Basin

발표자 : Steven B. Miles (Washington University)

토론자 : 김선민 (고려대)

<16:50~17:40>

- Solid as a rock? The Story of the Nantang Imperial Commissioned Stele

발표자 : 祝平一 (臺灣 中央研究院)

토론자 : 이원석 (동국대)

<17:40~18:30> 전체토론

◆ 3부 : 명·청제국과 조선

<13:30~14:20>

- 명대 외국사신의 신분 증명 방식과 국가간 체제

발표자 : 정동훈 (서울대)

토론자 : 서인범 (동국대)

<14:20~15:10>

- 朝鮮燕行錄所記的夷齊廟

발표자 : 楊雨蕾 (中國 浙江大)

토론자 : 정혜중 (이화여대)

<15:10~15:40> 중간휴식

◆ 4부 : 명·청제국과 대외관계

<15:40~16:30>

-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활동을 통해서 본 중국의 무역구조 :  
1620년대 팽호 점거 시기와 대만 점거 초기 기록을 중심으로\*

발표자 : 한지선 (전남대 사학과 역사문화센터)

토론자 : 이화승 (디지털대)

\*제목이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활동을 통해서 본 명말의 무역구조'에서 변경됨

<16:30~17:20>

- Freedom and control in international trade of the early-modern East Asia

발표자 : 岩井茂樹 (京都大)

토론자 : 박기수 (성균관대)

<17:20~18:10> 전체토론

# <목차>

- 김홍길 (강릉대)  
-명대의 苗亂과 苗疆 : 말기의 苗糧과 苗牆을 중심으로————— 1쪽
- 윤은숙 (강원대)  
-우량카이 3衛와 몽골·明 관계————— 11쪽
- Steven B. Miles (Washington University)  
-(요약\_영문) Diaspora, Empire, and Frontier :  
Cantonese Migrant Students and Civil Examinations  
in the West River Basin————— 31쪽  
-(요약\_국문) 離散, 帝國, 邊境:  
西江 분지 지역의 廣州 출신 이주 학생들과 科擧————— 45쪽  
-(원문\_영문) Diaspora, Empire, and Frontier :  
Cantonese Migrant Students and Civil Examinations  
in the West River Basin————— 55쪽
- 祝平一 (臺灣 中央研究院)  
-(영문) Solid as a rock?  
The Story of the Nantang Imperial Commissioned Stele————— 91쪽  
-(국문) 바위와 같은 견고함?  
御製天主堂碑 이야기————— 111쪽
- 정동훈 (서울대)  
-명대 외국사신의 신분 증명 방식과 국가간 체제————— 123쪽
- 楊雨蕾 (中國 浙江大)  
-(중문) 朝鮮燕行錄所記的夷齊廟————— 147쪽  
-(국문) 朝鮮 燕行錄에 기록된 夷齊廟————— 161쪽
- 한지선 (전남대 사학과 역사문화센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활동을 통해서 본 중국의 무역구조 :  
1620년대 팽호 점거 시기와 대만 점거 초기 기록을 중심으로————— 179쪽
- 岩井茂樹 (京都市)  
-(일문) Freedom and control in international trade  
of the early-modern East Asia————— 197쪽  
-(국문) Freedom and control in international trade  
of the early-modern East Asia————— 215쪽

# 明代の 苗亂과 苗疆

## -말기의 苗糧과 苗墻을 중심으로-

김홍길 (강릉대)

### 머리말

明清시대를 통하여 苗族만큼 줄기차게 중국왕조와 투쟁한 민족도 드물다. 묘족은 귀주·호남·운남 등지의 곳곳에 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호남과 귀주의 접경지대에서 저항·투쟁이 빈발하여 왕조 권력은 그 진압과 처리에 고심하였는데 그 지역은 종종 苗疆이라 불렸다[지도 참조]. 이른바 묘강에서 저항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던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이었을까? 투쟁이 일어난 시기도 오랜 기간에 걸쳐있고 그 때마다 얽혀있는 사정이 또한 다를 것이므로 각 시기별로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본고에서는 우선 명말 묘강과 관련한 사료에서 보이는 苗糧의 존재에 주목하여 그것으로부터 당시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고 나아가 지금은 南方長城이라 불리고 있는 苗疆의 邊墻, 즉 苗墻과 관련시켜 그 축조 의도 및 의의에 대해서도 고찰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묘족의 저항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으나 명대는 그리 많지 않았고, 苗墻에 대해서는 연구가 어느 정도 있지만<sup>1)</sup> 각 사건의 해석이나 의미

1) 凌純聲·芮逸夫『湘西苗族調查報告』商務印書館, 1947; H.J.Wiens, *Han Chinese Expansion in South China*, The Shoe String Press, Yale University, 1967; 石邦彥『苗疆邊墻試析』『吉首大學學報』(社會科學)11-1, 1990; 伍新福·龍伯亞『苗族史』四川民族出版社, 1992; 楊紹猷, 莫俊卿『明代民族史』四川民族出版社 1996; 張應強『邊墻興廢與明清苗疆社會』『中山大學學報』(社會科學版)2001年 2期; 伍新福『明代湘黔邊“苗疆”“堡哨”“邊墻”考』『貴州民族研究』2001年 3期; 羅康智·翟玉前『論明代“理苗”之失』『吉首大學學報』(社會科學版)28-4, 2007; 鄒珺『湘西明清邊墻的修築及其歷史價值』『懷化學院學報』26-10, 2007; 吳榮臻等編『苗族通史』民族出版社, 2007; 道上峰史『明代の南方長城について』『中國史研究』62, 2009.

부여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방향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정작 사건이 발생한 지역사회의 구체적 정황에 대한 탐구는 그리 행하여지지 않은 편이다. 특히 묘량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것이 없어서 본고의 시도가 지역사회의 정황이나 당시 苗漢關係의 해명에 일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 I. 명대 苗亂의 발생

明朝 276년간 소규모 난은 100여 차례, 여러 府나 州縣에 파급된 中型級은 78번이어서 평균 약 30년에 한번 정도이고, 여러 省에 영향을 준 대규모 반란은 4차례여서 평균 60년에 한번 꼴이라고 함.<sup>2)</sup>(PPT 참조). 본고의 湘西 苗疆에서 발생한 난은 표1 참조.

표1. 苗疆의 주요 苗亂

시기	지역	주모자	진압자	비고
永樂 5(1407) 12(1414)	鎮筓		總兵 張騫	光緒『湖南通志』卷83 『明史』湖廣土司傳
	筓子坪	吳子泥, 苗金龍	總兵 梁福	
宣德 5(1430)	銅仁, 平頭	長官司 石各野, 吳畢郎	總兵 肖授	宣德 8년까지 지속
成化 5(1480)	鎮筓			
正德 6(1511)	鎮溪, 銅仁	龍麻陽, 龍童保		光緒『湖南通志』卷83
嘉靖18(1539) 21(1542) 22(1543) 25(1546)	筓子坪, 銅仁		巡撫 陸杰	陸杰鎮壓不實로 탄핵당함※
	筓子坪			
	平頭	龍桑科	都御史 萬鏜	『明史』貴州土司傳
	臘爾山	龍許保	總督 張岳	嘉靖30년까지 지속

※巡按御史 趙大佑의 탄핵<sup>3)</sup>

2) 묘족통사2, 397쪽. H.J.Wiens의 연구는 묘족에 한정된 것은 아니나 湖南과 貴州를 합치면 소규모 반란의 수가 비슷하다. H.J.Wiens, 1967, 187쪽 참조.

3) 趙大佑「覆巡按貴州御史趙大佑參劾都御史陸杰等疏」, 張鹵編『皇明嘉隆疏抄』萬曆年間刊本.

## II. 명말 苗疆의 정황

苗疆은 귀주 동부와 호남 서부가 양대 지역을 이루는데 여기서는 후자를 가리킴. (지도2 참조)

### (1) 한족 유입의 증가

漢族 상인은 진작부터 묘강에 들어왔으나<sup>4)</sup> 五寨司와 算子司(今 鳳凰縣)의 경우는 土官이 유민을 불러모아 개간.

➔ 부유해서 장사하는 자들과 가난해서 흘러 들어온 자들이 哨를 둘러싸고 살면서 마을을 이룸.<sup>5)</sup> 가난한 자들이 靑黃不接의 때에 들어오나 그렇지 않은 무리도 이 때를 이용함.<sup>6)</sup>

➔ 교활하고 완력을 쓰는 무리들이 哨官과 결탁하여 鄉社를 장악하고<sup>7)</sup> 빚을 놓아 병량을 저당잡음(折). & 자제를 병사로 속여 병향을 받아먹고 빚갚기를 독촉하여 병사를 궁핍하게 만들었고, 각 병사들을 사주하여 병향을 달라고 시켜 大難의 발단을 만들기도 함.

&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속이고 압박하여 처자를 저당 잡음.

➔ 교활 곳이 없는 자는 오랑개쪽으로 가버리고 원한을 품은 자는 묘족들을 모아 원한을 품.

요컨대 豪民이 문제를 낳고 있음.<sup>8)</sup>

4) 萬曆24년(1596) 貴州 巡撫가 되는 江東之는 漢族 상인이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苗疆에 들어와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묘족들을 약탈의 길로 이끄는 자도 있다고 하였다 (江東之 『瑞陽阿集』卷四 鎮沅紀略, 「申嚴禁約文告」16앞). 貴州 思南府의 경우는 弘治년간 이래 유이민이 들어왔다고 한다. (嘉靖 『思南府志』卷2 建置志, 屬治, 10앞)

5) 因五寨. 算子土官招集流民墾耕, 而吾民富而商者, 貧而流徙者, 環哨插居, 漸以成聚. (蔡復一 「分守湖北撫苗督餉按察使蔡復一條議兵政詳」, 顧炎武 『天下郡國利病書』原編第25冊, 湖廣下, 籌邊錄, 99앞)

6) 訪得靑黃不接之時, 四外流民藉口艱食, 或云趁口邊哨, 或云移粟苗巢, 或云投耕某山, 或云探親何寨, 此皆勾引之別名耳. (蔡復一, 同上 100뒤)

7) 雲南의 경우지만 상인이 들어와 거주하면서 某官의 자제 조카를 칭하고 권한 있는 관원의 생일이 나 경사가 있을 때를 살피 선물을 보내면서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고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客商人等, ……二三十年不回原籍, 有等詭詐之徒, 稱係某官弟姪兒男, 窺伺有權官員生辰喜慶, 饋送交結. (『皇明條法事類纂』卷12, 逃避差役)

8) 其中有豪俠險健之徒, 交結哨官, 把持鄉社, 既放債以折兵糧矣. 又使子弟冒兵, 而謀不役之餉, 既逼債以致兵窮矣. 又唆各兵討餉, 而發大難之端. 又或欺凌貧弱, 准折妻子, 致無告者挺身以投夷, 懷仇者糾苗以釋怨. 此豪民實開之釁也. (蔡復一, 同上 99앞)

(2) 哨民 중 몰락한 자나 差徭을 기피하는 자 또는 범죄자의 熟苗寨 진입

→ 농사를 지어 租를 납부하면서 熟苗가 生苗와 왕래할 때 아지트가 되기를 바람. 오래 되면 生苗와 熟苗를 인도하여 耕作을 하거나 묘족이 복수하고 살인하는 것을 도움.<sup>9)</sup>

蔡復一의 禁畝으로 보아 유민 중에는 초소와 苗寨의 중간지대에 거주하는 자도 있는 듯.<sup>10)</sup>

(3) 변방민 일부와 묘족의 共生 구조

묘족은 한쪽으로부터 무기와 식량을 얻고, 변방민은 묘족을 이용하여 私怨을 갚기도 함. 대저 변경의 재앙을 일으키는 것은 叛民이 6/10, 熟苗가 3/10, 生苗는 겨우 1/10~2/10 정도를 차지할 뿐.<sup>11)</sup>

(4) 營哨 장교의 부패

병사를 사적인 일로 부림. 많은 곳은 수십 명씩 있어 전투병이 점점 적어짐. ex) 五寨哨의 병사가 100명이 안되는데 私役이 30여 명.<sup>12)</sup>

전투에 임하는 병사로부터는 재물 뜯기가 어려워 전투를 맡지 않는 자들로 병사를 채움. 즉 강건한 병사는 내치고 병약한 자들로 채우니 병사를 재물 얻는 도구로 보는 것임.<sup>13)</sup>

묘족과 거래: 양식을 주고 자신의 哨는 보전. 묘족이 다른 곳을 치는 곳은 관여하지 않음. 심지어 지키는 병사에게 포를 쏘지 말라고 함. ∴ 포 소리를 듣고도 가지 않으면 책임이 관원에게 있어 무겁지만, 포를 쏘지 않는 것은 책임이 봉화를 올리고 감시하는 쪽에 있어 가볍기 때문.<sup>14)</sup>

9) 哨民敗群者，已能爲害。又有逃避差徭，負罪亡奴投入熟苗寨，種地分租。因熟苗以通生苗，望爲掘穴。久則引生熟苗出劫。又或幫其寨苗讐殺(蔡復一，同上 99뒤)。江東之「申嚴禁約文告」<sup>16</sup>앞도 참조.

10) 除以前元有民寨外，不許流民於近苗遠哨地方，從新創房居住。不遵者，守哨官驗明燒毀，盡數驅逐。(蔡復一，同上 99뒤-100앞)

11) 近五寨哨捕獲廬溪客民…搜出兵器飯食，供稱，與苗交通，……而前塘營於香爐山下，堵苗陣，擒三名，…皆麻陽民引苗報讐，劫溪口長冲等處，……大抵邊境之禍，熟苗十三，叛民十六，而生苗纔居一二。(同上 100뒤)

12) 蔡復一「彙叢失事條陳申飭并自劾詳」同上書 103앞.

13) 健兒多窮兒也，負技力自效，孰肯輸財，亦安所得財。惟不任戰者，其補伍必有恒饋，而哨官居爲奇貨，卽汰壯而進羸不恤。(同上 103뒤)

14) 惟與苗爲市，可以鑿其恠心，而苗以死保糧，守爲世物，其甘而必得之也。……苗豈能終抱餌而止劫哉，有朝受糈，夕行剽者矣。於是…苟完本哨而已，餌於東而劫西，餌於外而劫內，我勿與知…甚乃戒隘兵勿舉炮，謂聞炮不赴，責在官而重，失炮不舉，責在烽堠而輕。(同上 103뒤)

(5) 병사의 질 저하

군사의 도망, 正德10년(1515) 湖廣巡撫 秦金의 報告:

伍開衛: 50,000→3,000. 銅鼓衛: 18,000→800.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1/10~2/10 정도가 감소했다고.<sup>15)</sup>

→빛진 工匠이나 遊食之人, 그리고 武岡·新化·邵陽 등의 범죄자들이 병사가 됨. 遊惰坐食하는 자들은 창을 잡을 수가 없고, 流人들은 토착이 아니어서 전투에는 힘을 다하지 않고 뒷사람에게 대드는 것만 쉽게 함.<sup>16)</sup>

(6) 양민 납치와 贖還

戶口를 잃으면 哨官의 책임. 게다가 哨官은 事端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贖還시킴.

→蔡復一이 糧苗에게 책임지고 돌려보내게 하고 돌려보내지 않는 자는 그 양식 주는 것을 끊으라고 하였으나 저들로서는 포로를 잡는 것은 이익이 많고 양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손해가 적은 것. 무엇보다 哨官이 묘족을 두려워하여 얼버무려 벗어나고 있으니 행하여지지 않는다고. 작년에 各哨에서 100여명을 돌려받았는데 관청이 내거나 토관이 피해자에게 징수해서 결국 속환이나 진배없음.<sup>17)</sup>

(7) 토사의 苗寨 장악력 약화

원래 永順 宣慰司는 鎮溪苗를, 保靖 宣慰司는 算子坪苗를 단속하도록 했었는데 시대가 내려오면서 그 담당이 아예 실효가 없어짐. 특히 算子坪苗의 침범이 많아 鎮溪의 두배 이상인데 토사는 손을 못쓰고 있음. 이는 48개의 苗寨를 관할하는 算子坪 長官司도 마찬가지.<sup>18)</sup>

嘉靖28년(1549) 總督 張岳은 이미 그때에 湖廣에서 난을 일으키는 자들이 토

15) 秦金『安楚錄』卷2, 8뒤~9앞 (『續修四庫全書』433책 所收)

16) 哨官需索常規, 往往充以放債工匠遊食之人, 外此則多武岡新化邵陽等處犯罪逃亡者. 遊惰坐食, 則不可執戈, 流人非土著, 則戰不力, 而易諛其上. (蔡復一「分守湖北撫苗督餉按察使蔡復一條議兵政詳」93앞)

17) 故事失陷戶口, 責哨官追退, 又戒以勿得啓釁, 故十年積弊, 惟斂兵銀贖取. …… 雖本道申令, 勒擔承糧苗追取, 不退者革其糧, 然擄掠利多, 革糧害少, 彼且甘心矣. 況哨官畏苗如虎, 支吾解脫, 未必實行乎. 去歲各哨退百餘人, 然該府捐贖數十兩, 鹽數十包, 而土官…分外私科失主, 每名銀二三兩, 富而急還人者倍其數, 視贖回不甚遠也. (同上 96뒤)

18) 同上 101뒤-102앞.

관은 무시하고 있다고 하였다.<sup>19)</sup>

### Ⅲ. 명조의 대책

#### (1) 衛所와 堡哨의 설치

洪武初 崇山衛 (今 花垣縣 吉衛鎮)

洪武28년(1396) 鎮溪軍民千戶所

宣德5년(1431) 湖廣 省城의 總兵 1인 밑에 參將 3인을 두어 그 한사람을 鎮竿에 주둔시키고 守備 11명을 둠. & 灣溪 등의 堡를 설치하여 군사를 보내어 지키게 함.

嘉靖31년(1553) 총독 張岳이 沅州에 駐紮하면서 五寨·永安·清溪·洞口·竿子·乾州 등 12哨 설치하고 관병 6,000여 명을 주둔시킴.

萬曆34년(1607) 18營哨 설립.<sup>20)</sup>

◇진압 전담 관직 배정: 嘉靖28년(1549) 偏沅巡撫 관아를 沅州로 옮김.

특히 辰沅兵備道 一員은 오로지 紅苗 방어를 위해 설치함.<sup>21)</sup>

#### (2) 苗糧

◇공식적인 苗糧: 본래는 이른바 順苗에게 주던 것이었던 듯. 투항하여 파수의 임무를 수행하는 묘족에게 지급한 것(≠正德年間 秦金의 ‘苗糧’).<sup>22)</sup> 그 명단이나 숫자도 보고가 되어있다.

전에는 묘량을 받는 인원이 백 수십 명 정도였던 것이 날로 늘어나 만력 말년에는 영초에 전부 1,000여명이 있어서 매년 병향의 2/10가 나간다고 함.<sup>23)</sup>

◇묘량의 설정: 초관이 장부를 만드는데 원래 액수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 왕왕

19) 다만 그들이 招撫에 응하려할 땐 土官을 통하고 있다고 하였다 (張岳『小山類稿』卷4, 極陳地方苗患并論征剿撫守利害疏, 福建人民出版社 排印本, 2000, 62쪽)

20) 石邦彦『苗疆邊牆試析』『吉首大學學報』(社會科學)11-1, 1990, 36쪽; 楊紹猷, 莫俊卿『明代民族史』四川民族出版社 1996, 388-389쪽 참조.

21) 光緒『湖南通志』卷83 苗防三, 『續修四庫全書』663冊 所收, 379쪽.

22) 秦金이 언급한 苗糧은 寶慶府 城步縣의 경우로 里甲으로 편성된 苗里에서 납부하는 稅糧. 秦金《安楚錄》卷二 奏疏, 11앞~12앞 참조.

23) 點官要功, 許爲申請名糧, 捏稱降服已賣者 (蔡復一「分守湖北撫苗督餉按察使蔡復一條議兵政詳」95 앞). 查得先年投撫把路苗人, 食糧不過百數十人, 其後日新月盛, 兵不能戰, 則餌惡苗爲羈縻之資, 兵不能守, 則養順苗求捍蔽之用, 通計營哨共一千餘名, 歲糧割兵餉十之二矣. (同 97뒤)

마음대로 증가시켰음. 萬曆40년대를 보면 五寨: 48→67, 洞口: 24→34(만력40년  
冬)→49(41년春), 淸溪: 46→51, 乾州: 10→16 등 종종 30~40%를 늘렸음.<sup>24)</sup>

◇불법적 묘량: 哨官이 사적으로 주는 것. 위의 '묘족과 거래' 참조.

실록에 보면 萬曆16년(1588)이래 이런 일이 시작되었다고 함.<sup>25)</sup>

萬曆24년(1596) 貴州 巡撫가 되는 江東之도 哨官이 軍伍를 충실히 해서 묘족을  
막을 방책은 도모하지 않고 오로지 군량을 일부 떼어내어 묘족의 마음을 사는  
용도로 쓰는 것에만 의지한다고 하였다.<sup>26)</sup>

◇묘량의 효과: 蔡復一云, “싸울 수 없다면 惡苗에게라도 먹을 것을 주어서 통제  
하는 자산으로 삼고, 지킬 수 없다면 順苗를 길러 방어하는 용도로 쓰자는 것인  
데, 지금은 통제도 되지 않고 방어도 되지 않는데 어찌 방어가 되지 않는 것으  
로 그칠 뿐이겠는가? 다른 한편으로는 生苗를 끌어들이어 우리 변방을 박살내고  
우리의 방어를 교란하고 우리 백성들을 죽이고 있다. 매번 들어와 겁락하는 生  
苗는 모두 이 무리들이 叛民과 더불어 재앙을 만드는 것이다.”<sup>27)</sup>

◇불법적 묘량 차단?

蔡復一이 糧食을 苗族에게 판 哨官을 처벌하고 私賣를 엄금하였지만 결국 주  
위로부터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다.”는 소리를 들어야했고, 자신도 일이  
제대로 진척이 안되는 것을 탄식하는 상황이 되었다.<sup>28)</sup>

### (3) 邊牆의 축조

蔡復一, 苗患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변장 축조 주장. 묘족을 통제하는 데는 본  
래 剿와 撫의 방법을 써야하는데 양자를 제대로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니 守를  
통할 수밖에 없다고.<sup>29)</sup>

24) 訪得各哨原來不限定額數, 哨官造冊, 往往憑意增添, 往者不能盡知, 以近數年計之, … (『天下郡國  
利病書』原編第25冊, 湖廣下, 邊防條議, 蔡復一, 86앞-뒤) 그리고「分守湖北撫苗督餉按察使蔡復一  
條議兵政詳」98앞도 참조.

25) 『神宗實錄』卷552, 萬曆44年12月丙寅.

26) 江東之『瑞陽阿集』卷四 鎮沅紀略, 「淸苗糧牒文」5앞-6뒤.

27) 兵不能戰, 則餌惡苗爲羈縻之資, 兵不能守, 則養順苗求捍蔽之用. …… 今則羈者不羈, 而捍者不捍,  
豈惟不捍, 且引生苗以虔劉我邊陲, 蕩擾我保聚, 剽殘我赤子, 每次入劫生苗幾何人, 皆此曹與叛民作  
祟耳. (蔡復一「分守湖北撫苗督餉按察使蔡復一條議兵政詳」97뒤)

28) 先年賣糧與苗之余萬鍾, …… 仍批本道提究. …… 申飭戎政諸款, 謬謂行之可以改壁壘旌旄之色, 而  
半年於此, 將領閣之如弁髦, 邊疆啖之如畫餅. … 卽高叅將書與本道, 亦云, 水太淸則無魚. (蔡復一  
「彙叅失事條陳申飭并自劾詳」104뒤, 106앞-뒤)

29) 蔡復一「議添募兵築邊牆」, 『天下郡國利病書』108앞-뒤.

萬曆43년(1615) 남쪽 銅仁 交界의 亭子關으로부터 북쪽의 鎮溪所에 이르는 300餘里의 邊牆 축조. (지도3 참조) 天啓2년(1622) 辰沅兵備道副使 胡一鴻 등이 鎮溪所 북쪽으로 喜鵲營까지 60餘里를 연장 축조함.<sup>30)</sup>

◇苗疆邊牆의 의의: 명조 통치자가 湘西 苗區에 쌓은 군사방어공정이라는 의견<sup>31)</sup>에 대하여 근래에 이는 편벽된 곳에 있는 약소한 민족에 대한 격리이자 봉쇄요 압박 정책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sup>32)</sup>

蔡復一의 記述에 의하면 그의 노림수는 상술한 苗漢間의 관계를 차단하는데 있다고 봐야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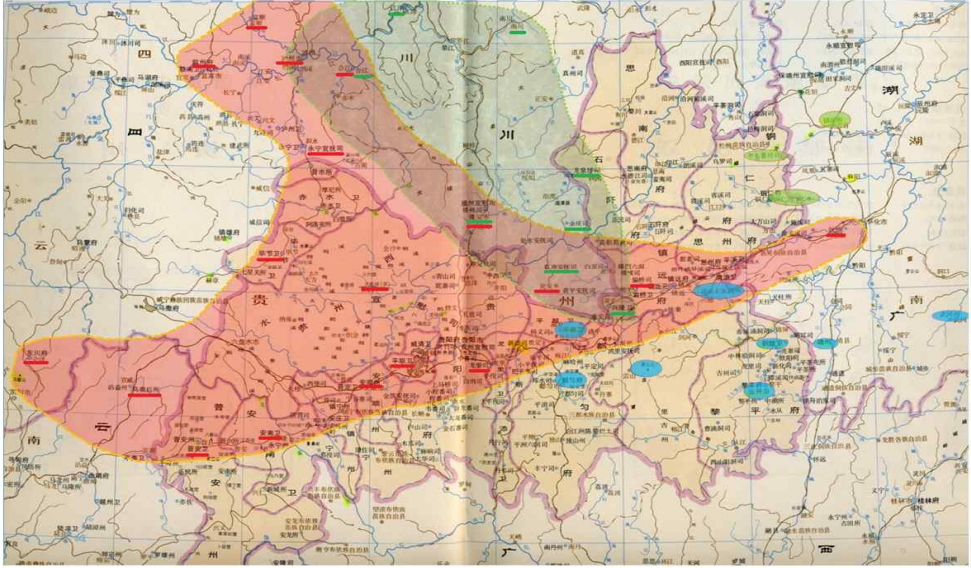
---

30) 乾隆『辰州府志』卷十二, 備邊考, 30앞~뒤. 이 邊牆에 앞서 嘉靖년간에 규모가 작은 변장이 축조된 적이 있음이 밝혀졌다. 伍新福「明代湘黔邊“苗疆”“堡哨”“邊牆”考」『貴州民族研究』2001年 3期 및 道上峰史「明代の南方長城について」『中國史研究』62, 2009 참조.

31) 石邦彦「苗疆邊牆試析」『吉首大學學報』(社會科學)11-1, 1990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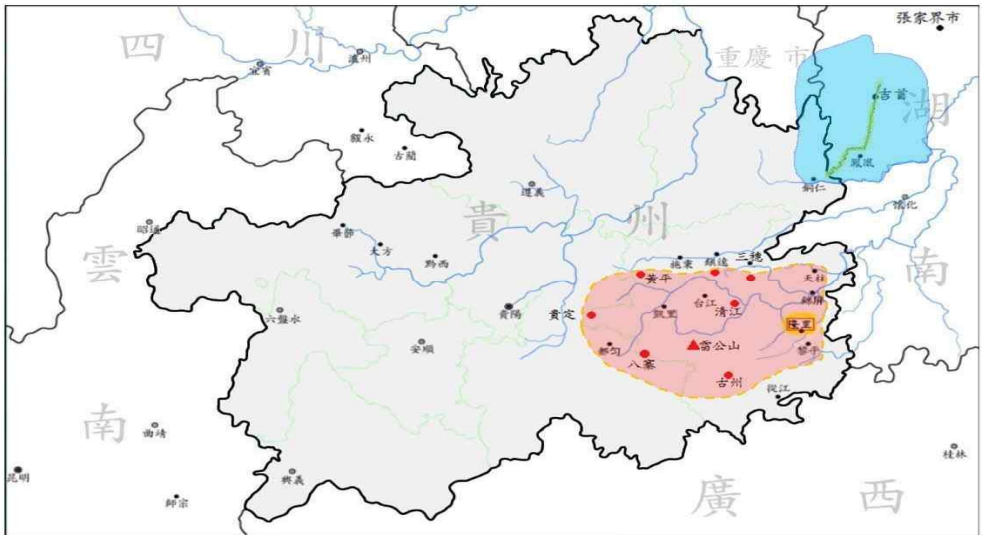
32) 伍新福「明代湘黔邊“苗疆”“堡哨”“邊牆”考」『貴州民族研究』2001년 3期, 103-105쪽 참조.

지도 1. 명대 서남지역 소수민족의 저항 (PPT 참조)



● 15세기 前半   ● 16세기 前半   ● 楊應龍의 봉기   ● 奢·安의 봉기

지도 2. 兩大 苗疆



지도 3. 明代の 苗疆



# 우량카이 3衛와 몽골·明 관계

윤은숙 (강원대)

- I. 머리말
- II. 元의 소멸과 우량카이 3衛의 성립
- III. 明朝의 우량카이 3衛 정책
- IV. 몽골과 우량카이 3衛
- V. 맺음말

## I. 머리말

明朝 280여 년의 통치 기간 동안 明에게 가장 위협적인 세력을 들자면 단연 몽골이라고 할 수 있다. 명의 변경은 始終 몽골의 크고 작은 공격과 약탈들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초원과 만주에서 비교적 가까운 수도 北京은 수차례 몽골에 의해 포위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명과 몽골의 대치 상황은 자연스럽게 지정학적으로 명과 몽골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우량카이(Üryangqai, 兀良哈) 3衛 역할을 부상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명 스스로가 우량카이 3衛를 藩籬 또는 京師의 背後라고 할 정도로, 우량카이 3衛는 북으로는 몽골과 긴밀히 연결되고, 남으로는 명의 통치지역으로 통하며 동으로는 고려·여진세력과 연결되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명과 몽골의 계속되는 대립 속에서 이들의 향방이 늘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몽골과 명 사이에서 우랑카이 3衛의 역할이 부상하면서 우랑카이 3衛의 정체성 논란 역시 가중되었다. 明代人들의 기술 속에서 우랑카이 3衛는 명의 屬夷 또는 外蕃으로 표현된다.<sup>1)</sup> 그들에 따르면 우랑카이 3衛는 東胡의 遺種으로 언어는 몽골과 구별되지 않으나 풍속은 거란과 같으며 몽골과 약간 다르다고 하는 등 몽골과 우랑카이 3衛를 구별하고 있다.<sup>2)</sup> 그러나 우랑카이 3衛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 세력은 원 소멸 이후 만주에 남아 있던 최후의 몽골세력이었던 칭기스칸의 諸弟 가문인 옷치긴 왕가와 카치온 왕가로부터 출발하였다. 토구스 테무르(Togūs Temür, 脫古思帖木兒) 카안을 제거하고 대칸이 된 이수데르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몽골 세력들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이들 제제 가문들은 1388년(이수데르1, 洪武21)에 명조에 투항했고 이듬해 朱元璋이 우랑카이 3衛를 설립함으로써 형성되었다. 그러나 우랑카이 3衛의 명칭은 명조가 붙인 칭호일 뿐 몽골사료에서는 대흥안령의 남쪽에 있는 萬戶라는 의미인 ‘우르 투멘Ölü, Tümen, 山陽萬戶’)으로 불리고 있다.<sup>3)</sup>

우랑카이 3衛에 대한 연구를 처음 시작한 이는 일본학자 和田淸이다. 그는 『東亞史研究(蒙古篇)』라는 방대한 연구서를 통해 우랑카이 3衛의 성립과 활동상을 분석했지만 연구 초기 연구의 특성상 주로 한적 사료에 나타난 우랑카이 3衛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 한계가 있다.<sup>4)</sup> 중국학자 曹永年<sup>5)</sup>, 周竟洪<sup>6)</sup>, 李健才<sup>7)</sup> 등은 우랑카이 3衛가 명과 몽골 사이에서 자기 보존을 위해 배반과 귀부를 반복했다고 보아서 우랑카이를 몽골과는 다른 제3의 세력으로 보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曹永年<sup>8)</sup>은 우랑카이 3衛를 명조의 羈縻衛로 보았고,<sup>9)</sup> 李健才는 우랑카이 3衛가 명으로부터 관직을 하사받고 官印과 官服을 착용했음은 그들이 명조의 지방관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我田引水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내몽골 학자들인 다르자브(達力扎布)<sup>10)</sup>, 오운빌리그(烏雲畢力格)<sup>11)</sup>과 바안후(薄音湖)<sup>12)</sup> 등의 연구는 우랑카이 3衛가 이름으로 볼 때는 명과 번속관계에 있지만 명조와는 무관한 몽골에 예속된 일원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견해가 상당 부분 논리적 설득력을 가

1) 王世貞, 「三衛志」, 『明代蒙古漢籍史料匯編』, 內蒙古大學出版社, 2006, 25쪽.

2) 『全遼志』卷6, 外志 兀良哈.

3) 『阿勒坦汗傳』 68절, 內蒙古人民出版社, 1990.

4) 和田淸, 『東亞史研究(蒙古篇)』, 東洋文庫, 1959.

5) 曹永年, 『蒙古民族通史』, 內蒙古大學出版社, 2002.

6) 周竟洪, 「論明代兀良哈三衛與東西蒙古、女真的關係」, 『內蒙古社會科學』1992-4, 內蒙古社會科學院

7) 李健才, 『東北史地考略』吉林文史出版社, 1986.

8) 曹永年, 『蒙古民族通史』3卷, 內蒙古大學出版社, 2002.

9) 曹永年, 2002, 53쪽.

10) 達力扎布, 「有關明代兀良哈三衛的幾個問題」, 『明清蒙古史論稿』, 民族出版社, 2003 : 『明代漠南蒙古歷史研究』, 內蒙古文化出版社, 1998.

11) 烏雲畢力格, 「關於朵顏兀良哈人的若干問題」, 『蒙古史研究』 7, 內蒙古大學出版社, 2003 : 烏雲畢力格. 白拉都格其, 『蒙古史綱要』, 內蒙古人民出版社, 2006.

12) 薄音湖, 「關於北元汗系」, 『宋.遼.金.元史』, 1987-4,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1984.

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량카이 3衛와 몽골의 관계의 실체를 보면 반드시 몽골에 예속되어 있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우량카이 3衛가 몽골과 명 사이에서 수행한 역할을 살피는 연구는 15세기 동아시아의 정세를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비록 朱元璋에 의해 우량카이 3衛가 성립되기는 했으나, 이들은 명조의 衛所制度和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명은 우량카이 3衛에게 대량의 관직을 하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막대한 賞賜, 回賜, 互市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주는 대신에 그들로부터 몽골의 정치적 변화와 군사 동향을 획득하는 ‘耳目’으로 활용하려 했다. 우량카이 3衛가 전달해주는 정보들의 그 정확성 여부와 관계없이 명에게는 몽골의 동정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 반면 몽골에서는 새로운 대칸이 즉위하거나 권신이 등장하면 반드시 우량카이 3衛와 일정한 관계 정립을 시도했다. 이러한 관계는 혼인관계 뿐만 아니라 필요시에 전쟁을 통해 그들을 제압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몽골과 명은 적대관계를 형성했기에 우량카이 3衛를 통해 얻으려고 했던 것이 일맥상통하고 있다. 따라서 우량카이 3衛의 활동이 당시 동아시아를 다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는 몽골과 명의 대립 속에서 우량카이 3衛가 이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몽골과 명이 우량카이와의 관계에서 요구했던 정치적·경제적 요소들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우량카이 3衛의 성격을 분석하고 그들의 실체에 접근하려 한다.

## II. 元의 소멸과 우량카이 3衛의 성립

1387년(天元9, 洪武20)에 나가추가 명에 투항하자 요동을 완전히 상실한 토구스 테무르 정권은 대내외적으로 고립되었다. 대내적으로는 몽골리아에 있던 유목 세력들과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구스 테무르에 동조했던 많은 세력들이 나가추의 투항을 계기로 명에 대규모로 항복함에 따라 통치 기반이 크게 동요되고 있었다. 대외적으로 요동 상실은 원·고려·명의 삼각 균형의 틀을 파괴시켰고, 원과 고려의 연결이 차단되면서 원은 동아시아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몽골 전체가 동요되고 있던 상황에서 1388년(天元10, 洪武21) 4월에 藍玉 휘하의 15만에 이르는 명군이 원의 정치 중심인 쿨룬·부이르 지역을 급습해서 무방비 상태의 토구스 테무르의 전군을 궤멸시켰다. 1388년 10월에 토구스 테무르 일행은 몽골리아의 툽강 유역으로 도망쳤으나 오이라트부의 지지를 받고 있던 아릭부케의 후손 이수데르(Isüder, 也速迭兒)의 습격을 받아 다시 카라코룸 근처로 피신했다. 재차 이수데르의 습격을 당한 토구스 테무르와 태자 天保奴가 독살됨으로써 원은

사실상 소멸되었다.<sup>13)</sup> 쿠빌라이가 아릭부케로 부터 대칸의 자리를 찬탈한지 100여 년 뒤에 아릭부케의 후손이 쿠빌라이계로부터 다시 몽골 제위 계승권을 회복해 오면서 사실상 원은 막을 내리게 된다.<sup>14)</sup>

오이라트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1388년(이수데르1, 洪武21)에 즉위한 이수데르 카안은<sup>15)</sup> 몽골 체제의 회복을 선언한 뒤에 국호를 ‘예케 몽골(Yeke Mongol)’로 바꾸고<sup>16)</sup>, 쿠빌라이의 중국 지배 이래 사용되어 왔던 중국식 年號와 廟號 사용을 정지했다. 이제 몽골은 몽·원제국 이전의 전통적인 유목 국가 상태로 회귀했으며, 명과의 여러 차례 교전으로 쇠약해진 동몽골 세력을 대신해 서쪽의 오이라트 몽골이 세력을 신장하고 있었다. 당시 동·서 몽골은 느슨한 연맹국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토구스 테무르 카안이 사망한 1388년 이래 1403년까지 이수데르, 엔게(Engke, 恩克), 엘베그(Elbeg, 額勒伯克), 군 테무르(Gün Temür, 坤帖木兒), 굴리치(Guliči, 鬼力赤 또는 Örüg Temür)에 이르는 5명의 대칸들이 연이어 교체되고 있었다. 이러한 대칸의 잦은 교체 원인은 동·서 몽골의 權臣들이 대칸 옹립을 두고 대립하면서 자신들이 옹립한 대칸을 즉위시키는 과정에서 교체와 즉위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한편, 토구스 테무르 카안 사후에 이수데르의 통치를 거부했던 원의 잔여세력들은 남하해 명에 투항했다. 원의 丞相 시레문과 知院 네케르 등은 口溫, 全寧과 應昌 일대로 남하했고, 명으로부터 네케르는 全寧衛指揮使에 임명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수데르 정권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1389년에 이들은 다시 몽골에 귀부했다.

13) 栗林 均 編, 『華夷譯語(甲種本)モンゴル語 全單語.語尾索引』, 東北アヅア研究センター叢書 第10號 (東北大學東北アヅア研究所センター, 2003), 102쪽. 知院 네케르는 “아릭부케의 자손 대왕 이수데르 등이 오이라트와 함께 반란을 일으켜 우리 카안(토구스 테무르)을 독살했습니다. 大印을 가지고 갔으며, 백성들의 집을 부수고 파괴 했습니다”라는 상주문을 주원장에게 보내 이수데르의 찬탈을 알리고, 얼마 뒤에 명에 투항했다.

14) Ч. Далай, *Монголын Түүх(1260~1388)*, УБ., Эрдэм, 1992. 145쪽.

15) 薄音湖, 『關於北元汗系』, 『宋·遼·金·元史』, 1987-4,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83-84쪽.

16) 尹胘(峨岷山人) 『譯語』 記錄匯篇, 野克莽官兒. 『明史』 권327, 『韃靼傳』에서는 “鬼力赤이라는 자가 위를 찬탈하여 可汗을 칭하고 국호를 버리고 ‘韃靼’이라고 칭했다”라고 해서 몽골이 韃靼이라고 자칭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몽골은 스스로를 ‘Yeke Mongol(野克莽官兒)’이라 했고, Tatar(韃靼)라고 하지는 않았다. 韃靼이란 칭호는 몽골의 자칭이 아니라 명대인들의 簡稱으로 보아야 한다.(和田清, 1959 : 達力扎布, 『北元史研究三題』, 『黑龍江民族叢刊』1991-2 : 蒙古民族通史編寫組, 『蒙古民族通史』, 內蒙古大學出版社, 2002) 미야자키 준코(宮脇淳子 저, 조병학 역, 『最後の 몽골유목제국』, 백산출판사, 2000, 118쪽)는 명조인들이 몽골을 韃靼이라고 부른 것은 원조와 몽골의 후계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원조의 정통을 계승한 것을 자임한 명조에게 몽골은 부당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을 韃靼이라고 부르게 되면 문명의 중심을 떠나야만스러운 옛 유목민 무리로 돌아간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수데르 카안 당시 국호를 ‘예케 몽골’이라 칭하기는 했으나 이후에 경우에 따라 ‘大元’이라 하기도 했다. 또한 ‘北元’이란 칭호는 『高麗史』에만 보이는 칭호로 고려가 변화하는 동아시아 정세를 민감하게 수용해 복상한 원을 복원으로 부른 것으로 해석된다.(윤은숙, 「고려의 北元칭호 사용과 동아시아 인식 -고려의 양면 외교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연구』15, 2010)

나가추 투항 이후 만주에 남은 최후의 몽골세력인 동방 3왕가이다. 동방 3왕가의 주장인 옷치긴 왕가의 遼王 아자스리(Ajasri, 阿扎失里)는 원의 소멸과 승상 시례문, 지원 네케르 등의 몽골 지배층의 투항 도미노까지 겹치게 되자 위기위식이 크게 심화되었다. 결국 朱元璋이 보낸 詔書<sup>17)</sup>를 통해 명의 뜻을 전달받고 遼王 아자스리는 1388년 9월에 臣屬 49인과 함께 遼東都指揮使司를 방문했다.<sup>18)</sup>

명으로부터 울루스의 독립적 경영을 확보한 아자스리는 같은 해 11월에 會寧王 타빈 테무르<sup>19)</sup>와 함께 명에 항복했다.<sup>20)</sup> 최종적으로 남아 있던 동방 3왕가로 대표되는 만주 세력의 항복으로, 요동을 장악한 朱元璋은 1389년(이수데르2, 洪武22) 5월에 泰寧·朵顏·福餘 3衛 指揮使司를 설치하고 이를 우랑카이 3衛(兀良哈3衛)라고 했다.<sup>21)</sup>

泰寧·朵顏·福餘 등의 명칭은 이들의 자칭이 아니라 명조가 이들을 부른 他稱이다. 朵顏은 스스로를 우랑카이(兀良哈, 五兩案)라고 했는데, 우랑카이 3衛란 명칭은 이들로부터 파생되었다. 이와 관련해 1389년 투항한 토쿠차르(Toquchar, 脫魯忽察兒)는 “우랑카이(兀良罕) 林木 백성들은 칭기스칸의 분봉 이래 예게 두얀 운두르(Eke döyan Ündür, 額客多延溫都兒)·출 무렌(Chöl müren, 撈木連) 등지에서 거주했다.”<sup>22)</sup>라고 해서 자신들을 우랑카이라고 했음을 밝히고 있다. 泰寧은 자신들을 옹니우드(Ongniud, 翁牛特, 往流)라고 했는데, 옹(Ong)은 왕을 의미하고 니우드(niud)는 복수형 어미로 옹니우드란 ‘왕의 것들’ 즉 ‘왕의 백성들’이라는 말이다.<sup>23)</sup> 여기서 왕이란 遼王 아자스리를 지칭하는 것인데, 본래 이 일대가 칭기스칸의 末弟 가문인 옷치긴 왕가가 대대로 통치해 왔기 때문에 생긴 명칭으로 현재에도 옹니우드로 불리고 있다. 福餘는 스스로를 우지에드(Üjiyed, 烏濟業特, 我着)라고 했는데,<sup>24)</sup> 우지(Üji)는 삼림을 뜻하는 만주어이고 예드(yed)는 복수형 어미로 ‘삼림의 백성들’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명칭은 福餘衛의 대부분 지역이 여진

17) 栗林 均 編, 2003, 64-71쪽. “너 아자스리 등은 몽골 카안의 일족으로 하늘의 운명을 알고 있다. …… 너 아자스리 등은 진심으로 歸附해야하고 다른 마음을 먹어서는 안된다. 예전에 몽골과 한인이 하나가 되어 몽골이 세계의 주인이 되었다. 하늘의 뜻이 바뀌어 근래에는 몽골과 한인이 하나가 됐고 大明이 세계의 주인이 됐다. 하늘의 뜻이 바뀐 것은 명백하므로 너는 聖旨와 法도를 따라야 한다. 물과 풀을 따르는 것은 하늘의 오랜 가르침이다. 여진 마음으로 가르침을 따르면 편안해지고 백성들이 번성할 것이다. 하늘의 법칙에 순응하면 흥하지 않는 것이 없다.”

18) 『明太祖實錄』 권193, 홍무 21년 9월조.

19) 和田清, 1959, 120쪽. 會寧王은 『명사』에서는 惠寧王이라 했는데, 아자스리는 泰寧衛指揮使가 되고, 회녕왕 타빈 테무르는 그 부장인 泰寧衛指揮同知가 됐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그는 아자스리 일족으로 짐작된다.

20) 『明太祖實錄』 권194, 홍무 21년 11월조.

21) 『明史』 권3, 『太祖本紀』 권3, 洪武 22년 4월, 5월조. 置泰寧, 朵顏, 福餘 三衛於兀良哈.

22) 『華夷譯語』, 96-97쪽.

23) 『武備志』 권227, 『北虜譯語』.

24) 『武備志』 권227, 『北虜譯語』.

인들 거주지였던 것과 관련되어 있다.

아울러 우량카이 3衛라는 명칭 역시 한적 사료의 기술이고, 몽골 사료에서는 이들을 산의 남사면을 의미하는 몽골어 우르(Ölü, Ölge)와 一萬을 뜻하는 투멘(Tümën)을 결합해 ‘우르 투멘’으로 불렀다.<sup>25)</sup> 『阿勒坦汗傳』에서는 ‘우르 투멘’을 ‘山陽萬戶’라고 음역하기도 했다.<sup>26)</sup> 여기서 산의 남사면은 동방 3왕가의 거주지였던 대흥안령 산맥의 남사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과 대비해, 몽골을 대흥안령의 북사면에 있는 몽골이라는 의미로 아르 몽골(Aru Mongol)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Ⅲ. 明朝의 우량카이 3衛 정책

『明史』에 따르면 泰寧·朵顏·福餘 등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高皇帝가 泰寧·朵顏·福餘 등의 3衛를 설치했다. 우량카이 땅으로 흑룡강 남쪽, 漁陽塞 북쪽에 있다. 漢代의 선비, 唐代의 토욕혼과 宋代의 거란 등이 모두 그 땅이었다. 원대 大寧路의 북쪽 경계가 된다.

洪武 22년 泰寧·朵顏·福餘 3衛指揮使司를 설치하고 그 두목에게 각자 무리를 통령케 해 서로 성원케 했다. 大寧에서부터 앞으로 나가 喜峰口에 이르고, 宣府 가까이 이르기까지를 朵顏이라 하고, 錦·義부터 廣寧을 거쳐 遼河에 이르기까지를 泰寧이라 하며, 黃泥窪로부터 瀋陽·鐵嶺을 넘어 개원에 이르기까지를 福餘라고 했다.<sup>27)</sup>

이처럼 북으로는 몽골과 긴밀히 연결되고, 남으로는 명의 통치지역으로 통하며 동으로는 고려·여진세력과 연결되는 우량카이 3衛의 지정학적 특수성은, 명의 對몽골정책의 일환이었던 ‘以夷制夷’와 맞물려 그 당시 동아시아 정세변동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따라서 명이 점차 세력이 강성해지는 동·서 몽골의 남하를 막아 내기 위해서는 우량카이 3衛와 필연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해야만 했으며, 이러한 우호관계를 통해 동·서 몽골의 내부 사정을 파악하려 했다.<sup>28)</sup>

25) Саган сэцэн, Эрдэнийн товч, сонгомол эх бэлтгэж, хөрвүүлэг, тайбар зүүлт хийсэн М. Баярсайхан, № VIII, УБ, 2006.

26) 『阿勒坦汗傳』 68절, 內蒙古人民出版社, 1990.

27) 『명사』 권328, 열전 216, 외국 9.

28) 윤은숙, 「北元과 명의 대립 -遼東 문제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105, 2008, 106-107쪽.



에 대한 보상으로 行都司를 保定으로 옮기고 대녕 일대를 모두 3위에게 나누어 주고 대량의 관직을 하사했다. 1403년(굴리치1, 永樂元年)에 두안위의 토구차르를 左軍都督府都督僉事, 카를타이를 都指揮同知로 삼았고, 북여위의 안추(Anchü, 安出)와 토부신을 함께 都指揮僉事に 임명했으며, 태령위의 카라반코(Qarabanko, 忽刺班胡)를 都指揮僉事로 삼았다. 또한 나머지 357명에게 각각 指揮, 千百戶 등의 대량의 관직을 하사했다.<sup>33)</sup>

그런데 3위의 수령 임명이나 관직의 계승은 3위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명은 추후 승인하는 형식을 취했기에 명이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었다.<sup>34)</sup> 대체로 그 직위는 자손에게 세습되었는데, 예를 들면 태령위의 아자스리는 자신의 아들 토구치(Toqüchi, 脫火赤)에게 계승했고, 이후 주치(Jüchi, 拙赤)로 이어졌으며, 두안위의 都督 카단(Qadan, 哈丹)은 자신의 장자 코르 볼로르에게 계승하였다. 이처럼 우량카이 3衛가 독자적으로 수령을 임명하거나 명으로부터 받은 직위를 자손으로 계승하고 있음은 다른 위와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독립성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sup>35)</sup>

한편, 명으로부터 관직을 수여받은 이들은 誥印, 冠帶, 白金, 鈔幣와 襲衣 등의 사여를 받았다. 특히 誥印의 경우는 일종의 위임장으로 명조가 하사한 관직명과 등급이 기재되어 있는데, 명이 공식적으로 朝貢과 互市를 보장하는 일종의 증서 역할을 했기에 각 위의 수령들은 앞 다투어 명으로부터 誥印을 얻으려 했다.<sup>36)</sup> 명은 하사한 관직에 따라 상사를 다음 <표 1>과 같이 구별했다.

<표 1>差等 賞賜<sup>37)</sup>

지위	賞賜	기혼자	奏事進貢
都督	采段 4表裏, 絹 2필, 신발과 양말	采段 1表裏, 絹 1 필, 紵絲衣 1벌	采段 3表裏, 絹 2 필, 織金衣 1벌
都指揮	采段 3表裏, 絹 2필, 신발과 양말	采段 1表裏, 絹 1 필, 紵絲衣 1벌	采段 2表裏, 錦布 4表裏, 絹 1필, 紵 絲衣 1벌, 신발과 양말

32) 『明太祖實錄』 권196, 홍무 22년 5월조.

33) 『명사』 권328, 열전 216, 외국 9, 泰寧, 朵顏, 福餘.

34) 達力扎布, 「有關明代兀良哈三衛的幾個問題」, 『明清蒙古史論稿』, 民族出版社, 2003, 203-204쪽.

35) 節選, 「盧龍塞略」, 『明代蒙古漢籍史料匯編』, 內蒙古大學出版社, 2006, 375-380쪽.

36) 『명사』 권328, 열전 216, 외국 9, 泰寧, 朵顏, 福餘.

37) 節選, 380-381쪽.

指揮, 千百戶, 所鎮撫, 頭目	采段 2表裏, 絹 1필, 紵絲衣 1벌, 각 采段 2表裏 추가, 신발과 양말	采段 1表裏, 絹 1필, 紵絲衣 1벌	
舍人	각 采段 2表裏, 絹 1필, 織金衣 1벌, 신발과 양말	采段 1表裏, 絹 1필, 紵絲衣 1벌	
達者	각 采段 1表裏, 絹 1필, 신발과 양말	采段 1表裏, 絹 1필, 紵絲衣 1벌	
동행한 여성	采段 1表裏, 絹 1필, 비단옷 1벌, 신발과 양말		

이처럼 명으로부터 받은 관직은 우량카이 3衛의 지배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 주었다. 따라서 3위가 빈번하게 명에게 관직을 청구하는 것은 무엇보다 명의 상사와 통공무역권을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어, 통치 지역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였다.<sup>38)</sup>

그런데 명으로부터 받은 관직은 우량카이 3衛가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는 데 한 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통치지역에서는 예전 원에서 사용하던 王, 太尉, 平章과 知院 등의 지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都督 울란 테 무르는 劉王, 都督 주치는 遼王, 주치의 동생 나가추는 灰王 등의 칭호를 사용하고 있어서<sup>39)</sup> 명이 하사한 관직은 명에 입조하여 상사와 호시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40)</sup>

명이 우량카이 3衛에게 준 가장 큰 경제적 혜택은 통공무역의 형태인 朝貢과 互市였다. 3위는 매년 2차례 명에 조공했고, 매회 300명을 북경에 보내기로 합의하였다.<sup>41)</sup> 이것은 주변의 海西女眞과 建州女眞이 매년 一貢한 것과 비교해 보면 우량카이 3衛가 상대적으로 높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42)</sup> 그럼에도 3위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 빈번히 명조에 입조해 賞賜와 回賜를 획득하였다. 우량카이 3衛 사절의 북경 방문 빈도의 증가는 명조에게 상사의 부담을 증가시켰

38) 李艷潔, 「明代泰寧衛的經濟生活及與明朝的關係」, 『內蒙古師範大學學報』, 2007-2

39) 『明憲宗實錄』 권4. 成化元年 12월조.

40) 李健才(『東北史地考略』吉林文史出版社, 1986, 96쪽)은 우량카이 3위가 명으로부터 관직을 하사받고 관인과 관복을 착용하는 것은 그들이 명조의 지방관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우량카이 3위의 통치지역에서 몽골의 관직을 사용하고 있음은 명조의 관직 하사가 경제적 부분에 한정되었음을 의미한다.

41) 魏煥, 「九邊考」, 『明代蒙古漢籍史料匯編』, 內蒙古大學出版社, 2006, 255쪽.

42) 『大明會典』 권107, 禮部65.

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도로에 있는 軍民들에게 운송,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도 증가시켰다. 『明神宗實錄』에 따르면 “酒食 비용을 계산할 수 없고”<sup>43)</sup>, “연회와 상사 수레와 말 등의 비용이 數萬이 된다.”<sup>44)</sup>라고 할 정도로 명조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명이 입공 시기를 엄격히 규제 하였지만 태녕위 도독 올란 테무르의 경우는 1년 6개월 동안 총 7차례 입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1507년에는 한 번에 600명이 수도 북경에 들어오기도 했다.<sup>45)</sup> 명은 우량카이 3衛가 가지고 온 말에 대해 품질의 구분없이 매 1필마다 采段 2表裏, 絹 1필, 낙타는 한 마리당 采段 3表裏, 絹 10필로 해서 원래 가격의 두 배의 값을 매겨 값을 매우 후하게 쳐 주었다.<sup>46)</sup> 명이 우량카이 3衛의 말 값을 후하게 쳐주자 점점 말의 수가 증가해 1414년(아타이1, 永樂12)에는 말 3,000필을 가지고 왔다. 이때도 명은 말 1필의 가격을 포 4필로 계산해 주어, 우량카이 3衛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였다.

조공·상사 이외에 1405년(굴리치3, 永樂3)에는 廣寧, 開元 등에 정기적인 互市를 열어 말, 목재, 가죽옷, 신발, 비단, 면직물, 철기류와 쌀 등을 교환하였다.<sup>47)</sup> 互市 개설은 우량카이 3衛의 적극적인 요구를 영락제가 수락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개원 호시는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광령 호시는 매월 1일부터 5일,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었다.<sup>48)</sup> 호시의 형태는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封貢 형식으로 명 조정과 우량카이 상층부 사이에서 조공과 하사의 형태이고, 나머지는 보통 호시로 명의 비준을 받은 상인들이 진행하는 것으로 봉공 형식을 보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sup>49)</sup> 우량카이 3衛가 호시 개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은 유목 경제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교환할 뿐만 아니라 명이 말 값을 매우 후하게 계산해 주었기 때문이다. 명은 호시가 우량카이에게 많은 경제적 이익을 주기 때문에 정치적 필요에 따라 開閉를 반복했다. 예를 들어 명의 正統年間(1436-1449)에 태령위의 주치가 자신의 딸을 오이라트의 에센에게 출가시키고 양축이 빈번히 접촉하며 명의 변경을 약탈하자 호시를 폐지했다가 1478년(만도르4, 成化14)에 조서를 내려 3위의 호시를 회복했다. 이를 두고 『明史』에서는 요동에 호시 3개를 재차 개설하면서 그 목적을 3위를 접대하기 위한 것이라 명시하기도 했다.<sup>50)</sup>

명이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호시를 확장했던 것은 호시가 개설되지 않으면

43) 『明神宗實錄』권203, 만력16년 9월조.

44) 『明神宗實錄』권495, 만력40년 5월조.

45) 『明武宗實錄』권33, 正德2년 12월조.

46) 『명사』 권328, 열전 216, 외국 9, 泰寧, 朵顏, 福餘.

47) 張鼎, 『遼夷略』, 『明代蒙古漢籍史料匯編』, 內蒙古大學出版社, 2006, 475쪽.

48) 『遼東志』권3.

49) 呂美泉, 『明朝馬市研究』, 『求是學刊』, 1999-5, 黑龍江大學學報, 1999.

50) 『명사』 권328, 열전 216, 외국 9, 泰寧, 朵顏, 福餘.

곧바로 약탈로 이어지는 유목 경제의 본질적인 속성 때문이다. 여기에 호시를 통해 몽골의 군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었다. 명이 몽골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호시의 개설이 특히 주효했음은 1478년 호시 개설을 통해서 확인된다. 즉, 正統年間의 태령위 주장 주치의 행동을 문제 삼아 호시를 폐쇄했으나 이후 우량카이는 동·서 몽골과 연합하여 명의 변경을 더 자주 약탈했고, 결국 오이라트 에센의 군사 동향을 파악하는데 실패했으며, 그들의 남하를 막아내지 못했다. 이에 1478년에는 호시를 1개 더 늘려 3개를 개시하고 우량카이의 통상 요구를 수용하였다.<sup>51)</sup>

유목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우량카이 3衛에게 명이 주는 상사, 조공과 호시 등의 혜택은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우량카이 3衛의 명에 대한 경제 의존도는 나날이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우량카이 3衛를 통제하려는 명의 정책은 주효했다. 명에게 우량카이 3衛는 명의 북변을 방위하는 울타리(藩籬)로서 작용하고 있었다.<sup>52)</sup> 우량카이 3衛가 명의 울타리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된 때는 영락제가 우량카이 3衛에게 대령 일대의 지역을 하사한 이후부터다. 1426년(아타이14, 宣德元年)을 전후로 남하를 시작한 우량카이 3衛는 1428년에 懷州, 寬河 일대로 남하했고, 명 宣德年間(1426-1450)에 이르면 명의 변경 밖에서 유목하며 영락제가 약속한 大寧 일대를 명에게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명의 응답은 없었으나 이미 대령 일대가 우량카이의 수중에 들어가 있었다.<sup>53)</sup> 이 시기 두안은 山海關의 서쪽, 古北口의 동쪽, 薊州 밖으로 이주했다. 태령은 廣寧 일대에 있었고, 복여는 開原 밖의 요하 일대에서 유목하고 있었다. 우량카이 3衛가 대령 경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량카이는 몽골리아로 이어지는 교통로뿐만 아니라 요동과 요서로 연결되는 교통로까지 장악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명 조정은 “우량카이가 京師의 背後가 되었다.”<sup>54)</sup>라고 하며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명의 의도대로 우량카이 3衛가 명의 예속 하에 있게 되면 몽골의 명에 대한 직접적인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명이 북변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명이 적국인 몽골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의 창구가 되었던 것도 우량카이 3衛였다. 몽골이 명의 주요지역을 약탈할 때 우량카이 3衛의 땅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량카이 3衛는 남하한 몽골 세력의 집결지가 되었고 그만큼 몽골의 군사 동정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明史』에 따르면 우량카이 3衛는 오이라트의 군사 동향을 명에게 알려

51) 홍성구는 「明代 北邊의 互市와 朝貢」(『中國史研究』72, 2011)에서 몽골과의 교역에서 영락제는 홍무제 시기와 대조적인 조치를 취하여, 어느 일방이 아니라 오이라트와 타타르 모두를 명의 조공질서에 편입시켜 통제하려는 정책을 실시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52) 王世貞, 「三衛志」, 『明代蒙古漢籍史料匯編』, 內蒙古大學出版社, 2006, 26쪽.

53) 李健才, 1986, 136-139쪽

54) 『讀史方輿紀要』권18, 北直九.

주고 군대를 변경 가까이 주둔시켜서 대비하도록 알려주었다. 명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2차래의 조공을 허락해 주었고, 군사 동향을 알려야 하는 급보가 있으면 기존의 喜峰口(현 河北 遷西縣 喜峰口)를 통하지 않고 직접 永平(현 河北 盧龍縣)까지 오는 것도 허락했다.<sup>55)</sup> 또한 1606년(릭단2, 萬曆34)에 타안위의 도독 정투(Jontü, 長禿)는 명에게 판비시와 바얀 타이지가 변경을 약탈할 것을 알리자, 명은 그에게 공시를 회복시켜 주고 이전의 예에 따라 상사를 행했다.<sup>56)</sup> 명 宣宗도 우랑카이에게 관직을 하사하는 것이 ‘藩籬耳’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하여 명이 우랑카이 3衛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다.<sup>57)</sup> 이처럼 명은 우랑카이 3衛에게 막대한 상사, 회사와 호시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그들로부터 몽골의 정황과 군사 동향을 파악하려 했다. 우랑카이가 3衛가耳目이 되어 전달해주는 정보들의 정확성 여부와 관계없이 명에게는 몽골의 동정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 우랑카이가 3衛는 명에게 필요에 따라 몽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명이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을 향유하고 있었다.

반면, 우랑카이가 3衛가 명에게 시종일관 요구한 것은 경제적 관계였다. 심지어 오이라트의 예센과 명이 전쟁을 하는 중에도 오이라트에 가담해 전쟁에 동참하고 있으면서도 명에 내조해 조공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明史』는 우랑카이가 중국이 주는 賜賚의 이로움 때문이라고 묘사할 정도로<sup>58)</sup> 우랑카이가 3衛가 명과 지속인 관계를 유지했던 이유는 명이 제공하는 각종 상사, 조공 그리고 호시 때문이었다. 이렇게 획득한 경제적 풍요는 자신들의 지지기반에서 세력을 강화하고 초원 유목 경제의 빈곤함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 IV. 몽골과 우랑카이가 3衛

비록 1388년에 동방왕가의 항복으로 명에 의해 우랑카이가 3衛가 설치되었지만, 이들은 명의 통치기구 안에 포함된 衛들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달랐다. 우랑카이가 3衛는 정치체제나 사회 성격상 여전히 황금씨족으로서 몽골의 일원이었다. 특히 옷치긴 왕가 후손들은 다만 카안의 몽골리아 통일 이전까지 遼王의 직위를 계승하였다. 본래 遼王은 1316년(연우3)에 옷치긴 왕가의 후손 툽타(Toqta)에게 하사된 칭호로<sup>59)</sup> 이후 원대에 아자스리까지 이어지다가 그의 아들 토구치가 계승했고, 명

55) 『명사』 권328, 열전 216, 외국 9, 泰寧, 朵顏, 福餘.

56) 『明神宗實錄』 권428, 만력34년 12월조.

57) 『明宣宗實錄』 宣德元年 11월조.

58) 『명사』 권328, 열전 216, 외국 9, 泰寧, 朵顏, 福餘.

59) 『원사』 권108, 「제왕표」.

은 그를 泰寧衛都督僉事로 봉했다.<sup>60)</sup> 1433년(아타이21, 宣德8)에 토구치가 아룩타이에게 피살된 이후에는 동생 주치가 우랑카이 3衛의 수장으로 遼王과 泰寧衛都督僉事를 겸하게 되었다.<sup>61)</sup>

토구스 테무르 카안 사망 이후 이수데르가 즉위하기는 했으나, 몽골 내부에서는 동·서 몽골이 대칸 계승권을 두고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에 10여 년 동안 5명의 대칸이 교체되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 반면 이 시기 우랑카이 3衛는 朱元璋으로부터 독립적인 통치권을 부여받고 몽골 내부의 혼란과는 관계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1407년에 非칭기스칸계인 굴리치가 아룩타이에 의해 축출되고 다음 해 10월에 아룩타이가 칭기스칸의 후예 보얀시리(Buyansiri, Oljei Temür, 本雅失里)를 대칸으로 즉위시키면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정통성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몽골리아의 여러 지파들로부터 정통으로 인정받은 보얀시리 카안은 즉위 후에 아룩타이의 지지 하에 케를렌강 일대를 장악하고 우랑카이 3衛에게 사신을 보내 귀부를 종영했다. 이때까지 몽골은 복잡한 내부 분쟁으로 우랑카이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고, 우랑카이는 명으로부터 각종 경제적 혜택을 받으면서도 명의 통치권 밖에서 자유롭고 안정적인 목축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sup>62)</sup>

한편, 정통 칭기스칸 후손인 보얀시리 카안의 즉위는 몽골 내부에서 진행되어 온 칭기스칸계 비정통 논란이 일단락되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우랑카이 3衛는 칭기스칸의 諸弟 가문인 동방 3왕가로부터 시작되었기에, 황금씨족의 일원으로서 보얀시리의 즉위를 인정하고 몽골의 지배를 받아들였다. 이에 우랑카이 3衛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타이시(太師) 아룩타이는 次子 코르쿠다손을 두안위 都指揮 카라순의 딸인 수만데르와 혼인시켜서 결속을 강화시켰다.<sup>63)</sup> 물론 아룩타이가 우랑카이 3衛를 몽골 통치 범위로 끌어들인 것은 몽골계의 결속이라는 명분과 더불어 우랑카이 3衛의 경제적 번영이 향후 몽골의 역량 강화에 무엇보다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 우랑카이 3衛는 명의 영락제로부터 각종 상사, 회사를 하사받고 호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목 경제에만 의존했던 몽골과는 경제적 사정이 매우 달랐다. 아룩타이가 우랑카이와 관계를 강화시킨 것은 몽골리아 통일과 세력 확장에 직속되어 있었다. 이후 몽골은 우랑카이가 제공하는 경제력과 인력을 배경으로 1409년(보얀시리3, 永樂7)에 오이라트 정벌에 나서게 되었다. 몽골의 세력 확장에 우랑카이 3衛의 경제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은 다음의 기술을 통해서 확인된다.

60) 『明宣宗實錄』권82, 선덕6년 8월조.

61) 『明宣宗實錄』권102, 선덕8년 5월조.

62) 『明太宗實錄』권55, 영락6년 3월조.

63) 『明英宗實錄』권35, 正統2년 10월조.

洪熙 元年에 안추(安出)가 그의 印章을 적에게 빼앗겼다고 상주하면서 다시 내려 주기를 청하니 이를 허락했다.<sup>64)</sup>

태령위 掌衛事都督僉事 토구치가 상주하며 옛 印信을 胡虜 보안시리에게 빼앗겼다고 다시 청하니 이를 허락했다.<sup>65)</sup>

두안위 指揮使司差指揮 투르 테무르가 상주하면서 永樂 2년에 받은 印信을 胡虜 보안시리에게 빼앗겼다고 다시 청하니 이를 허락했다.<sup>66)</sup>

위의 기술은 1425년(아타이13, 洪熙元年), 1432년(아타이20, 宣德7)에 우랑카이 3衛가 각각 인신을 보안시리에게 빼앗겼으므로 새롭게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몽골이 우랑카이 3衛의 印信을 가지고 명에 들어와 명과 직접 교역했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 몽골에게 우랑카이 3衛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었으므로, 우랑카이 3衛의 경제 기반이었던 명과의 교역에 몽골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우랑카이의 경제력이 몽골의 세력 확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보안시리가 사망하고 아룩타이가 세력을 상실하자 명과의 교역 재개를 위해 새롭게 印信을 발행해 줄 것을 명에게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명이 우랑카이 3衛에게 인신을 다시 하사했을 뿐만 아니라 예전처럼 그들에게 상사, 회사와 호시를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은 명에게 우랑카이 3衛라는 존재의 필요성을 실감나게 한다.

그런데 명의 입장에서 보자면, 몽골과 우랑카이 3衛가 함께 오이라트를 정벌해 몽골리아를 통일시킨다면, 명조의 북변은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선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몽골리아에 세워진 강력한 유목제국은 반드시 중원으로 진출해 오기에 명조의 안위를 보장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1408년(보안시리1, 永樂6)에 명은 몽골의 보안시리 카안에게는 “바로 항복하고 귀의한다면 그대에게 봉작을 내리고 후한 상을 줄 것이다. 변방 가까운 곳에 좋은 곳을 골라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나 응답을 얻지 못했다. 그러자 1409년(보안시리2, 永樂7)에 다시 “여러 사람이 그대를 대칸으로 옹립했는데 그대가 사신을 남쪽으로 보내서 서로 통호하게 된다면 짐은 대단히 기쁠 것이다.”라는 서신과 함께 후한 상을 주며 보안시리를 회유하려 했다. 그러나 보안시리는 오히려 영락제가 보낸 給事中 郭驥를 처형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보안시리를 회유할 수 없었던 명은 1409년에 수령 마하무드를 順寧王에 타이핑을 賢義王에, 바투 볼로드를 安樂王에 봉하고 통공무역을 허락함으로써 칭기스칸계의 즉위로 소외되어 반목하고 있던 오이라트를 적극적으로 회유하려 했다.

64) 『명사』 권328, 열전 216, 외국 9, 泰寧, 朵顏, 福餘.

65) 『명선종실록』 권86, 선덕7년 정월조.

66) 『명선종실록』 권86, 선덕7년 5월조.

이 때 우량카이 3衛는 몽골의 오이라트 정벌에 적극 가담했는데, 정벌에 앞서 오이라트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던 명의 정황을 살피기 위해 명의 변경에서 거짓으로 말을 팔러 왔다고 하며 정찰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를 알게 된 영락제는 우량카이 3衛를 꾸짖고 말을 가지고 와서 사죄하라는 정도의 미온적인 조치를 내렸다. 우량카이가 말 3,000필을 가져오자 王眞에게 칙서를 내려 오히려 말 한필 당 포4필로 계산해 말 값을 줌으로서 우량카이를 다시 명조 편으로 끌어들이는 초무정책을 펴려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우량카이는 몽골과 함께 적극적으로 오이라트 원정에 참가함으로써 명과의 관계에 대한 우량카이의 실질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sup>67)</sup>

1410년(보안시리3, 永樂8)에 영락제의 막북 친정으로 위기에 놓이게 된 보안시리는 서쪽 오이라트 지역으로 도주했다가 마하무드에게 피살되었지만, 아룩타이는 동쪽 우량카이에게 도주해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우량카이에 의탁했던 아룩타이는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영락제에게 화의를 제의했다. 오이라트의 강성을 두려워 한 영락제는 아룩타이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를 和寧王에 봉하고 대량의 賞賜를 주고 호시를 허락해 주었다. 아룩타이가 명에 화의를 제의하자, 우량카이 3衛도 명조에 이전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을 청했다. 명의 도움으로 세력을 회복한 아룩타이는 우량카이와 함께 1416년(아타이4, 永樂14)에 오이라트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이라트의 마하무드가 사망했다. 이어 아룩타이와 우량카이는 1419년에 타이평(太平)을 공격해 오이라트를 제압하는데 성공해 옛 영광을 회복하기에 이르렀다. 세력을 회복한 몽골과 우량카이 연합군이 여러 차례 명의 변경을 공격해 왔고, 이에 영락제는 1422년(아타이10, 永樂20), 1423년(아타이11, 永樂21)에 다시 막북 친정을 감행했으나 이미 아룩타이는 북쪽으로 달아나 버렸다. 아룩타이에 대한 추격을 포기하고 돌아오던 영락제는 돌연 우량카이 3衛를 공격한다. 전투에 앞서 영락제는 우량카이 3衛 공격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아룩타이가 패역한 행동을 한 것은 우량카이의 보조를 믿고 한 것이다. 지금 아룩타이가 낭패를 당해 멀리 도망갔으나 우량카이는 원수로 있다. 이에 마땅히 군대를 돌려 우량카이를 쳐야 한다.<sup>68)</sup>

영락제의 우량카이 3衛에 대한 지적은 매우 정확하다. 아룩타이가 오이라트와 명을 공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은 물론이고 명의 정보를 탐지해 전달하고 나아가 침략의 嚮導가 되었던 우량카이 3衛의 활동이 명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우량카이 3衛를 제어한다면 아룩타이가 침략하지 못할 것이라

67) 『명사』 권328, 열전 216, 외국 9, 泰寧, 朵顏, 福餘.

68) 『明太宗實錄』 권250, 영락20년 7월조.

는 판단도 정확한 정세 분석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영락제는 도주한 아룩타이와 우랑카이가 다시 연합한다면 북변의 큰 세력으로 성장할 것을 염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69)</sup> 우랑카이 3衛는 명군의 공격 소식을 듣고 서쪽으로 도망쳤고, 영락제 일행은 쿠레르강(Kürer, 屈裂兒, 현 내몽골 홍르河)에서 우랑카이 3衛의 일부 무리를 패배시키고 그들의 치중을 빼앗아 돌아왔다.<sup>70)</sup> 결국 영락제는 1424(아타이 12, 永樂22)에 아룩타이를 공격하기 위한 제5차 원정에서 아룩타이를 제거하지 못한 채 榆木川에서 병사하고 말았다.<sup>71)</sup>

영락제가 아룩타이를 정벌하기 위해 출정하는 사이, 오이라트가 신속하게 세력을 결집했다. 마하무드의 아들 토곤은 1431년(아타이 19, 宣德6)에 명의 공격으로 쇠약해진 아룩타이를 제거하고 쿠빌라이의 후예 토틀부카(Toqto Büka Tayisun, 脫脫不花)를 대칸에 옹립했다. 1439년(토틀부카 8, 正統4)에 토곤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 에센이 부친의 직을 계승해 타이시가 되면서 오이라트를 중심으로 몽골이 대통합을 이루게 된다.

우랑카이 3衛는 아룩타이의 쇠퇴 이후에 오이라트와 연합했다. 특히 1432년에 토곤이 아룩타이의 잔여 세력인 아타이 왕자를 제거하려하자 적극적으로 人馬를 제공하였고,<sup>72)</sup> 토곤 역시 사신을 보내 우랑카이 및 여진 여러 부 등과 교통하면서 우호관계를 맺었다. 또한 1441년에 태령위 都指揮 계겐 테무르의 딸과 遼王 주치의 딸이 모두 에센에게 출가함으로써 우랑카이와 오이라트는 혼인을 통한 결속력을 크게 강화시켰다. 계겐 테무르는 주치 사후에 태령위의 실권을 장악한 인물이므로 태령위의 양대 세력인 주치와 계겐 테무르 모두가 에센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음은 당시 우랑카이와 에센의 결속 정도를 짐작하게 한다.

그런데 우랑카이와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면서 유대를 강화하던 오이라트의 에센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우랑카이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오이라트가 왜 우랑카이를 공격하게 되었는지 사료를 통해 명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 이유가 오이라트의 공격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오이라트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 에센은 강력한 통일정책을 단행했고 이러한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하밀(哈密)과 우랑카이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토구스 테무르 카안 사후에 오이라트의 지지 하에 즉위한 이수데르 카안의 통치를 거부하고 명에 투항했던 대표적인 세력이었기에 에센의 통일정책에서 상징적으로

69) 全淳東, 「永樂帝의 外征과 政治의 意義」, 『中國史研究』54, 중국사연구회, 2008, 118쪽.

70) 『明太宗實錄』권250, 영락20년 6월조.

71) 남의현(「15세기 북방정세와 명의 邊境政策의 再檢討-명의 대몽골 정책과 조선·여진관계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29, 인문과학연구소, 2011, 166쪽)은 15세기 몽골 친정은 큰 효과가 없었고 몽골지역을 명에 종속시키는데 패배했다고 분석하고, 영락연간 이후 더 이상의 몽골진출과 정벌은 불가능하였고 수세적인 방어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72) 『明宣宗實錄』권7, 선덕10년 7월조.

제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특히 이들은 명과 책봉과 조공 그리고 호시 무역 등을 통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며 몽골리아의 제 세력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기 때문에 분석된다. 에센은 하밀과 우량카이에 대한 공격을 거의 동시에 진행했다. 하밀을 공격해 함락시키고 하밀왕 보타시리(Botasiri, 卜答失里) 왕과 모친 놀룬다시리(Nülündasiri, 斡溫答失里) 등을 생포했다.

둘째, 이 시기는 오이라트뿐만 아니라 태령위도 전성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형인 토구치 사후에 遼王과 泰寧衛都督僉事직을 계승한 주치는 오이라트의 토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한 에센과는 혼인관계를 통한 유대를 강화해 나갔다. 오이라트의 군사적 도움을 받아 여진부락을 공격하고 세력권을 확대했다. 또한 명의 변경 지역으로 무단히 침범해서 명군의 人畜을 사로잡아 갔다. 이 시기 태령위의 지역이 크게 확장되어 서쪽으로는 延安, 동쪽으로는 요동, 남쪽으로는 명의 변경에 도달할 정도로 크게 확대되어 있었다. 우량카이는 표면적으로는 명에게 공순하며 무단히 進貢하였으나 명의 변경을 끊임없이 약탈하며 세력의 확장을 꾀하였다.<sup>73)</sup> 우량카이 3위의 세력 확장을 우려한 명은 1444년(특토부카13, 正統9)에 成國公 朱勇에게 恭順侯 吳克忠과 함께 喜峰으로, 興安佰 徐亨은 界嶺으로 都督 馬亮은 劉家口로 都督 陳懷는 古北으로 각각 나눠서 대규모 출병을 단행해 우량카이의 세력 확장을 막으려고 시도했다.<sup>74)</sup>

이러한 태령위의 급속한 확대는 오이라트의 에센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결국 에센은 1446년(특토부카15, 正統11)에 아룩타이의 손자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우량카이를 침범해 들어왔다.<sup>75)</sup> 이때가 되면 아룩타이는 이미 사망했고, 그의 아들들도 대부분 명에 투항한 상태였으므로 에센이 아룩타이 손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출병한 것은 다분히 명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 해에 재차 우량카이 3衛를 공격하여 태령위의 수령 주치와 두얀위의 수령 나르부카(Nar Büqa, 乃兒不花)를 사로잡아 죽이고 3위의 人畜을 획득했다. 당시의 상황을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通事 崔倫이 아뢰는데, “중국인의 말에 따르면 깊은 곳의 타타르(達達) 오이라트(瓦剌)가 먼저 억만 명 군사를 거느리고 三衛의 達子를 거의 殲滅하고, 또 여름이나 가을쯤에 海西의 野人을 습격하려고 꾀하므로, 野人이 두려워 떨면서 가족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sup>76)</sup>

73) 李艷潔, 『明代泰寧衛首領世系變遷』, 『內蒙古師範大學學報』38-6, 2006, 214쪽.

74) 『명사』 권328, 열전 216, 외국 9, 泰寧, 朵顏, 福餘.

75) 『明英宗實錄』 권137, 正統11년 정월조. 화전청(앞 책, 234-235쪽)은 에센이 찾으려 했던 아룩타이의 손자는 아룩타이는 次子 코르쿠다손과 두얀위 도지휘 카라손의 딸인 수만데르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일 것으로 추정했다.

76) 『세종실록』 권116, 세종29년 윤4월조.

위의 기술을 통해 당시 에센의 우량카이 3衛에 대한 공격이 만주 일대의 세력에 게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태령위와 두안위는 에센의 무력에 굴복하고 말았으며 다만 복여위는 눈강 유역으로 도피해 겨우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오이라트의 휘하로 복속된 우량카이 3衛는 명과 접촉하며 오이라트의 이목이 되어 여러 차례 사신을 보냈는데, 앞서 온 사신이 아직 돌아가지 않았는데 후에 오는 사신이 다시 오는 등 계속해서 명에 와서 명의 정보를 탐지하고 이를 에센에게 전달하였다.<sup>77)</sup> 그리고 오이라트가 명으로 진격해 올 때 우량카이는 일종의 鄉導 역할을 하였다. 특히 1449년(특토부카18, 正統14)에 오이라트는 군대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동로군은 특토부카 카안이 요동으로 진입했고, 중로군은 知院 아라그(Arag, 阿剌)가 宣府로 들어오고, 에센은 大同으로 진격해 들어왔다. 이 때 우량카이는 특토부카 카안을 인도해서 요동으로 진격하게 했고 이후 우량카이는 특토부카에 예속되었다. 그러나 1451년(특토부카20, 景泰2)에 특토부카와 에센이 후계자 문제를 두고 서로 대립하다가 전투에서 패배한 특토부카가 우량카이 거주지로 도피하였으나 우량카이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처럼 우량카이 3衛는 특토부카에게 예속된 것 같았으나 에센과 문제를 야기하자 특토부카를 제거하는 방법을 통해 연결 고리를 차단해 버렸다.

우량카이가 몽골에 속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완전히 예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몽골과 우량카이 3衛의 관계를 통해 앞서 살펴보았다. 몽골 내부에서 권력 다툼으로 대칸이 교체되는 일이 발생하거나 아룩타이나 에센 같은 권신들의 교체가 발생하면 반드시 우량카이를 끌어들이 동요시키고 쌍방이 관계를 확정된 후에 평화관계를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우량카이 3衛와 몽골의 관계는 울루스(Ulus)와 예케 몽골 울루스의 전형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 즉 동방 3왕가를 모태로 형성된 우량카이 3衛는 몽·원제국 시대로부터 이어진 일종의 분권적 성향의 울루스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칭기스칸이 황금씨족에게 분봉한 이래 울루스는 제왕들의 배타적 소유권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자신들의 울루스 내에서 行政權, 審判權, 軍事權, 徵稅權 등을 행사하고 있었다.<sup>78)</sup> 울루스의 분권적 성향은 예케 몽골 울루스가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실행하면 그 아래 예속되었고, 위의 시기처럼 몽골의 중앙 정부의 통제권이 미치지 못하면 다소 독자적이고 분권적 성향을 가지게 된다. 우량카이 3衛의 출발이 되었던 동방 3왕가의 수장 옷치긴 왕가는 몽·원제국 내내 중앙권력과 대립해 충돌하기도 하고 또는 중앙 권력의 상층부에 안착해 권력의 핵심이 되기도 했던 전형적인 울루스의 제왕 세력이었다. 이러한 성향은

77) 『明英宗實錄』권225, 경태4년 춘정일조.

78) 윤은숙, 「蒙·元帝國期 옷치긴 家の 東北滿洲 支配-中央政府와의 關係 推移를 中心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2006, 26-52쪽.

비록 원이 망하고 명에 항복해 우량카이 3衛로 불리고 있었지만 변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우량카이는 몽골의 정세변화를 민감하게 수용해 필요에 따라 동·서 몽골과 연합 또는 반목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영역을 지키려 했다. 이러한 현상은 다만 카안이 몽골리아를 통일하기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몽골과 명의 대립 속에서 우량카이 3衛가 수행할 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량카이 3衛의 성격에 접근해 보았다. 이상의 논의에서 도출된 결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가추 투항 이래 만주에서 고립되었던 옷치긴 왕가로 대표된 동방왕가들은 몽골리아에서 오이라트의 지지를 받아 이수데르가 대칸에 즉위하자, 명으로부터 독립적인 울루스 경영을 보장받고 명에 투항했다. 朱元璋은 이들 지역에 1389년 5월에 우량카이 3衛를 설치했지만, 우량카이 3衛라는 명칭은 한적 사료에만 한정된 것이고, 몽골에서는 이들을 ‘우르 투멘(山陽萬戶)’이라고 했다. 우르는 동방 3왕가가 칭기스칸으로부터 분봉 받은 이래 분봉지를 확대해 거주했던 대흥안령 산맥의 남사면을 가리키는 말로 대흥안령 남쪽의 만호 집단이라는 의미이다.

둘째, 명인들이 우량카이 3衛를 藩籬 또는 京師의 背後라고 할 정도로, 우량카이 3衛의 지정학적 특수성은 명과 몽골의 대립 속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따라서 명은 우량카이 3衛에게 막대한 상사, 회사와 호시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그들을耳目으로 활용해 몽골의 정치 정황과 군사 동향을 파악하려 했다. 우량카이 3衛가 전달해주는 정보들은 명의 몽골 정책 수립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다. 우량카이 3衛는 명에게 필요에 따라 몽골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정보를 전달하면서 명이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을 향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우량카이 3衛와 명의 특수한 관계는, 오이라트의 에센과 명이 전쟁을 하는 중에 우량카이 역시 오이라트에 가담해 전쟁에 동참하고 있으면서도 명에 내조해 조공하는 기현상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셋째, 동방왕가의 항복으로 명에 의해 우량카이 3衛가 설치되었지만, 이들은 명의 통치기구 안에 포함된 衛들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달랐다. 우량카이 3衛는 정치체제나 사회 성격상 여전히 황금씨족으로서 몽골의 일원이었다. 물론 우량카이가 몽골에 속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완전히 예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몽골 내부에서 대칸이 교체되거나 권신이 교체되면 이들은 우량카이 3衛와 혼인정책과 전쟁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제압하려 했다. 이것은 역으로 우량카이 3衛가 몽골에 완전히 예속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우량카이 3衛

와 몽골의 관계는 울루스와 예케 몽골 울루스의 전형적인 관계로 이해된다. 우량카이 3衛는 분권적 성향의 울루스로서 중앙 정부의 통제권이 미치지 못하면 다소 독자적이고 분권적 성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우량카이는 몽골의 정세변화를 민감하게 수용해 필요에 따라 동·서 몽골과 연합 또는 반목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영역을 지키려 했다.

## Diaspora, Empire, and Frontier: Cantonese Migrant Students and Civil Examinations in the West River Basin

Steven B. Miles (Washington University)

This paper is part of a larger study on Cantonese migrants and state expansion on the upper West River frontier in southern China. By “Cantonese” I mean people whose families had resided in the Pearl River delta for generations, and who identified themselves in writing as “廣府人.” This paper is adapted from a chapter on “students,” Cantonese men who acquired registration as residents of upstream locales in order to sit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s. I describe this physical mobility and simultaneous maintenance of connections in delta and upriver locales as a kind of “diasporic practice.” Here I make four basic arguments:

- 1) This practice of migration for examinations was a commonplace strategy for Cantonese families from the late Ming through the end of the Qing.

- 2) Between the late sixteenth and early eighteenth centuries, Cantonese migrants turned state policies, meant to create an indigenous gentry elite on the frontier, to their own purposes of socioeconomic advancement.

- 3) In the late seventeenth and early eighteenth centuries, Cantonese migrant students faced resistance both from some local and provincial officials and from competing regional elites.

4) From the mid eighteenth century, trajectories of Cantonese student migration were shaped more by Cantonese commercial interests than by state frontier policy.

### **First argument:**

Working one's way through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s system involved a lot of physical mobility, not merely vertically from county seat, to prefectural seat, to provincial capital, to imperial capital, but often also horizontally among different units at the same administrative level. For Cantonese, this pattern is noticeable by the Ming Wanli era, when student migration became a prevalent strategy for socioeconomic advancement.

Some examples from Pearl River delta counties give a sense of how common a practice this became by the Qing Kangxi era. For example, during the Kangxi era 61 Xinhui County natives won juren degrees as students in the Xinhui school, while 43 Xinhui men did so as registered students in outside schools. These outside schools included places in the delta, other counties and departments in the western half of Guangdong, and a few in Guangxi. As another example, among Shunde County suigong in the Kangxi era, 105 attained this status in the Shunde school compared to 140 via outside registration. Aside from other delta counties, most destinations were departments and counties in the western half of Guangdong: in southwestern coastal Guangdong and along the West River corridor.

Outside the province, many Cantonese migrant students went further upstream along the West River into Guangxi. This phenomenon was

common enough by the early 1820s to elicit comment from editors of the Guangdong provincial gazetteer: [passage #1]. What the editors perceived can be seen in the tables of degree winners in the 1879 gazetteer of Guangzhou Prefecture. The tables indicate that two prefecture natives won the juren via Guangxi in the fifteenth century, fourteen in the sixteenth century, twenty-three in the sixteenth century, forty-seven in the eighteenth century, and thirty-seven in the nineteenth century up to 1873.

The extent to which successful navigation of the civil examinations might require a high degree of horizontal mobility is seen in the memoir of Nanhai native Guan Yongxiang. In the 1630s, he took examinations as a resident of Nanhai County, and then of Dongan County on the West River near the Guangxi border, before purchasing a place on the Xinhui County rolls under a false name: [passage #2]

This migration for examinations was clearly part of family strategies for socioeconomic advancement. In the early eighteenth century, a Dongguan man who had become a shengyuan in his native county school and then had made a fortune in business spent a large sum of money to obtain residential registration in the northern Guangzhou county of Hua for his sons and nephews in order to “broaden their route through the examinations.” [passage #3]

## **Second argument:**

Cantonese families took advantage of state frontier policies to find shortcuts through the civil examinations; in other words, they adapted state frontier policies to family strategies for upward mobility. For now, I

will give two examples from the 1570s, both centering on the Nanhai County scholar-official Huo Yuxia (霍與瑕). In the early 1570s, Cantonese assigned as officials in Guangxi were involved in the creation of Xinning Department on the southwestern Guangxi frontier. Also in this decade, Cantonese as retired officials, many of them with upriver experience, were mobilized as writers to celebrate the elimination of “Yao (獠) bandits” in the Luopang region and the 1577 creation of Dongan and Xining counties. This administrative transformation was followed by an influx of migrant students from the delta into Xinning and into the twin counties of Dongan and Xining.

In 1572 provincial authorities assigned Nanhai native Huo Yuxia to supervise construction of the Xinning Department seat. Among a list of proposals for the new department that Huo submitted to his superiors, one proposal was to allow migrants to obtain legal registration as Xinning residents. Noting that half of the population in the region were migrants from Guangdong, many of whom had purchased land and married local women, Huo explains why these migrants had not yet been able to acquire local residential registration: “The reason is that locals (土人) fear that people from other provinces will establish local registration and fraudulently win stipends and examination degrees.” [passage #4] But for Huo it was crucial to register the more recent sojourners as soon as possible.

Huo Yuxia and the first Xinning magistrate proposed to establish a school, which was completed in the mid 1570s. Officials argued for establishing a school on the grounds that it would nurture the growth of a local gentry elite. But in fact the school served the interests of migrants more than locals. A magistrate in the 1580s found that the nearly forty shengyuan in the department school were either

extra-provincial migrants who had taken up local registration or people from nearby Xuanhua County who had fraudulently registered (冒籍) as Xinning residents. He could not identify a single local student from a family that had been settled in the area before Xinning Department was created. One of the in-migrating students was Huo Mengxiang 霍蒙庠 (b. 1576), a member of a declining branch of Huo Yuxia's Foshan lineage who became a supplementary student (附生) in the Xinning Department school. The fact that Mengxiang married a Foshan woman suggests that he did not permanently settle in Xinning.

If a small trickle of Cantonese made their way to new the Xinning school by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migrant students from the delta flooded new schools in Dongan and Xining counties. Although, due to the law of avoidance, Cantonese could not serve as magistrate in these two new counties established in 1577, Cantonese elites did participate as writers, celebrating the elimination of the Luopang Yao and the creation of the two counties. They also celebrated the creation of schools and the influx of migrant students into those schools. Huo Yuxia, now retired from the civil service, wrote an essay praising the first Xining magistrate for "accommodating and treating with decorum wandering students from the four directions (四方游學之士), ... and through examinations forwarding them to the department and circuit." Huo also wrote an essay commemorating the founding of the Xining County school in 1580-1581.

For a century and a half after the creation of Dongan and Xining, almost all of the students registered in the two counties' schools who went on to win tribute student status or higher degrees were Cantonese. Twelve out of the thirteen Dongan juren in the late Ming were natives of the Pearl River delta counties of Nanhai, Shunde, Dongguan, or Xinhui.

In Xining, all seven of the Ming-era juren were sojourners, primarily from Shunde and Nanhai.

References to upriver students in delta genealogies and gazetteers suggest that many more delta sons entered the Dongan and Xining county schools but never won higher degrees. From a Foshan Huo genealogy, we learn that Huo Yuxia's eldest son, Huo Ruoqi 霍若祺, became a stipend student in the Xining school. A member of another branch of the same Huo lineage sometime during the Wanli era entered the Xining county school roll as a supplementary student. A genealogy of the Zhu lineage in Jiujiang, Nanhai, indicates that as many as twelve lineage members became students in the Xining school by the end of the Ming. An epitaph for one of them explains why so many Zhu sons relocated to Xining. After pacifying the Luopang Yao, the author explains, officials "summoned scholars from Nanhai in our Guang[zhou] to bring glory to the school." [passage #5]

### Third argument:

Cantonese migrant students faced resistance from officials and local elites in the late seventeenth and early eighteenth centuries. I will give three examples.

#### Example 1: local and appended students in Xining County

Early Qing magistrates of Xining County complained about migrant students from such places as Nanhai filling student rolls in the relatively disadvantaged county over which they presided. This problem stemmed from a frontier policy put in place soon after the county was created in

1577. The county had two separate categories of students seeking admission into the county school, local (土著) and those “appended” or “attached” to Xining registration (附籍). As we have seen, the non-locals were Cantonese migrant students. The problem from the point of view of Xining magistrates and truly “local” elites was that the “attached” students did not typically show any attachment to Xining. As early as 1636, one magistrate complained that literati were so rare in the county because so many of them gathered from other counties and “left after passing examinations” (得售則去).

Local Xining gentry seemed content as long as a portion of the county student quota was reserved for them. But even this was in danger of being lost after the Ming-Qing transition. By the 1660s, the local-appended distinction was regularly ignored, allowing outsiders in Xining under fraudulent registration to fill the entire quota at each county examination. Beginning in 1668, local Xining gentry pressed the magistrate to revive the old distinction and thereby ensure that at least some locals could enter the county school; otherwise Xining would not stand a chance in competing with the five big counties of Guangzhou Prefecture (廣屬之五大縣).

By 1708 one magistrate advocated a new approach. First, he argued that the old Ming frontier policy had been so effective in nurturing a local Xining elite that it had outlived its usefulness. Moreover, maintaining the “appended” category in recent times had only resulted in “outsiders purchasing land in Xining one year for the purpose of taking examinations the next year, and a single person buying land so that his entire lineage can register for the examinations.” [passage #6] Following the magistrate’s proposal, this category was eliminated.

Example 2: frontier policy and migrant students in the upper West River basin

The creation of schools was an integral part of imperial policy on the frontier of the upper West River basin. Migrant Cantonese filled newly created schools in western Guangxi departments and counties that had been converted from native chieftaincies to regular administration (改土歸流). One example is Xilong Department. In 1711 the Qing state approved the Xilong magistrate's request, forwarded by the Guangxi governor, that a department school be established, with six civil shengyuan to be entered in each licensing and qualifying examination. After two decades, Xilong began to produce juren, all of them Cantonese: a Nanhai native in 1732, a Nanhai native and Xinhui native in 1735, and a Shunde native and a Xinhui native in 1736.

Other Cantonese students targeted Xilin County, which was subordinate to Xilong Department. It was not until 1723 that a quota of four civil shengyuan entered in each qualifying and licensing examination was established for the county. One of the first Xilin students must have been Jiujiang, Nanhai, native Chen Fen. After receiving his early education in Jiujiang, Chen placed first in the county examination of Xilin, and was entered into the county school. He then used his Xilin shengyuan status to sit for the Guangxi provincial examination in 1726. Chen took licensing and qualifying examinations via Xilin in 1727 and 1728. According to his Jiujiang biographers, Chen's growing fame incurred the jealousy of others and as a result he was not allowed to take part in the 1729 provincial examination.

Example 3: competing regional elites

If migrant Cantonese students could overwhelm schools intended to

foster local elites on the frontier, they faced stiffer competition from the gentry elite of Guilin Prefecture. And on this matter, among the Guilin elite, no one's voice was louder than that of Xie Jishi 謝濟世. In 1736, in his capacity as a censor in Jiangnan, Xie submitted a memorial about matters in his home province of Guangxi, urging the emperor to reverse a policy allowing ex-provincials to acquire registration and sit for examinations.

Xie Jishi represented a Guilin regional elite in competition with a Cantonese diasporic elite expanding into Guangxi. Candidates from Guilin tended to dominate provincial examinations. In nine examinations between 1702 and 1723, Guilin Prefecture candidates accounted for an average of 56.6 percent of total Guangxi juren degrees. Candidates from Lingui, the county where the provincial capital and prefectural seat were located, performed exceptionally well. But so did examinees from Quanzhou, a department in Guilin prefecture. In the decades around the turn of the eighteenth century, Quanzhou typically placed around 10 juren at each examination. And among Quanzhou men, the Xie Jishi's lineage performed markedly well.

When Xie Jishi passed the provincial examinations in 1708, Guilin literati had little to worry about in terms of competition. But he likely sensed that competition was on the rise when he wrote his memorial in 1736. Over five examinations during the Yongzheng reign, the percentage of new juren accounted for by Guilin men averaged 44 percent. While Guilin never lost its dominance entirely, it must have been clear to people like Xie that Guilin men were losing some ground. Quanzhou performance dropped more precipitously, the department winning an average of 10.78 juren per year in examinations from 1711 to 1729, but only 5.55 per year from 1741 to 1760. Cantonese migrants registered in

frontier schools represented one source of this increasing competition.

In his memorial, Xie Jishi identified a 1731 statute (例) as the source of current problems. This statute originated in a 1730 memorial submitted by Guangxi Governor Jin Hong (金鉞/郭鉞). In it, Jin addressed the problem of low levels of learning in the four western Guangxi prefectures of Taiping, Qingyuan, Sicheng, Zhen'an. He observed that students in government schools in these jurisdictions who had passed provincial examinations were either "fly over students" (飛來生) from the provinces of Huguang, Jiangxi, and Guangdong or transferred students (撥學生) from other Guangxi prefectures like Guilin. He further noted that after Education Commissioner Wei Changji (衛昌績) in 1728 had expelled the ex-provincials and sent the Guilin students back to their home prefecture, there were hardly any talented scholars left in the western areas. In his 1728 memorial, Wei had asserted that Guangxi "fraudulent registration" ranked first in the entire realm (廣西之冒籍甲於天下). But Jin pursued a different tack. He requested that henceforth any ex-provincials who were willing to sit for examinations in prefectures, departments and counties of the four prefectures of Taiping, Qingyuan, Sicheng, and Zhen'an should be allowed to acquire registration and sit for licensing and qualifying examinations along with the locals; students' papers would be marked as either benji (本籍) or ruji (入籍), and they would be admitted to the schools in equal numbers. If benji students could not fill their half of the quota, then even more ruji students would be entered.

Jin Hong restated his case in a 1731 memorial, and his proposal received imperial approval. The justification for allowing migrants to gain entrance into western Guangxi schools was that they could also serve as teachers of "local children" (土著童子), and thus foster the growth of a

gentry elite on the frontier. With this assumption, the statute provided that this policy would be revoked after ten examination cycles.

This potentially threatened the interests of Guilin literati, and Xie Jishi targeted the 1731 statute in his 1736 memorial. [passage #8]. The part I want to stress: "... in places that have been transferred from native chieftaincies to regular administration, it is enough to use people from different prefectures within this province. Why is it necessary [to use people from] outside provinces?" Xie then singled out two of the top five examinees in the 1735 Guangxi provincial examination, one of whom was a Zhejiang man and the other Cantonese. Xie asks how they can be allowed to receive imperial favor meant for Guangxi.

It is unclear how much influence Xie Jishi's memorial may have had on the subsequent abrogation of the 1731 statute. Yet policy was soon changed, at the urging of Jin Hong's successor as Guangxi governor, Yang Chaozeng 楊超曾. Two years into his Guangxi governorship, in 1738 Yang submitted a memorial requesting permission to reverse the 1731 statute. He describes the results of Jin Hong's strategy as being counterproductive to the goal of using migrant students to foster the growth of an indigenous gentry elite on the frontier [passage #9]. His proposal was approved and the 1731 statute was rescinded. This policy was reaffirmed in 1760. Shifting imperial policy seems finally to have coalesced with the interests of Guilin literati.

#### **Fourth argument:**

Aspiring Cantonese gentry continued to win examination credentials as registered students in upriver schools in the lat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But the patterns had changed. Rather than flooding frontier schools on upper reaches of West River tributaries, a more stable pattern emerged in which migrant students registered in a wider array of schools along the trunk and main branches of the West River system. Thus, after 1760, most Cantonese who won degrees via registration in Guangxi schools, and with them certainly many more who entered Guangxi schools but did not win higher degrees, tended to do so in eastern and central Guangxi. Rather than targeting newly opened schools on the frontier, Cantonese migrant students were now more typically drawn to upriver places near where lineage members were involved in commerce. Many diasporic Cantonese families pursued diverse strategies for socioeconomic advancement, spreading their investments among commerce, land, and the examinations both downstream and upstream. An example is the Zhang lineage of Shafu Village in Xinhui County. A seventeenth-generation ancestor, “Zezhi” was a merchant in Pumiao, outside Nanning. Three of his grandsons won the juren degree, one in Guangdong and two in Guangxi [passage #10].

Traveling upriver in order to advance one’s socioeconomic status through civil service examinations in Guangxi was a frequent occurrence in the late eighteenth and early nineteenth centuries, despite the crackdown on migrant students in western Guangxi. The commonplace nature of this practice can be seen in the lexicon and lore that entered delta records. I will give one account, of a strange occurrence in 1839 recorded in the 1883 gazetteer of Jiujiang township [passage #11]. I emphasize what is unstressed in the passage: that it is taken for granted that “two in the west” means that two Jiujiang men would pass the provincial examination in Guangxi.

## Conclusion:

In this study of state policy and diasporic practice in the West River basin, we see the ways in which the interests of the state, of diasporic or regional cohorts, and of nascent indigenous elites both overlapped and conflicted. State consolidation of the frontier was a complex, multi-directional process.

### passage #1

粵東人士由粵西籍舉鄉試者自康熙五年順德莫瑛始嗣是歷科多有之而尤多順德人(道光《廣東通志》)

### passage #2

(南海縣人關用相):

余五歲始受學吳潔吾先生...十二三四師 冠南祖叔稍知行文即師於我 濟之叔十六始應童子試十七丙子從濟叔館於二牌樓之迪官堂得與絳菴叔時為討論是歲及丁丑兩試俱不售戊寅之冬從濟叔往東安應考余縣列第七送州又見遺抵家已臘月廿九越歲己卯正月人日赴省值各縣府試已畢而新會案送太遲因購得一名曰李選中遂與府試時太府姓余諱自怡者案發列十三送院 ... (《南海吉利下橋關樹德堂家譜》 1889)

### passage #3

嘗費貲財開花縣籍為子姪廣試路 ([東莞]《張氏族譜》 1922)

### passage #4

恐別省立籍冒此間廩糧貢舉 (霍與瑕《霍勉齋集》)

### passage #5

徵我廣南海人士為庠序光 (《南海九江朱氏家譜》)

### passage #6

...往往今年買田明年即考一人買田舉族皆考... (康熙《西寧縣志》《請除附籍詳文》)

#### passage #7

陳奮字丹書一字灝川號荷齋[南海縣九江鄉]東方興仁里人 ... 應廣西西林縣試以第一補弟子員丙午秋闈薦而不售丁未戊申歲科兩試衛宗師昌績俱拔第一遂以名噪遭忌乙酉不得進場辛亥回籍應考又得進南海學第一 ...([南海]《九江儒林鄉志》)

#### passage #8

謝濟世(桂林府全州人, 江南道監察御史) 乾隆元年奏摺:

...其立法非不善殊不知化導移風俗必有其漸以改土歸流之處止用本省異府之人已足何必外省...即如乙卯科廣西第一名舉人...第三名舉人...此二人者與移家入籍之例並不相符其為冒籍明甚五名之內便有二名則一榜可知此一榜不過佔去舉人數名此例一開將來廣西舉人進士必盡為外省人佔去 ...何外省之人皆得沾廣西之皇恩而廣西之人不得盡沾本省之皇恩也... (《乾嘉時期科舉冒籍史料》, 《歷史檔案》, 2000)

#### passage #9

楊超曾(廣西巡撫)《敬陳邊境入籍之弊請杜外省冒濫之源以端士習事疏》乾隆三年...自有此例後今已三科外省竄名冒籍者紛紛不絕不但歲科兩試所取多外省之人士著童生十難得一旦鄉會試中式者竟有數人然此輩來粵就試之時并未携家入籍及其入學中式之後仍各自歸故鄉並未安居久住土著士子何從而受其教益...

#### passage #10

張祖堯號則之(1776-1842): 則之公賈於廣西蒲廟墟平日能喫虧忍氣不與人爭自奉甚儉而于修橋填路及排難解紛之事輒踴躍為之... ([新會沙富張氏]《清河族譜》)

#### passage #11

扶鸞事雖屬游戲然亦有言之不爽者... 諸人結一仙社仙有自稱紫陽山人者每宴集必請談詩文以為樂亦能預決科場事道光己亥 恩科鄉試七月間問仙今科鄉內幾人乩書云東二箇西二箇復問二箇何所指...及九月揭曉東闈則朱士琦次琦兄弟同科所謂東二箇也西闈則明之綱朱文彬獲售所謂西二箇也... ([南海]《九江儒林鄉志》)

# 離散, 帝國, 邊境:

## 西江 분지 지역의 廣州 출신 이주 학생들과 科擧

Steven B. Miles (Washington University)

본고는 남중국 西江 상류 변경지역에 거주했던 廣州 출신 이주민들과 국가의 팽창에 대한 연구의 일부이다. 여기에서 “광주 출신 이주민”이란 과거 가족이 珠江 델타 지역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거주했으며 자신들의 저작에서 스스로를 “廣府人”으로 인식했던 사람들을 지칭한다. 본고는 필자가 현재 집필 중인 책의 한 장인 “학생들”에서 개작한 것인데 여기서 “학생들”이란 과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상류 지역에서 寄籍/入籍한 광주 출신 사람들을 지칭한다. 필자는 이러한 신체적 이동 및 동시에 발생한 델타와 상류 지역 사이의 관계 유지를 일종의 “離散적 관행”(diasporic practice)으로 묘사할 것이다. 본고에서 필자는 네 가지 주된 논지를 전개할 것이다.

1) 과거 시험 응시를 위해 이주하는 관행은 명 말에서 청 말까지 광주 출신 가족들에게는 일반적인 전략이었다.

2) 본래 과거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은 변경지역의 토착민들 가운데 신사 엘리트층을 형성하려는 것이었으나 16세기 말에서 18세기 초까지 광주 출신 이주민들은 이 정책을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키려는 목적을 위해 이용했다.

3) 17세기말-18세기초 광주출신 이주 학생들은 일부 지방관 및 성급 관료들, 그리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던 지역 (regional) 엘리트들의 저항에 직면했다.

4) 18세기 중엽 이래 官學의 학생이 되기 위한 광주민들의 이주 양상은 국가의 변경 정책보다는 그들의 상업적 이해관계로부터 더욱 많은 영향을 받았다.

## 첫 번째 주장:

과거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은 많은 신체적 이동을 수반했다. 단지 縣治에서 府治, 省城, 나아가 제국의 수도로 수직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같은 행정 층위에 속한 다른 지역으로 수평적 이동을 하는 경우도 빈번히 존재했다. 명 만력년간에 이르면 이러한 현상은 광주인들에게 이미 두드러진 것이었는데 학생들이 사회경제적 상승을 위해 이주하는 것이 유행하는 하나의 전략이 되었기 때문이다.

주강 델타 지역 縣들에서 보이는 몇 개의 사례들은 이러한 관행이 청대 강희년간에 이르러 얼마나 보편적이 되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강희년간에 걸쳐 61명의 新會縣 사람들이 新會縣學의 생원으로 거인 자격을 획득한 반면, 43명의 신회현 사람들은 외지 학교의 寄籍生으로 거인 자격을 얻었다. 이 외지 학교들이란 델타 지역, 광동 서부의 다른 주현들, 그리고 광서의 몇 개 지역 등에 위치한 것들이었다. 또 다른 사례로서, 강희년간 順德縣 세공생들 가운데 105 명이 이 지위를 순덕현학에서 얻은 반면 140명은 외지에서 寄籍하여 얻었던 것이었다. 다른 델타 지역 현들을 제외할 경우, 寄籍을 위해 목표로 삼는 지역 대부분은 광동 서반부에 있는 주현들이었으니 다시 말해 광동 남서부 연안 지역과 西江 회랑을 따라 위치한 지역들이었다.

광동성 밖으로 이주할 경우 많은 광주출신 이주학생들은 서강 상류로 더욱 거슬러 올라가서 광서성으로 이동했다. 이러한 현상은 1820년대 초가 되면 상당히 일반적이 되었기에 <<廣東省志>> 편찬자들이 이를 언급할 정도였다. [passage #1]. 이 편찬자들이 인식한 것은 1879년 간행된 <<廣州府志>>에 수록된 학위소지자들의 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이 표들은 광주부 출신으로 광서에서 거인자격을 획득한 사람이 15세기에는 2명, 16세기에는 14명, 17세기에는 23명, 18세기에는 47명, 그리고 1873년까지의 19세기에는 37명이었음을 보여준다.

과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수평적 이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南海縣 출신 關用相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630년대, 그는 남해현의 주민으로 시험에 응시했으며 그 후 광동-광서 접경지대의 서강에 연해 있는 東安縣의 주민으로 응시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구입하여 응시한 끝에 결국 신회현의 생원이 되었다. [passage #2] 이렇게 시험을 위해 이동하는 것은 분명 사회경제적 상승을 위한 가족 전략의 일부이었다. 東莞縣이 고향인 어떤 이는 일찍이 그 현의 생원이 된 뒤 사업으로 많은 부를 쌓게 되었는데 18세기초 그는 자신의 아들들과 조카들에게 “시험의 길을 넓혀 주기 위해” 많은 돈을 내어 광주 북쪽 花縣의籍을 얻어 주었다. [passage #3]

## 두 번째 주장:

광주의 가족들은 과거 합격을 위한 지름길을 찾기 위해 국가의 변경 정책을 이용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신분 상승을 위한 가족의 전략에 맞추어 국가의 변경 정책을 응용했던 것이다. 우선 필자는 1570년대의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하려 하는데 두 경우 모두 남해현의 학자-관료였던 霍與瑕가 중심이 된 것이었다. 1570년대 초, 광서에 관리로 파견된 광주인들이 광서 남서부 변경에 新寧州를 창설하는데 참여했다. 1570년대에는 또한 은퇴한 광주출신 관리들이 羅旁 지역에서 “獠賊”을 섬멸한 것, 그리고 東安縣과 西寧縣을 1577년 창설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저자로 동원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다수는 상류 지역에서 관직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행정적 변화에 이어 델타지역으로부터 신녕주 및 쌍둥이 도시인 동안·서녕현으로 이주학생들의 유입이 이어졌다.

1572년 성 당국은 남해현 사람 霍與瑕에게 新寧州治 건설의 감독을 맡겼다. 관여하는 이 새로운 州를 위한 여러 제안을 자신의 상급자들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주민들이 신녕주 주민으로 법적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자는 것이었다. 그 지역 전체 인구의 반이 광동에서 온 이주민들이었고 그 가운데 다수가 이미 토지를 구입하고 현지 여성과 결혼해 있었음을 주목하며 관여하는 이러한 이주민들이 왜 아직 그 지역의 거주자로 등록할 수 없었는가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이유는 다른 성에서 온 사람들이 立籍하여 이 지역의 廩糧과 貢擧를 편법으로 차지할까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passage #4] 그러나 관여하에게는 보다 최근에 도착한 체류자들을 가능한 한 빨리 등록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관여하와 초대 신녕지주는 학교를 세우자고 제안했는데 이 학교는 1570년대 중기 완공되었다. 관리들은 현지의 신사세력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학교 설립을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 그 학교는 현지 토착인들보다는 이주민들에게 더욱 이득이 되었다. 1580년대 한 知州는, 그 州學에 소속된 거의 40명에 가까운 생원들이 省밖에서 이주해 온 뒤 현지에서 立籍한 이주민들이거나 본래 인근 선화현 사람들인데 신녕주민으로 冒籍한 자들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신녕주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이미 현지에 정착해 있던 가족이 배출한 학생은 한 명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이주해 들어온 학생들 가운데에는 霍蒙庠 (1576년 출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관여하가 속한 佛山 종족의 한 쇠락해 가던 지파에 속한 자로서 신녕주학의 附生이 되었다. 광몽상이 불산 여성과 결혼했다는 사실은 그가 신녕에 영구히 정착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17세기 초까지 적은 수의 광주인들만이 새로이 설립된 신녕 관학에 진출했다면, 델타 출신 이주 학생들은 동안현과 서녕현의 신설 학교에는 대거 입학했다. 回避律에 따라 광주인들이 1577년에 설립된 이 두 현의 지현으로 근무할 수는 없었지

만 광주의 엘리트들은 羅旁 瑤族의 섬멸과 이 두 현의 창설을 축하하는 저자로는 참여했다. 그들은 또한 학교의 건립 및 이주학생들이 이 학교들로 입학하게 된 것을 축하하기도 했다. 당시 관직에서 은퇴해 있던 관여하는 초대 서녕현 지현이 “四方에서 游學은 士들을 수용하고 예로써 대우하였으며… 시험을 통해 그들을 州道로 올려 보낸 것”을 칭송하는 문장을 쓰기도 하였다. 관여하는 또한 1580-1581년 서녕현학을 창설한 것을 기념하는 문장을 쓰기도 하였다.

동안현과 서녕현이 창설된 이래 150년 동안, 이 두 현의 관학에 등록되어 공생 자격이나 보다 상위의 학위를 획득한 거의 모든 학생들은 광주출신들이었다.

명말 13명의 동안현 거인 가운데 12명이 주강 델타 지역에 위치한 현들인 남해, 순덕, 동관, 신회현 출신이었다. 서녕현에서는 명대 거인 7명 전부가 주로 순덕현과 남해현에서 온 체류자들이었다.

델타 지역의 족보와 지방지가 상류지역에서 생원이 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델타 지역의 아들이 동안현이나 서녕현학에 입학은 했지만 보다 상위의 학위를 얻는 데에는 실패했음을 말해준다. 佛山 霍氏족보를 보면, 관여하의 장남인 霍若祺가 서녕현학의 廩生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관씨 종족의 또 다른 지파의 한 성원은 만력년간의 어느 시점에 서녕현학에 附生으로 입학했다. 남해현 九江 朱氏족보는 12명이나 되는 族員들이 명 말까지 서녕현학의 학생이 되었음을 전해준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묘지명은 왜 그렇게 많은 수의 주씨 성원들이 서녕으로 이동했는가를 설명해 준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나방 요족을 평정한 이후에 관리들이 “우리 廣(州) 남해현의 人士들을 불러 그 학교의 명예가 되게 하였다.” [passage #5]

## 세 번째 주장:

광주출신 이주 학생들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사이 관리들과 현지 지역 엘리트들의 저항에 직면하였다. 필자는 세 가지 사례를 제시하려 한다.

### 사례 1: 서녕현의 토착생 및 附籍生

청초 서녕현의 지현들은 남해현 같은 지역에서 온 이주학생들이, 자신들이 다스리는 상대적으로 덜 발전된 현의 學額을 채우는 것에 대해 불평하였다. 이 문제는 1577년 서녕현이 창설된 직후 시행된 변경정책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서녕현의 경우 현학에 입학하려 하는 학생들을 土著, 그리고 西寧籍에 첨부된 附籍 두 종류로 나누었다. 우리가 본대로 非토착인은 광주출신 이주학생들이었다. 서녕 지

현들, 그리고 진정으로 “토착민”이었던 엘리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는 “附籍”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서녕에 대해 어떠한 애착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일찍이 1636년 한 지현은 다음과 같이 불평하였다. 그 현에는 紳士가 매우 적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른 현들에서 왔고 “시험에 합격한 이후 떠났기 때문”(得售則去)이었다.

서녕현의 신사들은 그 현의 학액 중 일부가 그들을 위해 따로 설정되어 있는 한 불만이 없는 듯 보였다. 그러나 명청 교체기 이후 이 정도 학액조차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1660년대가 되면, 土著-附籍 구별은 정기적으로 무시되었고 이는 서녕현에서 冒籍하고 있던 타지인들이 매번 현시를 볼 때마다 학액 전체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1668년부터 시작하여, 서녕현의 신사들은 지현을 압박하여 과거에 존재하던 구분을 회복시키려고 하였고 이로써 최소한 소수의 토착 인들이라도 현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보증하려 하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서녕현은 광주부의 다섯 개 大縣들(廣屬之五大縣)과 경쟁할 때 전혀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1708년이 되면 한 지현이 새로운 접근법을 옹호하게 된다. 그는 먼저, 과거 명의 변경정책은 서녕현의 엘리트를 양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기에 그 효용성에 비해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근래 “附籍”항목을 유지해 온 결과 다음과 같은 일들이 야기되었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타지인들이 이듬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그 전해에 서녕에서 토지를 구입하며, 한 사람이 토지를 구입하여 그의 전체 族員들이 시험을 칠 수 있게 되었다.” [passage #6] 그 지현의 제안에 따라 이 “附籍”항목은 폐지되었다.

## 사례 2: 서강 상류 분지의 변경정책과 이주학생들

학교를 세우는 것은 서강 상류 분지라는 변경에 대한 국가정책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이주해 온 광주인들이, 土司制에서 변모하여 정규 행정체제에 편입된 (改土歸流) 광서 서부의 주현에 새로 설립된 학교들을 채우게 되었다. 한 가지 사례는 西隆州이다. 1711년 청 조정은 광서 순무가 전달한 서릉주주의 요청을 승인하였는데 이 요청이란 州學을 설립해 줄 것과 더불어 歲試, 科試마다 문생원 6명의 정원을 확보해 줄 것이었다. 20년 뒤, 서릉주는 거인을 배출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광주출신들이었다: 1732년의 경우 남해현 출신, 1735년에는 남해현 및 신회현 출신, 그리고 1736년에는 순덕현 및 신회현 출신들이었다.

다른 광주출신 학생들은 서릉주에 속한 西林縣을 목표로 삼았다. 서림현의 경우 1723년이 되어서야 歲試, 科試당 네 명의 문생원 합격자 정원이 확립되었다. 남해현 구강 출신 陳奮은 서림현 최초의 생원들 가운데 한 명이었음에 틀림없다. 九江

에서 초기 교육을 받은 이후 그는 서림의 현시에서 1등을 차지했고 현학의 학생이 되었다. 이후 그는 서림 현학 생원의 자격으로 1726년 광서 향시에 응시했다. 진분은 서림현에서 1727년과 1728년에 세시와 과시를 치렀다. 그의 전기를 쓴 구강의 작가들에 따르면, 진분의 명예가 상승하자 다른 이들이 시기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1729년 향시에 응시하지 못했다고 한다.

### 사례 3: 경쟁관계에 있던 지역 엘리트들

변경에서 지역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학교들을 광주출신 이주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장악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桂林府의 신사들과는 더욱 강력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계림 엘리트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 謝濟世보다 더 목소리를 높인 사람은 없었다. 1736년, 강남에 파견된 어사의 자격으로 사제세는 그의 고향인 광서성의 문제들에 대해 상주하였고 여기에서 外省人들에게 附籍하여 과거응시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정책을 철회하도록 황제에게 촉구했다.

사제세는 광서성으로 팽창해 들어온 광주출신 離散 (diasporic) 엘리트들과 경쟁관계에 있던 계림의 지역 엘리트들을 대표했다. 계림부의 응시생들이 늘 향시 합격자를 장악하곤 하였다. 1702년에서 1723년까지 시행된 아홉 번의 향시에서 계림부의 응시생들이 광서의 전체 거인 가운데 평균 56.6%를 차지했던 것이다.

성희 및 府治가 위치했던 臨桂縣의 응시생들은 특히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계림부내 한 주였던 全州의 응시생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18세기로 접어들 무렵의 몇십 년 동안 전주는 각 향시 때마다 10명 정도의 거인을 배출하곤 하였다. 그리고 전주 사람들 가운데 사제세의 종족이 특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것이다. 사제세가 1708년 향시에 합격했을 때 계림의 사대부(literati)들은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별로 걱정할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1736년 상주문을 작성하였을 때 그는 아마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느낀 듯하다. 옹정년간 시행된 다섯 차례의 향시에서 계림부의 응시생들이 새로이 거인이 된 비율은 평균적으로 전체의 44%였다. 계림부 출신들이 그 주도적 위치를 결코 완전히 잃지는 않았지만, 사제세 같은 사람들에게 계림부 출신들의 우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다가왔음이 틀림이 없다. 전주 출신들의 성적은 더욱 가파르게 하락했다. 전주출신들은 1711년에서 1729년 사이 시행된 시험에서는 매해 평균 10.78명의 거인을 배출했지만, 1741년에서 1760년 사이에는 매해 단지 5.55 명만 배출할 수 있었다. 변경의 학교에 등록된 광주출신 이주민들이 이렇게 격화되는 경쟁의 한 원인이 되었다.

자신의 상주문에서 사제세는 1731년에 만들어진 한 예를 당시의 문제점들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예는 광서 순무 金鉞/郭鉞이 1730년 제출한 상주문에서 유래된 것이었다. 이 상주문에서 김홍은 광서 서부에 위치한 太平, 慶遠, 泗城, 鎮安

네 府의 학력 수준이 낮은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말하기를, 이러한 지역의 관학 학생들 가운데 향시에 응시했던 사람들은 호광, 강서, 광동성에서 온 “飛來生”이거나 아니면 계림 같이 광서성 내의 다른 부에서 온 전학생(撥學生)이었다고 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학정이었던 衛昌績이 1728년 외성인들을 쫓아내고 계림 학생들을 고향인 계림부로 돌려보낸 이후 서부 지역에는 더 이상 재능있는 학자가 아무도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1728년에 올린 상주에서 위창적은 광서성의 “冒籍”이 전국에서 가장 으뜸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廣西之冒籍甲於天下). 그러나 김홍은 다른 방식을 추구하였다. 그는 이제부터 태평, 경원, 사성, 진안 네 부의 부·주·현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모든 외성인들은 入籍하여 본지인들과 함께 응시하는 것을 허락해 주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학생들의 답안지는 本籍 혹은 入籍으로 표시를 해야 하며 본적생과 입적생은 同數로 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본적 학생들이 할당액의 반을 채우지 못할 경우 더 많은 입적생들을 입학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던 것이다.

김홍은 1731년의 상주문에서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펼쳤으며 그의 제안은 황제의 승인을 얻게 되었다. 이주민들이 광서 서부의 학교들에 입학할 수 있게 허락하자는 주장의 정당성은 그들이 또한 “토착 아이들”(土著童子)의 선생이 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서 변경 신사층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에 있었다. 이러한 가정하에, 이 예는 10번의 시험주기 이후에는 이 정책을 폐지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이 정책은 계림 사대부들의 이익을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것이었기에 사제세는 1736년 제출한 그의 상주문에서 1731년 제정된 이 사례를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passage #8]. 여기에서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土司에서 정규 행정제로 전환한 지역에서는, 本省내의 다른 府들에서 온 사람들을 쓰면 충분합니다. 왜 하필 본성의 외부[로부터 온 사람들을] 써야 되겠습니까?” 사제세는 이어 1735년 광서 향시에서 최고 성적으로 합격한 다섯 명 가운데 두 명을 지목했는데 그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절강인이었고 나머지 한 명은 광주인이었다. 사제세는 본래 광서를 위한 황제의 은총을 어떻게 이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731년 제정된 예는 이후 폐지되었는데 사제세의 상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김홍에 이어 후임 광서순무로 부임한 楊超曾의 노력으로 이 정책은 곧 변경되었다. 광서순무로 부임한 지 2년이 되던 해인 1738년에 양초증은 1731년 사례의 폐지를 요청하는 상주를 올렸다. 그는, 변경지방의 토착 신사층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이주 학생들을 이용한다고 하는 목적에 비추어 김홍이 채택한 전략의 결과는 역효과를 냈다고 묘사했다. [passage #9]. 그의 제안은 승인을 받았고 이 1731년 사례는 폐지되었다. 이 정책은 1760년 재

확인되었다. 요동치던 황제의 정책은 마침내 계림 사대부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듯 보인다.

## 네 번째 주장:

야심있는 광주 신사들은 18세기말에서 19세기 동안 상류지역의 학교에서 附籍生으로 계속해서 科擧의 성공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그 양상은 바뀌었다. 서강 지류의 상류라는 변경에 위치한 학교들에 대다수가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서강의 주류, 지류를 따라 있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 내의 학교들에 이주학생들이 附籍하는 더욱 안정적인 양상이 등장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광서성의 학교에 등록하여 학위를 획득했던 대부분의 광주인들, 그리고 광서성의 학교에 입학하기는 했지만 보다 높은 학위 획득에는 실패한 훨씬 더 많은 광주인들이 이제 1760년 이후로는 광서성의 동부와 중부에서 그렇게 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광주출신 이주학생들은 이제 변경지역에 새로이 설립된 학교를 겨냥하기보다는 종족 성원들이 상업을 경영하던 지역과 가까운 상류 지역의 어느 곳으로 진출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 되었다. 많은 광주출신 離散 (diasporic) 가족들은 사회경제적 상승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구했다. 상업, 토지, 그리고 상류 및 하류 지역에서의 과거 성공을 위해 골고루 투자했던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新會縣 沙富村의 張氏 宗族이다. 17대조 선조였던 張則之는 광서 南寧 외곽에 위치한 蒲廟의 상인이었다. 그의 손자 가운데 세 명이 거인 학위를 획득했는데 한 명은 광동에서, 나머지 두 명은 광서에서였다.

### [passage #10]

광서 서부에서 이주 학생들을 엄격히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서성의 과거제를 통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려고 상류지방으로 여행하는 것은 18세기말~19세기초에 여전히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이러한 관행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은 델타지역의 기록에 수록된 어휘나 전승지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1839년에 발생하고 1883년 《九江儒林鄉志》에 기록된 한 가지 기이한 사건을 들 수 있다. [passage #11]. 필자는 이 문장에서 강조되지 않은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서쪽의 두 사람”이 의미하는 바가 두 명의 九江인이 광서성의 향시를 통과할 것이라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

서강 분지의 국가 정책과 이산 관행에 대한 본 연구에서 우리는 국가, 이주 및 지역집단들, 그리고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토착 엘리트층의 이익들이 서로 겹치거나 충돌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국가가 변경을 통합해 나가는 것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과정이었던 것이다.

**passage #1**

粵東人士由粵西籍舉鄉試者自康熙五年順德莫瑛始嗣是歷科多有之而尤多順德人(道光《廣東通志》)

**passage #2**

(南海縣人關用相):

余五歲始受學吳潔吾先生...十二三四師 冠南祖叔稍知行文即師於我 濟之叔十六始應童子試十七丙子從濟叔館於二牌樓之迪官堂得與絳菴叔時為討論是歲及丁丑兩試俱不售戊寅之冬從濟叔往東安應考余縣列第七送州又見遺抵家已臘月廿九越歲己卯正月人日赴省值各縣府試已畢而新會案送太遲因購得一名曰李選中遂與府試時太府姓余諱自怡者案發列十三送院 ... (《南海吉利下橋關樹德堂家譜》 1889)

**passage #3**

嘗費貲財開花縣籍為子姪廣試路 ([東莞]《張氏族譜》 1922)

**passage #4**

恐別省立籍冒此間廩糧貢舉 (霍與瑕《霍勉齋集》)

**passage #5**

徵我廣南海人士為庠序光 (《南海九江朱氏家譜》)

**passage #6**

...往往今年買田明年即考一人買田舉族皆考... (康熙《西寧縣志》《請除附籍詳文》)

**passage #7**

陳奮字丹書一字灝川號荷齋[南海縣九江鄉]東方興仁里人 ... 應廣西西林縣試以第一補弟子員丙午秋闈薦而不售丁未戊申歲科兩試衛宗師昌績俱拔第一遂以名噪遭忌乙酉

不得進場辛亥回籍應考又得進南海學第一 ...([南海]《九江儒林鄉志》)

**passage #8**

謝濟世(桂林府全州人, 江南道監察御史) 乾隆元年奏摺:

...其立法非不善殊不知化導移風俗必有其漸以改土歸流之處止用本省異府之人已足何必外省...即如乙卯科廣西第一名舉人...第三名舉人...此二人者與移家入籍之例並不相符其為冒籍明甚五名之內便有二名則一榜可知此一榜不過佔去舉人數名此例一開將來廣西舉人進士必盡為外省人佔去 ...何外省之人皆得沾廣西之皇恩而廣西之人不得盡沾本省之皇恩也... (《乾嘉時期科舉冒籍史料》, 《歷史檔案》, 2000)

**passage #9**

楊超曾(廣西巡撫) 《敬陳邊境入籍之弊請杜外省冒濫之源以端士習事疏》 乾隆三年 ...自有此例後今已三科外省竄名冒籍者紛紛不絕不但歲科兩試所取多外省之人土著童生十難得一旦鄉會試中式者竟有數人然此輩來粵就試之時并未携家入籍及其入學中式之後仍各自歸故鄉並未安居久住土著士子何從而受其教益...

**passage #10**

張祖堯號則之(1776-1842): 則之公賈於廣西蒲廟墟平日能喫虧忍氣不與人爭白奉甚儉而于修橋填路及排難解紛之事輒踴躍為之... ([新會沙富張氏]《清河族譜》)

**passage #11**

扶鸞事雖屬游戲然亦有言之不爽者... 諸人結一仙社仙有自稱紫陽山人者每宴集必請談詩文以為樂亦能預決科場事道光己亥 恩科鄉試七月間問仙今科鄉內幾人乩書云東二箇西二箇復問二箇何所指...及九月揭曉東關則朱士琦次琦兄弟同科所謂東二箇也西關則明之綱朱文彬獲售所謂西二箇也... ([南海]《九江儒林鄉志》)

# Diaspora, Empire, and Frontier: Cantonese Migrant Students and Civil Examinations in the West River Basin

Steven B. Miles (Washington University)

Late imperial Chinese gazetteers and genealogies are replete with tales of chaste widows. In such texts produced for Cantonese counties and lineages, this ubiquitous trope is occasionally adapted to fit the particular dynamics of migration along the West River basin. Consider three such accounts. The first concerns Woman Wang王, a native of the Pearl River delta's Dongguan County. She was married to a *shengyuan* named Pu Shiyuan 濮士元. Pu was a Dongguan man registered as a student in the government school in Dongan County, upstream along the West River, and he drowned on his way to take civil service examinations when Wang was 27 *sui*. Hearing the news, she tried to kill herself repeatedly but was saved, and lived for another 16 years. We do not know when this occurred, but at least two other Dongguan Pus registered as residents of Dongan and won tribute student status there, one in the Ming Wanli era and another in the Qing Kangxi era.<sup>1)</sup> The subject of the second account is also a Dongguan woman, surnamed Li 李. Her husband at the age of capping was entered into the government school at Liuzhou Prefecture. In 1705 he became ill on his way to take the Guangxi provincial examinations, returned to Dongguan, and died soon thereafter. Li vowed never to remarry.<sup>2)</sup> The final story is about a woman from the powerful Luo 羅 lineage of Daliang, Shunde. Born in 1706, she was married to a scion of the other great Daliang lineage, the Long 龍. According to one account of her wifely virtue, when she was 24 *sui*, her husband headed for Guangxi province to take civil examinations, but the “water and earth” was no good (*shuitu buyi* 水土不宜) and he died as a sojourner there. Another account states simply that her husband “sat for examinations in the western province and died as a sojourner” there.<sup>3)</sup>

Cantonese authors here take a common trope, the chaste widow, and apply it to the particular lived experience of diasporic practice in the West River basin. Accounts of these three women are intended to highlight the virtue of the subjects, but they also reveal

1) Dongguan xian zhi 東莞縣志, 1798, 27:15a; Dongguan xian zhi 東莞縣志, 1911, 75:6a. Pu Qiming 濮啓明 in the Wanli era and Pu Zixiu 濮自修 in the Kangxi era. Dongguan xian zhi, 1798, 23:41a; Dongguan xian zhi, 1911, 47:9a. “Luo Qiming” 羅啓明 listed as a 1606 suigong in the Dongan gazetteer presumably is Pu Qiming. Finding Pu Zixiu has proven more challenging. Dongan xian zhi 東安縣志, 1740, 3:39b.

2) [Dongguan] Zhangshi zupu 張氏族譜, 1922, 9:彥瑜公派:24a.

3) [Shunde Daliang] Longshi zupu 龍氏族譜, 12:7b-8a; Shunde xian zhi 順德縣志, 1853, 29:6a.

commonplace practices and assumptions. Pu Shiyuan's death by drowning draws attention to the mode of westward transportation, by river boat. Student Long's inability to adapt to an upriver, mountainous, miasmatic environment highlights very real differences in topography and climate between the delta and the highlands at opposite ends of the West River basin. It also exemplifies the delta elite's cultural construction of upriver areas: if a Cantonese man died in the delta, his death might be attributed to any number of causes; if he perished upriver, it must have been the alien environment. The unstressed information conveyed in all three accounts suggests the commonplace nature of upriver travel to attain credentials through the imperial civil service examinations.

What follows is a survey of the practices, institutions and policies that brought these widows' husbands upriver to their early demise. Many Cantonese families invested a great deal of time, effort, and money to acquire for some family members legal residence in upriver counties and departments, and Cantonese men traveled to these places to sit for civil examinations in the hopes of gaining entry into a government school and with it the status of *shengyuan* and the chance of winning higher degrees. In other words, the horizontal movement of migration between delta and upriver locales became one strategy for the vertical movement of raising a family's social status.

The decisions that delta families made about where and when to send male family members was shaped by state institutions and policies. In the first place,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system was designed in such a way that candidates were required first to gain entry into a county, department, or prefectural school before competing to win the *juren* degree granted in provincial examinations and beyond that the *jinshi* degree in the metropolitan examinations. Given the prestige and perquisites of *shengyuan* status, for most families getting a son into a government school was already a return well worth the investment in his education. If competition in one's home county was intense, this provided incentive to acquire residential registration in another county or department. For Cantonese families, this often involved purchasing land and having a son reside at least temporarily somewhere outside the delta.

Some Ming and Qing officials, seeking to foster the growth of a gentry elite in counties and departments on the frontier of the upper West River basin, advocated policies that would encourage migrant students from places like the Pearl River delta to take up residence in frontier areas. There, some officials imagined, either permanent migrant students could evolve into a local, frontier elite, or, even if migrants did not settle, they could during their time on the frontier at least teach and inspire a native gentry elite. In the interplay of diaspora and empire in the middle and upper West River basin, Cantonese migrants turned state institutions and policies toward their own ends, refashioning them into tools for the socioeconomic enhancement of Cantonese families and lineages.

This survey begins by examining upriver student migration during the pivotal decade of the 1570s, which brings this practice into sharp focus. We then broaden our perspective to look at general patterns in the late Ming and early Qing, as well as considering the role of Cantonese who worked upriver as teachers. Finally, we examine instances of opposition to Cantonese migrant students, from local officials in Guangdong counties dominated by Cantonese migrant students, from provincial officials in Guangxi, and from a competing regional elite.

### Aftermath of a Pivotal Decade: Migrant Students in Xinning, Dongan, Xining

In the early 1570s, Cantonese assigned as officials in Guangxi were involved in the creation of Xinning Department on the southwestern Guangxi frontier. Also in this decade, Cantonese as retired officials, many of them with upriver experience, were mobilized as writers to celebrate the elimination of the Luopang Yao and the 1577 creation of Dongan and Xining counties along the West River in western Guangdong. This administrative transformation was followed by an influx of migrant students from the delta into Xinning and into the twin counties of Dongan and Xining in the aftermath of this pivotal decade in the West River basin.

In 1572 provincial authorities assigned Nanhai native Huo Yuxia 霍與瑕 to supervise construction of the Xinning Department seat on the river route between the prefectural seats of Nanning and Taiping. In addition to establishing the department yamen, Huo also requested that a school be opened.<sup>4)</sup> Beyond this, Huo submitted to his superiors a list of proposals for the new department. One proposal was to allow migrants to obtain legal registration as Xinning residents. Beginning with the observation that “half [the population] in the prefectures, departments, and counties of the Left and Right River [regions] are Guangdong sojourners who have settled (*jiju* 寄居) here,” and in many cases purchased land and married local women, Huo explains why these migrants had not yet been able to acquire local residential registration: “The reason is that locals (*turen* 土人) fear that people from other provinces will establish local registration and fraudulently win stipends and examination degrees” (恐別省立籍冒此間廩糈貢舉). But for Huo this is a bogus argument, given that the few “local” gentry in the region up to this time consisted of military households that had been established only after the Yongle reign. In the interest of stabilizing the security and finances of the new department of Xinning, Huo asserted, it was crucial to register the more recent sojourners as soon as possible.<sup>5)</sup> In another proposal in this same document, however, Huo expressed concern about fraudulent registration. This proposal was to establish temples, such as a City God Temple and a Literary Temple, the latter usually sharing a compound with the government school. As for schools, Huo argued that “[in places where] human talent is not yet uplifted and transformation through teaching not yet manifest, we should [first] establish community schools (*shexue* 社學) to teach primary students; it is not yet appropriate to establish a [department] school, fearing this will incite flood of fraudulent [registration]” (*kong zi maolan* 恐滋冒濫).<sup>6)</sup>

If Huo Yuxia initially hesitated to establish a department school, he soon changed his tune. Huo and the first Xinning magistrate proposed to establish a school, which was completed in the mid 1570s. In the eyes of officials,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school was to nurture the growth of a local gentry elite. But the nascent Xinning Department gentry elite was made up of migrants. A new magistrate in the following decade found that

4) Nanhai xian zhi 南海縣志, 1691, 12:11a; Xinning zhou zhi 新寧州志, 1878, p. 250; [Nanhai] Shitou Huoshi zupu 石頭霍氏族譜, 1:40b-41a.

5) Huo Yuxia, Huo Mianzhai ji 霍勉齋集, 19:55b.

6) Huo Yuxia, Huo Mianzhai ji, 19:55b, 19:57a.

the nearly forty *shengyuan* in the department school were either extra-provincial sojourners who had taken up local registration or fraudulently registered people from Xuanhua County. He could not identify a single local student, that is, from a family that had been settled in the areas out of which the department had been created.<sup>7)</sup> Over ten years later, a Xuanhua literatus also noted, with less apprehension, that men from other counties filled the Xinning school.<sup>8)</sup> Within two decades of its creation, some Cantonese began to win examination credentials via Xinning, which implies that they had purchased land and acquired local registration in the department. The best example of this is a single family with roots in Dongguan. Wang Qing 王慶 entered the school (*jixue* 寄學) at Xinning Department school and there became an annual tribute student (*suigong*) in 1596 or 1597.<sup>9)</sup> His son Wang Yongji 王用楫 (courtesy name Junji 君濟) won the *juren* degree in 1609 as a registered resident of Xinning. Another Dongguan Wang, Wang Yonglin 王用霖 (courtesy name Junze 君澤), who based on his names was surely related to the other Wangs, passed the Guangxi provincial examination in 1600 as a Xinning resident.<sup>10)</sup> Another example is Huo Mengxiang 霍蒙庠 (b. 1576), member of a declining branch of Huo Yuxia's Foshan lineage. Possibly availing himself of a household name ("Huo Ruozhi" 霍若祉), land belonging to which financially supported a shrine in Xinning honoring Huo Yuxia, Mengxiang became a supplementary student (*fusheng* 附生) in the Xinning Department school. The fact that the Huo genealogy indicates that Mengxiang married a Foshan woman suggests that he did not permanently settle in Xinning.<sup>11)</sup>

If a small trickle of Cantonese made their way to new the Xinning school by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migrant students from the delta flooded new schools in Dongan and Xining counties. Although, due to the law of avoidance, Cantonese could not serve as magistrate in these two new counties established in 1577, Cantonese elites did participate as writers, celebrating the elimination of the Luopang Yao and the creation of Luoding Department and the two counties of Dongan and Xining. In addition to commemorating the construction of yamen, temples, and roads, they also celebrated the creation of schools and the influx of migrant students into those schools. Huo Yuxia, now retired from the civil service, wrote an essay praising the first Xining magistrate for, among other things, "accommodating and treating with decorum wandering students from the four directions (*sifang youxue zhi shi* 四方游學之士), collating and correcting their writings, and through examinations forwarding them to the department and circuit."<sup>12)</sup> Huo also contributed an essay commemorating the founding of the Xining County school in 1580-1581. In his essay, Huo alluded to an influx of migrants: "sons and younger brothers of families that had received fields gathered like clouds, and the sound of strings and chants" of Confucian learning filled the halls of the new school.<sup>13)</sup>

7) Xinning zhou zhi, 1878, 5:13b-15b (pp. 466-470). Miura Mitsura, "Mindai no fu-shū-ken-gaku no kōzō to sono seikaku," in Taga Akigorō ed., Kinsei Ajia Kyōikushi kenkyū (Tokyo: Bunri Shoin, 1966), p. 536, states WL3 (1575): Guangxi tong zhi 廣西通志, 1733, 38:9a, states "隆慶六年左江道霍與瑕開建州治詳請建學..."

8) Guangxi shaoshu minzu diqu beiwen qiyue ziliao ji 廣西少數民族地區碑文契約資料集 (Beijing: Minzu chubanshe, 2009), p. 137.

9) Nanning fu zhi 南寧府志, 1743, 35:13; Dongguan xian zhi, 1798, 23:40b.

10) Nanning fu zhi, 1743, 33:3a-b; Dongguan xian zhi, 1798, 23:31a; Dongguan xian zhi, 1911, 45:32a, 34a.

11) [Nanhai] Shitou Huoshi zupu, 1902, 2:37a.

12) Huo Yuxia, Huo Mianzhai ji, 11:53b.

Commemorating such measures was not the only way that Cantonese literati were involved in promoting the new county schools. Huo Yuxia's old teacher, the frontier expert Pang Song, was living in retirement as the Yao were pacified and Xining was created. According to the 1592 Xining gazetteer, authorities invited Pang to "select a place to live in the new county in order to drum up people's determination" and to "lecture on learning in order to uplift literati customs."<sup>14</sup> Yet Pang did not serve in an official capacity, as he was neither director nor assistant director of the county school. In listing the contributions of everyone involved in establishing the school, Huo Yuxia merely states that the "local elder" Pang "helped with selecting a site and positioning" the school geomantically. Yet Pang is credited with "teaching" both the students transferred (*bo* 撥) along with territory from Deqing Department and the new Xining sojourners from the delta. Despite the presence of officially appointed educational officials, Pang must have been the main influence, as the Xining students erected a shrine in his honor in 1590.<sup>15</sup>

For a century and a half after the creation of Dongan and Xining, almost all of the students registered in the two counties' schools who went on to win tribute student status or higher degrees were Cantonese. Twelve out of the thirteen Dongan *juren* in the late Ming were natives of the Pearl River delta counties of Nanhai, Shunde, Dongguan, or Xinhui.<sup>16</sup> Even the remaining figure on this list, 1594 *juren* Feng Zhizhong 馮執中, might not have been from a local family with very long Dongan pedigree. While Dongan gazetteers compiled in 1740 and 1823 list Feng as a county (*benyi* 本邑) man, a 1757 tomb inscription claims that the Fengs in Zhizhong's time were recent migrants from Enping, a Zhaoping Prefecture county in the southwestern delta.<sup>17</sup> In Xining, all seven of the Ming-era *juren* were sojourners, primarily from Shunde and Nanhai.<sup>18</sup>

Examples of successful Dongan and Xining examinees reveal Cantonese family connections. For example, two brothers from Chencun in Shunde County obtained registration in Xining. The older brother, Ou Dazheng 歐達政, was a 1595 *suigong* who was later appointed as Assistant Prefect of Wuzhou. The younger brother, Ou Daxun 歐達勳, won the *juren* degree in 1594 and went on to serve as Assistant Prefect of Taiping.<sup>19</sup> One of the annual tribute students produced by Dongan in the late Ming was He Tingbi 何廷璧, in 1602. The Dongan gazetteer does not indicate that He Tingbi was a migrant. But this is made clear in the genealogy of his lineage based in Shuiteng, Shunde County.<sup>20</sup> This

13) Xining xian zhi 西寧縣志, 1830, 4:9b-10a.

14) Xining xian zhi 西寧縣志, 1592, 6:43b.

15) Xining xian zhi, 1592, 4:32b; Xining xian zhi, 1830, 4:10b, 11:15a-b, 12:13b. Representing the limits of his attachment to Xining, Pang Song was buried in the Xiqiao Hills of his native Nanhai county: He Wei bai composed Pang's epitaph. Nanhai xian zhi, 1691, 2:41b.

16) Dongan xian zhi 東安縣志, 1823/1934, 3:24b-25a.

17) Dongguan xian zhi, 1740, 3:32a; Dongan xian zhi, 1823/1934, 3:24b: "Huang Ming daizeng xian taizu kao Ruochuan Fenggong fujun, taizu bi Fengmen Zhou Tai anren, shizu kao Liangru Fenggong fujun zhi mu" 皇明待贈顯太祖考若川馮公府君, 太祖妣馮門周太安人, 世祖考兩如馮公府君之墓, Feng ancestral hall, Fenglou, Daqing, Yun'an County, Yunfu Municipality, Guangdong. —

18) Xining xian zhi, 1830, 9:2a.

19) Ou Daren 歐大任, Ou Yubu ji 歐虞部集, 1845, prose, 13:16b-19a; Shunde xian zhi 順德縣志, 1694, 5:57a, 61b, Xining xian zhi, 1830, 9:2a, 3a, 11:2b; Wuzhou fu zhi 梧州府志, 1631, 9:6b.

20) [Shunde] Shuiteng bao Shabian xiang He Houben tang li zupu 水藤堡沙邊鄉何厚本堂立族譜, 1923, 4:1b, 2b, 4a; Dongan xian zhi, 1740, 3:39b.

pattern continued into the early Qing, as illustrated by two members of the same branch of the Mo lineage in Shatou, Nanhai. Neither of these two men's fathers or grandfathers had obtained credentials in civil examinations under the Ming. But Mo Guangdou 莫光斗 became a Xining stipendiary (*linsheng* 廩生) in the 1650s and an annual tribute student by 1670, while Mo Weidou 莫維斗 was a 1674 Xining county *suigong*.<sup>21)</sup> The Mos thus offer an example of local elites whose status rose under the new Qing regime.

Common but scattered references to upriver students in delta genealogies and gazetteers suggest that many more delta sons entered the Dongan and Xining county schools but never won higher degrees. Examples include a nineteenth-century genealogy of the Guan lineage of Shannan, Nanhai, that lists at least six members of various branches who flourished in the seventeenth century as having earned *shengyuan* status through either the Dongan or Xining school; three men, in a Dongguan Zhang genealogy's list of civil *shengyuan* during the Ming, who achieved this status in the Xining school; and a son of He Tingbi (the 1602 Dongan *suigong* from Shuiteng in Shunde), who became a stipendiary in Xining County.<sup>22)</sup>

As many as twelve members of the Zhu lineage of Jiujiang became students in the Xining school by the end of the Ming. In the Zhu genealogy, most of these migrant students are clustered among close relatives in one of the three lineage branches. Moreover, it appears that sojourning upstream in order to win degrees had been a family strategy even before Xining County was created: three lineage members - two of them brothers - earned *shengyuan* status in the old Shuangshui County out of which Luoding Department was created. But the floodgates really opened after the Luopang campaign and the creation of Xining. An epitaph for one of the twelve Jiujiang Zhus in the Xining school explains why so many Zhu sons relocated to Xining. After pacifying the Luopang Yao, the author explains, officials "summoned scholars from Nanhai in our Guang[zhou] to bring glory to the school" (*zheng wo Guang Nanhai renshi wei xiangxu guang* 徵我廣南海人士為庠序光).<sup>23)</sup>

Most intriguing are examples that suggest kinship and other affiliations between migrant students and the Cantonese gentry who applauded the transformation of the Luopang region. No one did so more loudly than did Huo Yuxia, even as his eldest son, Huo Ruoqi 霍若祺, became a stipend student in the Xining school. As with many migrant students, Ruoqi does not seem to have settled in Xining. After his demise at the age of twenty-five in 1586, Ruoqi's wife, from another respectable Nanhai lineage, maintained her chastity and raised their son to achieve examination success via Nanhai registration. Ruoqi's younger brother became a student in the Nanhai County school.<sup>24)</sup> A member of another branch of

21) [Nanhai Shatou Moshi] Julu xianchengtang chongxiu jiapu 鉅鹿顯承堂重修家譜, compiled 1869, reprinted 1873, 冊1:16b, 冊2:24a, 25b; Xining xian zhi, 1830, 9:10a.

22) [Nanhai Shannan Lianbiao] Guanshi zupu 關氏族譜, 1889, 奕世恩譜:2b, 3a, 冊1:charts:11b, 32a, 冊4:27b, 28b; [Dongguan] Zhangshi zupu, 1922, 23:3b, 5b, 6b; [Shunde] Shuiteng bao Shabian xiang He Houben tang li zupu, 1923, 4:1b, 2b, 4a. Other examples can be found in Nanhai Heyuan Xianshi jiapu 南海鶴園洗氏家譜, 1910, 3:21b; [Nanhai Foshan] Huoshi zupu 霍氏族譜, 1848, 3:82b; [Nanhai] Xingui Liangshi zupu 新桂梁氏族譜, 1929(?); Yuedong Jianshi da tongpu 粵東簡氏大同譜, 4:9b, 10b, 17a, 10:40a; Shunde xian zhi, 1853, 25:14a, 54a.

23) Nanhai Jiujiang Zhushi jiapu 南海九江朱氏家譜, 4: 8b-9a, 39b-40b, 6:63b-65b, 7:49a, 8:85b-86a, 88a; Xining xian zhi, 1830, 9:3a.

24) This branch's Xining ties would survive into the early Qing, when a member of the next generation, Huo Liukui 霍劉達 (1650-1700), would become a military *shengyuan* in Xining. [Nanhai] Shitou Huoshi zupu, 1902, 2:103b.

the same Huo lineage sometime during the Wanli era entered the Xining county school roll as a supplementary student.<sup>25)</sup> Another Xining *shengyuan*, surnamed Liang, asked Huo Yuxia to write a tomb inscription for his grandfather, who was a merchant from Shunde.<sup>26)</sup> Likewise, several of Pang Song's more distant kin also took advantage of new opportunities upriver. A genealogy for a group of ten Nanhai branches that claim descent from the same migrant ancestor as Pang Song includes at least four lineage members who were registered as students in Xining County during the Wanli era.<sup>27)</sup>

As with other migrant networks, the case of the Huos and Pangs also suggests that family, kinship, and even fictive kinship connections facilitated the flow of information about opportunities upriver. A case in point is Deng Wendong 鄧文棟, a member of the Deng lineage based at Shuiteng, Shunde. After attending the circuit-level examination (*daoshi* 道試) in western Guangdong as a Dongan resident, he returned home because he had contracted an illness. By the time the results were announced and news that Wendong had placed highly reached Shuiteng, Wendong had already died. The reason that Deng had been able to gain entrance to the Dongan examinations was because, before his death, he had been on very good terms with a member of the Deng lineage in Longjiang. This man's uncle, a 1609 *juren* named Deng Shaoyu 鄧紹禹, was in the Chongzhen era the Prefectural Judge of Xunzhou. Shaoyu possessed Dongan residential registration (*you Dongan ji* 有東安籍); he was one of the thirteen delta men who won the *juren* degree via Dongan in the late Ming. Through this connection, the friend (or friend's uncle?) had invited Wendong up to take the exams (*zhao gong wang shi* 招公往試).<sup>28)</sup> In other words, a Shuiteng Deng posed as a Longjiang Deng who through legal residence presented himself as a Dongan Deng.

The extent to which strategies of migration for civil examinations involved the manipulation of state institutions such as residential registration is seen in cases that involved the strategic changing of surnames. Take for example a member of the Zhang lineage in Dongguan. This man, Zhang Weixi 張維熙, in the early 1680s became a *shengyuan* in the Dongan county school under the surname Lin 林; in 1706 he became a *suigong*. The 1911 Dongguan gazetteer lists him as follows: Zhang Weixi, documentary/list surname Lin (*an xing Lin* 案姓林), Luoding (sic) department school 1706 *suigong*. He appears in the Dongan gazetteer simply as Dongguan native Lin Weixi who had the status of *fuzi* 附籍 in Dongan and became a *suigong* in 1706. Zhang/Lin maintained this fiction for over two decades. The fact that his son became a *shengyuan* back in Dongguan suggests that the delta county was the arena in which his gentry status really mattered.<sup>29)</sup>

As this case suggests, for most Cantonese who won civil service credentials in Dongan and Xining during the seventeenth century, the delta remained the focus of their activity. A case in point is the son of a Foshan native who had served as a low-ranking official in the Guangxi Provincial Surveillance Commission.<sup>30)</sup> His only son was a Wanli-era student in

25) [Nanhai] Shitou Huoshi zupu, 2:1a.

26) Huo Yuxia, Huo Mianzhai ji, 22:9b-10b. Huo gives the Liang native place as Lezhu 勒竹, near Chencun.

27) [Nanhai] Pangshi zupu 龐氏族譜, 1932, 2:23a-b, 7:85a.

28) [Shunde Shuiteng] Deng Yongxitang zupu 鄧永錫堂族譜, 瓜陵圖:25a, 世系考:52a-b; Dongan xian zhi, 1740, 3:32a; Guangxi tong zhi, 1733, 55:38b; Shunde Longjiang xiang zhi 順德龍江鄉志, 2:11a-b. The genealogy claims that Wendong's friend was named "Longmen 龍門," but this was actually the alternative name of Deng Shaoyu.

29) [Dongguan] Zhangshi zupu, 1922, 14:齊卿公派:14a-b, 16a, 22:50a; Dongguan xian zhi, 1911, 47:12b; Dongan xian zhi, 1740, 3:42a.

the Dongan school who was fortunate enough to have been transferred (*gai* 改) to the Guangzhou prefectural school.<sup>31)</sup> This was likely one of the most desirable outcomes of the migrant student strategy. Cases for which there is sufficient information suggest that most of the students who won gentry status via the Dongan and Xining schools did not settle permanently in the new counties. One of the seven Xining *juren* during the Ming, Cen Zhibao (1589-1640), went on to become Xining's only *jinshi* until the late nineteenth century. When Cen retired, he chose the comforts of Guangzhou city over the frontier town of Xining.<sup>32)</sup> Similarly, Dongan County's most famous examinee in the early Qing was the 1685 *jinshi* Li Chaoding 李朝鼎. Dongan gazetteer editors portray Li as a Dongan native who as a youth had resided in the delta's Xinhui county (*shao ju Xinhui* 少居新會). Yet, in the tables of degree-winners, Li is listed as a Xinhui native who merely was registered in Dongan (*you Xinhui ruji* 由新會入籍). After a brief stint in the Hanlin Academy, Li retired to Guangdong, where he spent at least enough time in Dongan to contribute to the compilation of a gazetteer sometime before 1692.<sup>33)</sup> In contrast, delta sources describe Li as a Xinhui man who during his youth "lodged" (*shao guanyu Dongan* 少館於東安) in Dongan and entered the county school there: after retiring from the civil service, they emphasize, Li returned to Xinhui and dwelled there for the next thirty years.<sup>34)</sup>

### Horizontal Mobility in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s

The practices of these migrant students in Dongan and Xining bring into sharp focus a much broader phenomenon over span of time and space. Beginning earlier, but becoming quite noticeable in the Wanli era, the physical movement of students between locales at the same level in the administrative and examination hierarchy emerged as a common practice among Cantonese families. Migration for purposes of gaining entrance into a government school became a widespread strategy for socioeconomic advancement. The vertical movement of ascending the "ladder of success," in other words, often entailed horizontal movement between delta and upriver locales. Among Cantonese families, the highest rates of horizontal mobility were achieved in the early Qing, but these practices continued to be important until the abolition of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s in 1905.<sup>35)</sup>

30) [Nanhai] Shangyuan Huoshi zupu 上園霍氏族譜, 1868, 2:70a-71a. Huapeng's title is given as "按察司檢較," which is probably Proofreader (檢校) in the Provincial Surveillance Commission. See Charles O. Hucker, *A Dictionary of Official Titles in Imperial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5), p. 146.

31) Shangyuan Huoshi zupu, 1868, 2:101b.

32) For some less prestigious descendants of Cen, Xining still presented opportunities: they established themselves as one of the leading families of the town, trumpeting their connections to the *jinshi* who chose not to reside there. [Yu'nan Jiancheng] Cen genealogy, untitled, unpaginated: fieldnotes, Xiongzheng street, Jiancheng, Yu'nan county, Yunfu municipality, 7/19/2006: Xining xian zhi, 1830, 9:1b-2a, 11b; Shunde xian zhi, 1674, 6:2a-b.

33) Dongan xian zhi, 1823/1934, 2:36b, 3:24b, 3:40a. A Xinhui gazetteer states that Li Chaoding was a native of Xiaotang 小塘 in Xinhui but that he advanced through the Dongan school. Xinhui xian zhi 新會縣志, 1841, 6:9b.

34) [Xinhui] Yunbu Lishi zongpu 雲步李氏宗譜, 1928, 8:20b-21a; Xinhui xian zhi, 1841, 6:9b, 48b.

35) This wonderful metaphor of course comes from Ho Ping-ti, *The Ladder of Success in Imperial China*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2).

*Numbers and Destinations*

A brief survey of student migration patterns in select delta counties gives a sense of how common a practice this horizontal movement became by the Kangxi era. Discrepancies, arising as often from students' obfuscation as from editors' negligence, mean that the statistics provided here cannot be taken as absolutely precise. But any confusion behind the numbers only further illustrates the argument, that shifting household and hence school registration was a widespread practice. Of 142 *juren* that Nanhai County claims for the Kangxi era, only some 53 were Nanhai natives who won their degrees as students in the Nanhai school. Another 33 were Nanhai natives who won their degrees as students registered in other delta counties, 17 were Nanhai natives registered in Guangdong places outside the delta (including Dongan and Xining), and 5 were Nanhai natives registered in Guangxi counties. Finally, over 30 were natives of other delta counties, most commonly Shunde, who were registered in the Nanhai County school.<sup>36)</sup> Similarly, during the Kangxi era 61 Xinhui natives won *juren* degrees as students in the Xinhui school, while 43 Xinhui men did so as registered students in outside schools. As was the case with Nanhai, these outside schools included places in the delta, other counties and departments in the western half of Guangdong, and a few in Guangxi. At least nine outsiders won *juren* degrees via the Xinhui school.<sup>37)</sup>

Statistics for *suigong* are even more revealing. Among Shunde *suigong* in the Kangxi era, 105 attained this status in the Shunde school compared to 140 via outside registration.<sup>38)</sup> Numbers of Xinhui *suigong* in the Kangxi era are even more skewed: 149 via outside registration, compared to a mere 37 via Xinhui registration. Of these outside places, 20 were in the central, northern and eastern delta, all lying within Guangzhou prefecture; 24 were in western delta areas within Guangzhou and Zhaoqing prefectures; 38 were in the West River corridor, beyond Lingyang Gorge; 50 were in southwestern coastal Guangdong; 13 were in northwestern mountainous Guangdong, 1 was in the north-central Guangdong mountains, and 2 were in Guangxi.<sup>39)</sup> Analyses of lower units of administration yield similar numbers. Nanhai's Jiujiang township produced 90 *juren* in the Qing up to the time of publication of the township gazetteer in 1883; the tenth *juren* during the dynasty, in 1705, was the first via the Nanhai school.<sup>40)</sup> The Dongguan Zhang genealogy lists a total of 17 *suigong* from the Kangxi through Qianlong reigns; 14 are via schools other than Dongguan County or Guangzhou Prefecture.<sup>41)</sup>

Aside from other delta counties, most destinations were departments and counties in the western half of Guangdong. As exemplified by the pattern of Xinhui *suigong*, among Guangdong destinations outside the Pearl River delta, the most common were in southwestern coastal Guangdong, northwestern montane Guangdong, and along the West

36) A different pattern emerges in the Qianlong era: of 163 in *juren*, 152 were registered in Nanhai. Nanhai xian zhi 南海縣志, 1835/1869, juan 21. Ho Ping-ti applies a similar analysis to Anhui's Huizhou Prefecture. See Ho, The Ladder of Success in Imperial China, p. 234.

37) Xinhui xian zhi, 1841, 6:45b-53a.

38) Shunde xian zhi, 1853, 11:23a-37b.

39) Xinhui xian zhi, 1841, 6:45b-63b.

40) Jiujiang Rulin xiang zhi 九江儒林鄉志, 10:34b.

41) [Dongguan] Zhangshi zupu, 1922, 22:50a-b.

River corridor. Regarding the latter, aside from Dongan and Xining, another major draw was Fengchuan County, on the north side of the river on the Guangxi border. In terms of examination degrees, Fengchuan was not a powerhouse. During the Qing, no students in the county school passed the provincial examinations until 1696, when a Xinhui (later Heshan) native and a Nanhai native won the *juren* degree. In the next provincial examination, 1699, this upriver county suddenly produced four *juren*. At least three of them were delta men: two Shunde natives and a Nanhai native. After a two-decade dry spell, the county finally produced another *juren* in 1720, this time a Panyu native.<sup>42)</sup> Delta genealogies list numerous examples of lineage members who gained at least *shengyuan* status through the Fengchuan County school. An early example is a member of the Shitou Huo lineage who lived in the sixteenth century.<sup>43)</sup> As for the early Qing, an 1848 genealogy of a Huo lineage in Foshan includes two men in the seventeenth generation listed as having achieved *suigong* status as students in the Fengchuan school, one of them in 1690. In the next generation, two brothers were students in upriver schools, one a civil student in Fengchuan and the other a military student across the river in Xining.<sup>44)</sup> In the early eighteenth century, two cousins from a Liang lineage based near Xiqiao Mountain, Nanhai, became students in the Fengchuan school.<sup>45)</sup>

While the most popular destinations for migrant Cantonese students were within the province, ideally within the prefecture, places beyond Guangdong offered yet another alternative. Almost all Cantonese who registered in places outside their own province did so in Guangxi. This phenomenon was common enough by the early 1820s to elicit comment from editors of the Guangdong provincial gazetteer: “The practice of Guangdong scholars winning provincial degrees via Guangxi [during the Qing] began with Shunde native Mo Ying 莫英 in 1666. Since then, successive examinations have had many such cases, but Shunde natives are especially numerous.”<sup>46)</sup> The editors go on to discuss the most recent case, a Daliang man who passed the Guangxi provincial examinations in 1819 as a registered resident of Taiping Prefecture. What the editors perceived can be seen in the tables of degree winners in the 1879 gazetteer of Guangzhou Prefecture (which of course omits migrant students from prefectures like Zhaoqing and Huizhou). The tables indicate that two prefecture natives won the *juren* via Guangxi in the fifteenth century, fourteen in the sixteenth century, twenty-three in the sixteenth century, forty-seven in the eighteenth century (with a particularly heavy concentration in the 1720s and 1730s), and thirty-seven in the nineteenth century up to 1873. Although these figures lack precision by excluding some native sons who won degrees in Guangxi and including some second- or even third-generation descendants of Guangxi migrants, they do illustrate the trajectory of Cantonese examination migration.<sup>47)</sup>

42) *Fengchuan xian zhi* 封川縣志, p. 145 (p. 173). One of the 1696 *juren*, Liang Yuanjie 梁元捷, is not indicated as an outsider in the Fengchuan gazetteer but is claimed by the 1872 Nanhai gazetteer. *Nanhai xian zhi*, 1872, 9:18a.

43) [Nanhai] Shitou Huoshi zupu, 1:29b.

44) [Nanhai Foshan] Huoshi zupu, 1848, 4:10b, 34a, 5:43b-44a; Fengchuan xian zhi, p. 156 (p. 184).

45) [Nanhai] Liangshi jiapu 梁氏家譜, 1896, 1:8a-9b, somewhere between 1:14b and 1:16a; Liangshi jiapu wenji 梁氏家譜文集, 3:61a-b. For other Qing-era examples from Nanhai, Shunde, and Dongguan genealogies, see Nanhai Shencun Caishi jiapu, 1875, 10:40b; [Shunde Maqi] Chenshi zupu 陳氏族譜 1923, 4:7b-8a; [Dongguan] Zhangshi zupu, 22:50a; Fengchuan xian zhi, p. 157 (p. 185).

46) Guangdong tong zhi 廣東通志, 1822, 331:43a.

Given the competitive nature of provincial examinations, with between one and two per cent of examinees passing Guangxi examinations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many more Cantonese won entrance into upriver county and department schools than passed the examinations.<sup>48)</sup> Scattered references in delta gazetteers and genealogies tend to confirm this impression. Among other examples, a genealogy of one of the Guan lineages in Jiujiang lists a member in a generation active in the nineteenth century as a student in the Cangwu County school.<sup>49)</sup> Further upriver, three members in one branch of the Dongguan Zhang lineage active near the turn of the eighteenth century became *shengyuan* in Guangxi schools, at least two of them in the Liuzhou Prefecture school.<sup>50)</sup> On the western Guangxi frontier, two members of separate branches of the Cai lineage near Foshan became students, one a stipendiary and one a supplementary student, in the Xilong Department school in the early eighteenth century.<sup>51)</sup> Outside Guangxi, but still within the upper West River system, during the Daoguang era two Longshan natives became *suigong* in the southwestern Guizhou prefecture of Xingyi. Given that Longshan men had been migrating to Xilong since the mid eighteenth century, Xingyi Prefecture, located just across the Guizhou-Guangxi border, might have been a logical next step.<sup>52)</sup>

### *Gaming the System*

Why were so many men so willing to go so far from home, often to what the state had formally designated as miasmatic jurisdictions? Working one's way through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s system involved a lot of physical mobility, not merely vertically from county seat, to prefectural seat, to provincial capital, to imperial capital, but for many Cantonese also horizontally among different units at the same administrative level. Cantonese recognized migration for examinations as a challenge, as reflected in the three tales that open this paper. Writers imagined migrant students who survived upriver trips as a hardy breed. Editors of a Dongguan genealogy, for instance, describe one of their kin who lived at the turn of the eighteenth century as "not shirking from toil," going to eastern Guangxi's He County to take licensing examinations and winning *shengyuan* status.<sup>53)</sup>

Even while celebrating the solitary young man traveling afar to win gentry status, this was clearly part of a family strategy for socioeconomic advancement. This was certainly the case for the sons of a Foshan man surnamed Lao 勞. Two of the sons, born in the 1650s, became *suigong* in Fengchuan County. Two other sons, born in the 1660s, also achieved *suigong* status, one through a county school in Qiongzhou Prefecture

47) Guangzhou fu zhi 廣州府志, 1879, juan 35-40, 42-46.

48) Benjamin A. Elman, *A Cultural History of Civil Examinations in Late Imperial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p. 664.

49) [Nanhai Jiujiang] Guan Shudetang jiapu 關樹德堂家譜, 9:92a, 11:37a, 14:6a.

50) [Dongguan] Zhangshi zupu, 9:彥瑜公派:21a, 23:10a.

51) Nanhai Shencun Caishi jiapu 南海深村蔡氏家譜, 1875, 1:81a-b, 11:28a, 12:14a-b, 19:28a.

52) Xingyi fu zhi 興義府志, 1854, 49:57a-b. One of these two men, Feng Fengyao 馮奉堯, is listed in the 1853 Shunde and 1930 Longshan gazetteers as a Kangxi-era *suigong*; however, the 1804 Longshan gazetteer does not include his name. Shunde xian zhi, 1853, 11:79a; Longshan xiang zhi 龍山鄉志, 1930, 10:9b-10a; Longshan xiang zhi 龍山鄉志, 1804, 7:9b-11a.

53) [Dongguan] Zhangshi zupu, 9:彥瑜公派:22b

(modern-day Hainan) and the other through the Guangning County school northwest of the delta. The youngest son, born in 1673, became an added student (*zengsheng* 增生) in the northwestern Guangdong county of Lianshan.<sup>54</sup> While the role of the father in assigning destinations to his sons is not indicated in the Lao genealogy, other sources do point to this. In the early eighteenth century, a Dongguan man who had become a *shengyuan* in his native county school and then had made a fortune in business spent a large sum of money to obtain residential registration in the northern Guangzhou county of Hua for his sons and nephews in order to “broaden their route through the examinations” (*chang fei zicai kai Huaxian ji wei zizhi guang shilu* 嘗費賞財開花縣籍為子姪廣試路).<sup>55</sup>

The extent to which successful navigation of the civil examinations might require a high degree of horizontal mobility is seen in the memoir of Nanhai native Guan Yongxiang 關用相. After describing his early education, Guan recalls that:

Between twelve and fourteen, I ... studied under my uncle Jizhi 濟之. At sixteen I first took the apprentice examination. At seventeen, in 1636, I followed Uncle Ji[zhi] to lodge in the Advance to Officialdom Hall at Two Memorial Arches [in the city of Guangzhou], and was able to have occasional discussions with Uncle Jiang'an 絳菴, (1642 *juren*). In both the examinations of this year and those of 1637, I did not pass. In the winter of 1638, I followed Uncle Ji[zhi] to Dongan [County] to take the examinations. I ranked seventh in the county and was forwarded to the department, but [there] once again failed. By the time I returned home, it was already the twenty-ninth day of the last month. On the seventh day of the first month of 1639, I went to the provincial [capital], but by then the county and prefectural examinations had all concluded. In Xinhui [County], however, the results were delayed. So, I purchased a name, Li Xuanzhong 李選中 (literally Li “Selected to Pass”), and thereby was able to participate in the prefectural examination: ...when the results were announced, I was ranked in thirteenth place, and forwarded to the final licensing examination...<sup>56</sup>

Guan went on to pass the final licensing examination in the prefectural capital, and thereby earned *shengyuan* status in the school of a neighboring county in Guangzhou prefecture, Xinhui, under a false name that he had purchased.

Whereas Guan Yongxiang would not necessarily have had a better chance at passing lower level examinations in Xinhui than he would in any other core county of Guangzhou Prefecture, examinations in a place like Dongan County must have been less competitive. No extant figures indicate the precise number of apprentice students that might seek entrance into a county school in the West River basin in any given year. Moreover, the scattered references that do exist are often found in documents that might underestimate the number of students in a county in order to stress the need for official attention to education or exaggerate numbers in order to celebrate the flourishing of local culture or

54) [Nanhai] Laoshi zupu 勞氏族譜, 1868, 1:81b-83b; Fengchuan xian zhi, p. 156 (p. 184).

55) [Dongguan] Zhangshi zupu, 1922, 9:彥瑜公派:51a-52a.

56) Nanhai Jili Xiaqiao Guan Shudetang jiapu 南海吉利下橋關樹德堂家譜, 1889, 3:3a.

make a case for preventing outsiders from gaining entrance into a school. Nevertheless, anecdotal evidence suggests that there were simply more men qualified to sit for lower-level civil service examinations in Guangzhou counties than there were in Guangxi counties, at least Guangxi counties outside Guilin Prefecture. Taking Dongguan as a typical core delta county, one account states that in the early 1720s no less than 3,000 candidates sat for county examinations. Among Guangxi counties and departments, high-end estimates are found in Republican-era recollections of the nineteenth century that over a thousand apprentice students sat for examinations in Hengzhou, more than 1,100 in Teng County, and upwards of 1,600 in Guiping County. On the low end, a Wuxuan County magistrate in the early 1750s, noting poor attendance compared to other counties in Xunzhou Prefecture, observed that during his term in office numbers of students sitting for county examinations had risen from thirty or forty to sixty or seventy. A local history of Longzhou produced in 1803 states that “several tens of students” sat for qualifying and licensing examinations in the department. In between these extremes, editors of a 1933 gazetteer state that, before the mid-nineteenth century, some 500 civil apprentice students showed up for Yongkang Department licensing and qualifying examinations.<sup>57)</sup>

As we have seen in the case of the Dongan and Xining examinees, many Cantonese students who entered upriver schools in order to work their way through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system never intended to settle upriver. For many, the ideal result after gaining entrance into an upriver school might have been a transfer back to the school in their home county. This happened even within the delta. For example, a Nanhai literatus born in 1702 who in 1726 became a *shengyuan* in the Shunde school was two years later transferred back (*bogui* 撥歸) to the Nanhai school.<sup>58)</sup> Cantonese in upriver schools had more incentive to seek reassignment to a delta school. This might even occur after more than a generation of upriver residence. The 1853 Shunde gazetteer contains a biography of “Shunde Henggang 橫岡 native” Wu Yinyu 伍尹遇. This man’s ancestors “from his father and above” had all had residential registration in Guangxi. His grandfather was a 1717 *bagong* under Laibin County registration, although the Shunde gazetteer claims him as a native son; Yinyu’s father was a tribute student under Laibin registration. Wu Yinyu was the first in the family to be transferred back to his [original] place of registration (*bo hui ji* 撥回籍) and he became a student in the Shunde school.<sup>59)</sup>

When Cantonese who had won civil service credentials in delta counties were assigned as education officials in upriver counties, or when as residents of upriver counties they had won civil service degrees and been assigned to delta counties, they were presented with more opportunities to game the system by benefitting neighbors and kin. Delta sources do not brazenly celebrate local sons in upriver education posts for helping their own through the exams. But the fact that one epitaph emphasizes the moral integrity of a delta

57) Dongguan xian zhi, 1911, 67:10a-b; Heng xian zhi 橫縣志, 1943, 7:4-5; Chen Sishu 陳思述, Guangxi Tengxian minqing 廣西藤縣民情, 1920, 7a; Guiping xian zhi 桂平縣志, 1920, 23:8a; Wuxuan xian zhi 武宣縣志, 1808, 15:33a-34a; Longzhou jilue 龍州紀略, 1803, 下:55a; Tongzheng xian zhi 同正縣志, 1933, 9:3b. For a discussion of provincial variation in juren quotas, see Zhang Jie 張杰, Qingdai keju jiazu 清代科舉家族 (Beijing: Shehui kexue wenxian chubanshe, 2003), pp. 36-37.

58) Feng Qianzhai xiansheng nianpu 馮潛齋先生年譜, 1911, reprinted in Beijing tushuguan cang zhenben nianpu congkan, volume 97 (Beijing: Beijing tushuguan chubanshe, 1999), 1a-4b.

59) Shunde xian zhi, 1853, 26:20a-b; Laibin xian zhi 來賓縣志, 1936, 附記 55-56 (pp. 663-64).

son for *not* doing so hints at the possibility that many in fact did. The epitaph, for Jiujiang native Guan Ji 關驥, notes that in 1622 he was appointed Guangxi Education Intendant. “Guangdong and Guangxi border on one another,” the author writes, “and many scholars from [Guan’s] native place acquired registration” (*xiang renshi duo zhanji* 鄉人士多占籍) in Guangxi. But Guan removed them from the registers, and many of the successful examinees in the 1624 (when no Cantonese migrants passed) and 1627 Guangxi examinations were students whose talents Guan had first recognized.<sup>60)</sup>

Cantonese literati also had opportunities to serve as examiners for Guangxi provincial examinations. On very rare occasions, they might be assigned as one of two chief examiners, for example a Dongguan native in 1528 and Shunde Longshan native Wen Rushi 溫汝适 in 1788.<sup>61)</sup> More commonly, and under less public scrutiny, Cantonese were hired as associate examiners. For example, two Nanhai natives served as associate examiners for the 1732 Guangxi provincial examinations. One was Jiujiang native Zeng Shilan 曾士蘭. In that year, one of his fellow Jiujiang natives, Feng Binggang 馮秉綱, passed the examination as a student in the Taiping Prefecture school.<sup>62)</sup> The other was the Nanhai native and successful Guangxi magistrate, He Mengyao 何夢瑤. He served as an associate examiner on at least four occasions, in 1732, 1738, 1741, and 1744.<sup>63)</sup> For the 1825 examination, one of the eight associate examiners was a Nanhai native serving as Gongcheng County magistrate.<sup>64)</sup>

#### *Turf Wars*

For individual Cantonese examinees and families, using the examinations as a tool for social climbing often meant cooperating with a wider set of people to act as members of a regional elite protecting shared interests. This entailed shielding the government school quotas in the delta from encroachment by outsiders while seeking to take advantage of opportunities in counties and departments outside the delta. Cantonese literati acted as a group when in the late Ming they accused a Fujianese literatus of winning the *juren* degree under fraudulent Guangdong residential registration (*mao Yue ji zhongshi* 冒粵籍中式). In the early 1750s Dongguan literati protested against outsiders, possibly “Hakkas,” fraudulently attaining local registration and sitting for examinations (*kemin zhanji maokao* 客民占籍冒考). Two decades later, Gaoming County literati protests against “Hakka” migrants from northeastern Guangdong sitting for examinations in Gaoming resulted in their transfer

60) Jiujiang Rulin xiang zhi, 7:21a-23a.

61) Dongguan xian zhi, 1911, 57:12a-b; Wen Rushi 溫汝适. *Xiexuezhai ji* 攜雪齋集, 1:37a-38a; Fashishan, et al, *Qing mi shu wen san zhong* 清秘述聞三種. In *Qingdai shiliao biji* 清代史料筆記. Beijing: Zhonghua shuju, 1982, 1997 reprint, pp. 163, 282, 671, 740, 752, and 978. Wen Rushi was one of only twelve Guangdong natives who served as examiners of provincial examinations during the Qianlong era. Wei Xiumei 魏秀梅. “Qingdai zhi xiangshi kaoguan” 清代之鄉試考官. in *Zhongyang yanjiuyuan jindaishi yanjiusuo jikan*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24.1 (1995), pp. 280-209.

62) Jiujiang Rulin xiang zhi, 10:39b-40a, 14:5b; Nanhai xian zhi, 1835/1869, 39:10b.

63) He Mengyao, *Jufangyuan shichao* 菊芳園詩抄, *鴻雪集*:3b-4a, 5a-b, 6a-b, 7b-8a; Nanhai xian zhi, 1835/1869, 39:15a. Other examples of Cantonese as associate examiners include a Nanhai native in the mid sixteenth century, a Chashan, Dongguan native in the early 1680s, another Dongguan native in 1720, and a Foshan, Nanhai, native in 1783 and 1789. Nanhai xian zhi, 1835/1869, 37:15a; Dongguan xian zhi, 1911, 65:13a, 15a-b; [Nanhai] *Shitou Huoshi zupu*, 6:13a-b.

64) The magistrate was Ni Jiyuan 倪濟遠. *Gesheng xiangshi tongnian chilu*: Daoguang wunian yiyou ke 各省鄉試同年齒錄: 道光五年乙酉科, 廣西short list:1a.

back to their original places of registration (*bo hui ji* 撥回籍).<sup>65</sup>

Another threat was posed by competitors from northern Zhejiang province. In 1723 a Hanlin Bachelor named Guan Chen 關陳(陳) submitted a memorial in which he advocated the abolition of “merchant registration” (*shangji* 商籍) in Guangdong. This category had been created to allow sons of salt merchants to gain entrance into schools where the merchants traded. Beginning in 1721 this policy was expanded to Guangdong. Guan complained that among twenty “merchant” students entered into Guangdong schools in the previous year’s licensing examinations in various Guangdong locales, some of them had already been entered into schools in their original place of registration outside Guangdong or had purchased *jiansheng* status, but then because their fathers, older brothers, or other relatives had come to Guangdong as officials, they followed along and falsified their names in order to sit for examinations. Others, Guan asserted, came to Guangdong as private secretaries and fraudulently sat for examinations by assuming another person’s name (*dingming maokao* 頂名冒考). Guan then listed the examinees guilty of this practice: most were from the northern Zhejiang prefecture of Shaoxing.<sup>66</sup>

In drawing imperial attention to the malpractices of sojourning merchants in Guangdong, and more broadly by trying to protect delta turf for Cantonese, Guan Chen inadvertently revealed some ways in which Cantonese manipulat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s. Two of the twenty guilty men that he listed were in fact Cantonese. For example, a Nanhai native surnamed Li fraudulently assumed the Feng surname and acquired merchant registration in Fengchuan County. The author of the memorial himself had manipulated the system. A 1715 *jinshi*, Guan Chen seems to have been a native of Nanhai who became a student in the Dongguan school. Moreover, like one of the immigrant merchants he attacked, his original surname was Zhou, not Guan.<sup>67</sup>

Upriver, particularly in Guangxi, Cantonese migrant students faced competition from other regional diasporas. Below we will see how this played out in the eighteenth century, but regional networks were already beginning to form in the Longqing era. In 1567, Nanhai native Guo Caihua 郭才華 passed the 1567 Guangxi provincial examinations as a student in the Sien Prefecture school. After having failed the metropolitan examinations once, in 1571 he tried his luck again. While the associate examiner recommended that Guo’s paper be passed, the chief examiner, Lingui County native Lü Tiaoyang 呂調陽, refused. Sensing that he would not pass the examinations in 1574, when Lü again served as chief examiner, or in 1577 and 1580, while Lü and his patron Zhang Juzheng were in power, Guo did not bother to travel to the capital.<sup>68</sup> Just as Guo Caihua may have ruffled the feathers of Guilin literati by passing the Guangxi provincial examinations in 1567, a small cohort of Fujianese drew unwanted attention by doing the same in 1570. In that year three of the

65) Xinhui xian zhi, 1841, 9:23a; Dongguan xian zhi, 1911, 68:10a; Gaoming xian zhi 高明縣志, 1894, 7:33a-41b.

66) *Yongzheng chao Hanwen zhupi zouzhe huibian* 雍正朝漢文硃批奏摺彙編, (First Historical Archives ed., published by Jiangsu guji chubanshe) volume 1, document 238 (pp. 325-328). On the influence of northern Zhejiang migrants in urban Guangzhou cultural circles, see Miles, *The Sea of Learning*, pp. 29-34, 104-105.

67) *Yongzheng chao Hanwen zhupi zouzhe huibian*, volume 1, document 238 (pp. 325-328); *Ming Qing jinshi timing lu suoyin* 明清進士題名錄索引, pp. 2260, 2686; Guangzhou fu zhi, 41:6a-b, 43:10a; I should try to find him in 1835/1869 Nanhai gaz juren list, juan 21, for info on him. I do not see him in 1911 Dongguan gazetteer.

68) [Nanhai Datong] *Xibian Guoshi zupu* 西邊郭氏族譜, 1871, unpaginated; *Ming shi*, pp. 1702-1703; Wang Shizhen 王世貞, *Yanshantang bieji* 弇山堂別集, 83:10b-12b; *Lingui xian zhi* 臨桂縣志, 1802/1880, 24:15a, 28:18a-b.

successful fifty-four candidates who passed the Guangxi provincial examinations were native sons of Jinjiang County. One of these men, Li Renchun 李任春, was like Guo a student registered in the Sien Prefecture school. These migrant students from Jinjiang may have been protected by another Jinjiang native, Lin Qiaoxiang 林喬相, who was serving as the Prefect of Nanning. At least, this is the accusation that Regional Inspector Li Liangchen made when he charged the student Li Renchun of fraudulent registration (*maoji* 冒籍). In this case, by the summer of 1572 the censor's accusations resulted in the revocation (*ge* 革) of Li Renchun's degree and his return to his place of registration, as well as Lin Qiaoxiang's punitive transfer.<sup>69)</sup>

### Traveling Teachers

In 1592 a literatus from Xuanhua County wrote that people in Guangxi occasionally study under travelers from Guangdong.<sup>70)</sup> As this observation suggests, just as upriver areas attracted migrant Cantonese students, so they drew Cantonese as teachers. In fact there was a degree of overlap between these two categories of peripatetic literati. The increasing prevalence of Cantonese migrants pursuing either occupation in Guangxi, whether "student" or "teacher," represented a kind of upriver extension of Cantonese influence and prestige.

Many Ming and Qing authors use the term *youxue* 遊學, consisting of characters meaning "roam" or "wander" and "study" or "school," to describe the activities of migrant Cantonese literati.<sup>71)</sup> For example, a Nanhai native born in 1609 "roamed to study in Guangxi" (*youxue Xiyue* 遊學西粵) in 1639.<sup>72)</sup> In the mid-eighteenth century, a *shengyuan* from the Mo lineage in Shatou, Nanhai, traveled for learning to Hengzhou and taught reading (*youxue Guangxi Hengzhou jiaodu* 遊學廣西橫州教讀).<sup>73)</sup> A native son of Xinhui, Zhang Pengyi 張鵬翼, passed the 1726 Guangxi provincial examinations as a student registered in the Zuozhou school under the surname Chen. For the metropolitan examinations, which he passed on his second try in 1730, he changed his surname back to Zhang. Before winning his degrees, Zhang had in 1724 roamed for study (*youxue*) in Hengzhou, where the magistrate hired him as a teacher in a local academy. Zhang thus "roamed" Guangxi as both "student" and "teacher."<sup>74)</sup>

69) *Ming shilu* 明實錄, Shenzong, 2:14a; *Jinjiang xian zhi* 晉江縣志, 1765, 8:39a, 9:49a; *Nanning fu zhi*, 1743, 26:7a. The 1733 Guangxi gazetteer lists one of the Jinjiang migrants as a Zhaoping native who won the degree in 1567, not 1570, while the Jinjiang gazetteer states that all three native sons won the Guangxi degree in 1570. In any case, the Guangxi gazetteer seems mistaken in identifying the school in which this student was registered, as Zhaoping County was not created until 1576. *Guangxi tong zhi*, 1733, 73:29b, 31b-32a.

70) *Chashan xiang zhi* 茶山鄉志, 1935, 9:33a-34b.

71) An early reference to 遊(游)學, is *Shiji* 史記, biography of 荀卿, p. 2348. In Qing, 1727, on duties of educational officials in schools: charged with testing students in monthly and seasonal examinations: 月課季考; students in dynastic schools to be rigorously tested according to this schedule, except those students who 丁憂, 患病, 遊學, and 有事故. *Qinding Da Qing huidian shili* 欽定大清會典事例, Jiaqing edition, *Jindai Zhongguo shiliao congkan sanbian*, 641-700. Taipei: Wenhai chubanshe, 1991, 306:2a.

72) [Nanhai Pingzhou] *Xijiang Xianshi zupu* 西江洗氏族譜, 1930, 4:38b-39a.

73) [Nanhai Shatou Moshi zupu] *Julu xianchengtang chongxiu jiapu*, 冊1:35a-37b, 冊2:9b.

74) *Heng xian zhi*, 1943, 8:30-31; *Xinhui xian zhi*, 1841, 6:10b, 65a; *Guangxi tong zhi*, 1733, 70:40b, 75:31b. The

In the decades surrounding the Ming-Qing transition, several Cantonese moved upriver, fleeing disorders, reinventing themselves as teachers, and cultivating the persona of mysterious recluse. One example is a 1642 *juren* from Nanhai, Hu Zhongkang 胡仲康. Hu was in Xunzhou Prefecture when his Guangzhou City home was destroyed in the Qing conquest. He then settled in a Xunzhou grotto, living amongst the mountain Yao. At some point he took the alternate name Fatherly Woodcutter of the Empty Hills and accepted aspiring local literati as students.<sup>75)</sup> Another example is Shunde native Gong Chongguang 龔重光. Upriver sources claim that Gong roamed for study (*youxue*) in Yongfu County. There, he was hired as a teacher by a Yongfu literatus who had become a tribute student in the last reign of the Ming. Gong left his mark by carving his calligraphy on the county seat's landmark Phoenix Hill before returning to Guangdong and passing the provincial examinations. If the Yongfu County sojourner Gong Chongguang is the same man as the Shunde literatus Gong Yinglin 龔應霖, then he won the degree in 1666.<sup>76)</sup> The historicity of another Cantonese upriver teacher is even more difficult to confirm. Upriver gazetteers record a certain Yin Bi 殷弼, described either as a Guangdong *juren* or as a Dongguan man who acquired Rong 融 County registration (*fuji* 復籍 sic). In any case, Yin Bi resided at the town of Chang'an in Rong County and taught many students.<sup>77)</sup>

Toward the end of the seventeenth century, after the disorders of the transition had largely abated, these mysterious recluses were replaced by migrant teachers who helped their students navigate the new dynasty's civil service examinations. A Daliang native surnamed Feng who had become a *shengyuan* in Xinhui and then passed the 1672 Guangdong provincial examinations under the surname "Zhang," was hired by a Cangwu County magistrate to "teach scholars" (*jiao shi* 教士). A Nanhai native born in 1669 is remembered simply for having gone to Guangxi to teach (*wang Xiyue jiaodu* 往粵西教讀). A Kangxi-era Shunde native was a teacher in Guangxi (*jiaoshou Guangxi* 教授廣西) known for using his income to aid others. A Gaoming *shengyuan* taught in Wuzhou (*youjiao yu Guangxi Wujun* 友教於廣西梧郡).<sup>78)</sup> In the eighteenth century, Shunde native He Riji 何日躋, took students in Wuzhou. In a parting poem, an uncle who had served as a private secretary in Guangxi referred to a common ancestor said to have served as a commandant at Zhaozhou (Pingle) and to have spawned a separate line of descendants upriver. He thus tried to comfort the migrant teacher He Riji with the idea that the "other" land to which he was journeying need not be seen as any different from their native land in the delta.<sup>79)</sup>

At different times in the eighteenth century, two men from Longshan "set up teaching" (*she jiao* 設教) in at the village of Taicun (臺村) outside the Wuxuan county seat.<sup>80)</sup> Because two of his students - the cousins Chen Xu 陳旭 and Chen Ren 陳仁 - went on to win *jinshi* degrees in 1733, much more is known about the first teacher, Ke Jiang 柯樞. Taicun was

Guangxi gazetteer mistakenly lists Pengyi as a Quanzhou native in its table of *juren*.

75) *Pingnan xian zhi* 平南縣志, 1835, 18:2a; *Guiping xian zhi*, 1920, 21:24a.

76) *Yongfu xian zhi* 永福縣志, 1828, 2:38b, 3:23a; *Shunde xian zhi*, 1674, 6:22b.

77) *Guangxi tong zhi*, 1733, 85:8b, 86:60b; *Sanjiang xian zhi* 三江縣志, 1946, 5:24a-b.

78) *Shunde xian zhi*, 1853, 25:15b, 55a; [Nanhai] *Shitou Huoshi zupu*, 3:30a; *Gaoming xian zhi*, 13:50a. "Youjiao" suggests that the teacher and student(s) interacted as social equals. e.g. Gui Youguang 《策問二十三道》

79) *Shunde xian zhi*, 1853, 25:15b, 55a; [Nanhai] *Shitou Huoshi zupu*, 3:30a; *Gaoming xian zhi*, 13:50a. "Youjiao" suggests that the teacher and student(s) interacted as social equals. e.g. Gui Youguang 《策問二十三道》

80) *Wuxuan xian zhi*, 1808, 13:11a-b.

dominated by the Chen lineage, which claimed descent from Hakka-speaking migrants from the mountains of northeastern Guangdong. The migrant ancestor is said to have settled Wuxuan in 1609, though a genealogy shows some kin continuing to arrive in Wuxuan in the early eighteenth century. A third-generation lineage member obtained wealth and local repute, and his offspring flourished. When Ke Jiang arrived in Taicun, likely in the 1720s, he taught this man's grandsons. According to Chen Ren, scholars in Xunzhou and Nanning prefectures competed to invite Ke as a teacher, but the Taicun Chens landed him. This was certainly a lineage with ambitions toward examination success: of fifty private donors (i.e., not county officials) for renovation of the Wuxuan County school in the late 1720s, fifteen were Chens, several of whom can be identified as Taicun Chens.<sup>81)</sup> Chen Ren's father wrote out the calligraphy to be engraved on the stele commemorating the project.<sup>82)</sup>

The preservation of information about Ke Jiang in the writings of Chen Ren and even in the Taicun Chen lineage hall today suggests the high level of prestige that Cantonese teachers enjoyed in this area of Guangxi, if not in Guilin. Ke Jiang, a somewhat marginal figure in Longshan histories, upriver becomes a great teacher. This example also shows that individuals in different regional or dialect diasporas could cooperate as well as compete. The Chens were part of what might be conceived of as a diaspora of Hakkas with a homeland in northeast Guangdong. In contrast to the riverine Cantonese diaspora, this was a transmontane diaspora stretching along the hills that lined the riverscape.<sup>83)</sup> Whereas in many instances during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Hakka and Cantonese were competitors, in Taicun the Chens and Ke Jiang arrived at a mutually beneficial exchange.

Ke Jiang was not the only migrant Cantonese teacher with a track record of cultivating upriver students who would succeed in provincial examinations. Shunde native Lin Shaolie 林紹烈 is another example. After becoming an added student of the school in Xinyi County, in western Guangdong just below the Guangxi border, Lin set up teaching in Guangxi (*shejiao Xiyue* 設教西粵), based primarily in Beiliu County. The most prominent of his students was Pang Yu 龐嶼 of Luchuan County, also in Yulin Department but beyond the drainage of the West River basin. Pang won the *juren* degree in 1726 before serving as a magistrate in several delta counties.<sup>84)</sup> Such success is how some Qing officials envisioned

81) *Chenshi zupu* 陳氏族譜, or *Wuxuan Yuanlong gong pudie* 武宣元隆公譜牒. This is a 1999 manuscript copy of an untitled, very tattered, 1809 printed edition, part of which I was able to view in Taicun. Fang Bao 方苞. *Fang Wangxi quanji* 方望溪全集 (Taipei: Shijie shuju, 1960), pp. 176-177; fieldnotes, Taicun, June 27, 2012; Chen Ren. *Yongzhuzhai shiwen ji* 用拙齋詩文集, unpaginated manuscript; Guilin library, prose, *juan 2*; *Xunzhou fu zhi* 潯州府志, 1874, 21:49a-b; *Longshan xiang zhi*, 1804, 7:5b. Chen Ren was born in 1706; in an epitaph for his teacher Ke Jiang, here calls that he had studied writing as a youth but that by the time he was an adult he still had not learned anything of real value until he met Ke. Chen would have studied under Ke before Chen and his cousin won *juren* degrees in 1732. "Huang Qing gaoshou zhongxian daifu Hubei duliang dao Chengong mu" 皇清誥授中憲大夫湖北督糧道體齋陳公墓, December 31, 1810, Chen lineage hall, Taicun, Wuxuan, Guangxi; Chen Ren, *Yongzhuzhai shiwen ji*, prose, *juan 2*.

82) ["Xingxiu Wuxuan xianxue ji" 興修武宣縣學記], 1732. Wenmiao, Wuxuan, Guangxi. The title on the stele is missing; I here use the title on the version of this stele recorded in the 1808 Wuxuan gazetteer. The gazetteer version omits names of patrons.

83) Sow-theng Leong, *Migration and Ethnicity in Chinese history: Hakkas, Pengmin, and Their Neighbor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7), pp. 57-62; Cynthia J. Brokaw, *Commerce in Culture: The Sibao Book Trade in the Qing and Republican Period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pp. 211-215.

84) [Shunde] *Wenhai Linshi jiapu* 文海林氏家譜, [pub date], 2:34b-35a, 37a-b, 5:26a-28b; *Shunde xian zhi*, 1853, 25:51b);

the role of migrant teachers, as agents in the process of civilizing the frontier.

### Opposition to Student Migration

Cantonese migrant students, whether within the delta, in western Guangdong, or in Guangxi, had to weigh the advantages of a migrant strategy against the risk of attack by resentful local elites and of punishment by wary state officials. As common a practice as it was, registering as a resident even of a neighboring county in the delta could incur the wrath of competing local elites, as seen in the experience of one of two brothers from Chashan, Dongguan. The older brother, Huang Zhiqiu 黃之球, at the age of capping became a *shengyuan* through registration in the Zengcheng County school, and this propelled him to passing the Guangdong provincial examinations in 1726. His much younger brother, Huang Zhiqi 黃之琪, in 1751 “occupied” or “usurped” (*zhan* 佔) first place in the county examinations in Zengcheng, north of Dongguan across the East River. When Zengcheng literati raised a great ruckus about this, he returned to Chashan. Undeterred, in the following year, now under Dongguan County registration, he placed first in the prefectural examinations and became a Dongguan County student.<sup>85)</sup>

Migrant examinees also faced pressures from what became under the Yongzheng Emperor an increasingly watchful state. In 1728 the Board of Rites singled out the Guangdong prefectures of Guangzhou and Chaozhou as problematic jurisdictions for government schools and examinations. “Many students fraudulently mix neighboring prefectures and counties to gain entrance to a school. After apprentice students are entered [into a school and achieve *shengyuan* status], they return to their original places of registration and school officials never see their faces.” Students guilty of doing this were given two months to come forward without suffering repercussions.<sup>86)</sup> Five years later the Board, again targeting practices in Guangdong, identified the related problem of education officials who earned credentials in the civil examinations as registered residents of outside counties being assigned to schools in their home counties. Those who did not step forward to report themselves would be cashiered and punished. In 1734 the emperor approved a Board proposal, stemming from a memorial by the Guangdong lieutenant-governor, to punish such education officials under the fraudulent registration (*maoji*) statute.<sup>87)</sup> This did stem solely from officials’ paranoia. As early as 1670 a Dongguan native who had earned a *juren* degree under Xining County registration was appointed to Dongguan.<sup>88)</sup> At roughly the same time, according to Shatou Mo genealogical records, the annual tribute student through the Xining County school, Mo Guangdou, twice served as acting school director of his own Nanhai County.<sup>89)</sup>

*Luchuan xian zhi* 陸川縣志, 1924, 13:10a-b, 16:18b-19a.

85) *Dongguan xian zhi*, 1911, 68:5a-b.

86) This passage begins by identifying the malpractice of “*tongkao*” 通考. *Qinding xuezheng quanshu* 欽定學政全書, 30:4b; also at *Qinding Daqing huidian shili*, 313:6a-b.

87) *Qinding xuezheng quanshu* 欽定學政全書, 30:8b-9a; *Qing shilu* 清實錄, Shizong, 149:19b-20a.

88) *Dongguan xian zhi*, 1911, 42:22a, 65:4b.

89) [Nanhai Shatou Moshi] *Julu xianchengtang chongxiu jiapu*, 冊1:16b (Mo not listed in 1879 GZFF; I need to confirm

Both of these cases represent types of opposition to Cantonese student migration. Let us look in more detail at other instances: editorial practice among compilers of delta gazetteers, the elimination of a category of examinee that had served as a loophole for migrant Cantonese students in Xining County, and criticism of how migrant students subverted frontier policy in the upper West River basin.

#### *Editorial Practice*

The magistrate who began compilation of the Conghua County gazetteer in the early 1690s took a particularly active editorial role. In a preface (*yin* 引) that he wrote for the tables of degree winners, the magistrate observed that:

Although Conghua is a small county, in the late Ming some recommended gentry rose to the highest office, but nothing like this has been heard of in the several decades of the present dynasty. When I asked the reason for this, I found out that seventy percent of those sitting for qualifying and licensing examinations were fraudulently registered people. Even more riling, stipended students are funded by the standard tax, so that the fat of Conghua commoners fills the bellies of other counties' scholars!<sup>90</sup>

In the tables themselves, the magistrate created separate categories for migrant students. Among those who passed metropolitan examinations during the Ming, for example, Li Minzhong 黎民衷 is listed under the category of “Ming-era *jinshi*,” while the Nanhai men Chen Xi 陳錫 and Chen Shaoru 陳紹儒 are listed as “outsider *jinshi*” (*waiji jinshi* 外籍進士). Ming and Qing *juren* are similarly categorized, and it is clear to the gazetteer's readers that nearly half of the county's *juren* were in fact outsiders.<sup>91</sup> The magistrate's editors were also creative with biographical categories. Thus, the brothers Li Minzhong and Li Minbiao 黎民表 are grouped together with their father and other relatives in the “Collective Biographies of the Li Surname” while accounts of Chen Xi and Chen Shaoru are found in the “Outsider Biographies of the Chen Surname.” The magistrate appends a discourse to this last collective biography, explaining why he designates the Chens as outsiders. In short, they are not Conghua men, but they deserve to be included in the gazetteer because when Conghua was first created out of northern Panyu, no one lived in the county. So Ming-era Guangdong education intendants had “selected from among the younger brothers and sons of Guangzhou's scholars those with outstanding writing and conduct, and entered them into the Cong[hua] school in order to encourage [local] *shengyuan*.” But here again the magistrate targets outsiders, even while praising the Chens. “Nevertheless, ever since the Chen surname acquired [Conghua] registration (*tongji* 通籍), scholars in Guangzhou counties used this as a pretext and have in fact followed the path of fraudulent registration (*shi yi dao maolan zhi jie yan* 實以蹈冒濫之階焉).<sup>92</sup>

in a Nanhai gazetteer).

90) *Conghua xian zhi* 1710/1730, 3:1a-b. The magistrate left his post in 1694; work on the gazetteer continued after he left his post, and it was finally published in 1730. But his voice is retained in the gazetteer.

91) *Conghua xian zhi*, 3:2b-6b. Probably just over half were outsiders, as Panyu claims several of the Conghua *juren*. *Panyu xian zhi*, 1871, 11:18a-50b.

*Local and Appended Students in Xining County*

Like his colleague in Conghua, an early Qing Xining County magistrate was exasperated by migrant students from such places as Nanhai filling student rolls in the relatively disadvantaged county over which he was presiding. Xining's problem stemmed from a frontier policy put in place soon after the county was created in 1577. Some two decades after its founding, the county had two separate categories of students seeking admission into the county school, local (*tuzhu* 土著) and those "appended" or "attached" to Xining registration (*fujū* 附籍). As we have seen, Cantonese, presumably under the latter category, accounted for most of Xining's provincial graduates and tribute students well into the Qing. The problem from the point of view of Xining magistrates and truly "local" elites was that the "attached" students did not typically show any attachment to Xining. As early as 1636, in an essay commemorating the construction of a new academy, one magistrate complained that literati were so rare in the county because so many of them gathered from other counties and "left after winning their degrees" (*de shou ze qu* 得售則去).<sup>93)</sup>

Local Xining gentry seemed content as long as some slots in the county school were reserved for them. But even these were in danger of being lost after the Ming-Qing transition. Beginning in 1668, Ou Mengxian 區孟賢 and other local gentry pressed county authorities to revive the old Ming practice of maintaining the local and appended as two separate categories while evenly dividing the county's quota of new *shengyuan* between them. In making this request, local gentry stressed that Xining families had fled the county during the recent disorders, and that, before locals could resettle in Xining after peace was restored, outsiders had under fraudulent registration already rushed in to fill the available slots. In the county examination of 1657, for example, with a quota of nine new students to be entered into the Xining school, only one local - Ou Mengxian himself - was included. By the 1660s, the local-appended distinction was regularly ignored, allowing outsiders in Xining under fraudulent registration to fill the entire quota at each county examination. Ou and his fellow Xining gentry now pressed the magistrate to revive the old distinction and thereby ensure that at least some locals could enter the county school; otherwise Xining would not stand a chance in competing with the five big counties of Guangzhou Prefecture (*Guang shu zhi wu da xian* 廣屬之五大縣), likely referring to Nanhai, Panyu, Shunde, Dongguan, and Xinhui.<sup>94)</sup>

Another Xining magistrate, together with the Guangdong education commissioner, revisited this issue in the 1680s. While reaffirming the local-appended distinction and trying to preserve a balance between the two, officials sought to enforce the requirement that those with appended registration both own property in Xining and maintain long-term residence here. They echoed the 1636 complaint that migrant students rarely set foot in Xining after passing the county examinations. By 1708 yet another magistrate advocated a new approach. First, he argued that with five- to six-hundred apprentice students sitting

<sup>92)</sup> *Conghua xian zhi* 從化縣志, 1710/1730, 3:85a-b.

<sup>93)</sup> *Xining xian zhi*, 1830, 10:5b.

<sup>94)</sup> *Xining xian zhi* 西寧縣志, 1718, 10:63a-66b.

for each county examination the quota of eight (recently reduced from nine) admitted to the county school could hardly accommodate the locals, let alone the number of worthy students if outsiders were included. In other words, this old Ming frontier policy had been so effective in nurturing a local Xining elite that it had outlived its usefulness. Moreover, maintaining the “appended” category in recent times had only resulted in “outsiders purchasing land in Xining one year for the purpose of taking examinations the next year, and a single person buying land so that his entire lineage can register for the examinations.” The time had come, the magistrate asserted, to eliminate this category once and for all. The education commissioner approved.<sup>95)</sup>

For this Xining magistrate, the “appended” category was the source of obfuscation in county household and examination records. Simply eliminate this outmoded loophole, and names would be rectified, clarity restored. But things could never be as clear as this magistrate imagined. The local gentry leader who pushed for protecting local slots, Ou Mengxian, was not after all unambiguously local. His original place of registration was the township of Chaolian, on the banks of the West River in Xinhui County. Editors of a later edition of the Xining gazetteer admit this when they list Ou as a 1666 *juren* from Xining but originally of Xinhui registration.<sup>96)</sup>

#### *Frontier Policy and Migrant Students in the Upper West River Basin*

he creation of schools was an integral part of imperial policy on the frontier of the upper West River basin. During the Kangxi reign, the Qing state expanded Ming policies of educating the sons of native chieftains. In 1666 the Guangdong–Guangxi governor-general argued that the source of infighting among native chieftains was due to backward customs: he proposed that sons and younger brothers of native chieftains be allowed to sit for examinations in regular prefectures and counties neighboring their native jurisdictions. A special quota of two would be set aside in these prefecture and county schools. Two decades later, the Guangxi lieutenant-governor reiterated this approach, suggesting that the governor should order each native official willing to send sons and younger brothers to nearby prefectures, departments, and counties to study, and order the relevant education officials to accept them for instruction.<sup>97)</sup>

A thornier issue was maintaining slots for locals when schools were created in places recently converted from native to regular administration (*gaitu guiliu* 改土歸流). Most officials wished to foster local elites loyal to the state, but some officials believed the best way to do this in some frontier towns was to encourage, at least temporarily, immigration from internal areas already enjoying a great cultural florescence (at least as Qing officials and Han literati would have defined it). The trick was to do this without new frontier schools simply becoming conduits for temporary immigrants who had no intention of settling in frontier areas in order to uplift customs there. The Ming state had identified this as a problem in 1576. Referring to native departments and counties that had been

95) *Xining xian zhi*, 1718, 10:67b–75a.

96) *Xining xian zhi*, 1830, 9:5b, *Xinhui xian zhi*, 1841, 6:46a.

97) *Qing shilu*, Shengzu, 20:6b–7a, 125:3a–b. More broadly on this policy in the southwest, see John E. Herman, “Empire in the Southwest: Early Qing Reforms to the Native Chieftain System,” *Journal of Asian Studies* (1997), pp. 52–54, 59–60.

converted to regular administration in the provinces of Guangxi, Yunnan, and Sichuan, the state ordered education intendants to be vigilant about only allowing “locals” or “natives” (*tuzhu*) to sit for examinations there, and not to permit scholars and commoners from other places to enter the schools under fraudulent registration.<sup>98)</sup>

In the same year, a similar imperial command addressed this problem specifically in the southwestern Guangxi department of Yangli. This was in response to a 1575 request from the Yangli magistrate to establish a school. In conveying this request, Guangxi officials compared Yangli and nearby Zuozhou as two departments that had recently been converted from native to regular administration and subordinated to Taiping Prefecture. They pointed out that although Zuozhou was more remote and smaller than Yangli, the former already had a government school while the latter did not. In response, the Board of Rites approved the creation of a school in Yangli. But the Wanli court added an order that the education intendant should pay special attention to locals (*tuzhu*) while strictly prohibiting outsiders from using this opportunity to acquire residential registration (*fujū*) and become *shengyuan* in the new school, even at the risk of not filling the student quota.<sup>99)</sup> The following year a quota of seven stipendiaries and seven added students was created for Yangli. But Ming and later Qing administrators do not appear to have been vigilant enough in the case of Yangli. The 1694 gazetteer for Yangli Department contains a list of nine men who won the *juren* degree between 1579 and 1690. Only two are listed as having truly local registration (*benji* 本籍). For the other seven, editors note that their ancestral registration (*zujū* 祖籍) was in Guangdong; four of these seven were surnamed Yuan, and at least three of them were Nanhai men.<sup>100)</sup>

Migrant Cantonese filled other newly created schools in western Guangxi departments and counties that had been converted to regular administration. In 1684, the magistrate of Shangsi Department boasted that his renovation of the Literary Temple associated with the department school had already produced results. He pointed to the fact that in this year, just as the renovations were completed, a department school student named Ye Kaiyun 葉開運 had been listed as a *fubang* (second-class, or supplementary, *juren*) in the provincial examinations. “How could this not be,” the magistrate asked, “an auspicious sign of a burgeoning process of civilization resulting from renovation of the school?”<sup>101)</sup> As it turns out, Ye, who went on to win the *juren* degree in 1690, is claimed as a native son by Dongguan.<sup>102)</sup> Xilong Department was a more popular destination for migrant Cantonese. In 1711 the Qing state approved the Xilong magistrate’s request, forwarded by the Guangxi governor, that a department school be established, with six civil *shengyuan* to be entered

98) *Da Ming huidian* 大明會典, 78:3b-4a. This source reads 各處士民; another version of this document reads 他處士民.

See *Qinding xu wenxian tongkao* 欽定續文獻通考, SKQS edition, 50:28a. On civil examination quotas in frontier policy on Taiwan, see John Robert Shepherd, *Statecraft and Political Economy on the Taiwan Frontier, 1600-180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p. 209-213.

99) *Ming shilu*, Shenzong, 50:1b.

100) *Yangli zhou zhi* 養利州志, 17b-18a, UC edition 55a; *Guangzhou fu zhi*, 39:11b, 40:7b, 40:22a. On the category of “ancestral registration,” see Du Yongtao, “Locality, Identity, and Geography: Translocal Practices of Huizhou Merchants in Late Imperial Chin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2006, pp. 161-164.

101) *Shangsi zhou zhi* 上思州志, 1834, 19:25b-26a. Benjamin Elman states that the Ming practice of designating *fubang* was abolished in 1662 and not revived until the eighteenth century. Elman, *Cultural History*, p. 170.

102) *Dongguan xian zhi*, 1798, 25:9a; *Dongguan xian zhi*, 1911, 47:7a; *Guangzhou fu zhi*, 42:24a.

in each licensing and qualifying examination. After two decades, Xilong began to produce *juren*, all of them Cantonese: a Nanhai native in 1732, a Nanhai native and Xinhui native in 1735, and a Shunde native and a Xinhui native (the latter under a different surname) in 1736.<sup>103)</sup>

As in Xining County, Cantonese had an ambiguous position in frontier schools of the upper West River basin. Among several Cantonese who became students in the Yongkang Department school around the turn of the eighteenth century, the most successful was a Dongguan migrant named Lu Yuanfu 盧元復. He passed the Guangxi provincial examinations in 1696 and went on to serve as school director of He County, and the prefectures of Liuzhou and Qingyuan, before rising to the post of county magistrate in Sichuan. His legacy came up in 1730 when the director of the Yongkang Department school was scrambling for funds to support school renovation. Yongkang students pointed their teacher's attention to agricultural fields of the Lu 盧 surname that might be used to fund the project. They explained that Lu Yuanfu had "entered our Yongkang school" (*jixue wu Yong* 寄學吾永) and that after becoming a bureaucrat, not forgetting from whence he came (perhaps we should say "through which he passed"), he had donated forty taels to purchase land in Yongkang that could in turn produce rent to support students. Unfortunately, people had since encroached on this land and disputes had arisen. Better simply to sell the land and use the proceeds for this project.<sup>104)</sup>

While Lu Yuanfu was remembered fondly in Yongkang, albeit by locals taking over land he had bequeathed, some Cantonese students in other upriver schools met with direct resistance. Jiujiang, Nanhai, native Chen Fen 陳奮 is a case in point. After receiving his early education in Jiujiang, he placed first in the county examination of Xilin, in the northwestern corner of Guangxi, and was entered into the county school. Although construction of a Xilin county school had been approved in 1711, it was not until 1723 that a quota of four civil *shengyuan* entered in each qualifying and licensing examination was established for the county. Chen Fen must have been one of the first students to fill this quota, as he used his Xilin *shengyuan* status to sit for the Guangxi provincial examination in 1726. Chen took licensing and qualifying examinations via Xilin in 1727 and 1728. According to his Jiujiang biographers, Chen's growing fame incurred the jealousy of others and as a result he was not allowed to take part in the 1729 provincial examination.<sup>105)</sup> By 1731 Chen had returned to Jiujiang and managed to gain entrance into the Nanhai County school.<sup>106)</sup>

103) *Qing shilu*, Shengzu, 246:22a; *Xilong zhou zhi* 西隆州志, Republican era transcription of KX12 edition, but records events through 1921: compiled by 王馨命: Guangxi Library, p. 5; *Guangxi tong zhi*, 1733, 75:20a-36a; *Guangzhou fu zhi*, 43:20b, 21b, 23a, *Shunde xian zhi*, 1853, 11:42a. (actually physically doing this via Sien Prefecture??)

104) "Chongjian Mingluntang beiji" 重建明倫堂碑記, Zhongdong Elementary School grounds, Zhongdong Town, Fusui County, Guangxi. This stele is reproduced, under the title "永康州重建明倫唐碑記," in *Guangxi shaoshu minzu diqu beiben qiyue ziliao ji* 广西少数民族地区碑文契约资料集. Beijing: Minzu chubanshe, 2009, p. 140. Also see *Tongzheng xian zhi*, 1933, 2:30b, 9:6a; *Dongguan xian zhi*, 1911, 67:2b.

105) I am reading "乙酉" as a mistake for "己酉."

106) *Jiujiang Rulin xiang zhi*, 14:10a; *Guangxi tong zhi*, 1733, 113:31b-23a.

## Competing Regional Elites: Guangzhou and Guilin

If migrant Cantonese students could overwhelm schools intended to foster nascent elites on the frontier, they faced stiffer competition from the gentry elite of Guilin Prefecture. And on this matter, among the Guilin elite, no one's voice was louder than that of Xie Jishi 謝濟世. In March of 1736, in his capacity as a censor in Jiangnan, Xie saw fit to submit a memorial about matters in his home province of Guangxi, urging the emperor to reverse a policy allowing ex-provincials to acquire registration and sit for examinations.<sup>107</sup> In the following year, Xie wrote a ceremonial address to the dead (*jiwen* 祭文) for Lu Shaoqi 陸紹琦, the Guangxi education commissioner from 1723 to 1726. In typical fashion for this kind of essay, Xie heaps praise on the departed Lu by stating that, during the Qing, one of his predecessors was perspicacious and another was fair, while Lu was a complete package, the only truly outstanding education commissioner Guangxi had ever known. Then Xie takes a surprising turn by using this ceremonial address to lash out at education commissioners who succeeded Lu, one of whom "looked upon the students as foes" and another who "summoned roaming sojourners fraudulently to pass themselves off as locals" (*zhao youke mao tuzhu* 招游客冒土著).<sup>108</sup> An epitaph for Lu Shaoqi, not written by Xie, helps to shed light on why Xie might have held Lu in such high regard. The author explains that at the beginning of the dynasty, since hardly any students sat for examinations in the prefectures of Liuzhou, Qingyuan, Taiping, and Sien, the slots had been filled by scholars from other prefectures and departments: the practice was known as "flying transfers" (*feibo* 飛撥). Whereas his predecessors had found this practice convenient, as Education Commissioner Lu prohibited it.<sup>109</sup> In the ceremonial address, Xie wrote, "none of his predecessors could match him, and none of his successors continued [his work]. The one who soothed us has left, while the ones who bully us have come. How can we not cry over the fact that those who have come have not died while the one who has left has died!"<sup>110</sup>

Xie Jishi's knack for stirring up trouble aside, some of his vitriol might have stemmed from the fact that he represented a Guilin regional elite in competition with a Cantonese diasporic elite expanding into Guangxi. The Xie lineage, in the 1720s estimated to comprise no less than 110 adult males, was based in Quanzhou, a department in Guilin prefecture. By the early eighteenth century, the Xies had become accustomed to success in the civil examinations. Among several relatives to pass the provincial examinations was Jishi's grandfather, Xie Mingying 謝明英. In the 1680s and 1690s, Mingying served as school director first of Yongkang Department and then of Sien Prefecture. In these posts, he would have become very much aware of migrant students from outside Guangxi acquiring registration and sitting for examinations in schools on the western Guangxi frontier.<sup>111</sup>

107) "Qian-Jia shiqi keju maoji shiliao" 乾嘉時期科舉冒籍史料 (Historical materials on fraudulent registration in civil examinations in the Qianlong and Jiaqing era), *Lishi dang'an* 歷史檔案, 2000 (4), pp. 13-14.

108) Xie Jishi, *Xie Meizhuang xiansheng yiji* 謝梅莊先生遺集, 4:19b-20a. The "perspicacious" predecessor was Lu Zuofan 陸祚蕃, in 1687-1690, the "fair" one Jin Rang 靳讓, in 1703-1704.

109) *Bei zhuan ji* 碑傳集, 42:10a-b. Also see *Da Qing yitong zhi*, 221:19b.

110) Xie Jishi, *Xie Meizhuang xiansheng yiji*, 4:20a.

111) *Yongzheng zhupi yuzhi* 雍正硃批諭旨, Han Liangfu memorials, 74a-75b (pp. 1113-1114); Xie Jishi, *Xie Meizhuang xiansheng yiji*, 3:1a-b.

As a member of the broader Guilin prefectural elite, and as a Quanzhou man, Xie Jishi presumably need not have worried about competition from places like Yongkang or Sien. Candidates from Guilin tended to dominate provincial examinations. In examinations of 1702, 1705, 1708, 1711, 1713, 1714, 1717, 1720, and 1723, Guilin Prefecture candidates won between 45 percent and 67.5 percent of total Guangxi *juren* degrees in a given year, dropping below 50 percent only once, and averaging 56.6 percent. Candidates from Lingui, the county where the provincial capital and prefectural seat were located, performed exceptionally well. But so did examinees from Quanzhou. In the decades around the turn of the eighteenth century, Quanzhou typically placed around 10 *juren* at each examination. And among Quanzhou men, the Xies performed markedly well. Xie Jishi had placed first in the 1708 examination, passing along with two other Quanzhou Xies.<sup>112)</sup> Guilin's strong performance helps to explain why few Cantonese students entered schools in the prefecture.<sup>113)</sup>

Like their Cantonese counterparts, some of these successful Guilin examinees had advanced through schools outside their home county or department. In the second half of the sixteenth century, several Lingui *juren* had been registered as residents of Yongning Department (the old Gutian County), on the western edge of Guilin Prefecture. Among them, in 1597, was a grandson of Lü Tiaoyang, the bane of Guo Caihua's existence. In Xie Jishi's time, Yongning became a prime target for migrant students from Quanzhou. From the 1684 through the 1720s, no less than forty Quanzhou men became *juren* via Yongning registration. A few Quanzhou candidates targeted other locales in the western part of the prefecture, including Yongfu County. Guilin men also moved into Qingyuan Prefecture: in 1713 a Quanzhou candidate won the *juren* degree under Hechi Department registration, as did a Lingui man ten years later and a Xing'an man under Tianhe County registration. In 1672 and again in 1726, Lingui men won the degree with Tianhe registration. Other Guilin sojourners competed in some of the same areas as Cantonese migrants: for example, a Lingui man passed the 1702 provincial examinations under Taiping Prefecture registration.<sup>114)</sup>

When Xie Jishi passed the provincial examinations in 1708, Guilin literati had little to worry about in terms of competition. But he likely sensed that competition was on the rise when he wrote his memorial in 1736. Ten years earlier, a Guangxi governor observed that not even 2,000 candidates had sat for the previous provincial examination (1724, or examinations?), but in the present year's examination the numbers had increased to 3,060 or 3,070.<sup>115)</sup> Some of the increased numbers could be attributed to migrant students from outside the province acquiring registration in Guangxi departments and counties. Increased competition, in turn, might have contributed to a gradual downward trend in Guilin dominance and a sharper decline in Quanzhou performance. Over five examinations during

112) *Guangxi tong zhi* 廣西通志, 1800, 75:1a-76:5a.

113) A rare exception is a Panyu County native who, likely in the eighteenth century, became a *shengyuan* in Guilin. *Yuedong jianshi da tongpu*, 4:20a.

114) *Lingui xian zhi*, 1802/1880, 24:5a-17b; *Quanxian xian zhi* 全縣縣志, 1942, pp. 234-243, *Guangxi tong zhi*, 1733, 75:9a-33b; *Guangxi tong zhi*, 1800, 75:1a, 15a, 76:1a; *Tianhe xian zhi* 天河縣志, 1826, p. 54; *Yongfu xian zhi*, 1828, 3:22b.

115) Gan Rulai 甘汝來, *Gan Zhuangke gong quanji* 甘莊恪公全集, 5:6b.

the Yongzheng reign, the percentage of new *juren* accounted for by Guilin men averaged 44 percent. While Guilin never lost its dominance entirely, it must have been clear to people like Xie that Guilin men were losing some ground. Over the first decades of the Qianlong reign, through 1770, the average steadied at 48.3 per cent. Guilin remained the most dominant prefecture throughout the nineteenth century, but the level of its dominance declined markedly, reaching as low as 29 percent in 1826, and 28 percent in 1894.<sup>116)</sup> Quanzhou performance dropped more precipitously, the department winning an average of 10.78 *juren* per year in examinations from 1711 to 1729, but only 5.55 per year from 1741 to 1760. Perhaps related to this, Quanzhou students ceased to go through the Yongning school: quotas in that department were even cut in 1752.<sup>117)</sup>

Some provincial officials in Guangxi seemed to contribute to this Guilin decline by encouraging student migration from outside the province, a large portion of which would have been Cantonese. In particular, Xie Jishi identified a 1731 statute as the source of current problems. This statute originated in a 1730 memorial submitted by Guangxi Governor Jin Hong. In it, Jin addressed the problem of low levels of learning in the four western Guangxi prefectures of Taiping, Qingyuan, Sicheng, Zhen'an. He observed that students in government schools in these jurisdictions who had passed provincial examinations were either "fly over students" (*feilai sheng* 飛來生) from the provinces of Huguang, Jiangxi, and Guangdong or transferred students (*boxue sheng* 撥學生) from prefectures like Guilin. He further noted that after Education Commissioner Wei Changji 衛昌績 in 1728 had expelled the ex-provincials (apparently having missed Jiujiang native Chen Fen in Xilin) and sent the Guilin students back to their home prefecture, there were hardly any talented scholars left in the western areas. In his 1728 memorial, playing on an oft-repeated acclaim of Guangxi's natural beauty, Wei had asserted that Guangxi "fraudulent registration" ranked first in the entire realm (廣西之冒籍甲於天下). But Jin pursued a different tack. He requested that henceforth any ex-provincials who were willing to sit for examinations in prefectures, departments and counties of the four prefectures of Taiping, Qingyuan, Sicheng, and Zhen'an should be allowed to acquire registration and sit for licensing and qualifying examinations along with the locals; students' papers would be marked as either *benji* 本籍 or *ruji* 入籍, and they would be admitted to the schools in equal numbers. If *benji* students could not fill their half of the quota, then even more *ruji* students would be entered. Patrilineal kin of ex-provincials entered into the schools would also be allowed to sit for exams upriver, with the caveat that they could not transfer back to a school in their native place. Any kin who had not been entered into upriver household registers and who still lived in their home provinces would not be allowed to sit for Guangxi exams. Jin also proposed that any students from the eastern prefectures and department of Guilin, Pingle, Wuzhou, Xunzhou, Liuzhou, and Yulin who were willing to sit for examinations in miasmatic departments and counties of western Guangxi also be allowed to do so.<sup>118)</sup>

116) *Guangxi tong zhi*, 1800, 76:5a-77:29b; *Gesheng xiangshi tongnian chilu* 各省鄉試同年齒錄, 1825; *Jiawu ke shiba sheng zheng-fubang tongnian quanlu* 甲午科十八省正副榜同年全錄.

117) *Quanxian xian zhi*, pp. 239-243, 245-247; *Qinding xuezheng quanshu*, 59:9b-10a; *Qinding Da Qing huidian shili*, 303:21b.

118) *Ming Qing dang'an* 明清檔案, A45-70.

Jin Hong restated his case in a 1731 memorial. Responding to Wei Changji's finding that over 1,700 apprentice students typically sat for exams in the two prefectures of Taiping and Qingyuan, Jin admitted that this was a respectable number for such places, and that a *ruji* policy was not needed. But he insisted that Sicheng and Zhen'an prefectures were in desperate need of such a measure. Now Jin's proposal received imperial approval. In addition to these two prefectures, the policy would also apply to the two Qingyuan jurisdictions of Libo County (soon to become a part of Guizhou Province) and Donglan Department, as well as Ningming Department in Taiping Prefecture. The justification for allowing migrants to gain entrance into these western Guangxi schools was that they could also "serve as teachers of local children (*tuzhu tongzi* 土著童子) and thus mold their minds through their good influence in order to enlighten them." With this assumption, the substitute provided that this policy would be revoked after ten examination cycles.<sup>119)</sup>

This potentially threatened the interests of Guilin literati, and Xie Jishi targeted the 1731 substitute in his 1736 memorial. Xie first reminded his readers of a more-longstanding legal precedent, allowing candidates to sit for examinations only after twenty years had passed since taking up local registration. Those who had not waited the full twenty years were treated as perpetrators of fraudulent registration.<sup>120)</sup> Then he turned to the 1731 substitute, reviewing its policy of allowing migrants from outside provinces to take up local registration and take examinations in places that had been transferred from native to regular administration in the two Guangxi prefectures of Sicheng and Zhen'an, and the two departments of Donglan and Ningming. "It is not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law was not good," Xie conceded, but rather that "i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at transformation through guidance in order to reform customs is necessarily a gradual process; in places that have been transferred from native chieftaincies to regular administration, *it is enough to use people from different prefectures within this province*, why is it necessary [to use people from] outside provinces?"<sup>121)</sup> Xie then singled out two of the top five examinees in the 1735 Guangxi provincial examination. The top graduate was a native of northern Zhejiang who had come to Guangxi to serve as a private secretary and took the examination in Donglan Department under what Xie judged to be fraudulent registration. After winning his credentials, he had left Guangxi. Xie asserted that the third-ranked examinee, He Xiyao 何希堯, was a native of Zhaoqing Prefecture in Guangdong who "fraudulently registered in Taiping Prefecture, and purchased annual tribute [student status]; without being tested and sent forward by education officials, he openly entered the grounds and passed the examination." Xie was slightly mistaken about He, who was actually a Shunde native, but Xie's confusion in a world of flexible surnames and residential registration is understandable.<sup>122)</sup> Xie continues:

These two people do not tally with the statute on moving families and taking

119) *Qinding Da Qing huidian shili*, 313:9a-b; *Qinding xuezheng quanshu*, 29:3a-4a; *Qing shilu*, Shizong, 105:19a-b; *Zhen'an fu zhi* 鎮安府志, 1892, 7:8b-9a; *Guangxi tong zhi*, 1733, 113:59a-63a.

120) For this twenty-year requirement in another Qing county, see William T. Rowe, *Hankow: Commerce and Society in a Chinese City, 1796-1889*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4), p. 236.

121) Emphasis added. "Qian-Jia shiqi keju maoji shiliao," p. 13.

122) *Shunde xian zhi*, 1853, 11:42a. Zhaoqing does not claim He as a native son. *Zhaoqing fu zhi*, 1876, 15:11a.

up local registration, very clear cases of fraudulent registration. If there are these two names among the top five, one can imagine [how many there are] on the entire list! Yet this list only represents the taking of several *juren* slots: once this precedent has been set, then all future Guangxi *juren* and *jinshi* slots will be taken by people from outside the province... How is it that people from outside the province can all enjoy imperial grace meant for Guangxi, while the people of Guangxi cannot completely enjoy the imperial grace granted to this province?

Xie concludes by begging the Board of Rites to revoke these degrees granted to ex-provincials registered in Guangxi schools under false pretenses.<sup>123)</sup> For Xie, the crux of the issue was not manipulation of the examination system per se, but rather outsiders' illegitimate occupation of Guangxi slots. Indeed in a biography of one of his patrilineal kin Xie has no qualms about revealing that this man had, while in mourning for his mother, used the name of another lineage member to enter the department school, later adding to the Quanzhou Xie tally of *juren* in 1713.<sup>124)</sup>

It is unclear how much influence Xie Jishi's memorial may have had on the subsequent abrogation of the 1731 statute. With Xie frequently earning the imperial ire, no high official would have risked referring to Xie in advocating policy changes. Yet policy was soon changed, at the urging of Jin Hong's successor as Guangxi governor, Yang Chaozeng 楊超曾. Yang might have arrived at this stance in part because of his experience in a prior post. As education commissioner for Shuntian, the prefecture in which the imperial capital was located, he had investigated the problem of fraudulent registration during examinations in 1729 and later submitted a palace memorial on this issue. Shuntian was probably the jurisdiction where such practices were most widespread.<sup>125)</sup>

Two years into his Guangxi governorship, in 1738 Yang submitted a memorial describing the malpractices of *ruji* in frontier territories and requesting permission to put an end to ex-provincials fraudulently registering for Guangxi examinations. He first reviewed Wei Changji's 1728 policy of clamping down on migrant students in the miasmatic prefectures of western Guangxi, and then Jin Hong's 1731 policy of encouraging migrant students in Sicheng, Zhen'an, Donglan, and Ningming in order to serve as teachers for local students. He then describes the results of Jin Hong's strategy:

Since the 1731 statute, it has only been three examination cycles, and already there is a ceaseless flow of many ex-provincials obscuring their names and fraudulently registering. Not only are most of the people passed in licensing and qualifying examinations ex-provincials, it is difficult for even one out of ten local apprentice students (*tuzhu tongsheng* 土著童生) to pass. Moreover, already several [ex-provincials] have passed the provincial and metropolitan exams. But when these people come to Guangxi to take examinations, they do not bring their

123) "Qian-Jia shiqi keju maoji shiliao," pp. 13-14.

124) Xie Jishi, *Xie Meizhuang xiansheng yiji*, 4:18a-b.

125) *Yongzheng chao Hanwen zhupi zouzhe huibian*, volume 33, pp. 376-379. On Shaoxing natives acquiring fraudulent registration in Shuntian, see James H. Cole, *Shaohsing: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Nineteenth-Century China* (Tucson: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86), pp. 82-84, 108-11.

families and accept local registration; rather, after entering the schools and passing examinations, they each go back to their respective native place and do not take up long-term residence [in frontier jurisdictions]. So how are local scholars supposed to receive the benefit of their teaching?

Yang argued that if the state continues this policy for the full ten examination cycles as provided in the 1731 statute, since “sons of fraudulent registration” (*maoji zhi zi* 冒籍之子) had already been entered into schools and cannot be prohibited from taking provincial examinations, then more than half the slots for Guangxi in the metropolitan examinations will be taken by those with fraudulent registration. So, Yang requested that this policy be ended immediately. His proposal was approved and the 1731 statute was rescinded.<sup>126)</sup>

Yet migrating in the hopes of winning civil service degrees was a difficult practice to eradicate. A follow-up report in 1739 found that in Sicheng, Zhen’an, Guishun, and Donglan:

Over sixty civil and military licentiates who have come from outside the province to enter the schools. If not the sons, younger brothers, or close relatives of officials currently serving [in these areas], then they are tutors or private secretaries serving in each yamen. One cannot find even a single person who has actually taken up local registration and led the locals through instruction.<sup>127)</sup>

Despite the pessimism of this report, rescission of the 1731 statute seems to have deterred migrant students from flooding jurisdictions in western Guangxi that had been converted from native to regular administration. The numbers of Cantonese in frontier schools, at least those who entered the historical record by going on to win higher degrees, never again reached levels seen in the 1720s and 1730s. But the flow was not entirely cut off. In the early 1750s three Longjiang, Shunde, men won the *juren* degree as registered residents of Xilong Department, while a Xinhui County man became a Xilong *suigong* in 1752. A Guangdong native won the *juren* degree in 1756 as a registered resident of Hurun Stockade, which had been converted from native rule in 1747 and incorporated into Guishun Department.<sup>128)</sup>

State monitoring of migrant students in Guangxi reached new heights when in 1760 the education commissioner submitted a secret memorial urging vigorous punishment of fraudulent registration. In some ways reflecting Xie Jishi’s priorities, the education commissioner observed:

There are indeed people from neighboring prefectures and counties in this province among those who fraudulently [register] to sit for examinations, but

126) *Zhen’an fu zhi* 鎮安府志, 1756, 8:13b-15b; cf. *Zhen’an fu zhi*, 1892, 7:10a-b; *Qinding Da Qing huidian shili, juan* 313:14b; *Qinding xuezheng quanshu*, 29:5a-b; *Qing shilu*, Gaozong, 63:4b.

127) *Qinding xuezheng quanshu*, 29:5b 6a; also at *Qinding Da Qing huidian shili*, 313:15a-b.

128) *Guangzhou fu zhi*, 44:2a, 3b; *Longjiang xiang zhi*, 2:15a-b; *Xinhui xian zhi*, 1841, 6:67b; *Zhen’an fu zhi*, 1892, 7:16b.

those from the provinces Zhejiang, Jiangxi, Huguang, and Guangdong who fraudulently [register] to sit for Guangxi examinations are especially numerous. In general, whether because their fathers and older brothers are private secretaries, or because relatives and friends are in commerce, [these people] deceptively scheme to take the examinations here, even though in fact they have no fields, property, houses, or tombs [in the province]. After they enter a school, they return to their native place, and then come back again fraudulently to sit for the provincial examinations (the “big competition”). Consulting the established statute shows that apprentice students can only sit for examinations on the basis of recognition by a guarantor. But since those who fraudulently register are able to enter the schools, they can also become stipend students, so that fraudulently registered stipend students can serve as guarantors for fraudulently registered apprentice students.<sup>129)</sup>

The regulation that a student seeking entry into a county or department school needed a guarantor in the local community to vouch for his standing could present an obstacle for a migrant student. Once a migrant student did gain entry to a school and through success in periodic examinations rose to the status of stipendiary, however, then he could serve as a guarantor for other migrant students from his native place. This might explain patterns resembling chain migration, with Longjiang migrant students heading for remote Xilong. For scholars of overseas Chinese in the modern era, this practice resonates with that of “paper sons” used to subvert immigration restrictions in North America.<sup>130)</sup> The education commissioner continued his memorial by outlining his actions:

I have circulated notices to each jurisdiction, and throughout have cleared up [school rolls]. Now according to what has been discovered, some schools have a few names [under fraudulent registration] and some have ten-odd such names, but one school in Taiping Prefecture has as many as thirty or forty names: the others still have many who have not been investigated.<sup>131)</sup>

Referring the 1738 rescission of the 1731 statute, he took aim at migrant students:

The fraudulently registered people [in Guangxi] who have now been discovered are all those who snuck in after [the statute] was rescinded. Thus they have not obeyed the laws, ignorant of our institutions: this is very detestable! Moreover, these people are all of average learning who in their original places of registration are incapable of entering the school, and so have devised plans to

129) “Qian-jia shiqi keju maoji shiliao,” p. 17. The education commissioner was Ju Kai 鞠愷.

130) Hsu, *Dreaming of Gold, Dreaming of Home*, pp. 74-85.

131) “Qian-jia shiqi keju maoji shiliao,” p. 17. Education officials in the Ming era, at least, had incentive to tolerate *maoji*, at least if they served in a frontier county not otherwise very likely to be competitive in provincial examinations: education officials were evaluated on the number of *juren* that their schools produced; affected their chances for promotion. Wu Zhihe 吴智和, *Mingdai de ruxue jiaoguan* 明代的儒學教官, p. 54; Miura, “Mindai no fu-shū-ken-gaku no kōzō to sono seikaku,” pp. 495-496.

take examinations under fraudulent [registration] on the chance of entering.<sup>132)</sup>

In an edict responding to this memorial, the education commissioner received imperial backing to clear up registration records, giving migrant students one year to step forward for the chance of being transferred back to home schools without losing *shengyuan* status.<sup>133)</sup> Shifting imperial policy seems finally to have coalesced with the interests of Guilin literati: although all migrant students in the frontier schools of western Guangxi were suspect, officials now tended to associate the worst malpractices of fraudulent registration with ex-provincials, including Cantonese.

### From Frontier to Market: The Routinization of Student Migration

Increasing imperial attention to horizontal mobility in examination practice helps to explain a changing pattern of Cantonese migrant students registering in upriver schools. In the late Kangxi era, county magistrates in places like Conghua and Xining criticized and sought to expel outsiders. The Yongzheng emperor focused attention on problems of Cantonese registering in other Guangdong schools, even while relying on them in the more remote jurisdictions of the upper West River basin, hoping that they would prove useful in transforming customs on the front lines of imperial expansion. From the early Qianlong period on, this also became less of an option, with Guangxi officials pressing for reversal of the 1731 statute and more stringent enforcement of prohibitions against fraudulent registration.

Aspiring Cantonese gentry continued to win examination credentials as registered students in upriver schools in the lat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But the patterns had changed. Rather than flooding frontier schools on upper reaches of West River tributaries, a more stable pattern emerged in which migrant students registered in a wider array of schools along the trunk and main branches of the West River system. As the state cracked down on in-province gaming of system, such places in eastern and central Guangxi became increasingly attractive alternatives. Thus, after 1760, Cantonese occasionally won higher degrees through registration in the old frontier schools. In 1804, a Shunde native, this time from Longshan rather than Longjiang, managed to sneak through Xilong Department.<sup>134)</sup> But most Cantonese who won degrees via registration in Guangxi schools, and with them certainly many more who entered Guangxi schools but did not win higher degrees, tended to do so in eastern and central Guangxi. Wuzhou was a favorite target. Men whose families were based in Nanhai, Shunde, and Gaoming won several *juren* degrees as registered residents of Cangwu County beginning in 1798 and becoming common by the mid-nineteenth century. Among the Cantonese sojourners was He Guanwu 何冠梧: his given name could be interpreted literally as “capping Wuzhou.” A Gaoming native born in 1815, he acquired registration (*jiji* 寄籍) in Cangwu and became a supplementary student

---

132) “Qian-Jia shiqi keju maoji shiliao,” p. 17.

133) *Qinding xuezheng quanshu*, 30:15b-17a; *Qinding Da Qing huidian shili*, 313:20b-21a.

134) *Longshan xiang zhi*, 1930, 10:21a.

in the county school before passing the provincial examinations in 1849. He seems not to have settled in Cangwu, as editors of the Gaoming gazetteer note that he resided at “home” for sixteen years after going into mourning for his mother.<sup>135)</sup>

On the Prefectural River, via the Pingle County school, a Shunde native won the *juren* degree in 1759, a Dongguan native in 1779, a Longjiang man in 1819 and a Longshan man in 1822, and natives of Nijiao 泥教 township in Gaoming in 1828 and 1831.<sup>136)</sup> On the Qian River in central Guangxi, a Ganzhu, Shunde, native, born in 1806, won the *juren* degree in 1834 as a stipendiary in the Maping County school. The official list of successful candidates in the 1834 provincial examinations indicates that his original place of registration was in Guangdong, but that he “now” resides at Luzhai 鹿寨 in Yongfu County just east of Liuzhou.<sup>137)</sup> As students in the government school at Hengzhou, on the stretch of river between Xunzhou and Nanning, a Longjiang native won the *juren* degree in 1825 and a Longshan man in 1846.<sup>138)</sup> In southeastern Guangxi, a Maicun, Shunde, native passed the 1774 Guangxi provincial examinations as a student in the Beiliu County school. Nonetheless, a stone base for a flagpole celebrating his success was kept back in Maicun.<sup>139)</sup>

For every one of these successful examinees, many more migrant students gained entry into Guangxi schools but never earned higher degrees. For most, attaining *shengyuan* status was well worth the investment in time and money required to obtain upriver registration. Unlike most delta gazetteers, a Republican-era gazetteer of Longjiang lists the names of native sons who became *shengyuan*, and it indicates when this status was attained in schools outside Shunde County. The first *shengyuan* noted as having been students of schools in Guangxi are two Longjiang men in 1733. Thereafter, it becomes more common. All eleven *shengyuan* listed for 1758, for example, are via Guangxi schools. Were they registered in Xilong Department, only to be sent packing in 1760? For students who became *shengyuan* in the nineteenth century, editors provide more detailed information. Of seven *shengyuan* in 1824, for example, one was a student in the Wuzhou school and another in Hengzhou.<sup>140)</sup>

Native-place and family ties probably help to explain why specific schools were targeted. Two brothers from Gaoming’s Luoju 羅俊 township, for instance, passed Guangxi provincial examinations in 1783 and 1792 as registered residents of Wuxuan County.<sup>141)</sup> Upstream from Wuxuan, two Huangs from Ganzhu, Shunde, achieved tribute student status in Qianjiang County in 1789.<sup>142)</sup> Members of the Ming lineage in Jiujiang, Nanhai, availing

135) *Guangzhou fu zhi*, 45:2a, 30a, 46:4a; *Gaoming xian zhi*, 12:25b, 13:76b; *Cangwu xian zhi* 蒼梧縣志, 1874, 4:35a; *Zhisheng xiangong tongnian lu: Daoguang ershijiu nian jiyuo ke* 直省鄉貢同年錄: 道光二十九年己酉科, 廣西:11b.

136) *Guangzhou fu zhi*, 44:7b, 18b, 45:18a, 21a; *Longjiang xiang zhi*, 2:17b; *Gaoming xian zhi*, 12:24a-b.

137) Hu Chaolong 胡超龍. *Daoguang jiawu ke zhisheng tongnian lu* 道光甲午科直省同年錄, 廣西:4a; *Guangzhou fu zhi*, 45:28b.

138) Guo Qiu 郭球 and Deng Qiqing 鄧淇青. *Gesheng xiangshi tongnian chilu: Daoguang wunian yiyuo ke* 各省鄉試同年齒錄: 道光五年乙酉科, 廣西:8a; *Longjiang xiang zhi*, 2:18a; *Bingwu ke shiba sheng xiangshi tongnian lu* 丙午科十八省鄉試同年錄, 29b; *Longshan xiangzhi*, 1930, 10:25b.

139) Mai Suitai 麥穗泰. *Guangzhou fu zhi*, 44:15b; *Shunde xian zhi*, 1853, 11: 50b-51a: “Qianlong jiawu ke juren” 乾隆甲午科舉人, stone inscription, Maicun, Shunde, Guangdong.

140) *Longjiang xiang zhi*, 2:44b, 46a-b, 51b.

141) Li Zhuoyi 黎卓義 and Li Zhuoren 黎卓仁. *Gaoming xian zhi*, 12:22a-b; *Wuxuan xian zhi*, 12:5a.

142) *Shunde xian zhi*, 1853, 11:44a, 95a; *Gesheng xuanba tongnian chilu: Qianlong jiyuo ke* 各省選拔同年齒錄: 乾隆己酉科, 4:45a.

themselves of Cangwu County registration, passed Guangxi provincial examinations in 1798 and 1839.<sup>143)</sup> In such cases, it is not easy to verify whether these patterns represent a kind of chain migration among examination candidates or simply one group of kin settling in an upriver locale while maintaining enough links with their emigrant communities to be considered native sons by editors of delta gazetteers. One ambiguous case concerns three generations of men surnamed Lin whom editors of the Gaoming gazetteer claim as natives of Fanzhou township but who passed Guangxi provincial examinations under Guiping County registration in 1789, 1807, and 1876.<sup>144)</sup> While some lineages might specialize in sending migrant students to a single destination, others diversified. For example, across three generations the Jian 簡 lineage of Longjiang placed two students in the Cangwu County school, another in the Wuzhou Prefecture school, one in Maping County, and another in Hengzhou.<sup>145)</sup>

When a delta lineage did focus on one upriver destination, it was often because at least one lineage member was conducting commerce there. This was a different kind of opportunism from what occurred in earlier decades on the western Guangxi frontier. In eastern and central Guangxi, families whose members were active upriver might simply have pursued similar strategies both downstream and upstream, spreading their investments among commerce, land, and the examinations. For instance, the reason why three Wus from Licun 黎村, Shunde, around the turn of the nineteenth century won *juren* degrees, and another became as *bagong*, as registered residents of Qianjiang County is that they were all related to a Licun native who worked as a merchant in Qianjiang, Wu Min 吳敏.<sup>146)</sup>

As these examples show, traveling upriver in order to advance one's socioeconomic status through civil service examinations in Guangxi was a frequent occurrence in the late eighteenth and early nineteenth centuries, despite the crackdown on migrant students in western Guangxi. The commonplace nature of this practice can be seen in the lexicon and lore that entered delta records. A local history of Xinhui County produced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tells of a native son who in 1786 was "raised in the eastern province" (*ju dong xiang* 舉東鄉), that is, he passed the Guangdong provincial examinations in that year and became a *juren*, or "raised person."<sup>147)</sup> Why stress this? Perhaps editors wished to emphasize that this scholar took the difficult path of sitting for more competitive

143) *Guangzhou fu zhi*, 45:2a, 46:4a; *Cangwu xian zhi*, 1874, 4:35a; *Jiujiang Rulin xiang zhi*, 10:45b, 51a-b, 14:18a. Another Ming with Cangwu registration, but also claimed as a native son of Nanhai by the Guangzhou gazetteer, passed the Shuntian capital prefecture examination in 1835. *Enke zhisheng tongnian lu: Daoguang yiwei* 恩科直省同年錄: 道光乙未, 順天:30b.

144) *Gaoming xian zhi*, 12:22a-b, 23b, 27b; *Guiping xian zhi*, 42:8b-9a, 11a. The likely relationship among the three can be ascertained from information about another Lin in a list of 1849 *bagong*. See *Gesheng xuanba tongnian mingjing tongpu: Daoguang jiyou ke* 各省選拔同年明經通譜道光己酉科, 廣西:11a.

145) *Yuedong jianshi da tongpu*, 4:23b-25a; *Longjiang xiang zhi*, 2:50b-51a.

146) Wu Ti 吳梯, *Daiyun bian* 岱雲編, 2:4a-5b; *Guangzhou fu zhi*, 44:19b, 22b, 45:8a; *Shunde xian zhi*, 1853, 11:9b, 27:10b; *Qianjiang xian zhi*, 1935, pp. 103-104. The contrast that I make between Cantonese migrants registering in frontier jurisdictions like Xilong and those who registered in commercial centers such as Cangwu is similar to two broad types of "fraudulent registration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s" that Wang Rigen and Zhang Xueli identify for the Qing, though I would allow for more overlap between these two categories. Wang Wang Rigen 王日根 and Zhang Xueli 张学立. "Qingdai kechang maoji yu tu-ke chongtu" 清代科场冒籍与土客冲突, *Xibei shida xuebao* 西北师范大学报 42.1 (January 2005), p. 70.

147) *Xinhui xiangtu zhi* 新會鄉土志, Guangxu era, 4:10b.

examinations in Guangdong, rather than the more circuitous but less competitive Guangxi route. For readers to have made any sense out of this phrase, they must have understood that other examinees had been “raised in the western province.” Similarly, in their list of men who became *shengyuan*, when Longjiang gazetteer editors did not know into which Guangxi school a native son had been entered, they simply wrote “western registration” (*xiji* 西籍) or “a western government school” (*xixiang* 西庠). Readers understood that this meant Guangxi 廣西. Finally, editors of the 1883 Jiujiang gazetteer recounted a strange occurrence in 1839. Several low-ranking and aspiring literati had formed an Immortal’s Society, presided over by a Daoist calling himself Purple Sun Mountain Man and claiming to be a master of spirit writing with the planchette. A month prior to the provincial examinations in that year, society members asked the immortal how many Jiujiang men would pass. The planchette wrote, “Two in the east, two in the west.” Of course, they understood what was meant here by “east” and “west,” but they were thirsty for any hint the immortal could provide about just who these two men in each province would be. In response to this query, the planchette wrote, “One in the east and three in the west.” Now they were stumped. When in the ninth month the results were announced, the brothers Zhu Shiqi and Zhu Ciqi passed the Guangdong examination, while two other Jiujiang men, a Ming and a Zhu, passed the Guangxi examination. As it turns out, Jiujiang was subdivided into four districts, each corresponding to a cardinal direction. Ming was an Eastside man, the three Zhus Westside residents. Purple Sun wasn’t a charlatan after all.<sup>148</sup>

In all of these texts, author and audience alike take it for granted that many Cantonese men travel west to take examinations. The same is true of the three tales of loyal wives that open this paper. The authors wish to emphasize the extraordinary virtue of the three women whose husbands either died upriver or fell ill and died soon after their return to the delta. They do not stress what had by the high Qing become quite ordinary.

148) *Jiujiang Rulin xiang zhi*, 21:17b-18a. Judith Zeitlin, “Spirit Writing and Performance in the Work of You Tong 尤侗 (1618-1704),” *T’oung Pao* (1998), pp. 102-135. Benjamin A. Elman describes how candidates asked spirit mediums to use this method to predict examination questions. Elman, *Cultural History*, pp. 319-322.



# Solid as a Rock? The Story of the Nantang Imperial Commissioned Stele

祝平一 (臺灣 中央研究院)

## Introduction

The existence of a border implies a center of power. By exclusion and control, a border is made possible. A border is a boundary, a fence to keep away unwanted social elements or groups under surveillance. Speaking of a border is thus discoursing on the power relations.

A border is a margin vis-à-vis the center of power. This dichotomy has been under criticism by colonial and post-colonial studies for years particularly when considering the role of native collaborators in the colonial regime. The collaborators, who may or may not receive credits or take advantage of their cooperation, blur the central-peripheral dichotomy. However, the border and the center are also positions which social actors attempt to occupy in order to withhold their power. The central-peripheral dichotomy is not a structural necessity, but the struggle for a central position of power persists. The existence of a border thus also implies the possibility of boundary-crossing and boundary-working.

This paper discusses how the Jesuits, who were supposed to be kept in the border, trespassed the boundaries and entered the center of power of the Chinese empire, the court, and how anti-Christian literati sought to keep them in the border so as to maintain the status of Confucian dominance in the empire during the Shunzhi reign when the Manchu just conquered the Chinese proper. I will approach this struggle for power and social positions by studying the Nantang Imperial Commissioned Stele which registers the power relations among historical agents involved who constructed and deconstructed the meanings of this stele.

## A Gift of the Dragon: Nantang Basilica

1657 is another memorable year for the Jesuits in China. In that year, the Emperor Shunzhi came to Nantang, the first basilica in Beijing near the Gate of Xuanwu 宣武門, conferring the basilica an inscribed plaque which would be displayed at the gate of the basilica, naming it the “Wonderland of Comprehending Subtlety.” “Comprehending Subtlety” was the styled name that the Shunzhi emperor had bestowed to Adam Schall von Bell. The magic of the emperor’s brush immersed Schall and his basilica in a divine aura resonating the sublime profoundness of the(ir) Way. In addition, Shunzhi also conceded the basilica a stele to commemorate this event.

Nantang was constructed in 1650, next to the chapel built by Matteo Ricci in 1605. Annexed to the chapel was an academy set up by the Tongling faction where Xu Guangqi (1562-1633) would later establish the Western Calendar Section of the Astronomical Bureau to initiate the

calendar reform in 1629. Schall continued occupying this space and performing his astronomical service to the Manchu emperor after 1644. In 1650, the Shunzhi emperor granted a lot of land to Schall so that Schall would construct his basilica next to the Astronomical Bureau. The spatial affinity between the basilica and the Astronomical Bureau symbolized the close relation between the calendar and the Catholic faith.

Nantang was a baroque basilica. Its base was a Latin cross posture, 26.67 meters long, 15 meters wide. With a dome on top, the basilica was much higher than nearby buildings and clearly distinguished itself from other Chinese architectures. The basilica was decorated with religious paintings, Christian creeds, and calligraphies from high officials and the 66th generation inheritor of Confucius. These calligraphies praised Christianity. The Franciscan friar Antonio Caballero reported that Nantang surprised the Chinese and became a spectacular architecture. The Chinese, Christians or not, surged to the basilica to either participating Christian rituals or simply for sightseeing.

For the first time, a Western edifice appeared in the capital of the Chinese empire and the Chinese Christians could practice Christian rituals in a European style basilica. Those who entered this sacred place for religious purposes were immediately discerning themselves from their Chinese fellow subjects.

In addition to religious functions, Nantang displayed the dual identities of the Jesuits at once as priests and bureaucrats. The construction of Nantang mainly relied on the donations from officials. Some funds even came from the empress dowager. An observatory and astronomical instruments remained as the old days when Ricci was still alive. In other words, Nantang was a reward for Schall's service for the empire. It was

a gift Schall exchanged with his knowledge. Schall's successful efforts in setting up a calendar for the new dynasty crystallized in this monumental architecture. Serving the empire as an astronomical bureaucrat conferring legitimacy to the empire also helped to advent the Christian course.

Schall continued to receive Shunzhi emperor's favor after Nantang was established. In 1653, Schall received the title "master of comprehending subtlety" from the Shunzhi emperor who would visit him 24 times between 1656 and 1657. At the pinnacles of Schall's career, Emperor Shunzhi visited the south garden in 1657 and granted Schall the Stele of Nantang.

The Nantang Imperial commissioned Stele was made of white marble stone with a 200\* 85 cm main body and 16\* 23 cm head. The inscription was written in both Chinese and Manchu and dated the first day of second month of the 14th year of the Shunzhi reign at the end.

A Stele is different from other presents granted by the emperor. Other imperial gifts are easily suffering from damage. Unless purposefully savaged, a stele endures the erosion of time. The robustness of the stele was once contested when Nantang was on fire. The stele prevailed. The priests came to China in the late Ming clearly understood how a long last stone stele would bear the eternity of Christianity in China. The Nestorian stele unearthed around 1625 shocked the small Chinese Christian community at that time. It was a piece of hard evidence that Christian belief was once popular in the middle kingdom. This further agitated the imagined transmission of Christianity to China since the ancient times. Schall, for instance, recorded that St. Thomas the Apostle had transmitted Christianity in the Eastern Han and the Nestorians in the Tang continued this great enterprise. It was the rediscovery of the

Nestorian Stele that solidified Schall's reconstruction of the history of Christianity in China. The materiality of the Stele thus mediates past and present, turning the heterogeneity of the past into a homogenous memory to legitimate the present. In terms of significance to the Basilica, Nestorian stele is no match to the new stele bestowed by the Shunzhi emperor. The Nestorian stele was established by the devotees and the priest while the Nantang stele was a gift from the emperor, the only stele a Chinese emperor had ever granted the Basilica. It firmly inscribes the bounds between the Basilica, the priests, and the emperor on a solid ground, which will last forever as the marble itself.

Among the calligraphy from the literati in the solemn surroundings of Nantang Confucius' descendant Kong Xingxie carried the most symbolic weight. Kong Xingxie was the first Confucius' descendant who inherited the title of the Duke of Continuing the Sage's Linage from the Manchu emperor. It testified the successfulness of Ricci's strategy of making alliance with Confucianism. Once accepting this title, Kong Xingxie brought legitimacy to the emperor and the empire that Confucian tradition had entrusted.

Both Kong and Schall witnessed the birth of the new dynasty. Schall brought a new calendar to the emperor, testifying the Manchu's mandate. In exchange, the Shunzhi emperor granted the Basilica the stele and elevated the status of the basilica and Christianity. Schall had attested the significance of the stele to the basilica in a memorial in 1657 that "after his majesty had bestowed the stele, the teaching of Christianity received firm support." For Schall, the stone stele had said more than any verbal expression. Other Christians also regarded the stele symbolized Shunzhi's patronage to Christianity.

Imaging: in a basilica at the far extreme of the world, stood still a

stone inscription the local emperor had awarded. Not only did this encourage the morale of the missionaries came to China, but it also brought forth a gleam of hope to the Europeans that China might one day be converted. The only savant who knew China the best at his times, the Jesuit Athanasius Kircher(1602-1680) collected a copy of rubbing of this Stele in his museum at the university of Rome and published a translation of the excerpt of the inscription of Nantang Stele in his *China Illustrata* published in 1667. Kircher briefly described the intimate relation between Shunzhi and Schall. He wrote that the emperor Shunzhi considered Christianity the best religion and had alleged that his Manchu ancestor had been converted. Shunzhi granted the stele to demonstrate his patronage to Christianity and to spread the religion throughout China.

Kircher's statement reveals only part of the fact. He aimed at propagating the contribution of the Jesuits in China to his European readers. However, it is Schall's successful career that lent the weight to Kircher's claim. Anyway, Kircher and the Christian community in China take the meaning of the stele at face value : a gift from the emperor signifying his good will and patronage to Christianity.

But the achievements of Schall and Kircher's great expectation would soon be clouded by Yang Guangxian after Shunzhi emperor had deceased in 1661. The new emperor, Kangxi, was only a child of 8 sui. The imperial power was vested in the hands of four Manchu regents. Due to this political change, Yang Guangxian was able to defeat the Jesuits at court successful in 1664.

Yang claimed himself to be a true Confucian who once saw an image of the crucified Jesus and believed that that the empire was under a deviled conspiracy by an evil religion. In a letter Yang wrote to a patron

of the Jesuits Xu Zhijien on the 25th day of the 3rd month in 1664, he mentioned the same stele. However, Yang had a completely understanding of the significance of the stele. He argued that Emperor Shunzhi had no intension to support Christianity whatsoever. Yang told Xu bluntly that the position of the present emperor had inherited directly from the Three Kings and the Five emperors in the remote ancient times. What his majesty had inherited was the heritage of the Way associated with the Duke of the Zhou and Confucius. And the ministers of our August Qing should be the believers of Confucianism. In other words, in a Confucian empire like China, there is no space left for Christianity regardless the ethnicity of the emperor.

Yang Guangxian's letter aimed at warning Xu Zhijien to withdraw his preface for a book written by a Chinese covert Li Zubai. Li was an official in the Astronomical Bureau. His book entitled General Introduction to Christianity was about Christian teaching and its history, within which Li connected Chinese history with the chronology of the Bible. Li alleged that the Chinese people had originated from Judea and that Christianity had already prevailed in ancient China. At the end of his book, Li mentioned that the Shunzhi emperor had descended to Nantang, seeking teachings from Christianity. His Majesty even conferred a stele to the basilica within which he praised Christianity.

Yang Guangxian certainly understood that if he could persuade Xu Zhijien to withdraw his support to the Jesuits, it would also be a big blow to their devilish religion. On the 26th day of the seventh month in 1664, Yang Guangxian presented his accusation against the missionaries together with the above-mentioned letter. Because of Yang's move, the meaning of the stele was contested.

For Yang Guangxian, the stele itself was not a sufficient prove of

Shunzhi's support of Christianity because the content of the stele had betrayed Shunzhi's act of conferring the stele to the missionaries. Yang Guangxian underscored the following paragraph:

I (the emperor) came to the South Garden (南苑) and passed by this place (the basilica) by chance....I asked what the books on the desk were. The response was that these were the teachings of Christianity. Now, what I obey is the Way of Yao 堯 (r. ca. 2356-2256 B.C.), Shun 舜 (r. ca. 2255-2206 B.C.), the Duke of Chou 周公 (ca. 12th century B.C.), and K'ung 孔[子] (Confucius) (551-479 B.C.); what I pursue is the principle of "absolute refinement and singleness of purpose, [thereby] holding the mean" (精一執中). As to the Taoist and Buddhist texts (玄籍唄文), the so called Tao-te 道德, Leng-yen 楞嚴, which I once waded into and hunted (涉獵), their essence and purpose are obscure. As for the books coming from the West and the teaching of Christianity which I have never read, how can I understand what they say?

At a time when Schall's favor in the court was at its peak,<sup>1)</sup> in so important an inscription erected right in front of the basilica in the capital to demonstrate the patronage and favor of the emperor, and yet the Shunzhi emperor clearly affirmed his commitment to Confucianism and decisively rejected any religious claims of the missionaries. Yang went a step further to state that since the emperor had never read the Western books, neither was he familiar with the ideas of Christianity, therefore, when Li Zubai claimed that Shunzhi had visited Nantang to seek advices from Christianity, he was simply propagating the religion in the name of the emperor. Yang Guangxian accused that Li of

---

1) Spence, To Change China, 19.

discontenting with the fact that Shunzhi had followed the way of ancient sages therefore he wrote his devilish book to refute the emperor's intent and promoted Christianity. Since Li had betrayed the imperial intension, he was a treacherous follower of foreign authorities. In addition, while his majesty had declined his acknowledgement of Christianity, Li Zhubai remained insisting that the Chinese people were the descendants of Adam and Eve, rendering the sagely officials and emperors in the previous dynasties the offspring of heresy, the six Classics and the Four Books the subtle words of the devilish religion. Wasn't this enough revealing of the treacherous intent of the Christians in China? Yang questioned.

Yang Guangxian underlined the critical passage in the stele and overthrew completely Jesuits' interpretation of the emperor's gift. Yang also dissolved the close relation that the missionaries and their converts imposed on the emperor and their religion. The content of the stele carries more weight than the thing itself.

The confrontation between Yang Guangxian and the missionaries ends with Yang's victory. However, a violent earthquake miraculously saved the lives of the missionaries in Beijing even though five of the Chinese converts in the Astronomical Bureau had lost their lives.

## **From the Priest to the Bureaucrat**

The missionaries who were luckily enough to preserve their lives could no longer take the stele merely as a solid testament of Christianity in China for granted because of Yang Guangxian's challenge. They must face the content of the inscription on the Stele.

Ludovicus Buglio (1606-1682), wrote a thesis to refute Yang Guangxian after the missionaries were released, reaffirming the symbolic meaning of the Stele. He asserted that Shunzhi had visited the Basilica several times and bestowed gifts of various kinds, including this stele. Buglio remained emphasizing the stele as a gift and totally ignored its content. Buglio, however, went one step further and stressed that Schall was a man of character. "If Schall were really treacherous, how could he evade from the scrutiny of the emperor?" he asked. But his response had already forced the missionary into an inferior position and revealed their awareness of the possible problematic of content of the inscription. Buglio summoned the supreme wisdom of the emperor, which no Chinese subjects dare to question, to wade off Yang's accusation.

Buglio's adherence to the symbol meaning of the Stele itself, is common understandings of this Stele among the missionaries at that time. Kircher in Europe translated the key passage which Yang Guangxian used to wage his attack on the missionaries as follows:

Once I studied the teaching called Yao Xun chen and cum cu and understood a few things. I read the books about Foe and Tau, and don't remember anything. So far the business of the kingdom has kept me from looking into the books dealing with this religion, except in passing, so I am not able to give an exact opinion about it. If I consider Johannes Adam, however, who has spent so many years in China and has lived and followed and preached this law among us, I would judge this Law the best.(Underline is added by me)

Kircher had obviously misunderstood the passage that ' Now, what I obey is the Way of Yao 堯 (r. ca. 2356-2256 B.C.), Shun 舜 (r. ca. 2255-2206 B.C.), the Duke of Chou 周[公] (ca. 12th century B.C.), and

K'ung 孔[子] (Confucius) (551-479 B.C.); what I pursue is the principle of “absolute refinement and singleness of purpose, [thereby] holding the mean.” In these two sentences, Shunzhi declared openly he is an emperor of a Confucian empire. But Kircher seemed to be regarded Confucianism as another kind of religions higher than Buddhism and Daoism. Kircher also ignored the fact that Shunzhi had never read the Western books. Kircher excused Shunzhi for lacking the energy and time because he alone had to manage the empire. However, this passage was not on the original stele. Indeed, Shunzhi had mentioned Schall's decent character. After the passage that Yang Guangxian had cited, the inscription on the Stele wrote :

Schall has already entered China for decades. He holdfast his belief and worship God and started this new basilica with consistent prudence and pure. Such sincerity is highly respectable. If an official would attend his monarch with this status of the mind, he would also be able to carefully handle his daily business. I appreciate this and grant this board on which it is written “Wonderland of Comprehending Subtlety.”

Kircher roughly translated the above passage and affirmed Schall a loyal official and a man of character as a priest. However, Kircher immediately associated Schall's moral character with Shunzhi 's opinion that he had considered Christianity the highest religion. Kircher obviously distorted the meaning of the inscription on the Stele.

But how come Kircher understood the inscription of the stele in this manner as to totally miss Shunzhi indifferent attitude toward Christianity? In fact, Kircher's interpretation was probably informed by Schall who firmly stick to the face value of the Stele and believed that a gift like this had said more than anything else.

Because of importance of this Stele, Schall reported its content to the European readers in his memoir. Kircher's translation was taken from the Schall's memoir. Schall, however, left out Confucius when he translated the name of those ancient sages in the paragraph that Yang used to attack the missionaries. It is possible that Schall was simply made a mistake in his translation. Schall, however, was also convinced that Christianity had existed in ancient China but had undergone a decline since the times of Confucius. Moreover, Schall also filtered out messages that might fail the European readers' feeling for their slow progress of missionary efforts. As for the translation of the inscription, Schall is indeed wrote that Shunzhi considered Christianity the superior teaching to all other religions. Another Jesuit, Francois De Rougemont, (1624-1676) reported that originally Shunzhi had written the inscription in Manchu language and he espoused Christianity in his original draft. However, his Han Chinese officials protested and lured Shunzhi into altering the content of the inscription to express an indifferent attitude. Whether De Rougemont's story was reliable is unknown. But Schall seemed to believe that Shunzhi's original intension was distorted by external force and made every effort to resume Shunzhi's original intension. In any case, Schall insists that the stele was indeed a sign of imperial patronage. Schall is the key figure in shaping the meanings of this Stele for Christian readers.

After the missionaries were vindicated, Ferdinand Verbiest (1623-1688 ) wrote another book to refute Yang Guangxian in 1670. In this book, Verbiest again mentioned the stele to legitimate their endeavor of calendar-making. Verbiest argued that Schall had navigated to China with his profound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 and Number. Schall was born by the Haven to answer his Majesty's calling for calendar-making.

In Verbiest's reply, he no longer mentioned Shunzhi's attitude toward Christianity but focused on Schall's achievement as an astronomical bureaucrat. Verbiest's new strategy of reading the inscription, though defended the missionaries from attack initiated by people like Yang Guanxien, deprived the Jesuit the role of a priest and transformed them into merely bureaucrats.

###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

It is interesting that the same Stele can be read from so many different angles. But what was Emperor Shunzhi's intention expressed in this Stele? In fact there are very few passages that mentioned Christianity in the Stele. The only paragraph was exactly the one quoted by Yang Guangxian who used it as a leverage to impose an anti-Christian meaning on the stele. However, it is beyond imagination that Shunzhi needed to take such trouble to pose an anti-Christian gesture. Moreover, there were precedents that emperors had bestowed steles to a certain religion. Without exception, these steles all symbolize emperor's good will toward the temple or the priest. In fact, Shunzhi continuously patronized Schall during his reign. Shunzhi's favor toward Schall even extended to Schall's parents and grand father. The emperor even granted Schall to adopt a son to ensure Schall would be in good care at his old age. These facts make it clear that Shunzhi and Schall were very close. It is impossible that Shunzhi would have sent a gift to simply condemn the old man's religion. While patronizing Schall, Shunzhi wanted to be neutral to Christianity. Displaying neutrality was actually very important for the emperor wherever there was a factional struggle

or a political controversy. It is also a gesture and action that a Manchu emperor often took even if it is only pretentious. However, once the stele was erected before the basilica, it is difficult to prevent people from imposing meaning on it. Once a text book has been circulated, the author can no longer control how readers read it. Regardless Shunzhi's original intension, his action of bestowing the stele was immediately associated with his patronage to the religion until readers like Yang Guanxien challenged its meaning and separated the symbolic meaning of the Stele itself from the literary meanings of the inscription on the stele.

If Shunzhi did not intend to discount Christianity, how do we account for Shuizhi's apathetic attitude towards the religion on the inscription? It is quite possible that Shuizhi simply wanted to acknowledge his indebtedness to Schall who had dedicated his life at court helping the newly founded dynasty. Shuizhi probably had no intention to touch upon his relation with Christianity whatsoever. Just as Verbiest had mentioned, the inscription mainly praised Schall's contribution in setting up the calendar. The inscription started with quoting the Classic of Changes to explicate that setting up a calendar was the premises of receiving the Mandate from Heaven. By this quotation, the inscription set up the tone in Confucian tradition. The inscription then mentioned that the calendar had long demanded modification. It was due to the incompetence of the Chinese astronomers that the Westerns had an opportunity to fix the calendar. Even the last Ming emperor Chongzhen was hesitated to employed calendar produced by the Westerners, however. The inscription sounds as if the efforts of revising the imprecision of the calendar in the late Ming simply paved the way for the mandate of the Qing. As the three wise kings of the Gospels celebrated the birth of the King of Kings with gifts, the missionaries brought their astronomic knowledge to

celebrate the birth of the new dynasty. Schall thus was an indispensable figure who symbolized the mandate of the Qing. His status rose constantly at Shunzhi court because of this function. But Shunzhi's apathetic attitude toward Christianity expressed on the inscription largely reduce Schall's role as a priest. It depicted Schall as a good servant of God and therefore Schall attended his majesty with the same sincerity. In other words, according to description of the inscription, the only function Christianity served was to cultivate a loyal subject like Schall. Under the imperial bureaucratic system, Schall's social role as a priest of a foreign religion was largely downplayed.

In reality, openly denouncing the significance of Christianity in bureaucratic documents and emphasized only the contribution of setting up the calendar was a consistent strategy that the Shunzhi Emperor dealt with the Western priests. In the edict that Shunzhi granted the title "Master of comprehending subtlety" to Schall, it is written:

I have received the favor of Heaven, and you successfully compiled the Shih-hsien Calendar of the Great Ch'ing for me at the beginning of my conquest....I hereby bestow on you a good name so that people will remember that the virtuous man who helped me set up the calendar and who compensated for the grief of a thousand years was born of Heaven: it is by no means accidental.<sup>2)</sup>

Except the paragraph where Shunzhi mentioned his apathetic attitude towards Christianity, the content of the inscription of the Nantang Imperial stele was similar to the above-cited edict. They all emphasized the same fact that the contribution of the missionaries lying in their

---

2) CSK, 10020.

ability of setting up the new calendar for the Qing.

Of course, we may question whether the Shuizhi emperor really took the trouble to write up the above-mentioned inscription and edit. Nonetheless, since the two documents were issued in the name of Shuizhi, his authorization must more or less express in them. Or we may say that Shuizhi and his Confucian officials coauthored these two documents. Shuizhi's religious orientation was quite complicated. In his early years, he was very intimate to Schall and once expressed his interests about Christianity in private, according to the missionaries' reports. However, he turned to Buddhism in his late years. Perhaps Shuizhi had travel among different religions in private; but in public occasion, he was a Manchu ruling over an empire of the China proper. His ministers who ruled the empire with him were the Han Confucian literati submerging themselves in the Confucian classics. At this structural position, the Manchu Emperor could only appear as a Confucian emperor who had inherited the method of the mind transmitted by the ancient sages despite the fact that his heart might incline to a certain religion.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missionaries from the West could only play the role of faithful bureaucrats who brought the mandate of heaven to the emperor rendering him the khan of the four seas indifferent to religion and ethnicity of his subjects. Different subjects played different role in this divine comedy to fashion the augustness of the Manchu Emperor. In other words, the ambiguous attitude toward Christianity expressed by the Emperor Shunzhi was exact the key to his legitimacy of ruling the Chinese empire.

## Conclusion

The Jesuits had envisioned a frontier to be conquered, so had the Manchus. Both trespassed the border and intruded to the heart of China proper. The Jesuits provided a new calendar to legitimate the new dynasty established by the Manchu Khan who, in return, granted his patronage to the Jesuit for their service which they took as an admission of their religion. This gift exchange inscribed on the stele erected at Nantang basilica. The Chinese literati's who used to occupied the center of political and cultural arena were downgraded, if not marginalized, by the new foreign rulers and new cultural and religious force. They tried to cornered the Manchus in the Confucian cultural tradition and competed against the Jesuits for providing services and legitimacy to the new-born dynasty. Yang Guanxian thus took advantage of Shunshi's ambiguous attitude towards Christianity and waged his attacked on the Jesuits and read the inscription on the stele in an opposite manner. His reading of the stele even became one piece of evidence when he accused the Jesuits for treason in 1664. His successful attempt almost crushed the Church in China.

More than three hundred year has passed since the incidence. Nantang basilica and the stele remain. Whoever interested in Nantang basilica today can easily gain access to its photo from internet. However the image maybe deceptive. The Nantang basilica one sees today is a reconstruct in 1904. The original basilica had been destroyed during the Boxer Rebellion when the ally of foreign armies occupied Beijing. Even the Nantang basilica before 1900 can not maintain its original shape. It had been wrecked by natural and man-made calamities such as the earthquake and fire. It no longer retains the original shape in Schall's

times. Though Nantang have witnessed Schall's contribution and the power of Christianity at that time, it is also a monument of irony, canceling Schall's status as a priest. Nantang Basilica does not grow out of the effect of spreading the Christian belief, it is a souvenir that the emperor rewarded Schall's achievement as a bureaucrat. And just like all monuments, the original fact that required a monument to commemorate is later obliterated by different intentions of various readers and audiences. For Schall, Kircher and their Christian readers in Europe and China, the Stele commemorates the patronage of Christianity from a Chinese emperor; but for anti-Christian literati like Yang Guangxian this stele has witnessed the emperor as an inheritor of Confucian tradition indifferent to a foreign religion. The materiality of the monument itself thus becomes the media through which human agents articulate their different voices.

Though Nantang Basilica is no longer extant, the Stele erects still proving that stone is much tougher than other materials suitable for constructing a monument. Those people involved in the dispute of meaning of the inscription of the Stele have already passed away for more than 300 years. We have no way to conjure up their real intension when they faced the inscription or the Stele. Even Shunzhi himself would have never thought that the stele that he had granted to Schall would later involve in a great disturbance after his death. Nonetheless, the inscription on the Stele is close to oblivion after 300 years. But a curious and careful reader can still recognize that the 微 character is no longer the 玄 character on the original Stele. The current Stele which has experienced various vicissitudes in its duration is not the original one but a reconstruct after the Kangxi era! Thanks to the avoidance system, can we know this fact. It seems that even something as solid as

a stone can not prevail. Anticipation for an eternal monument is just an illusion.

In reality, Yang Guangxian had took away the stele from the basilica during his short-lived victory. According the report of the missionary, Yang Guangxian had completely destroyed the stele when he closed down the Nantang basilica. It seems that one has to erase the last possible memory of one's enemy after the victory of a power struggle. The unfortunate innocent stone stele becomes the scapegoat. But destroying the imperial stele itself would later become one of Yang Guangxian's crimes, then the missionaries stroke back. A new stele was reconstructed to celebrate missionaries' new victory as if the stele itself had always stood there and was vindicated as the missionaries.

The stone Stele stands still, but as ephemeral human affair, it does last forever.



# 바위 같은 견고함? 御製天主堂碑 이야기

祝平一 (臺灣 中央研究院)

## 서문

변경의 존재는 중앙 권력을 암시한다. 배제와 통제를 통해 변경은 존재할 수 있다. 변경은 경계이자 울타리로, 원치 않는 사회적 요소나 집단을 배제하기 위해 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변경에 대한 이야기는 권력 관계에 대한 담론이다.

변경은 권력 중심 사이의 가장자리이다. 이러한 이분법은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 연구들에 의해 수년간 비판 받아왔고, 식민 정권의 현지 협력자들의 역할을 고려할 때 특히 그러했다. 협력자들은 협력을 통해 신용을 얻고 이익을 취했을 수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중앙과 주변부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변경과 중앙은 또한 사회적 행위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차지하고자 하는 위치이다. 중앙과 주변부에 대한 이분법은 구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권력 중심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따라서 변경의 존재는 또한 변경의 교차와 변경 사무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본고는 원래 변경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예수회 선교사들이 어떻게 이를 넘어 중국의 권력 중심인 조정에 진입했으며, 만주족이 중국 내지를 갖 점령한 순치년간 제국에서 유교의 우위라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반천주교적 성향의 문인들이 어떻게 예수회 선교사들을 변경 지역에 묶어두고자 했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필자는 御製天主堂碑에 기록된 비석의 의미를 만들고 파괴하는 데 관여했던 역사적 행위자들 간의 권력 관계를 살핌으로써,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둘러싼 이 투쟁에 접근하고자 한다.

## 皇帝의 선물 : 南堂

1657년은 중국의 예수회에 있어 또 하나의 기념할 만한 해이다. 그 해 순치제는 북경 宣武門 근처에 세워진, 최초의 성당인 南堂에 와서, "通玄佳境"이라는 편액을 하사하고 성당의 입구에 걸도록 하였다. "通玄"이란 순치제가 아담 샬 폰 벨에 대해 존경의 의미를 담아 붙인 별호였다. 황제의 가벼운 방문이 일으킨 마법은 아담 샬과 그의 성당에 신성한 기운을 부여하여 그들의 앞날에 깊은 반향을 울려 퍼지게 했다. 이에 더하여 순치제는 성당에 비석을 세워 자신의 방문을 기념하는 것을 허가했다.

南堂은 1650년, 마테오 리치가 1605년에 세운 교회 바로 옆에 세워졌다. 마테오 리치의 성당은 과거 동림당에 의해서 세워졌고 1629년 徐光啓(1562-1633)가 曆局을 설치하여 달력(時憲曆)을 재정비하는 일을 했던 서원 건물과 합쳐졌다. 아담 샬은 1644년 이후 계속 이곳을 점유하면서 만주 황제의 천문관 임무를 수행했다. 1650년 순치제는 아담 샬에게 매우 많은 땅을 주었기 때문에 아담 샬은 曆局 옆에 성당을 지을 수 있었다. 성당과 曆局 간의 근접성은 달력과 카톨릭 신앙 간의 가까운 관계를 상징했다.

南堂은 바로크 양식의 성당이었다. 그 기본 형태는 라틴 양식의 십자형으로 길이는 26.67m, 폭은 15m였다. 꼭대기에는 돔 형태의 지붕이 있는 성당은 주변 건물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다른 중국 건물들과 확연하게 구분되었다. 벽면은 각종 성화(聖畵), 천주교 교리, 고위 관료와 공자의 66대손의 서예 작품 등으로 장식되었다. 이 서예 작품들은 천주교를 찬미하는 내용이었다. 프란시스코 수도회의 안토니오 카발레로(Antonio Caballero)는 南堂이 중국인들을 놀라게 했고, 화려한 건축물이 되었다고 기록했다. 중국인들은 천주교도이든 아니든 성당 앞으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지만 단순히 구경하러 오기도 했다.

처음으로 서구식 건축물이 중국의 수도에 모습을 드러냈고 중국의 천주교도들은 천주교 의례를 유럽식 성당에서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종교적 목적에서 이 신성한 장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곧바로 그들 자신을 다른 중국인들과 구분 짓기 시작했다.

종교적인 기능에 더하여, 南堂은 사제이자 관료라는 예수회의 이중적 정체성을 내보였다. 南堂의 건립은 주로 관료들의 기부에 의지했다. 일부 자금은 심지어 태후에게서 오기도 했다. 천문대와 천문 관측기구는 마테오 리치가 살았던 과거와 마찬가지로 남아있었다. 바꿔 말해, 南堂은 제국에 봉사한 아담 샬에게 주어진 상이었다. 이는 아담 샬이 그 자신의 지식과 맞바꾼 선물이었다. 신생 제국을 위한 달력을 제조하는 데 있어 아담 샬의 성공적인 노력은 이 기념비적인 건축에 집약되었다. 천문관으로 봉사함으로써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또한 천주교 정책이 출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아담 샬은 南堂이 설립된 이후에도 계속 순치제의 호의를 받았다. 1653년 아담 샬은 “通玄教師”라는 칭호를 순치제로부터 받았고, 황제는 1656년에서 1657년 사이 아담 샬을 24차례 방문했다. 아담 샬의 경력 중 가장 화려한 부분은 순치제가 1657년 南苑에 행차하여 그에게 ‘南堂碑’를 하사한 일이었다.

御製天主堂碑는 흰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몸통은 200×85cm, 머리 부분은 16×23cm였다. 비문은 한문과 만문이 병기되었으며 제일 끝에 순치 14년 2월 초하루라는 날짜가 기록되었다.

비석은 황제의 다른 선물들과는 구별된다. 황제의 다른 선물들은 쉽게 손상되었다. 그러나 비석은 고의적으로 부수지 않는 한 세월의 풍상을 견뎌낸다. 비석의 견고함은 南堂이 화재에 휩싸였을 때 시험 당했고, 비석은 이를 이겨냈다. 명 후기 중국에 왔던 사제들은 오랜 세월을 견딘 석비가 어떻게 중국에 천주교의 유구함을 가져 올 수 있는지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1625년 네스토리우스파 비석(大秦景教流行中國碑)의 발굴은 당시 중국의 소규모 천주교 공동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는 천주교 신앙이 중세에 이미 한 번 흥성했었다는 매우 분명한 증거였다. 이는 더 나아가 천주교 신앙의 전파가 고대부터 이루어졌다는 상상을 불러일으켰다. 예를 들어, 아담 샬은 예수의 사도 성 토마스가 東漢 시기에 천주교를 전파했고 네스토리우스파가 唐代에 이 위대한 사업을 이어갔다고 기록했다. 중국에서 천주교의 역사를 다시 만들어내고자 한 아담 샬의 시도는 大秦景教流行中國碑의 재발견에 의해 견고해졌다. 이처럼 비석의 물질성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여, 과거의 이질성을 동일한 기억 속으로 전환함으로써 현재를 정당화했다. 성당에 끼친 영향력의 측면에서 大秦景教流行中國碑는 순치제가 하사한 새로운 석비와 비교조차 되지 못했다. 大秦景教流行中國碑는 추종자와 사제에 의해서 설립된 것인 반면 御製天主堂碑는 황제에게 받은 선물로, 이는 이제껏 중국 황제가 성당에 하사한 유일한 비석이었다. 이는 성당과 사제, 그리고 황제의 연결을 확고한 근거 위에 확실하게 새긴 것으로, 이는 대리석 그 자체처럼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南堂의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문인들의 서예 작품 중에서 공자의 후손 孔興燮의 작품은 가장 큰 상징적 무게를 가진다. 孔興燮은 공자의 후손 중 최초로 만주 황제에게 衍聖公의 작위를 받은 인물이었다. 이는 유교와 연대를 이루려 했던 마테오 리치의 전략이 성공적이었음을 증명한다. 이 칭호를 받아들임으로써 孔興燮은 유교 전통이 가지고 있는 정당성을 황제와 제국에 부여했다.

孔興燮과 아담 샬은 모두 새로운 왕조의 탄생을 공인했다. 아담 샬은 새로운 달력을 황제에게 헌상함으로써 만주족의 통치를 정당화했다. 그 반대급부로 순치제는 성당과 비석을 하사하고 성당과 천주교의 지위를 향상시켜 주었다. 아담 샬은 1657년 비석이 교회의 상징물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확신하여, “황제가 비석을 하사한 이후 천주교 교리는 확고한 지지를 받았다.”고 여겼다. 그는 석비가 어떤 구체적인 말 보

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여겼다. 다른 천주교도 역시 비석이 천주교에 대한 순치제의 후원을 상징한다고 여겼다.

상상해 보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교회 안에 그 지역의 황제가 상으로 내린 비석이 존재했다. 이는 비단 중국에 온 선교사들의 사기를 고양시킬 뿐 아니라 유럽인들에게 언젠가 중국이 개종될 수도 있다는 한 줄기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당시 중국에 가장 해박했던 예수회의 아타나시우스 커르허(Athanasius Kircher)는 로마대학에 위치한 그의 박물관에 이 비석의 탁본을 수집하였고, 일부 내용을 발췌·번역하여 1667년에 출간한 그의 저서 *China Illustrata*(『中國圖說』)에 수록하였다. 커르허는 순치제와 아담 샬의 친밀한 관계를 간단하게 묘사했다. 그의 서술에 따르면, 순치제는 천주교를 가장 훌륭한 종교라고 생각했고 그의 만주 조상들도 이미 개종했음을 밝혔다. 또, 순치제는 비석을 하사함으로써 천주교에 대한 그의 후원 의사를 밝히고 중국 전역에 천주교 신앙을 전파하려고 했다.

커르허의 서술은 진실의 일부만을 밝힌 것이다. 그의 목적은 유럽의 독자에게 예수회가 중국에서 이룬 성과를 선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담 샬의 성공담은 커르허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아무튼 커르허와 중국 내 천주교 공동체는 비석의 의미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황제로부터의 선물이 천주교에 대한 그의 호의와 후원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1661년 순치제가 사망한 후, 아담 샬의 성취와 커르허의 부푼 기대 위에는 楊光先이라는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새로운 황제인 강희제는 8살 먹은 어린아이에 불과했고, 실권은 사실상 4명의 보정대신에게 장악되어 있었다. 이러한 정치상황의 변화 덕분에 1664년 楊光先은 예수회를 조정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楊光先은 자신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미지를 본 적 있는 진정한 유교 지식인이라고 주장했으며, 동시에 제국이 사교(邪教)의 불온한 음모에 빠져 있다고 믿었다. 楊光先은 1664년 3월 25일 예수회를 후원하는 許之漸에게 편지를 보냈고, 거기에 비석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楊光先은 비석의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순치제에게 천주교를 지원할 의사가 조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황제의 지위가 고대 삼황오제로부터 직접 이어진 것으로, 황제는 주공과 공자의 道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 大清의 재상은 반드시 유교 신봉자여야 한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주장했다. 바꿔 말해 황제의 인종과는 별개로 유교제국인 중국에 천주교에게 주어질 공간은 존재하지 않았다.

楊光先이 편지를 쓴 목적은 許之漸이 중국인 개종자 李祖白의 책에 쓴 서문을 철회하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李祖白은 曆局의 관리였다. 李祖白의 저서인 『天學傳概』는 천주교 교리와 그 역사에 관한 내용으로, 李祖白은 중국의 역사와 성경의 연대기를 연결시켰다. 李祖白은 중국인이 고대 유대인에서 유래했으며, 고대 중국에

천주교가 널리 퍼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책의 말미에서 李祖白은 순치제가 천주교에서 가르침을 얻기 위해 南堂을 방문했으며, 심지어 황제가 천주교에 대한 찬사를 담은 비석을 성당에 하사했다고 기술했다.

楊光先은 만약 자신이 許之漸으로 하여금 예수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이는 사교 집단에게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었다. 1664년 7월 26일, 楊光先은 앞서 언급한 편지와 동봉하여 선교사에 대한 자신의 혐의를 표출했다. 楊光先의 행동으로 인해 비석의 의미가 시험대에 올랐다.

楊光先에게 있어 비석 자체는 순치제가 천주교를 지지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비문의 내용이 순치제가 선교사에게 비석을 하사한 행위와 배치되기 때문이었다. 楊光先은 아래의 부분을 강조했다.

나(황제)는 南苑에 왔다가 이곳(성당)을 우연히 지나치게 되었다. (중략) 내가 책상 위에 놓인 책이 무엇인지 묻자 천주교 교리에 관한 책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현재 내가 신봉하는 것은 堯와 舜, 周公과 孔子의 도(道)이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精一執中”의 이치(理)이다. 『道德』과 『楞嚴』 등 도교와 불교의 서적은 한때 섭렵했었지만, 그 지향하는 바와 핵심이 분명치 않았다. 하물며 천주의 가르침을 담은 서양의 책은 내가 읽어 본 적이 없으니 그 뜻을 내가 어찌 이해하겠는가?

이 시기는 조정에서 아담 샬의 평판이 가장 좋을 때였고,<sup>1)</sup> 수도의 성당 앞에 서 있는 명문은 황제의 후원과 총애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치제는 유교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분명하게 밝혔고 선교사들의 어떠한 종교적 주장도 단호하게 거부했다. 楊光先은 한걸음 더 나아가 황제는 한 번도 서양의 책을 읽은 적이 없었고 천주교 신념에도 전혀 익숙하지 않았으므로, 만약 李祖白이 순치제가 南堂을 방문하여 천주교에서 조언을 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황제의 이름을 이용하여 종교를 선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서술했다. 楊光先은 李祖白이 순치제가 옛 성현들의 도에 따른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에 사악한 책을 지어 황제의 뜻을 부정하고 천주교를 선전하려 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李祖白은 황제의 뜻에 반하였으므로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외국 추종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황제가 천주교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李祖白은 계속 중국인이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역대 성군(聖君)과 현신(賢臣)을 이교의 후예로, 『四書』와 『六經』을 이단의 미언(微言)으로 만들었다고 보았다. 楊光先은 이러한 내용이 ‘중국 천주교도들의 불충한 마음을 보여주기엔 충분하지 않은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1) Spence, *To Change China*, 19.

楊光先은 비문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강조하여 황제의 선물에 대한 예수회의 기존 해석을 완전히 뒤집었다. 그는 또 그동안 선교사와 개종자들이 황제와 그들의 종교 사이에 부여했던 친밀성을 공중분해 시켜버렸다. 비문의 내용은 비석 그 자체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楊光先과 선교사들 사이의 대립은 楊光先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때마침 일어난 강력한 지진은 5명의 개종한 중국인 曆局 관료의 목숨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에 체류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목숨을 기적적으로 구원했다.

## 사제에서 관료로

楊光先의 도전으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가 운 좋게 목숨을 건진 선교사들은 비석을 단순하게 중국에서 천주교가 가진 위상의 명백한 근거로 확신했던 기존의 태도를 버렸다. 그들은 비문의 내용을 직시해야만 했다.

루도비코 불리오(Ludovicus Buglio, 1606-1682)는 선교사의 활동이 중단된 후 논문을 통해 楊光先의 주장을 반박하고 비석의 상징적 의미를 재확인했다. 그는 순치제가 성당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비석을 포함한 다양한 물품을 하사했다고 주장했다. 불리오는 여전히 비석의 선물로서의 측면을 강조할 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했다. 그러나 불리오는 한걸음 더 나아가 아담 샬의 고매한 인품에 주목했다. 그는 “만약 아담 샬이 정말로 기만적이었다면 어떻게 황제의 혜안을 피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질문하였다. 그러나 그의 대응은 이미 선교사들을 열세로 몰아넣고 있으며, 비문의 내용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선교사들 자신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불리오는 황제의 혜안이라는 중국인들이 감히 의문을 품지 못하는 절대적 권위를 끌어들이 楊光先의 문제제기를 피하고자 했다.

비석 자체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불리오의 집착은 당시 비석에 대해 당시 선교사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해 방식이었다. 유럽에서 커르허는 楊光先이 선교사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했던 비문의 핵심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한때 나는 堯舜傳 그리고 春秋라고 불리는 가르침을 공부하여 몇 가지를 이해하였다. 나는 불교와 도교의 책을 읽었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조정의 사무가 나를 계속 붙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는 기회를 제외하면 이 종교를 다룬 책을 살필 여가가 없었다. 때문에 나는 이에 관해 정확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그러나 오랫동안 중국에서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 이 교리를 따르고 우리에게 이 교리를 설파해왔던 Johannes Adam를 고려하면, 나는 이 교리가 가장 훌륭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밑줄은 필자가 추가한 것임.)

커르허는 ‘현재 내가 신봉하는 것은 堯와 舜, 周公과 孔子의 도(道)이다.’와 ‘내가 추구하는 것은 “精一執中”의 이치이다.’라는 두 문장을 오독(誤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두 문장에서 순치제는 자신이 유교 제국의 황제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커르허는 유교를 마치 불교나 도교 등 보다는 우월한 종교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다. 커르허는 또한 순치제가 서구의 서적을 전혀 읽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무시했다. 커르허는 순치제가 홀로 제국을 통치하느라 시간과 기력이 부족했다는 핑계를 댔다. 그러나 이 구절은 원래의 비석에는 없었다. 분명 순치제는 아담 샬의 고매한 인품에 대해 언급했다. 楊光先이 인용한 구절 바로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아담 샬은 중국에 들어온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났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천주를 모셨으며 한결같은 신중함과 순수함으로 이 새로운 성당을 열었다. 이와 같은 진정성은 매우 높이 존경받을 만 하다. 만약 관리가 자신의 군주를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섬긴다면 그는 자신의 일상 사무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짐은 이를 매우 가상하게 여겨 ‘通微佳境’라고 쓰여진 이 편액을 하사하노라.

커르허는 위의 문장을 거칠게 번역하여 아담 샬을 충성스러운 관원이자 고결한 인품의 성직자로 단언했다. 그러나 커르허는 아담 샬의 고매한 인품과 천주교에 대한 순치제의 의견을 곧바로 연결시켜, 순치제가 천주교를 가장 고상한 종교로 여겼다고 보았다. 커르허는 명백히 비문의 의미를 왜곡시켰다.

그렇지만 커르허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천주교에 대한 순치제의 무관심한 태도를 완전히 놓친 채 비문을 이해하게 된 것일까? 기실 커르허의 번역은 비석의 액면적 가치에 집중하고 이런 종류의 선물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고 믿었던 아담 샬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이 비석의 중요성 때문에 아담 샬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그 내용을 유럽의 독자들에게 알렸다. 커르허의 번역은 바로 이 회고록에서 취한 것이다. 그러나 아담 샬은 楊光先이 선교사를 공격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구절을 번역할 때 옛 성현의 이름 중 공자를 누락시켰다. 이는 아담 샬이 저지른 단순한 번역상의 실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담 샬은 고대 중국에 천주교가 존재했으며 유교의 흥성으로 쇠퇴하게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더구나 그는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인해 그들이 조금씩 진보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유럽의 독자들이 받지 못하게 할 만한 내용을 걸러냈다. 비문의 번역에서처럼, 그는 실제로 순치제가 천주교를 모든 다른 종교보다 우월한 가르침이라고 여긴다고 기록했다. 또 다른 예수회 선교사인 프랑수아즈 루

즈몽(Francois De Rougemont)은 원래 순치제는 비문을 만주어로 썼고 만주어로 된 원안에서는 천주교를 옹호했지만, 그의 한쪽 관료들이 여기에 반대하고 순치제로 하여금 비문의 내용을 바꾸어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도록 유도했다고 전했다. 루즈몽의 이야기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아담 샬은 순치제의 원래 의도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며, 순치제의 원래 의도를 회복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여하튼 아담 샬은 비석이 황제의 후원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아담 샬은 천주교 독자들이 비석의 의미를 만들어 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선교사들이 누명을 벗은 1670년, 페르디난드 페르비스트(Ferdinand Verbiest)는 楊光先을 논박하는 또 다른 책을 지었다. 이 책에서 페르비스트는 비석을 달력 제조를 위한 선교사들의 노력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언급했다. 페르비스트는 아담 샬이 이론적인 부분과 수학에 관한 깊은 이해를 지닌 채 중국으로 건너간, 달력 제조를 원하는 순치제의 요청을 받아 하늘이 낸 인재라고 주장했다. 페르비스트는 더 이상 천주교에 대한 순치제의 태도를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아담 샬이 천문관으로서 올린 성취에 주목하였다. 비문 해석에 관한 페르비스트의 새로운 전략은 비록 선교사들을 楊光先과 같은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냈지만 예수회에게서 사제로서의 역할을 빼앗고 그들을 단순한 관료로 변화시켰다.

## 일석이조

같은 비석이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해석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하지만 비문에 표현된 순치제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였을까? 사실 비문에는 천주교에 대한 구절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유일한 구절은 楊光先이 비문에서 반천주교적인 의미를 주장하기 위해 지렛대로 사용했던 바로 그 부분이다. 그러나 순치제가 이와 같은 분란을 감수해가며 반천주교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는 상상하기 힘들다. 게다가, 황제가 특정 종교에 비석을 하사한 선례를 볼 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그런 비석은 모두 해당 사원 혹은 사제를 향한 황제의 호의를 상징했다. 사실 순치제는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아담 샬을 후원했다. 아담 샬에 대한 순치제의 호의는 심지어 그의 부모나 할아버지에게 까지 영향을 미쳤다. 황제는 심지어 아담 샬에게 수양아들을 하사하여 그의 노후가 편안하도록 조치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순치제와 아담 샬의 관계는 매우 가까웠음이 분명하다. 순치제가 단순히 이 노인의 종교를 비난하기 위해 선물을 보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아담 샬을 후원하는 동안 순치제는 그의 종교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자 했다. 당파 싸움과 정치적 논쟁이 존재하는 한, 중립성을 보여주

는 것은 황제에게 실제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이는 비록 가식적인 것에 불과했지만 만주 황제는 이러한 태도와 행동을 자주 취했다. 그러나 일단 비석이 성당 앞에 세워지자 사람들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막기 힘들어졌다. 일단 교과서가 유통되면 저자는 더 이상 독자들이 이를 어떻게 읽는지 통제할 수 없게 된다. 楊光先과 같은 독자들이 그 의미에 도전하여 비석 자체가 가진 상징적 의미와 비문에 담긴 내용적 의미를 구분하기 전까지, 순치제가 비석을 하사한 행위는 그의 원래 의도가 무엇이든 그 천주교에 대한 그의 후원으로 해석되었다.

만약 순치제가 천주교를 무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비문에 기록된 순치제의 천주교에 대한 심드렁한 태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순치제는 일평생을 조정에 봉사하며 새로운 왕조의 건립을 도운 아담 샬에 대해 단순하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싶었던 것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순치제는 아마 어떤 형태로든 자신과 천주교에 관한 관계를 언급할 의도가 없었던 것 같다. 페르비스트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비문은 주로 달력 제조에 있어 아담 샬의 공로를 치하했다. 비문은 『易經』을 인용하여 달력의 정비가 천명을 받기 위한 기본 전제임을 설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 인용을 통해 비문은 기초를 유교 전통에 맞췄다. 비문은 달력이 오랫동안 수정을 필요로 했으며, 중국의 천문가들의 무능 때문에 서양인이 달력을 수정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심지어 명의 마지막 황제인 송정제조차 서양인이 만든 달력을 이용하는 것을 주저했지만, 비문은 내용은 마치 달력의 모호함을 바로잡기 위한 명말의 노력이 청조의 통치를 위한 길을 닦은 것처럼 들린다. 복음에 나오는 3인의 현왕(賢王)이 선물을 가지고 '왕 중의 왕'의 탄생을 축하하았던 것처럼, 선교사들은 그들의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왕조의 탄생을 축하한 것이다. 따라서 아담 샬은 청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순치 조정에서 아담 샬의 지위는 계속 올라갔다. 그러나 비문에 표현된 천주교에 대한 순치제의 무관심한 태도는 사제로서 아담 샬의 역할을 크게 감소시켰다. 비문은 아담 샬은 신의 충실한 종복이기 때문에 그가 동일한 신실함으로 황제를 보필했다고 묘사했다. 다시 말해, 비문에 따르면 천주교의 유일한 기능은 아담 샬과 같이 충직한 신민을 양성하는 것뿐이었다. 제국의 관료 조직에서 외국 종교의 사제라는 아담 샬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경시되었다.

실제로 공식 문서에서 천주교의 의미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거나 달력의 정비에 대한 기여만을 강조하는 것은 순치제가 서양 사제를 다루는 데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전략이었다. 순치제가 아담 샬에게 '通玄教師'의 칭호를 수여하는 칙령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짐이 천명이 받아 정복을 시작하는 때에 그대는 大清의 달력인 時憲曆을 짐에게 바쳤다. (中略) 이에 짐은 짐을 도와 달력을 만든 그대와 같은 고귀한 사람이 있다

는 사실과 이것이 수천 년간의 闕略을 보충하기 위해 하늘이 낸 것이지 우연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 이 아름다운 칭호를 그대에게 하사하노라.<sup>2)</sup>

천주교에 대한 순치제의 무관심한 태도를 언급한 부분을 제외하면 御製天主堂碑의 비문은 위에서 인용한 칙령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 둘 모두 선교사들이 자신의 능력을 동원하여 청조를 위한 새로운 달력의 제조라는 공헌을 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물론 우리는 순치제가 정말로 수고스럽게 손수 위에서 언급된 비문을 작성하고 편집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문건은 순치제의 명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의 의중이 크건 작건 분명 그 속에 표현되어 있다. 혹은 순치제와 그의 유교적 성향의 관료들이 함께 두 문건을 작성했다고 볼 수도 있다. 순치제의 종교적 지향은 상당히 복잡했다. 선교사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어린 시절 순치제는 아담 삶과 매우 친밀했고 천주교에 대한 그의 관심을 개인적으로 표명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불교로 전향했다. 아마 순치제는 개인적으로 여러 종교를 배회한 것 같다. 그러나 공적으로 그는 중국 전역에 걸친 제국을 통치하는 만주인이었다. 그를 도와 제국을 통치하는 재상들은 유교 경전에 빠져 있는 한족 문인들이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만주 황제는 특정 종교에 마음이 기운다고 할지라도 옛 성현의 심법(心法)을 계승한 유교 군주로 스스로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양에서 온 선교사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황제를 피지배민의 종교·인종에 개의치 않는 사해의 대칸으로 만들기 위해 천명을 가져오는 충실한 관료로서의 역할 뿐이었다. 만주 황제의 위엄을 세우기 위해 빚어진 이 성스러운 희극에서 각 신민은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았다. 바꿔 말해, 순치제에 의해 표현된 천주교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야말로 그가 중국을 통치하기 위한 열쇠였다.

## 결론

예수회는 정복 대상으로서의 변경지대를 상상했고 이는 만주족 역시 마찬가지였다. 양자는 모두 국경을 무단으로 넘어 중국의 중심부를 침범했다. 예수회는 새로운 달력을 제공하여 만주 대칸에 의해 세워진 새로운 왕조에 정당성을 부여했고 그 반대급부로 대칸은 예수회의 활동을 후원하여 그들이 자신의 종교를 중국에 들여놓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선물 교환이 南堂에 세워진 비석에 새겨졌다. 정치

2) CSK, 10020.

와 문화의 중심을 장악하고 있었던 한인 문인들은 그들 자신이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지라도 새로운 외래 지배자와 문화, 종교 권력에 의해 격하되었다. 그들은 만주인을 유교 문화의 전통 속에 가두려 노력하고, 새로운 정권에 봉사하며 정당성을 부여하는 예수회와 경쟁했다. 따라서 楊光先은 천주교에 대한 순치제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이용하여 예수회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고 비문의 내용을 정반대의 방식으로 독해했다. 비문에 대한 그의 독해는 1664년 그가 예수회를 반역죄로 고발하였을 때 증거가 되었다. 그의 시도가 성공함에 따라 중국의 교회 세력은 산산조각났다.

그 사건으로부터 300년이 넘게 지났지만, 南堂과 비석은 그대로 남아있다. 오늘날 南堂에 대해 관심이 있는 누구라도 인터넷을 통해 사진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아마 본 모습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의 南堂은 1904년에 재건축된 것이다. 원래의 건물은 의화단 사건 때 유럽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했을 때 파괴되었다. 1900년 이전의 南堂 역시 지진과 화재 같은 각종 천재와 인재로 파괴되어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다. 이는 더 이상 아담 살 시기의 원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南堂은 아담 살의 공헌과 당시 천주교의 위상을 증명하지만 동시에 그의 사제로서의 지위가 삭제된 아이러니한 기념물이다. 南堂은 복음의 전파의 영향력이 커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 황제가 관료로서의 아담 살에게 그의 성취를 치하하여 내린 선물이었다. 그리고 모든 다른 기념물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기념하고자 한 원래의 사실은 이후 다양한 독자와 청자의 서로 다른 의도에 의해 사라진다. 아담 살과 커르허 그리고 유럽과 중국의 천주교 독자들에게 비석은 천주교에 대한 중국 황제의 후원을 기념하는 것이었지만 楊光先과 같은 반천주교적 문인에게 이 비석은 황제가 유교문화의 계승자로서 외국 종교에 대해 무관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기념물 자체가 가지는 물질성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자신의 목소리를 표출하기 위한 매개체가 되었다.

비록 南堂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비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돌이 다른 어떤 소재보다 견고하여 기념물을 만드는 데 적합하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비문의 의미를 가지고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모두 이미 30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지금에 와서 그들이 비문 혹은 비석과 직면했을 때의 진의를 알아낼 도리는 없다. 심지어 순치제도 그가 죽은 후에 자신이 아담 살에게 내린 비석이 이처럼 큰 분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문은 이후 300년 동안 잊혀진 상태에 가까웠다. 그러나 호기심 많고 주의 깊은 독자라면 여전히 현재 비석에서 ‘微’자가 더 이상 원래 비석에서 ‘玄’자가 아니라는 점을 눈치 챌 수 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왔던 현재의 비석은 원래의 비석이 아니라 강희년간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회피 장치 덕분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돌처럼 단단한 물체조차 영원할 수 없는 것 같다. 영

구적인 기념물에 대한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다.

실제로 楊光先은 그가 우세를 점한 짧은 기간 동안 비석을 성당에서 치웠다. 선교사들의 기록에 따르면 楊光先은 그가 南堂을 폐쇄할 때 비석을 완전히 파괴했다. 정쟁에서 승리한 후 승리한 쪽은 적대 세력의 가능한 최후의 기억까지 지워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불행히도 무고한 석비가 그 희생양이 되었다. 그러나 황제가 하사한 비석을 파괴한 행위는 훗날 楊光先이 저지른 죄 중 하나가 되어 선교사들의 반격을 받았다. 선교사들의 새로운 승리를 기념하는 새로운 비석이 세워졌고 그 비석은 마치 언제나 그곳에 서서 선교사들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 같았다.

석비는 여전히 서있다. 그러나 사람의 일에 수명의 한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영원할 수는 없다.

# 명대 외국 사절의 신분 증명 방식과 국가간 체계

정동훈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 서론

대한민국 국적의 선원이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집단에게 납치되었을 때, 대한민국 정부는 절대 이들 해적집단과 직접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 가자(Gaza) 지구에서 하마스(Hamas) 세력과 이스라엘 사이에 교전이 발생했을 때, 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협상에 나선 것은 이집트 정부였다. 소말리아 해적집단과 하마스 세력이 협상의 주체가 되지 못한 것은 왜일까? 그것은 이들이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어떤 정치체는 국제연합, 즉 UN의 회원국으로 가입이 승인될 때에 비로소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는다. 그렇다면 전근대 동아시아에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했을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이른바 ‘조공시스템’(Tributary System) 이론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정치와 경제, 즉 외교와 무역의 통합된 형태였다는 것이다. 즉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주변국들은 ‘책봉’이라는 형식을 통해 중국의 정치적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조공’이라는 형태로 중국과의 교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 국제관계에서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출범한 국제연합의 권위를, 전근대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책봉을 받는 주체는 국왕, 즉 크든 작든 어느 정치체의 수장이어야 했으며, 조공을 바치는 주체 역시도 국왕이어야 했다.<sup>1)</sup> 바꿔 말하면 조공시스템이 그 이상적인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왕’이 주체가 되는 ‘국가’라는 형

1) 그러나 조공을 바치는 주체가 책봉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檀上寬, 『明代朝貢體制下の冊封の意味』, 『史窓』 68, 2011 참조.

태가 ‘국제관계’의 행위주체로서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sup> 사실 ‘international’과 그 번역어인 ‘國際’라는 단어 자체가 ‘nation’과 ‘國’을 전제로 하고 있음은 상식일 터이다.

현대의 공인된 ‘국가’는 그 ‘국민’에게 신분 증명서를 발급하는 주체가 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과 같이 국내에서 통행되는 각종 증명서 외에도, 국가는 국민에게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다. 바꿔 말하면 특정 국가의 국민은 그 ‘국가’가 발급하는 여권을 통해서 국제사회 속에서 자신의 소속을 확인받는다. 그리고 외국 국민이 자국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대개의 경우 그들에게 사증(Visa)을 발급함으로써 입국 허가를 내리는 권위를 가진다. 현대에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런 제도와 절차가 과연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

전근대 중국과 그 주변국 사이에서는 현재와 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일이 자유롭지 않았다. 특히 중앙정부에 의해 강력한 海禁 정책이 취해졌던 명대 전기에는 내국인들이 바다를 통해 외국에 나갈 수도, 외국인들이 명 내지로 들어올 수도 없었다.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에 나간 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 오직 매우 제한된 인원들, 즉 중국 조정에 의해 사절로 파견되는 사람들이나, 혹은 외국인의 사신으로서 중국 조정으로 향하는 사람만이 국경을 넘나들 수 있었다.<sup>3)</sup>

이 글에서는 명대, 좀 더 구체적으로는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에 걸쳐 주변국의 사신들이 명에 들어갈 때에 제출해야 하는 신분 증명서로 어떤 것이 쓰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즉 사절의 신분이 어떤 권위에 의해 증명, 보장되었는지를 파악해볼 것이다. 특히 명을 중심으로 지역을 나누어서, 바다를 통해 연결되는 지역들, 즉 일본과 유구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육로를 통해 연결되는 지역들, 즉 여진, 몽골 등을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그리고 명이 신분 증명 방식을 도입한 의도를 살펴, 명이 구상하고 있던 국제질서의 이상적인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확인해보겠다.

본론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명대의 철저한 해금 정책 하에서 사절의 신분은 勘合과 貢勅이라는 것에 의해서 증명되었다. 勘合은 占城·暹羅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 및 일본의 수장들에게, 貢勅은 여진과 몽골의 부족단위 수장들에게 수여된 것이었다. 이 각각에 대해서는 조공시스템의 논의 속에서 아주 상세한 연구들이 행해져왔다.<sup>4)</sup> 반면에 조선의 사절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했는지에 대

2) 여기서 ‘국가’란 근대 이후에 등장하는 nation state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본고에서는 ‘국가’를 중국을 제외하면 수평적으로 평등하고 병렬적이며 배타적인 범주를 가지고 존재하는 형태의 정치체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한정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3) 물론 이는 이념형으로서, 제도상 그렇다는 것이다. 실제 ‘국경’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존재했는지 여부는 물론이거니와, 실제로 그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던 인적·물적 흐름에 대해서는 완전히 별개의 시각에서 분석해야 할 것이다.

해서는 필자가 아는 한 연구된 적이 없다. 다만 감합에 대한 연구들 중에서 조선에는 일본과 같은 형식의 감합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언급이 있었을 뿐이다.<sup>5)</sup>

필자가 살펴본 결과, 실제로 명 조정에서 조선의 사절에게 감합이나 공칙과 같은 신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는 없었다. 그렇다고 사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나 절차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본고에서는 그 구체적인 실태를 살펴보고, 이것이 다른 지역들, 국가들과 가지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명대에 모색되었던 국제질서 구상 속에서 조선이 차지하고 있던 특수한 위치에 대해서 확인해보겠다.

## I. 명 초 외국 사절의 신분 증명서

### 1. 신분 증명서의 종류와 기능

명은 건국 직후 高麗·安南·日本 등 주변국들에 사절을 파견해서 건국을 알리고 조공을 보내올 것을 요구하였다.<sup>6)</sup> 이에 安南을 필두로 각국은 南京에 사절을 파견하여 즉위를 축하하고 책봉을 요청하였으며, 명도 이에 응하였다.<sup>7)</sup> 이후 주변제국으로부터의 조공사절은 끊이지 않았으며, 이로써 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천하질서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채 5년이 지나지 않아, 홍무제는 주변국으로부터의 연이은 조공사절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너무 많은 조공사절과 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역에 의해 중국의 부가 유출되는 것을 꺼려했던 점,<sup>8)</sup> 또한 당시까지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있던 張士誠·方國珍의 잔여 세력 등 해상세력이나, 雲南의 梁王, 遼東의 納哈出

4) 일본에 주어진 감합에 대해서는 田中健夫, 『倭寇と勘合貿易』, 至文堂, 1961년을 비롯, 田中健夫, 「勘合符·勘合印·勘合貿易」, 『對外關係と文化交流』, 思文閣出版, 1982; 佐久間重男, 『日明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91; 鄭樑生, 『明·日關係史の研究』, 雄山閣出版, 1984 등 매우 상세한 연구가 제출되었다. 여진과 몽골에 주어진 貢勅, 혹은 勅書에 대해서는 Henry Serruys, *Sino-Mongol Relations During The Ming II - The Tribute System and Diplomatic Missions(1400-1600)*, Institut Belge Des Hautes Etudes Chinoises, 1967 중 제13장 <Tribute Route and Credentials>; 金九鎮, 「明代 女眞社會의 貢勅과 書契: 馬市와 貿易所의 女眞商人團의 形成 背景」, (宋甲鎬教授停年退任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編,) 『宋甲鎬教授停年紀念論文集』, 1993; 江嶋壽雄, 『明代清初の女直史研究』, 中國書店, 1999 등을 참조할 수 있다.

5) 鄭樑生, 앞의 책, 62~63쪽

6) 『明太祖實錄』 권37, 洪武 원년 12월 壬辰; 권38, 홍무 2년 정월 乙卯 등

7) 『明太祖實錄』 권43, 홍무 2년 6월 壬午; 권44, 홍무 2년 8월 甲子 및 丙子 등

8) 大隅晶子, 「明代洪武帝の海禁政策と海外貿易」, 『山根行夫教授退休記念明代史論叢』, 汲古書院, 1994.

등 몽골의 잔여 세력과 결탁할 것을 우려했던 것도 그 원인이 될 것이다.<sup>9)</sup> 결국에는 각 지역마다 조공의 기한, 즉 貢期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sup>10)</sup> 나아가 널리 알려진 海禁정책뿐만 아니라 육상으로의 외국과의 접촉도 차단되었다.<sup>11)</sup> 이러한 상황에서 공인된 조공사절들을 일반민이나 상인들과 구별하여 그 신분을 증명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는데, 勘合과 貢勅이 그것이다.

먼저 勘合은 주로 해외의 국가들에 발행한 일종의 入境허가증이었다. 명 건국 직후 倭寇와 연해 지방의 해상세력의 소요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명 조정은 강력한 해금정책을 실시하였다.<sup>12)</sup> 이와 동시에 조공이 허락된 외국의 사절들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로서 명 조정은 勘合을 발급하였다.<sup>13)</sup>

원래 勘合이라는 것은 비교적 중요한, 특히 군사나 재정에 관련된 문서에 쓰이면서 문서나 혹은 그것을 소지한 자의 신분의 진위를 판명하기 위해 사용된 符信, 符節의 일종이다. 원래 한 장의 종이나 하나의 牌에 字號와 일련번호를 써넣은 후 그것을 반으로 잘라서 쌍방이 나누어 가진 후 나중에 맞추어 보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명대의 감합은 대외관계에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명 국내의 戶部나 기타 각 관아에서 발행하여 관리의 辭命, 부임, 사절 파견, 군령의 전달 등 다방면에서 사용되었다.<sup>14)</sup> 명 국내 관청 사이의 공문서 왕래에 勘合文簿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홍무 15년(1382년)의 일이다.<sup>15)</sup> 명 조정은 각 중앙관부와 지방의 州府에 이르기까지, 나중에는 藩王의 王府에까지 각각 사용할 字號를 확정해두기도 하였다.<sup>16)</sup>

명 국내에서 勘合 제도를 시행한 바로 다음 해인 홍무 16년(1383년), 외국과의 왕래에도 처음으로 勘合 제도를 실시하였다. 최초로 대상이 된 국가는 占城(참파, 지금의 베트남 남부), 暹羅(삼, 지금의 타이), 眞臘(첸라, 지금의 캄보디아) 세 나라였다. 명 조정은 이들 나라에 ‘勘合文冊’을 하사하여 그 나라의 사신이 도착했을

9) 해상세력에 대해서는 檀上寬, 「明初の海禁と朝貢 - 明朝專制支配の理解に寄せて -」, (明清時代史の基本問題編輯委員會 編)『明清時代史の基本問題』, 汲古書院, 1997 ; 명초 雲南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C. P. FitzGerald, *The Southern Expansion of the Chinese Peopl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Press, Canberra, 1972, pp.64-67 참조.

10) 『明太祖實錄』 권76, 홍무 5년 9월 甲午

11) 吳縉華, 「明代海禁與對外封鎖政策的連環性 - 海禁政策的成因新探」, (吳智和 主編)『明史研究論叢』, 大立出版社, 台北, 1984.

12) 檀上寬, 앞의 논문, 1997 참조.

13) 감합에 대해서는 각주 4)의 참고문헌 참조.

14) 鄭樑生, 앞의 책, 58-60쪽

15) 명 국내의 문서제도에서 감합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홍무 9년 空印의 案이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의 발단이 지방관의 공문서 위조 의혹에 있었으므로, 명 조정에서 공문서의 진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관료기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감합제도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檀上寬, 「明初空印의案」小考, 『明朝專制支配の史的構造』, 汲古書院, 1995 참조.

16) 『禮部志稿』 권40, 精膳司職掌2, 行移, 勘合字號.

때 반드시 勘合을 맞추어보고 맞지 않을 경우에는 僞使로 보아 체포한다고 규정하였다.<sup>17)</sup>

이후 명에서 勘合을 내려준 나라는 점차 늘어나서, 『大明會典』에는 총 15개 국가 내지 지역이 그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sup>18)</sup>

暹羅 日本 占城 爪哇 滿刺加 眞臘 蘇祿國東王 蘇祿國西王

蘇魯國峒王 柯支 渤泥 錫蘭山 古里 蘇門答刺 古麻刺

이들 국가는 모두 『大明會典』에서 東南夷로 분류되어 있다.<sup>19)</sup> 이들 가운데 일본을 제외하면 모두 현재의 베트남 남부를 비롯한 인도차이나반도와 인도네시아 열도, 나아가 인도 동부에 이르는 지역에 걸쳐있다고 한다.<sup>20)</sup> 즉 모두 바다를 통해서 중국과 연결되는 지역이었던 것이다. 사신의 신분 증명은 이들이 도향한 항구에서 이루어졌다. 외국 사절단이 중국의 항구에 도착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합과 해당 市舶司의 관원이 가지고 있는 감합을 맞추어 보는 방식이었다. 永樂 원년(1403) 감합이 처음 발급된 日本을 예로 들어보면, ‘日’字 勘合 100道는 예부가, ‘本’字 감합 100도는 일본이 가지고 있고, ‘日’字 勘合底簿 1扇은 예부가, ‘本’字 감합저부 1扇은 일본 사절의 입항지인 寧波의 상위 기관인 浙江布政司가 가지고 있었다. 일본의 사신이 ‘本’자 감합을 가지고 입항하면 현지에서 예부관이 그것을 ‘日’자 감합과 맞추어 봄으로써 사신의 진위를 판명하였다.<sup>21)</sup> 暹羅의 경우, ‘暹’자 감합과 ‘羅’자 감합을 각각 100도씩 제작해서 예부와 暹羅가 각각 나누어 가졌고, 占城·眞臘 등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로 방식이 적용되었다.

이 勘合의 이면에는 사절의 인명, 동승한 商客의 인명, 進貢할 물자의 수량, 승선자의 付搭 화물, 객상의 화물, 선박의 수, 선내의 인구수 등을 모두 기입해 두었는데, 이를 批文勘合, 혹은 別幅이라고 불렀다.<sup>22)</sup> 조선의 외교문서 가운데 別幅은

17) 『明太祖實錄』 권153, 홍무 16년 4월 乙未, “遣使齎勘合文冊, 賜暹羅·占城·眞臘諸國. 凡中國使至, 必驗勘合相同, 否則爲僞者, 許擒之以聞.” 여기서는 “凡中國使至”이라고 하여, 마치 중국의 사신이 감합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明史』 권324, 외국전, 眞臘에는 같은 내용을 전하는 기사에 “凡國中使至”라고 하여 勘合을 소지해야 하는 대상이 중국의 사신이 아닌 眞臘의 사신이라고 하고 있다. 후자의 기록이 사실에 부합한다.

18) 『大明會典』 권108, 朝貢 4, 計有勘合國分

19) 『大明會典』 권105~106, 朝貢 1~2, 東南夷 上·下

20) 각 국가의 위치 비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明史 外國傳 譯註』 1·2, 동북아역사재단, 2011 참조.

21) 鄭樸生, 앞의 책, 63~64쪽

22) 田中健夫, 앞의 책, 1982. 86~87쪽 ; 鄭樸生, 위의 책, 64~65쪽 참조.

말 그대로 별도의 종이에 증명하는 물건의 품목과 수량을 기재한 문서를 가리키는 데에 반해서,<sup>23)</sup> 일본이 명에 보낸 문서로서 別幅은 勘合에 이서하는 방식으로 쓰였음이 주목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홍무·영락 연간에 해외의 외국에 발행된 감합은 외국 사절을 신고 온 배의 도항증명서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勘合을 소지하지 않고 명에 도항해왔다가 입경을 거부당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成化 22년(1486년) 蘇門答刺의 사절이 廣東에 도착했는데, 이들은 감합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입경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다.<sup>24)</sup>

그런데 15세기 후반에 들어서면 명 조정은 北狄으로 분류되는 정치체들, 즉 내륙방면의 외국에도 勘合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成化 연간(1465~1487년)에는 烏斯藏, 즉 지금의 티벳 일대에 점재했던 세력들의 수장에게도 勘合을 부여하고, 이것을 지참하지 않은 사신은 입경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정해졌다.<sup>25)</sup> 당시 勘合을 발급받은 주체는 7명의 教王, 즉 티벳 사원의 수장인 승려들이었다. 이들에게는 각각 勘合 20道씩을 부여하고, 3년에 한 번씩 조공할 때마다 貢路에 위치한 四川布政司나 陝西布政司에서 감합을 맞추어보아 신분을 증명하도록 했다.<sup>26)</sup> 海外 국가의 사절들이 입항지의 市舶司에서 감합을 맞추어보았던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또한 蕃國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변방에 위치했던 土司에도 勘合이 부여되었다. 현재의 티벳 일각에 위치했던 長河西·魚通·寧遠 등에는 홍무 16년에 軍民安撫使司가 설치되고 이것이 후에 宣慰司로 승격되었다. 이 지역은 16세기 중반까지 매년 한 번씩 佛畫와 舍利, 말 등을 조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명 조정은 貢使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감합을 내려주었다.<sup>27)</sup> 역시 티벳에 위치한 朵甘斯, 董葡韓胡 등도 감합을 지급받아, 매년 한 번씩 조공할 때에 四川布政司에서 사절의 신분을 증명한 후에야 입경할 수 있었다.<sup>28)</sup> 이들 티벳 일대의 사절들이 감합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回賜의 양도 더 많았다고 한다.<sup>29)</sup> 烏斯藏의 사신들이 勘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공을 거절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난 사례도 보인다.<sup>30)</sup> 이와 같이 勘合을 사여받은 土司는 6개 宣慰司, 4개 長官司, 1개 安慰司 및 기타 여러 府州 등 상당한 수에 이른다.<sup>31)</sup>

23) 『典律通補別編』 <事大文字式> 및 <交隣文字式>의 해당 항목 참조.

24) 『禮部志稿』 권91, 朝貢備考2, 賜夷, 進貢無印信勘合者量賞

25) 『禮部志稿』 권90, 朝貢備考, 給勘合驗放; 권35, 主客司職掌, 朝貢, 北狄, 烏斯藏

26) 『禮部志稿』 권90, 朝貢備考, 給番王勘合; 申飭勘合限制

27) 『萬曆大明會典』 권108, 朝貢 4, 詔勅; 『禮部志稿』 권90, 朝貢備考, 給勘合驗放; 권35, 主客司職掌, 朝貢, 北狄, 長河西·魚通·寧遠等處

28) 『禮部志稿』 권35, 主客司職掌, 朝貢, 北狄, 朵甘斯; 董葡韓胡

29) Henry Serruys, *op. cit.*, 1967, p.347

30) 『禮部志稿』 권91, 朝貢備考2, 賜夷, 處烏思藏

31) 『禮部志稿』 권36, 主客司職掌, 計有敕符勘合土官衙門

감합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雲南의 土司에는 信符金牌가 수여되기도 하였다. 永樂 2년(1404년) 雲南의 土官에게는 信符金牌라는 것을 내려주었는데, 그 제도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緬甸, 즉 지금의 미얀마에는 ‘緬’자를 자호로 삼은 감합 100개와 음각으로 글자를 새긴 信符 하나를 주고, 底簿는 雲南布政司에서 관리하며, 陽文信符 네 개 및 批文 100道는 內府에서 보관한다. 土司에서 사절을 보낼 때에는 勘合에 파견하는 자의 이름을 써넣어 가지고 布政司에 도착하여 底簿와 맞추어본 후에 받아들이는 방식이다.<sup>32)</sup> 양각으로 새긴 信符 네 면과 음각으로 새긴 信符 한 면이 추가로 있어서 신분 증명 방식을 강화했던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제도는 앞서 설명한 勘合의 그것과 동일하다.

勘合이 해외의 諸國, 티벳과 雲南 일대의 諸藩 및 土司에서 파견하는 사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몽골과 여진의 각 부족에게도 비슷한 기능을 한 제도가 있었으니, 誥勅 혹은 貢勅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한 연구가 있으므로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하겠다.<sup>33)</sup>

원래 誥勅은 어느 관원을 특정 관직에 임명한다는 일종의 辭命書이다. 명에서 조선국왕을 책봉할 때에 내려준 誥命도 넓은 의미에서는 誥勅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誥勅이란 특정 사안에 대해 명령이나 효유하는 내용을 담은 외교문서로서의 勅諭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sup>34)</sup> 일반적으로 이러한 勅書를 받은 여진의 대소 추장은 말 1필을 공납하고 상사물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그러므로 이것을 ‘貢勅’이라고도 부른다.<sup>35)</sup> 각 추장들이 사신을 보내거나 혹은 직접 貢馬를 이끌고 입조할 때에는 반드시 勅書를 가지고 와서 신분을 확인받아야만 入境이 허락되었다.<sup>36)</sup>

명은 일찍부터 만주 일대에 널리 분포한 女眞을 초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건국 직후에는 北元 세력과의 결탁을 우려하여 직접 토벌에 나서기도 했지만,<sup>37)</sup> 영락 연간 이후로는 각 부족들을 적극적으로 초무하여 衛所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sup>38)</sup> 영락 연간에만도 최소한 180개 안팎의 여진 衛所가 설치되었다고 한다.<sup>39)</sup> 그리고 복속해온 여진 부족의 대소 추장들을 衛所의 관직에 임명

32) 『禮部志稿』 권36, 主客司職掌, 信符金牌; 『大明會典』 권108, 朝貢 4, 信符金牌

33) 각주 4)의 논문 참조.

34) 여진 각 부족에 내려진 勅諭에 대해서는 河內良弘, 「14世紀 ~ 17世紀女眞の外交文書について」, 『알타이학보』13, 2003 참조

35) 金九鎮, 앞의 논문, 208쪽

36) 『大明會典』 권107, 朝貢 3, 北狄, 朵顏衛·福餘衛·泰寧衛.

37) 그 경위에 대해서는 和田清, 「明初の滿洲經略」, 『東亞史研究』滿洲篇, 東亞文庫, 1955에 자세하다.

38) 河內良弘, 「明代女眞をめぐる國際環境」, 『明代女眞史の研究』, 同朋舎出版, 1992

39) Henry Serruys, *Sino-Jürčed Relations During the Yung-lo Period(1403-1424)*, Otto Harrassowitz, Wiesbaden, 1955. pp. 25~28

하고, 그들에게는 誥勅과 印信을 내려주었다.

여진뿐만 아니라 兀良哈 三衛 및 오이라트 등 몽골족에게도 勅書와 印信이 수여되었다. 영락 연간(1403~1424) 명에서는 동·서몽골의 분열을 이용하면서 각 종족의 수장들을 順寧王·賢義王·安樂王 등으로 책봉하였다.<sup>40)</sup> 후대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17세기에 편찬된 몽골의 역사서인 『알탄 톱치』 등에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영락제는 몽골 황실의 후예로, 몽골·여진의 도움을 받아 중국을 재정복하고서는, 도움의 대가로 이들에게 다이두(*daidu*,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한다. 또 다른 예로는 몽골의 에센이 正統帝를 포로로 잡았을 때 그를 석방하는 대가로 명 조정으로부터 역시 많은 수량의 다이두를 받았다고 한다. 이상의 사례는 봉사의 대가로 朝貢과 回賜에 참여할 증명서를 보상으로 받았다는 기록으로, 여기서 말하는 다이두란 사신을 보낼 수 있는 경제적 증서로 쓰인 勅書를 말하는 것이다.<sup>41)</sup> 그러나 실제로 몽골의 수장들에게 수여된 勅書가 경제적 의미와 직결된 것은 15세기 후반의 일이다. 『알탄 톱치』의 기록은 후대의 勅書의 의미를 소급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誥勅이 내려진 것은 영락 연간부터이지만, 그것이 초기부터 사신의 증빙물로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는 印信文書라는 것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여진의 사신은 해당 衛所에서 작성하고, 그 수장이 명에서 수여받은 印信을 날인한 문서를 가지고 와야지만 정식의 貢使로 인정받아 명과 교역을 할 수 있었다. 이는 兀良哈 三衛의 수장이나 오이라트 왕, 아룩타이 등 명에서 각급 王公으로 인정받고 인신을 수여받은 몽골 세력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sup>42)</sup>

誥勅이 해외제국의 勘合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은 성화 7년(1471년) 이후의 일로 보인다. 명에서 여진 제부족에 발급한 貢勅은 총 1,500道에 이르렀다. 海西女眞에 총 1,000道, 建州女眞에 500道씩 분급되었는데, 그 가운데 해서여진은 兀者衛, 건주여진은 建州本衛의 수장에게 입공 인원을 총괄할 수 있는 總勅을 내려주었던 결과, 실제로 해서여진에게는 999道, 건주여진에게는 499道가 주어졌다.

貢勅은 원칙적으로 1인당 1매 만을 소유할 수 있었다. 또한 공칙의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승진한 후에는 옛 칙서는 회수되거나 효력을 잃게 되어 명 조정에서 새로운 칙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실현되지 않았다. 과거에 발행한 칙서가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거나 남의 칙서를 이용해서 入貢 하는 등 칙서의 소유관계가 문란해졌던 것이다. 또한 16세기에는 칙서의 위조와 변조가 빈번히 발생하고,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것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등

40) Morris Rossabi, "The Ming and Inner Asia,"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8, 1998. pp. 227~228

41) Henry Serruys, *op. cit.*, 1967. pp. 22~23

42) Henry Serruys, *op. cit.*, 1967. p. 350

칙서의 오남용의 문제가 갈수록 심해졌다. 심지어는 70~80년 이상 된 문서도 있어서, 이들에 대한 회사를 줄이는 방안이 모색되기도 했다. 결국 공칙은 여진족이 중국 물화를 획득하는 무역의 권리 증서로 변질되었으며, 명목상이나마 조공관계는 퇴보하고, 일종의 보조금 형식만이 남게 되었다. 17세기에 이르면 여진 사회에서는 칙서의 개수가 권력의 가늠자가 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sup>43)</sup>

주목할 것은 15세기 전반, 여진과 몽골 각 부족 사신의 신분 증명서로 印信文書가 쓰이던 것이 1470년대 이후로 勅書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印信文書는 어디까지나 자기 衛所에서 직접 발급하는 것인 반면, 勅書는 명의 황제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변화의 의미는 작지 않다. 물론 印信文書라는 것도 명에서 사여한 印信을 찍어야지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것은 자신이 파견하는 사신의 신분을 자체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였다. 그러던 것이 入貢 인원이 턱없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명측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자, 사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권위 자체를 명 조정의 회수해버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貢勅이 가지는 기능은 해외 제국에 부여되었던 勘合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신분 증명 도입의 배경

유례없는 세계제국을 건설했던 몽골제국과는 달리 명은 영락 연간(1403~1424)의 단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단히 폐쇄적, 소극적인 대외정책을 펼쳐왔던 것으로 이해된다.<sup>44)</sup> 명대의 소극적인 대외정책의 최종적 목적은 외부의 세력들을 중국 중심의 질서체계에 참여자로 묶어두며, 거기에 순종하게 만드는 데에 있었다. 즉 주변국이 명의 예제상의 우위를 인정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sup>45)</sup> 명이 이념적으로 禮를 내세웠던 데에 비해, 외부의 세력들을 이 체제 안에 포섭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가장 유효한 수단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데에 있었다. 당대에도 이미 이러한 전략을 일컬어 “중국의 富로써 평화를 사는” 방식으로 인지하고 있었다.<sup>46)</sup> 말하자면 禮의 실현을 위해서 利를 도구로 활용했던 것이다.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큰 이익을 가져다주자, 거기에 참여하려는 집단들은 갈수록 늘어났다. 그 가운데에는 교역이라는 형태의 평화적 관계를 원하는 집단도 있었고 무장에 의해 약탈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무리도 있었는데, 양자를 정확히 구분

43) 김구진, 앞의 논문, 210~213쪽 ; 江嶋壽雄, 『明代淸初の女直史研究』, 中國書店, 1999, 171~179쪽 및 189~200쪽 참조

44) 檀上寬, 「初期明帝國體制論」, 『岩波講座世界歴史』 11, 岩波書店, 1997

45) 岩井茂樹, 「明代中國の禮制覇權主義と東アジア秩序」, 『東洋文化』 85, 2005

46) Henry Serruys, *op. cit.*, 1967, pp. 20~21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바다 쪽에서는 鄭和의 해외진출에 응해 ‘入貢’한 동남아 일대의 여러 ‘조공국’이 전자를 대표한다면, 倭寇로 불리는 무장집단들이 후자를 대표한다. 내륙 쪽에서도 몽골과 여진 등의 여러 집단들이 때로는 평화적, 때로는 폭력적 수단을 통해 중국의 부에 손을 뻗으려고 하였다.

명 조정의 입장에서는 무차별적으로 교역을 요구해오는 이들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海禁 정책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이와 짝하여 명 조정에 의해 공인된 외국 사절만이 조공이라는 형태로 교역관계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른바 조공시스템론의 핵심 입론이다.

명은 조공을 바쳐오는 외부의 세력들이 사실은 교역의 이익을 노리는 상인집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일본이나 동남아에서 入貢하는 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인으로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상인임을 알고도 “遠人の 인심을 잃기를 꺼려하여” 이들을 우대하였으며,<sup>47)</sup> 티벳에서 조공을 보내는 승려들도 사실은 상인들이 그 이름을 빌린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懷柔遠人’이라는 명목으로 교역을 허락하고 있었다.<sup>48)</sup> 貢馬 한 마리를 이끌고 들어와서 겨우내 숙식을 제공받으며 후한 회사를 노리는 수십~수백 명 단위의 여진·몽골의 ‘조공사절’들도 명으로서의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sup>49)</sup>

이러한 상황에서 명이 취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았다. 영락 연간을 예외로 하면 외부로의 직접적인 팽창은 성공할 수도, 시도할 수도 없었다. 그 대안으로 명이 선택한 것은 외부의 몇몇 중심적인 세력들을 하위파트너로 설정하는 것이 있었다. 그들에게 책봉이라는 형식을 통해 정치적 권위를 부여하고 조공이라는 형식을 통해 경제적 동인을 제공하면서, 그 반대급부로서 무질서한 교역 요구자들을 통제할 것을 주문하는 방식이었다. 즉 주변부에 하위파트너를 지목하고, 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勘合은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앞서 설명한 勘合은 入境을 요구하는 자의 도항증명서, 신분 증명서로 기능하였는데, 그 목적은 결국 무분별한 교역 요구자들 가운데 정식의 조공사절을 가려내는 것이었다. 勘合을 발급한 것은 명 조정이었었고, 그 수급자는 외국의 國王이었다. 그런데 勘合을 받은 것으로 기록된 15개 국가 내지 그 수장들을 살펴보면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발견된다. 이들이 모두 명에서 책봉을 받았다는 점이다. 예컨대 『明史』 권324, 외국전 5에는 총 10개의 정치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그 國王이 책봉을 받은 占城·眞臘·暹羅·爪哇만이 감합을 부여받았고, 나머지는 그렇지

47) 嚴從簡, 『殊域周咨錄』 권8, 暹羅: 岩井茂樹, 앞의 논문, 129쪽

48) Weirong Shen, "Accommodating Barbarians From Afar: Political and Cultural Interactions Between Ming China and Tibet," *Ming Studies* 56, 2007. pp. 54-55

49) Henry Serruys, *op. cit.*, 1967, pp.112~142; 江嶋壽雄, 「明代女直朝貢貿易の概観」, 『明代清初の女直史研究』, 中國書店, 1999

않았다.<sup>50)</sup> 『明史』 권325, 외국전 6에 기재된 총 20개의 정치체 가운데서는 渤泥·滿刺加·蘇門答刺·蘇祿의 東王·西王·峒王 등 6개 정치체의 수장만이, 권 326, 외국전 7의 42개 정치체 가운데는 古里·柯枝·錫蘭山 등 3개 지역만이 책봉을 받았고, 또한 동시에 勘合을 부여받았다는 점이다.<sup>51)</sup> 나머지 다수의 지역들은 그 수장이 책봉을 받지 못했고, 동시에 勘合도 부여받지 못했다. 바꿔 말하면 책봉은 감합을 수여받기 위한 필요조건이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15개 지역 모두가 다른 단위들에 비해 강성하거나 고도의 정치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예컨대 滿刺加, 즉 말라카는 영락 원년에 명의 사절인 尹慶이 그곳을 찾았을 때 ‘國’을 칭하지도 않았고 ‘王’도 없는 상황이었는 데, 명에서 그 ‘酋’를 滿刺加國王으로 책봉했다고 한다.<sup>52)</sup> 또 蘇祿은 필리핀 서남부의 작은 나라로, 그 안에 東·西·峒 세 추장이 있었는데, 이들 각각을 國王으로 책봉하고 감합을 내려주었던 것이다.

이는 명이 외부의 교역 상대, 하위 파트너를 스스로 지목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당시의 세력관계를 어느 정도 수렴하는 형태가 되기는 하였지만 명은 스스로 해당 지역에서의 권력자를 책봉이라는 형식으로 지목하고, 그들에게 감합을 부여함으로써 중국과 교역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위를 부여했던 셈이 된다. 예컨대 일본에서는 무로마치 바쿠후의 쇼군이 日本國王으로서 명의 책봉과 함께 감합을 수여받으면서 그 관리 권한도 장악하고 있었다. 勘合을 넣어둔 상자는 철저히 봉해진 채로 바쿠후의 창고에 보관되다가 쇼군의 면전에서만 개봉되었다고 한다.<sup>53)</sup>

그러면서 동시에 명은 이들에게 기타 소수 세력들의 무분별한 入貢을 차단할 것을 의무로 지우고 있었다. 『禮部志稿』에 전하는 다음의 사건이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 그 사건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弘治 14년(1501년), 江西 信豐縣의 民 李招貼 등이 불법으로 해외에 나가 諸藩과 무역하여 爪哇에 이르렀다. 그는 그 나라 사람 哽亦宿 등을 꼬드겨 番物을 가지고 廣東에 이르러 교역하였다. 哽亦宿의 아버지 八禘烏信이라는 자는 그 나라의 頭目이었는데, 李招貼은 그를 꺾어 과거 爪哇에 하사되었던 ‘爪’字의 勘合을 얻어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바다에서 표류하여 중국의 연안에 이르게 된 李招貼은 勘合에 자신 일행의 이름을 적어 넣고 爪哇의 조공사신으로 위장하고는 관에서 식량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감합을 대조해본 결과 이것이 사기로 드러나게 되었다. 명에서는 廣東布政司에 명하여 爪哇國王에게 문서를 보내 이들을 중죄로 다스리게 하고 勘合底簿를 철저히 관리할 것

50) 예외적으로 三佛齊는 홍무 연간에 국왕이 책봉을 받았지만, 14세기 말에 이미 爪哇에 복속되었던 까닭에 다른 지역에 勘合이 수여된 영락 연간에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51)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明史 外國傳 譯註』 2, 동북아역사재단, 2011 참조.

52) 『明史』 권325, 외국전 6, 滿刺加, “其地無王, 亦不稱國. (중략) 封爲滿刺加國王, 賜誥印.”

53) 田中健夫, 「勘合符·勘合印·勘合貿易」, 『對外關係と文化交流』, 思文閣出版, 1982, 87~88쪽

을 요구하였다.<sup>54)</sup>

이 사건을 보면 勘畝를 지급받은 것은 爪哇, 즉 인도네시아 자바의 國王이지만, 그 지역에는 ‘頭目’이라고 칭해지는 다른 정치체의 수장들이 있었고 이들 역시도 勘畝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명은 이러한 상황에서 감합 도난과 僞使 사건이 발생하자 爪哇國王에게 감합 관리를 엄중히 할 것은 요구하였다. 즉 자신의 영역에서의 도항자를 철저히 통제할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한 것이다. 명과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日本國王을 책봉하고 감합을 내려주면서 倭寇를 금압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내륙쪽 유목민들과의 관계는 상황이 조금 달랐다. 물론 명은 海西女眞과 建州女眞의 수장격으로 兀者衛와 建州本衛의 掌印都督에게는 總勅을 내려주어 다수의 중소 추장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황제 명의로 발행되는 貢勅이 1,500장이나 발행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에서 통일된 권력이 형성되지 못했음을, 그리고 명이 그것을 노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인구밀도가 낮은 이 지역에서 ‘國’에 준하는 정치적 통합체가 출현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 II. 명대 조선 사절의 신분 증명

### 1. 조선에서 발급하는 신분 증명서

‘入境’ 즉 “경계에 들어서다”라는 말은 당연하게도 ‘經界’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역사지도를 그릴 때 14세기 후반~15세기 전반, 고려·조선의 서북쪽 경계를 압록강 하구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압록강이 고려·조선과 명의 선으로서의 국경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압록강 북쪽으로 명의 요동진출의 전진기지로 설치되었던 遼東都指揮使司가 위치했던 遼陽에 이르기까지의, 東八站 지역이라고 불리는 넓은 지역이 면으로서 경계 지대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는 당시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으며,<sup>55)</sup> 조선은 물론 명의 행정력도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sup>56)</sup> 따라서 고려 말~조선 초의 사신은 압록강을 건너서도 한동안은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북상할 수 있었다.

54) 『禮部志稿』 권92, 朝貢備考 3, 飭夷, 究處盜畝合通貢.

55) 이는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는데, 예컨대 세종 19년(1437년) 조선은 동팔참 일대에 “전혀 인가가 없고 초목이 우거져 있다”는 이유로 貢路를 변경해줄 것을 명 조정에 요청하기도 하였다. 『吏文』 2-31 <請通刺榆塞道路奏>(구범진 역주, 『역주 이문』 상, 세창출판사, 2012, 315쪽)

56) 남의현, 『明代遼東支配政策研究』, 강원대학교출판부, 2008, 265~295쪽

조선의 사신이 처음 명의 행정력과 접하는 곳은 遼陽이나, 혹은 그 바로 앞에 설치된 驛站인 頭館站 정도였다.<sup>57)</sup> 嘉靖 16년(1537)에 편찬된 『遼東志』에서는 조선 사신이 連山關에 도착하면 遼東都司에 轉報한다고 기재되어 있다.<sup>58)</sup> 대개 이곳에서 조선의 사신은 명의 관원을 만나 자신의 신분과 사행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명의 경내로 들어가는 절차를 거쳤다. 조선 전기, 대명관계에 관한 각종 제도를 기록해둔 『故事撮要』에는 이때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아쉽게도 어떠한 기록도 남기고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명에서 편찬된 각종 政書에서도 이와 관련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다음으로서는 사행으로 참여했던 관원들이 남긴 사행기록을 살펴봐야 하는데, 역시 15세기까지의 사행기록 중에는 이와 관련된 언급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다행히 『吏文』에는 홍무 연간 요동에서 길이 막혀 돌아온 고려의 사신이 요동에서 겪은 일을 조정에 보고한 기록이 보인다.

A-1) 高麗國王(의 자문). 都評議使司의 申을 받았습니다. (중략) “鄭庇의 關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월 초1일에 頭館站 지면에 도착하여 榜文을 보니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遠方의 사신이 도착하여 오면 즉시 돌아가기 바란다. 함부로 경내로 들어오지 말라.」 이를 보고,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여 通事 姜師德 등으로 하여금 定遼衛에 가서 계품하도록 하였습니다. 黃 知印이 差箚를 확인하고는 성에 들어가 錢 鎮撫와 함께 나와 이야기 했습니다.”<sup>59)</sup>

A-2) (都評議使司에서) 本官[張子溫]의 關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무 6년 11월 28일에 차정을 받아 역로를 달려 12월 초 3일에 定遼衛의 남문에 이르렀습니다. 把門官 張 總旗를 만나 더불어 차정되어 온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差箚를 그 관원에게 주었더니 가지고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오래지 않아 差箚를 돌려주었습니다.”<sup>60)</sup>

57) 당시 압록강을 건너서 요양에 이르는 東八站은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驛昌站[지금의 丹東]→湯站→開州站[지금의 鳳城]→斜烈站→龍鳳站→連山站→拈水站→頭館站→遼陽. 『故事撮要』 <中原進貢路程> 참조.

58) 『遼東志』 권4, 典禮志, 夷人入貢, 朝鮮入貢

59) 『吏文』 2-10 <請通朝貢道路咨> 해당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高麗國王. 據都評議使司申. (중략) “回准鄭庇關. 該九月初一日, 到頭館站地面, 見榜文, 該寫. 「遠方使臣到來, 卽仰回還. 毋擅入境.」 蒙此, 不敢前進, 令通事姜師德等, 赴定遼衛計稟. 有黃知印, 看訖差箚<sup>1)</sup>, 入城去, 一同錢鎮撫出來言說.”

60) 『吏文』 2-10 <請通朝貢道路咨> 해당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回准本官關. “該洪武六年十一月二十八日, 蒙差馳驛, 於十二月初三日, 到定遼衛南門. 見把門官張總旗, 說與差來事因. 將差箚分付本官, 將齎入城. 去後不多時, 回付差箚.”

위의 두 사안 모두 공민왕 22년(1373년, 洪武 6년)에 발생하였다. 당시 홍무제가 고려의 사신이 요동을 통해 입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사신 鄭庇와 張子溫이 각각 遼陽에 위치한 定遼衛까지 갔다가 돌아온 상황을 전하고 있다.<sup>61)</sup>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신이 요동의 관원에게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시한 差筭라는 것이다. 崔世珍은 『吏文輯覽』에서 差筭에 대하여 “差委 [파견] 명령을 담은 筭付이다(差委之筭付也)”라고 해설하였다.

대개 筭付는 명대의 공문서 가운데 통속관계에 있는 상급 관부에서 하급 관부에 보내는 명령문서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sup>62)</sup>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고려 말 筭付는 원대의 그 형식을 받아들여, 국내에서도 특수한 임무에 관원을 차정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사령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任命筭付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문서에는 어떤 권위에 의해서(즉 王旨에 의해서), 어느 관부에서, 누구를, 어느 관직에 임명하거나, 혹은 어떤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갖추고 있었다.<sup>63)</sup>

위의 인용문에 보이는 것처럼 고려에서 어떤 관원을 외국에 보내는 사신으로 임명하면서 어떤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筭付 가운데 현재 실물로 전해지는 것이 있다. 공민왕 15년(1366) 고려 조정에서 무로마치 바쿠후에 왜구 금압을 요청하는 사절로 金龍이라는 인물을 차정하면서 수여한 문서가 그것이다. 해당 문서의 원문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sup>64)</sup>

61) 당시의 요동 貢路 폐쇄에 대해서는 末松保和, 「麗末鮮初における對明關係」, 『靑丘史草』1, 1967. <제5장 請諭 請襲と歲貢の要求> 참조.

62) 『洪武禮制』 <行移體式> 참조. 崔世珍은 『吏文輯覽』에서 차부를 “大槩與照會同, 但上司行所屬衙門居多. 如五軍都督府行經歷司, 都察院行御史道, 六部行各清吏司之類”라고 해설하였다.

63) 카와니시 유야, 「고려말기 元 任命筭付 體式の 수용」, 『古文書研究』 35, 2009.

64) 이 문서는 현재 日本 京都市의 醍醐寺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며 다른 일련의 고문서와 함께 『報恩院文書』라고 불리고 있다. 이 문서에 대해서는 다양한 史料集마다 판독이 각각 다르고 이에 대해 언급한 많은 논문에서도 다르게 인용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大日本史料』 6-27 貞治 6년(1367) 6년 2월 是月條, 820~821쪽에서 인용하고 이를 처음으로 조사하여 罽押 부분을 原本과 가장 가깝게 필사했다고 하는 黑板勝美, 『徵古文書』 甲集, 1896, 10~13쪽을 참조하였다. 문서를 인용함에 원문의 양식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改行과 擡頭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인용한 부분 가운데 □은 결락으로 확인되지 않는 글자이고, 𠄎호 안의 글자는 결락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문맥상 거기에 들어갈 글자로 확실한 것을 추정한 것이다. ■은 罽押이 들어간 자리를 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中村榮孝, 『太平記』に見える高麗人の來朝 - 武家政權外交接收の發端 -, 『日鮮關係史の研究』上, 吉川弘文館, 1966; 張東翼, 「一三六六年高麗國征東行中書省の咨文についての檢討」, 『アジア文化交流研究』 2, 2007 등을 참조.

(皇帝聖)旨裏, 征(東)行中(書)省, 照得, 日本與本省所轄高麗地境, 水路相接, (凡)遇  
 (貴)國飄風人物, 往往依理護送, 不期, 自至正十年庚寅, 有賊船數多, 出自  
 (貴)國地面, 前來本省合浦等處, 燒毀官廨, 搔擾百姓, 甚至殺多出自  
 (一十)余年, 海舶不通, 邊界居民, 不能寧處, 蓋是島嶼居民, (不)懼官  
 法, 專務貪婪, 潛地出海劫奪, 尙慮  
 貴國之廣, 豈能周知, 若便發兵勦捕, 恐非交隣之道, 除已移文  
 日本國照驗, 煩爲, 行下槩管地面海島, 嚴加禁治, 毋使似前出境作耗  
 外, 省府, 今差本職等, 一同馳驛, 恭詣  
 國主前啓稟, 仍守(收)取  
 日本國回文, 還省, 合下仰照驗, 依上施行, 須議筭符者  
 一, □起正馬武□· 從馬五疋, 乘駕過海船壹隻

■ □□ ■

■ 右筭符差去 萬戶 金凡貴·千戶 金龍等 □□(准此)

이 문서는 征東行省에서 萬戶 金凡貴·千戶 金龍 등을 일본에 파견하는 사신으로 임명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들이 띠고 있는 임무를 서술하고 있다. 임무와 관련된 부분은 征東行省에서 ‘日本國’에 보낸 咨文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sup>65)</sup> 앞서 인용한 鄭庇와 張子濫이 명에 사신으로 파견된 것이 홍무 6년, 즉 1373년의 일이었으므로 이 문서가 작성된 시점과 불과 7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물론 이 사이에 원이 중원에서 밀려났고, 고려 역시 더 이상 征東行省을 칭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筭符 문서 첫머리의 “皇帝聖旨裏”라는 관용어구나 발신자를 “征東行中書省”으로 표현한 부분 등은 변경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밖의 양식이나 담고 있는 내용 면에서는 筭符의 기본적인 틀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명에 파견한 사신에게 발급된 差筭라는 것도 국왕, 즉 당시의 恭愍王의 권위에 의해서 고려 정부가 鄭庇와 張子濫을 각각 賀正使로서 임명한다는 내용을 갖춘 문서였을 것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사신의 신분을 고려 정부가 발급한 사령장에 의해서 보장했다는 것이 된다. 이들 사신이 국경을 통과하고자 할 때, 명의 지방관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위에 인용한 부분의 뒤를 이어서 확인해보겠다.

B-1) 黃 知印이 差筭를 확인하고는 성에 들어가 錢 鎮撫와 함께 나와 이야기 했습니다. “定遼衛의 관원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이곳은 운송수단[脚力]이 없고, 한편 金州에 왜적이 있고 또한 선박이 없으니 이 길은 가기가 어려우므로 서둘러 본

65) 이때에 보낸 문서에 대해서는 각주 63)의 문헌 및 岡本眞, 『外交文書よりみた十四世紀後期高麗の對日本交渉』, 『前近代の日本列島と朝鮮半島』, 山出出版社, 2007 등을 참조.

국으로 돌아가서 수로를 통해 가라고 하셨다.”<sup>66)</sup>

B-2) 差箭을 本官[把門官 張 總旗]에게 주었더니 가지고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오래지 않아 差箭을 돌려주었습니다. 함께 온 鄒 千戶가 말하였습니다. “두 指揮가 말씀하시기를, 금년 정월에 聖旨를 받았는데, ‘금후로 고려사신은 통하여 왕래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으나 이제 다시 (다른) 성지가 없으니 어찌 너희와 상통할 수 있겠느냐며, 재상으로 하여금 급히 돌아가도록 하게 하라고 하셨다.”<sup>67)</sup>

鄭庇와 張子濫이 고려 조정에서 사신으로 차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差箭을 제시하자, 定遼衛의 知印, 즉 官印을 관장하는 書吏와 把門官이 이를 접수하였다. 이들은 정요위 성으로 들어가 장관인 指揮에게 보고하였으나, 결국은 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사신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定遼衛에서 사신의 입경을 거부하는 이유이다. B-1) 鄭庇의 사례에서는 운송수단이 없고 바다에는 왜적이 횡행한다는 것, B-2) 張子濫의 사례에서는 고려의 사신을 통과시키지 말라는 황제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어디에도 고려 사신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은 없다. 이것은 고려 정부에서 발행한 差箭이 그대로 명에서도 신분 증명서로서 인정되었다는 것을 말한다.<sup>68)</sup>

이상에서 확인한 고려 말의 差箭이라는 증명서는 조선후기에 쓰인 入柵報單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훨씬 후대의 것이기는 하지만 『通文館志』에 제시된 入柵報單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年號幾年某月某日, 朝鮮國某使行人馬報單. 三使臣具銜<列書>, 三大通官<列書>, 押物官二十四員, 從人三十名, 驛馬幾匹, 驛卒幾名, 表咨文載馬二匹, 驅人二名, 方物載馬幾匹, 驅人幾名, (중략) 人共幾員名, 內瀋陽回去幾員名, 入往北京幾員名, 馬共幾匹, 內瀋陽回去幾匹, 入往北京幾匹.<sup>69)</sup>

66) 『吏文』 2-10 <請通朝貢道路咨> 有黃知印, 看訖差箭, 入城去, 一同錢鎮撫出來言說. “衛官說將來, 咱這裏無脚力, 一來金州有倭賊, 又無船隻, 這道子上難行, 早些回本國, 打水路裏去.”

67) 『吏文』 2-10 <請通朝貢道路咨> 將差箭分付本官, 將齋入城. 去後不多時, 回付差箭. 有同來鄒千戶言說. “兩指揮說將來, 今年正月, 奉聖旨, ‘今後高麗使臣, 休要相通往來,’ 如今再不會有聖旨, 怎麼<sup>1)</sup> 與你相通, 教幸相疾忙回去.”

68) 이렇듯 조정에서 사신을 차정하여 발급한 사령서가 사신의 신분 증명서로 활용된 것은 고려·조선에서 명에 사신을 파견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했던 것으로 보인다. 『吏文』 3-43 <欽差正副使祈張等禮部題咨>은 成宗 6년(1475, 成化 11년)에 조선에 파견된 正使 戶部郎中 祈順과 副使 行人司左司副 張瑾이 사신으로 선발되기까지 명 조정에서 거친 논의를 기록한 문서이다. 이 문서가 조선의 외교문서집인 『吏文』에 실린 것은 이들 사신이 이 문서를 자신의 신분 증명서로서 조선 조정에 제시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위의 入柵報單은 조선의 사신이 청의 경계에 들어설 때 청의 지방관에게 제출하는 문서로, 파견되는 사신의 목적과 직함 및 이름, 이끌고 가는 마필과 從人의 수 등을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入柵報單은 언제부터 쓰인 것일까?

『通文館志』의 설명에 따르면, ‘舊例’에는 이 報單을 鎭江·湯站 등의 아문에 도착해서 報單을 전달했는데, 崇德 연간, 즉 청 태종 연간에 柵門이 처음 설치되면서는 거기에 전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어서는 鳳凰城에서부터 북경에 들어가기까지 下程, 즉 사신단 일행의 식량과 마초를 지급받는 규정이 기록되어 있다.<sup>70)</sup>

『通文館志』에서 말하는 ‘舊例’란 명대 후기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鎭江은 압록강 건너의 江沿臺堡, 즉 현재의 虎山長城을 가리키는 것이고, 湯站은 江沿臺堡에서 북으로 4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 이곳에 성이 처음으로 축조된 것은 成化 연간(1465~1487년)의 일이다.<sup>71)</sup> 실제로 선조 7년(1574년)에 賀聖節使로 파견된 許箴 일행은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江沿臺의 備禦指揮와 湯站의 指揮에게 예물을 보내고 下程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sup>72)</sup> 그렇다면 『通文館志』에 기록된 것과 같은 入柵報單이 15세기 후반에까지 소급된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확인해두고 싶은 점은 조선의 사신이 지참한 증빙물 가운데에 명 조정에서 발급한 것도 있었다는 점이다. 符驗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원칙적으로 명대에 관원이 공무로 驛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정에서 발급하는 符驗을 지참하고 있어야 했다. 이는 마치 원대의 각종 牌子나 조선시대의 馬牌를 연상시키는 것이다. 몽골제국은 제국 전역에 역참을 설치하고 사신에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각종의 증빙문서를 발급하였는데,<sup>73)</sup> 고려국왕에게도 牌子를 직접 지급하거나 이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였다.<sup>74)</sup> 원대에 牌子를 고려에 사여하였던 것은 형식적으로는 명대에도 계승되었다. 10년 간의 갈등 끝에 우왕 11년(1385년) 우왕이 명의 책봉을 받게 되면서, 고려는 원에서 발급해준 鋪馬蒙古文字 8통을 명에 반납하면서 새로운 명의 符驗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고,<sup>75)</sup> 이듬해에 실제로 발급받았다.<sup>76)</sup> 또한 명 내부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符驗을 모두 무효화하고 새로 발급하는

69) 『通文館志』 권3, 入柵報單

70) 『通文館志』 권3, 入柵報單

71) 남의현, 앞의 책, 303~316쪽

72) 『荷谷朝天記』 상, 6월 17일, 18일

73) 箭內亘, 「元朝牌符考」, 『蒙古史研究』, 刀江書院, 1930(原稿는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9, 1922) : 冀寶海, 「元朝赤乘驛牌符與文書」, 『蒙元驛站交通研究』, 崑崙出版社, 2006

74) 『高麗史節要』 권20, 충렬왕 5년(1279) 3월 : 『高麗史』 권29, 충렬왕 9년 3월 己未: 『益齋亂藁』 권8 <謝銀字圓牌表> 등을 참조.

75) 『高麗史』 권133, 禡王 11년 10월

76) 『高麗史』 권133, 禡王 12년 3월 : 『高麗史』 권72, 輿服志, 印章, 符驗

조치가 내려진 후,<sup>77)</sup> 바로 이듬해에 고려에 주었던 符驗 역시도 새것으로 교환해 주었다.<sup>78)</sup>

조선의 사신이 이 符驗을 지참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료는 아주 적다. 조선 전기의 사행기록 가운데에도 符驗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기사가 주목된다.

節日使 同知中樞院事 朴堧이 처음에 會同館을 출발할 때 符驗을 잃어버렸는데 館夫가 이를 찾았다. 박연이 통사 金自安으로 하여금 달려 들어가서 찾아오게 했다. 復命할 적에 박연은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으나, 書狀官 金重良이 아뢰었다. 임금에 政府에 이르기를, “지금의 이 符驗은 朝廷에서 내려 준 것이므로 관계된 바가 가볍지 않다. 만일 잃어버렸다면 사신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누를 끼침도 또한 컸을 것이다” 하고, 드디어 박연의 告身을 빼앗고, 從事官에게도 차등있게 죄를 주었다.<sup>79)</sup>

위의 일화를 보면 사신이 符驗을 소지하고 있었고, 조선에서는 이를 “朝廷에서 내려 준 것”이라 하여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부험이 명 국내에서 사용된 그것과 같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우왕대에 고려가 받은 명의 符驗은 起船用의 安字 1336, 1337號와 雙馬用 4道, 單馬用 2道 등 총 8개였다. 이 부험의 규정대로라면 육로를 통해서 갈 경우 조선 사절단이 이용할 수 있는 역마의 수는 총 10필에 불과했다. 그러나 호송군이나 從人을 제외한 正官의 수만도 수십 명에 달했던 조선의 사신단은 자신이 탈 말을 직접 마련했다. 오히려 문제가 되었던 것은 貢物을 운반하기 위한 수레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許筭 일행이 遼東都司에서 수레의 대수를 두고 상당한 줄다리를 벌였던 내용이 그의 사행기록에 생생히 전해진다.<sup>80)</sup>

관련된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시간상으로 공백이 있기는 하지만, 정리하자면 고려 말~조선 전기, 명에 들어가는 사신은 조선 정부에서 발급, 혹은 작성한 문서를 지참하고 출발했다. 그리고 그것을 국경, 즉 고려 말~조선 초에는 遼陽에서, 15세기 후반부터는 압록강 이북 鎭江에서 명의 관원에게 제출하여 신분을 확인받았다. 명측 지방관은 조정에서의 특별한 명령이 있지 않은 이상 이들의 입경을 허가하고, 북경까지의 여정에 필요한 식량과 호위대를 공급하였다. 명 내지에서 쓰이는 것과 같은 符驗이 명초에 발급되어 고려·조선의 사신도 이를 지참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77) 『明太祖實錄』 권203, 홍무 23년(1390) 8월 甲戌.

78) 『吏文』 2-20 <倒換符驗禮部咨>(구범진 역주, 앞의 책, 224-230쪽)

79) 『世宗實錄』 권111, 28년(1446년) 1월 丙申

80) 『荷谷朝天記』 上, 6월 24일

단지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 조선 사신의 신분은 어디까지나 조선에서 발급한 문서에 의해서 증명, 인정되었던 것이다. 1장에서 살펴본 조선 이외의 다른 지역, 국가들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조선 사신의 신분 증명 절차는 대단히 특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2. 조선에 예외가 적용된 배경

유명한 『孟子』의 첫 章句는 孟子和 梁惠王의 대화로 시작한다. 양혜왕이 “어떻게 내 나라를 이롭게 하겠습니까”라고 묻자, 맹자는 “왕께서는 하필 利를 말씀하십니까”라고 반문하며, “오직 仁義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한다. 利와 仁義를 대립항으로 설정하는 것은 유교적 치국술의 기본 전제가 된다. 그리고 仁義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 禮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利가 아닌 禮를 최우선의 이념으로 설정하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sup>81)</sup>

중국을 둘러싼 주변 지역, 국가들의 사신 신분 증명 문제를 살펴보았을 때, 앞에서 확인한 조선의 사례는 이들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사신에게는 勘合이나 貢勅에 준하는 것이 없었다는 점이다. 조선 사신은 조선 조정에서 발행하는 差筭을 통해서, 즉 조선 조정의 권위에 의해서 자신의 신분을 입증하였다. 명에서 조선에 일종의 특권을 부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皇明外夷朝貢考』에서는 조선에만 勘合을 발급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무릇 各國, 四夷에서 와서 공물을 바치는데, 오직 朝鮮만이 본디 예를 지켜서 琉球國과 같이 入賀하고 謝恩하였으며, 사자가 왕래함에 모두 文移가 서로 통하므로 符勅·勘合으로써 신표를 삼지 않았다.<sup>82)</sup>

여기서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조선이 禮를 지킨다[秉禮]는 것과 文移, 즉 문서가 서로 통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선 두 번째 이유부터 살펴보겠다.

고려와 명은 우선 漢字와 漢文을 공통의 文語로 공유하고 있었다. 일견 상식적

81) 전근대 국제관계에서 禮交, 혹은 禮治主義의 역할을 강조한 대표적 연구로는 黄枝连, 『天朝礼治体系研究(中) - 东亚的礼义世界 - 中国封建王朝与朝鲜半岛关系形态论』, 中国人民大学出版社, 1994를 참조.

82) 『皇明外夷朝貢考』 卷下, <外國四夷符勅勘合沿革事例> “凡各國四夷來貢者, 惟朝鮮素號秉禮, 與琉球國入賀謝恩, 使者往來, 一以文移相通, 不待符勅勘合爲信.”

인 것으로 보이지만, 同文을 사용한다는 것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각별한 것이었다. 예컨대 暹羅의 사절은 시암어와 페르시아어로 작성한 金葉表文을 국서로 사용하고 있었다.<sup>83)</sup> 또한 명대 전기까지는 여진이나 몽골이 명에 제출한 문서는 番文, 즉 여진어나 몽골어로 작성되었다.<sup>84)</sup> 영락 연간에 티무르조에서 명에 보낸 외교문서 역시 페르시아어로 작성되어 있었다.<sup>85)</sup> 이렇게 다양한 문자, 언어로 작성된 외교문서를 번역하기 위한 관서로서 명은 四夷館을 설치하고, 교재로서 『華夷譯語』를 편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다. 다른 외국에서 보낸 외교문서는 중앙에서조차 각고의 노력을 거친 후에야 제대로 접수할 수 있었던 반면에, 같은 문자와 문법으로 작성된 문서를 지참한 조선의 사신이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 명에 입경할 수 있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단순히 동일한 문자를 사용했던 데에 그치지 않고, 양국 사이의 외교문서는 동일한 서식과 양식을 갖추고 있었다. 고려와 명의 외교문서는 원대의 관행을 일부 계승하면서 철저하게 명 국내 문서의 서식과 양식을 준수하였다. 고려국왕은 명의 2품 이상 관부들과 咨文을 주고받았고, 고려의 최고관부인 都評議使司는 명의 고위아문에 상행문서인 申을 올리고, 하행문서인 照會를 수신하였다. 문서의 서식뿐만 아니라 吏文이라는, 문법과 어휘 양면에서 조선식 한문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문체까지도 그대로 준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은 조선 전기까지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관문서라는 매개를 통해 고려·조선이 명의 관료제 하에 통합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sup>86)</sup> 외교문서뿐만 아니라 조선 전기에는 국내의 관문서를 정비해가는 과정에서도 명의 관문서체계를 준용하여 서식을 결정하였다.<sup>87)</sup> 差箭라는 형식의 箭付 역시도 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원대의 명령문서 양식을 그대로 준용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 자체로서 명의 관원이 확인했을 때에 문자는 물론 문서의 양식이나 문체 등에서도 막힘이 없이 명에서 이해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명에서 발급하는 감합이나 칙서가 굳이 없어도 자체에서 작성한 문서를 통해서 신분을 증명하는 데에 실질적인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이 禮를 지킨다[秉禮]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14세기 후반~15세기, 고려와 조선은 명과의 무역관계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고려·조선이 명과 긴밀한 외교관계를 맺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대체로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83) 木村可奈子, 「明の対外政策と冊封国暹羅-萬曆朝鮮役における借暹羅兵論を手掛かりに」, 『東洋學報』 92-3, 2010

84) 河内良弘, 「14世紀 ~ 17世紀女眞の外交文書について」, 『알타이학보』13, 2003, 5-6쪽

85) Joseph F. Fletcher, "China and Central Asia, 1368-1884,"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86) 鄭東勳, 「高麗-名 外交文書 書식의 성립과 배경」, 『韓國史論』 56, 2010

87) 박준호, 「《經國大典》체제의 문서 행정 연구」, 『古文書研究』 28, 2006

것이었던지, 국내정치상의 문제 때문이라든지, 혹은 중화로 대변되는 선진보편문화의 수입을 위해서, 혹은 유교적 이념과 화이사상의 구현을 위해서라든지 하는 설명 등이 있을 뿐, 교역을 통한 이익 창출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연구는 필자가 아는 한은 설득력 있게 제시된 적이 없다.

이는 조선을 제외한 다른 외부세력들이 대체로 무역 이익을 노리고 명과의 관계에 가담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현상이다. 이것을 ‘利交’라고 한다면, 조선과 명의 관계는 ‘禮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국관계가 시작된 직후, 즉 고려말의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끊임없이 말 무역을 요구한다거나 우왕 책봉의 전제조건으로 金銀의 세공을 요구하는 등, 오히려 명측이 양국관계에서 경제적 실리를 취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皇明外夷朝貢考』의 언급에는 빠져있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달리 있었을 것 같다. 그것은 조선의 중앙권력이 조공을 명목으로 하는 여타 집단의 사적인 入境을 막을 수 있을 만큼 강력했다는 사실이다. 다른 외국의 사례에서는 감합을 통해 통제하고자 했음에도 國王 이외의 사절들이 끊임없이 내향했던 데에 비해, 조선에서는 조공사절을 사칭할 만한 변경의 세력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것을 조선의 중앙정부가 좌시하지 않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sup>88)</sup> 명도 고려·조선의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중국 내지에서 일어나는 조선인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모두 이들과 정부의 관련성에 대해서 깊이 의심했던 것이다.<sup>89)</sup> 따라서 명의 입장에서는 변경에서의 분쟁도, 자국 인구의 유입과 유출도, 모두 조선의 조정하고만 상대하면 되는 것이었다. 바꿔 말하면 조선 정부의 통제력을 인정한 상태였으므로 조선 조정이 발행한 사신의 신분을 보증하는 문서의 공신력도 인정하였던 것이다.

명과의 관계를 통해 교역의 이익을 탐하지 않고, 또 확실한 통제력을 가지는 중앙정부가 있어 명 조정과 일대일로 교섭하면 기타 세력들의 개입이나 준동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이것이 명이 조선에 勘습을 발급하지 않은 이유이자, 명이 궁극적으로 다른 외부지역에도 관철시키고자 했던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조선을 ‘가장 모범적인 조공국’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88) 유일한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공양왕 2년(1390년)에 尹彝·李初가 명 조정에 들어가 李成桂 일파를 무고한 사건이다. 그러나 관련된 기록 가운데 이들이 고려 조정의 사신임을 사칭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89) 예컨대 『太祖實錄』 권3, 2년 5월 丁卯. 이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이규철, 「조선초기(태조기~세종대) 대외정보 수집활동의 실상과 변화」, 『역사와 현실』 65, 2007 참조.

## 결론

14세기 후반~15세기에 걸쳐 동아시아에는 명과 그 주위를 둘러싼 크고 작은 세력들이 병립해있었다. 대부분의 지역, 국가들은 명과의 교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하에 조공사절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상인단을 파견하였다. 명은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勘合과 貢勅을 발급하여 사신의 신분을 증명하도록 했다. 조선은 여기에서 예외로, 조선 정부에서 발급한 差筭, 즉 사신으로 임명한다는 사령장이 사신의 신분 증명서로서 효력을 발휘하였다. 감합이나 공칙이 명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이었던 데에 비해 조선 사신의 差筭는 조선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국제관계 속에서 조선이 상당한 우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우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조선이 利交가 아닌 禮交를 택하였다는 점, 즉 양국관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노리지 않았다는 점과 둘째, 조선의 중앙정부가 대명관계를 완전히 장악할 만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그 외의 지역들,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제세력들 및 내륙 방면의 여러 부족들은 그 반대였다. 이들 지역에는 중앙집권화된 권력이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그 안에서 완벽한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교역의 기회가 명에게로 쏠리는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다양한 세력들이 명과 직접 교역에 나서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의 외곽에 다수의 하위 파트너를 지목함으로써 쉼을 노리는 외부 세력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하위 파트너는 冊封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國王이라는 지위를 획득하였고, 그가 수장이 되는 집단은 자의로든 타의로든 國이라는 형태의 정치체로서 국제무대에 등장, 명과 일대일의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이다. 책봉과 조공이 그 정치적·경제적 관계를 대표한다면, 감합이나 공칙과 같은 각종 증명서는 이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명의 제도화된 노력 가운데 조선은 대단히 예외적인 지역이었다.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는 중앙정부의 존재가 그 전제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책봉이라는 형식을 통해 명이 외부 지역에 건설을 유도했던 外國의 모델이었다.

본론에서는 명대 국제질서의 특징을 설명하면서도 그것을 ‘국가간 체계’라고 명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명을 아껴왔다. 이제 명대 ‘국가간 체계’의 특징을 元대의 국제질서와 비교하여 해명함으로써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몽골시대의 유라시아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정치체들이 마치 별집구조와 같이 병립해있었던 것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형태는 몽골제국이 팽창해가는 과정에서 복

속된 지역들을 일률적으로 재편하기 보다는 원래의 상태 그대로 제국 내로 편입하고자 했던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주변부의 정치체들은 굳이 국가라는 단위를 칭하지 않고서도, 그 역사적 연원에 따라 원 조정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동아시아 일대만 놓고 보더라도 원은 피복속지역을 황제의 직접통치의 대상으로 재편하기도 하고(金, 南宋), 몽골 諸王의 投下, 즉 분봉지로 삼기도 하였으며(雲南 일대, 陝西의 옛 西夏領), 독립국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지배집단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거나(高麗), 원 조정에서 임명한 종교지도자를 통해 간접통치를 행하기도 하였다(티벳). 또한 원은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지역과도 교역을 통한 경제적인 관계는 얼마든지 유지하였다. 특히 쿠빌라이 시대에 추진했던 일본, 安南, 자바 등으로의 대외팽창이 중단된 이후 14세기에는 일본 및 동남아시아 일대의 해외 지역들과는 정치적 관계를 맺지 않았다. 이들 지역은 굳이 국가라는 단위 정치체를 칭하지 않고서도 중국과 자유로이 교역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과 상대하는 외국에 전형이란 존재하지 않았고, 몽골이 그것을 창출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천하의 주인으로 새롭게 등장한 명은 자신을 중심으로 국제질서를 재편하면서 주변지역을 일률적으로 국가 단위로 재편하고자 하였다. 크든 작든 중국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모든 정치체의 수장은 國王을 칭해야 했고, 명은 책봉이라는 형식을 통해 그들을 승인하였다. 주변국의 국왕들은 책봉과 함께 勘合을 수여받고, 이를 활용한 朝貢이라는 명목 하에서만 중국과 접촉할 수 있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조공-책봉관계라고 불리는, 명이 조선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맺었던 관계의 형식이다. 명은 주변부의 국왕들을 적어도 예제의 차원에서는 모두 동일한 기준에 따라 대우하였다.<sup>90)</sup> 즉 명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주변에는 일률적으로 국왕이 통치하는 ‘國’들이 존재할 뿐이었으며, 명은 國을 형성한 정치체만을 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했던 것이다. 명 조정과 외국의 국왕만이 정식의 교섭 주체가 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국가간 체계’라고 명명하고자 한다.<sup>91)</sup>

이렇게 보면 조공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명과 주변국의 중앙정부, 혹은 정치체의 수장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그들 사이의 일대일 관계를 설명하는 틀로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통제 바깥에 있는 무수한 행위자들은 포괄하지 못

90) 정동훈, 「명대의 예제질서에서 조선국왕의 위상」, 『역사와 현실』 84, 2012

91) 다만 북쪽 내륙의 유목지대는 ‘국가간 체계’에 편입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이 지역의 인구밀도가 낮아 국가라는 형태의 정치체로 조직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따라서 명은 몽골·여진 등의 부족집단을 외형적으로 衛所 시스템을 통해 명의 병제 내로 편입하는 형식을 통해 이들과 관계를 맺었다. 國보다 작은 규모의 유목부족 집단을 자신의 기준에서 衛나 所로 재편하고, 그 수장에게 指揮使 등의 무관직을 제수하면서 貢勅을 발급하여 이들을 관료제의 일원인 것처럼 대우했던 것이다. 간혹 유목지대를 통합한 거대한 집단이 등장하면 그 수장에게 王號를 수여하는 등 책봉호에 차등을 두기도 하였으나, 이들 집단을 國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조공시스템이라는 것이 중국과 주변국을 통합[integrate]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맞물리게[intermesh] 하는 기능을 했다는 평가는<sup>92)</sup>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시각이 철저하게 명 조정을 중심에 두고 파악한 것임은 부정할 수 없다. 주변부에서 실제로 國王이 통치하는 국가가 일률적으로 형성되었고, 그들이 대명관계를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주변부에서는 형식적으로는 명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을 갖추되 실제로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교역에 가담하고자 했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아울러 주변부 가운데서도 자체의 시스템을 마련하여 자신의 주변지역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니, 역시 조선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조선도 교역을 요구하는 일본, 여진 등 주위의 세력들에게 비슷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은 다수의 왜구를 평화적인 교역자로 전환시키려는 노력 속에서 對馬島를 하위 파트너로 지목하였다. 즉 조선은 대마도주에게 圖書를 지급하고 조선에 오는 모든 배들은 對馬島主의 圖書가 찍힌 文引을 지참하게 하였다. 이로써 對馬島에게 조선과의 교역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동시에 왜구를 금압하는 책임을 요구했다.<sup>93)</sup> 여진에 대해서도 조공을 보내오는 많은 추장들에게 조선과 무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증서로서 書契를 발급해주었다.<sup>94)</sup> 명이 발급했던 감합 및 공칙과 매우 유사한 형식이다. 이를 통해서 조선 역시도 그 자신이 중심이 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명과 비슷한 방식으로 주위의 세력들을 통제하고자 했음을 엿볼 수 있다.

---

92) Mark Mancall, *China at the Center: 300 Years of Foreign Policy*, The Free Press, 1984, p. 15

93) 文引제도에 대해서는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上, 吉川弘文館, 1966 참조.

94) 金九鎮, 앞의 논문, 215~218쪽

# 朝鲜燕行录所记的夷齐庙

杨雨蕾 (浙江大学)

孤竹国是殷商时期分封在滦河下游地区的重要诸侯国,《史记·索隐》记:“汤正月丙寅,封支庶墨台氏于孤竹。”有关孤竹国的具体地域范围、社会生活及其历史变迁,因为文献和考古资料的缺乏,所知有限,且多有争议<sup>1)</sup>,但是伯夷、叔齐“礼让为国”、“叩马而谏”以及“不食周粟”、“采薇首阳”的故事流传甚广。历代君王和文人骚客对此多有称颂,在所谓两者的遗迹地修庙祭祀,留下碑刻诗文<sup>2)</sup>。明清两代,朝鲜使臣入华朝贡,孤竹城遗址所在的永平府是必经之处,他们常常游历于此地的夷齐庙,在其入华行纪中留下所见所闻、所思所想。本文梳理这些材料,参照中国相关史料,讨论燕行使臣相关记述的特点,分析他们的夷齐认识,并由此对“燕行录”的史料价值谈些看法。

## 一、时代特征

1472年,成倪(字馨叔,号虚白堂,1439-1540)以进贺使团汉训质正官的身份出使明朝,期间他做有一首《过孤竹古城》,诗曰:“天伦为重万金轻,湛乐和平弟与兄。让国一朝敦大义,采薇千载着高名。祠堂寂寞春空在,城郭荒芜石已平。怊怅临风伤往事,滦河西畔夕阳明”<sup>3)</sup>。1500年以质正官出使明朝的李荇,在途经永平府孤竹故城遗址时称:“永平道傍有石刻,曰:孤竹君古城”<sup>4)</sup>。这是朝鲜使臣在入华行纪中较早提

1) 何光岳:《孤竹的来源和迁徙》,《黑龙江民族丛刊》,1991年第2期(总25期),第60-63页。

2) 董耀会主编:《秦皇岛历代志书校注 永平府志》,清光绪十七年校注本,北京:中国审计出版社,2001年,第1417页。

3) (朝)成倪:《虚白堂诗集》卷4,载《(标点影印)韩国文集丛刊》,第14册,韩国民族文化推进会,1997年,第270页。

4) (朝)李荇:《朝天录》,载(韩)林基中编:《燕行录全集》第2卷,首尔:东国大学出版社,2001年,第288页。

及孤竹城遗迹的两条纪录。之后，直到19世纪末，使臣入华行纪对此地孤竹国遗迹的相关记述一直延续不断。这里将笔者阅读有相关内容的“燕行录”列表如下。

燕行时间	作者	燕行录名称	相关内容
1472	成俔	观光路	诗(过孤竹古城)
1500	李荇	朝天录	文
1537	丁焕	朝天录	文
1539	权檉	朝天录	文
1544	郑士龙	甲辰朝天录	诗(永平府)注
1548	崔演	西征录	诗(望夷齐庙两首)
1569	李济臣	清江先生文集	诗(谒夷齐庙)
1572	许震童	朝天录	文
1574	赵宪	朝天日记	文
1574	许筠	荷谷先生朝天记	文
1577	金诚一	金诚一朝天日记	文
1577	崔笠	丁丑行录	诗(永平清节祠次韵)
1581	崔笠	辛巳行录	诗(夷齐庙次韵)
1589	尹根寿	朝天录	诗(吊夷齐庙二首，又咏夷齐庙)
1594	崔笠	甲午行录	诗(次台韵夷齐庙)
1595	闵仁伯	朝天录	文
1597	权挾	石塘公燕行录	文
1597	许筠	丁酉朝天录	诗(夷齐庙)
1597	李晬光	朝天录	诗(夷齐庙、次夷齐庙板上韵)
1598	李恒福	朝天录	诗(谒清节祠)
1598	李廷龟	戊戌朝天录	诗(清节祠、次重过清节祠韵)
1598	黄汝一	银槎录诗，银槎 日录	诗(谒清节祠弼云用西岳庙韵、重过清 节祠韵)、文
1599	赵翊	皇华日记	文
1601	李安讷	朝天录	诗(谒夷齐庙、夷齐庙作、清节祠、题 夷齐庙)，文
1602	李廷馨	朝天录	诗(谒夷齐庙)
1602	李民成	壬寅朝天录	文
1603	朴而章	朝天录	诗(夷齐庙、谒夷齐庙、题夷齐庙)
1605	李馨郁	燕行日记	文
1608	苏光震	朝天日录	文(夷齐庙)
1609	柳梦寅	朝天录	诗(夷齐庙)
1610	黄士佑	朝天录	文
1610	郑士信	梅窓先生朝天录	文
1611	李晬光	续朝天录	诗(夷齐庙、咏夷齐二首)
1614	金中清	朝天诗	诗(谒夷齐庙有感)
1620	黄中允	西征日录	文(追述历史)
1620	李廷龟	庚申朝天录	诗(夷齐庙有感)
1636	金埴	朝天日录	文
1645	成以性	燕行日记	文
1646	李景奭	燕行录	诗(谒夷齐庙)
1651	黄豆	燕行录	诗(清节祠、次正使清节祠韵)
1652	申濡	燕台录	诗(谒夷齐庙)

1653	沈之源	癸巳燕行日程	文
1656	麟坪大君 李滄	燕途纪行、燕行 诗	文、诗(清圣庙)
1660	姜栢年	燕京录	文(伯夷庙荒废)
1666	南龙翼	燕行录	诗(谒清节祠)
1668	朴世堂	西溪燕录	文
1669	成后龙	燕行日记	文
1677	孙万雄	燕行日录	文
1682	金锡胄	捣椒录	诗(清风台、夷齐庙)
1682	韩泰东	两世燕行录	文
1685	崔锡鼎	椒余录	诗(题清节祠)
1687	任相元	燕行诗	诗(谒夷齐庙)
1689	金海一	燕行续录	诗(渡滦河望夷齐庙)
1690	徐文重	燕行日录	文
1693	柳命天	燕行日记	文
1694	吴道一	丙寅燕行日录	文
1695	李世白	霄沙集	诗(谒清节祠)
1697	崔奎瑞	良斋集	诗(次节状清节祠韵)
1708	不详	燕行日录	诗(谒清节祠次正使韵、清节祠次副使 韵)
1712	闵镇远	燕行录	文
1712	崔德中	燕行录	文
1712	金昌业	老稼斋燕行日记	文
1713	韩祉	两世燕行录	文
1719	赵荣福	燕行日录	文
1720	李宜显	庚子燕行杂识	文
1721	李正臣	燕行录	文(非常详细)
1723	黄晁	癸卯燕行录	文
1724	权以镇	燕行日记	文(新修)
1729	金舜协	五友堂燕行录	文
1731	赵尚綱	燕槎录	诗(夷齐庙、清风台)
1732	李宜显	壬子燕行日记	诗(谒清节祠、次副使清节祠韵)
1732	韩德厚	承旨公燕行日录	文
1737	李喆辅	燕槎录 丁巳燕行日记	诗(夷齐庙) 文
1740	洪昌汉	燕行日记	文
1745	赵观彬	燕行诗	诗(夷齐庙)
1749	赵显命	燕行录	诗(夷齐庙)
1754	俞拓基	燕行录	文
1755	不详	燕行日录	文
1766	洪大容	湛轩燕记	文
1777	李土甲	燕行记事	文、诗(清圣庙)
1778	李德懋	入燕记	文
1778	蔡济恭	含忍录	诗(夷齐庙)
1780	卢以渐	随槎录	文
1780	朴趾源	热河日记	文

1782	洪良浩	燕云纪行	诗(滦河清节祠)
1785	未详	燕行日录	文
1786	沈乐洙	燕行日乘	文
1790	徐浩修	燕行记	文
1791	金正中	燕行录	文
1793	李在学	燕行日记	文
1797	徐有闻	戊午燕录	文
1801	李基宪	燕行录	文
1803	李海应	蓟山纪程	文
1808	朴思浩	燕蓟纪程	文
1812	金景善	燕辕直指	文
1828	佚名医官	赴燕日记	文
1829	姜时永	翰轩续录	文
1848	李遇骏	梦游燕行录	文、诗(七绝三首)
1850	权时亨	石湍燕记	文、诗
1853	姜时永	翰轩三录	文
1855	徐庆淳	梦经堂日史	文
1856 ?	不详	燕行录	文
1860	朴齐仁	燕行日记	文
1860	申锡愚	入燕记	文(清节庙记、滦河行宫记)
1862	李恒忆	燕行日记	文
1866	柳厚祚	燕行日记	文
1869	成仁浩	游燕录	文
1876	林翰洙	燕行录	文
1887	李承五	燕槎日记	文

永平府夷齐庙的历史沿革,《史记正义》引《括地志》记载唐代孤竹故城“在卢龙县南十二里”<sup>5)</sup>,当时“已无其迹”,但存有夷齐庙和孤竹君三冢。到了明代,根据弘治十四年(1501)《永平府志》记载,洪武九年(1376),同知梅圭将原在孤竹故城的祠庙移建于永平府城内东北隅。景泰五年(1454),知府张茂复建于孤竹故城。成化九年(1473),永平知府王玺修庙落成,奏请赐额“清节”。“清节祠”、“清节庙”之名当由此而来。根据明商辂《清节庙碑记》云,庙为地方官捐俸而修,“重建正堂三间,翼以两庑,门二重,神库、厨、斋房为间各三”<sup>6)</sup>。弘治十年(1497),“知府吴杰重新祠宇廊庑厨库,绘絺神像,环绕以墙,植木于外,命人居而守之”<sup>7)</sup>。夷齐庙在“嘉靖二十六年(1547),郡守张玘重修,规制大备”<sup>8)</sup>,之后又有若干次重修,分别在明穆宗隆庆六年(1572),由

5) 康熙十八年《永平府志》：“《括地志》云：‘孤竹古城在卢龙县南十二里’。肥如县：唐武德二年(唐初第二年)更名卢龙”。清光绪五年《永平府志》：“肥如城：府西北三十里”，又记孤竹城“在府西十五里”。可见《括地志》卢龙县非明清时期的卢龙县。孤竹城遗址当在今河北卢龙县。参见李学勤：《试论孤竹》，《社会科学》，1983年第2期。

6) (民国)董天华等修，李茂树等纂：《卢龙县志》，民国二十年铅印本，载《中国方志丛书》(华北地方145)，台湾成文出版社，1967年，第129页。

7) 董耀会主编：《秦皇岛历代志书校注 永平府志》，明万历二十七年校注本，北京：中国审计出版社，2001年，第41页。

知府辛应乾重修；明神宗万历十一年(1583)由兵备雷以仁、永平知府任恺主持重修；以及万历二十七年(1599)由知府徐准、曹代萧主持重修。

到了清代，地方政府又有多次修缮夷齐庙。康熙四年(1665)，知府彭士圣见庙宇尽圯，重为修建。根据其《重修清节祠碑记》所述，虽然当时所募集的款项不足，但一场大雨使木材和人工所需费用降低，工程如得神助，顺利完成。修缮后的夷齐庙“门楼、殿堂、台庑、库厨、斋房咸撤易，焕然一新”<sup>9)</sup>。后康熙帝亲临夷齐庙，并留下御制夷齐庙诗并序。康熙四十年(1701)，又有蔡维宾重修。乾隆帝十分推崇伯夷、叔齐。他到盛京拜谒祖陵的四次东巡中，曾于八年(1743)和十九年(1754)两次驻蹕夷齐庙，分别作《夷齐庙诗并序》《夷齐庙即事》、《夷齐庙四景》等诗作。乾隆四十三年(1778)，又有大规模修建夷齐庙东行宫之举。嘉庆帝也巡幸于此，并有诗作。与明代相比较，清代夷齐庙的规模扩充不大，但周边的建筑有所增加，直到民国许多建筑尚有存留<sup>10)</sup>。

由此可见，明清夷齐庙可谓屡有兴衰。不过上列表显示，有关孤竹国、夷齐庙的内容没有间断地贯穿在明清入华朝贡使臣的记述中。朝鲜使臣途径此地，或诗或文地对之加以记述和抒发情感，看来并没有受到其兴衰的太多影响，他们对此尤加关注显现出夷齐故事在朝鲜的传播和所造成影响。相对而言，明代赋诗的内容丰富，清代则更多记述的文字。这固然与清代夷齐庙的兴盛有关，但应当主要还是由于明清两代朝鲜使臣撰写入华行纪本身所应用的体裁不同所导致的结果。

## 二、夷齐庙的地理空间

前已述及，朝鲜使臣记录孤竹国或夷齐庙包括诗赋和具体文字描述两方面的内容。这其中诗赋重在抒发情感，文字描述则主要具体记录所见所闻，下面主要就使臣文字描述夷齐庙地理空间的内容特点作一说明。

作为亲身游历此处的域外人士，不少朝鲜使臣十分具体地描绘夷齐庙所在的方位、周边的景致以及庙宇内部的结构、陈设，等等。1539年出使的权穰(1478-1548)，他在《朝天录》中写道：

夷齐庙在滦河上流土城中。城门书：孤竹城，下书：仁贤旧居。中门书：敕赐清节庙。东西小门，一书：天地经常，一书：古今师范。内有楼门，门楣书：上古逸民，下书：伯夷叔齐。楼上巨碑，未遑登眺。内庭有阁，刻孔孟曾三圣赞言，为三碑鼎立之，阁门书孔孟称贤。庭之左右碑阁，时人所述。内有神门，书明朝庙祀，围以石

8) 董耀会主编：《秦皇岛历代志书校注 永平府志》，明万历二十七年校注本，第41页。

9) (民国)董天华等修，李茂树等纂：《卢龙县志》，民国二十年铅印本，载《中国方志丛书》(华北地方145)，台湾成文出版社，1967年，第132页。

10) 参见上揭书。

栏，铺以大砖。塑像俨然，瞻拜肃然，左右立庖厨长廊，庭亦有碑。庙后墙门，刻古贤肇迹。门内楣书滦河上流，内构揖逊堂，左右立斋明之廊，后筑清风台。台上采薇亭，亭门有二，东书：高蹈风尘，西书：大观寰宇。入门渐高，又有二门，左书：百代山仰，右书：万古云霄。倚亭举目，极为洞豁。河中小岛，新修孤竹君庙亭。东有下河之门，凿岩为梯，边树木兰。扶执上下，下步水上，仰见层壁。<sup>11)</sup>

对于1547年张珖重修前夷齐庙的结构，中国文献只是在明商辂《清节庙碑记》和地方志文献中简单记述，至于具体建筑并不知晓。上引文字可见其时的夷齐庙颇具有规制。入城门后，庙堂前为二进的院落：中门和楼门。神门当为庙门。楼门与神门之间的庭院、以及神门内庭均有碑，具体内容不详。庙堂后则有“揖逊堂”、“清风台”，“清风台”上有“采薇亭”。根据万历二十七年(1599)《永平府志》记载，嘉靖四十二年(1563)由兵备道温景葵主持，在庙后滦河河中小岛上添修纪念夷齐父母的“孤竹君祠”。但从权穰亲历的记述看，在其出使前不久，岛上已新修孤竹君庙亭。

1547年张珖重修夷齐庙，中国史料记“规制大备”，1572年又有重修，但重修后夷齐庙的具体情况中国史料无甚记载，因此过去对所谓“规制大备”的情况不甚知之。不过许筠(1551-1588)1574年出使明朝留下的《荷谷先生朝天纪》对1572年重修后夷齐庙有相当详细的描述。他入京回程时访问夷齐庙，记到：

抵夷齐庙，有城扁曰：孤竹国、贤人旧里。由城门而入。庙前牌楼曰：敕赐清节祠。左墙门曰：古今师范，右墙门曰：天地纲常。大门额曰：廉顽立懦、伯夷叔齐。上建永平府申明祀典之碑，覆以重屋。左右壁镌累代尊崇二子首末。中门额曰：百世之师。门列三石碑，中记孔子语，东记曾子语，西记孟子语。东偏门曰：廉顽，西偏门曰：立懦，庙门题曰：明朝封祀，知府张珖所书。庭中有二碑，东，翰林侍读袁炜撰；西，翰林检讨郭鏊撰，皆在嘉靖庚戌。正堂曰：清圣祠，安塑像二坐。像前竖位版，一曰：昭义清惠公，即伯夷也；一曰：崇让仁惠公，即叔齐也。东西夹以长廊站台，迤以石栏。阶下列碑甚多，一元御史中丞马祖常撰；一成化甲午吏部尚书商辂撰，太常寺卿刘翊书；一嘉靖庚戌行人张廷纲撰；一永平府申明祀典之碑，知府王玺等立；一嘉靖庚戌，提学御史院鶚遣卢龙知县等以薇二品玄酒二盞致祭而撰文。直正堂之后，又由逸民肇迹门，为揖逊堂。堂前东为盥荐门，西为齐明门。堂之北是为清风台，台上建采薇亭。东西累石为砌以上，东扁小门曰：高蹈风尘；西曰：大观寰宇。亭前左右石门，亦刻：百世山斗、万古云霄八大字。亭扁曰：清风高节，曰：北海之滨。一庙之胜萃于此。湾河自北而来，到台下分为二派，有石屿正当其心，上构墨氏庙，即孤竹君也。下流折而南去。洲渚萦纡，波澜湛净，杳有奥邃深远之意，真矣内奇绝之地也。<sup>12)</sup>

11) (朝鲜)权穰：《朝天录》，《燕行录全集》第2卷，第288页。

12) (朝鲜)许筠：《荷谷先生朝天纪》，《燕行录全集》第6卷，第301页。

类似的记载也见于该使团质正官赵宪(1544-1592)的《朝天日记》中<sup>13)</sup>，详细描绘庙的情形。可以看到，此时夷齐庙规模似并未有太大的改变。入城门后，庙正殿前大体有三进院落：牌楼、大门、中门。与权穰的记述相比，牌楼为前之中门，题书改为“敕赐清节祠”；大门即前之楼门，题书增加有“廉顽立懦”<sup>14)</sup>；中门当为原来的碑阁所改建；庙门重修，题字为张珙书，原来的“明朝庙祀”也改为“明朝封祀”，另有东、西两偏门，分别题为“廉顽”、“立懦”。殿前两碑新立，时在嘉靖庚戌年(1550)。大殿两边阶下亦有数碑，书有元代、明成化年间以及时下所撰碑文。殿堂内有伯夷、叔齐的塑像和牌位。另外，揖逊堂前东、西有盥荐门、齐明门，当为新开。

我们知道，自嘉靖九年(1530)明世宗推行孔庙改制，内容包括孔子去王号；“大成殿”改称“先师庙”，增设“后圣祠”追祀孔子之父；削爵称，进退诸儒；以及移毁塑像，祭祀更用木主，去章服，祭器减杀<sup>15)</sup>。这一改制在之后有明一代大部分地区得到推行。正是在这样的背景下，曾为戚继光幕府的郭造卿(1532-1593)为“达于礼”，建议正夷齐庙位号、除爵祀塑像。在他看来，“夷齐既为百世师，则祠视先师孔子等矣”，因此提出：“当大礼既议后，永平守臣宜请从孔庙例，木主称逸民先圣伯子、逸民先生叔子。而孤竹君庙当称曰后仁”<sup>16)</sup>。从上述朝鲜使臣的记录看，张珙重修，所谓“规制大备”，大概主要是在庙堂内增加了伯夷、叔齐的位号，分别为“昭义清惠公”和“崇让仁惠公”，“清惠”、“仁惠”为元皇帝所敕，但并未除去塑像。另外还在清风台后滦河河中小岛上构筑“墨氏庙”，此当为《永平府志》中的“孤竹君祠”。前面说到，权穰记录这里之前新修有“孤竹君庙亭”，两者应当有承继关系。

之后朝鲜使臣详细记录夷齐庙的是1610年出使的郑士信(1558-1619)，此时夷齐庙又经过1599年的一次重修，中国文献对于这次重修亦无太多详细记载，郑士信的行纪则弥补了这方面的缺憾。为更好地认识作者对夷齐庙以及前往路线等的记述，在此笔者不嫌冗长，转录如下：

行十余里始到孤竹古城。有山峙于西南，而其瓌阜之足平衍而北走，斗断于滦河为千尺断岸，孤竹古城居其案头者也，未至城而平原上树木散布，行数十步而抵城门，城之形样仅如我国县城，即是孤竹君旧城形址而不加广拓者也。城之雉堞则皆湮没不修，而城门则修设虹门，又铺砖石为路，门扉亦加薄铁，题城门外之颠曰孤竹城，又题其下曰贤人旧里。入城门百余步而抵庙，大门悬板金书，其扁曰敕赐清节祠，又大门外越边筑屏墙，与门相对而大书其阴曰：清风百代。门外之西树一碑，书曰至今称圣，由大门而入，亦磬石作虹门，题曰伯夷叔齐，门上亦构屋而竖碑，从门内西边由

13) (朝鲜)赵宪：《朝天日记》，《燕行录全集》第5卷，第287-289页。

14) 此处题字，许葑记载中无“上古逸民”四字，赵宪《朝天日记》则记有。

15) 《明世宗实录》卷119，第4页。参见黄进兴：《优入圣域：权力、信仰与正当性》，陕西师范大学出版社，1998年，第151-161页。

16) 《秦皇岛历代志书校注 永平府志 康熙二年修康熙十八年续》，中国审计出版社，2001年，第93页。

层阶而上门楼竖碑处，则碑居中而东西壁皆有石刻，书古今历代褒赠封爵御敕及春秋祭式，大门内左右庭畔又作虹门，东门则扁曰天地纲常，西门则扁曰古今师范，庭有两碑，皆构屋以庇之。大门之内直路皆以细鍊石。夹路左右中则以水磨石填筑成路其左右侧柏古松成行由此直路行十余步又构三间阁扁曰百世之师，中有三碑，中间一碑，则书孔子称夷齐不念旧恶章，子贡问答章，此碑则以黄字书之，东间之碑则书曾子称伯夷之语，西间之碑则书孟子之言，两碑则皆以青书之。由左右夹门而入焉。西夹门则扁曰立懦，东夹门则扁曰廉顽，门内广庭亦侧柏古松成行。庭北为正殿五楹。正间扁曰：到今称圣，其东扁曰：千古清风，西边曰：清风百世，合三大扁也。殿前阶砌皆以细鍊石筑成，阶上左右前面皆绕以石栏，于阶下有东西两庑各七楹，庭中有大石碑七八，正殿中安两贤塑像，面色如生，皆加冕旒礼服，像前设香卓，塑像之前各立粉版而黄书之。东位伯夷，之前则书曰：崇让仁惠公；西位叔齐之前则书曰：敦义清惠公。卓子则共一卓，卓上中央安一香炉，以黄石刻为之，似石非石，盖次玉者也。炉形如大斗，高则倍斗。余等三人展谒礼拜于真像前，毛发如竖，心神清爽，若无一点尘滓者，然百世之下尚有如此，而况亲灸之者乎。正殿之后又有揖逊堂，为屋凡三大间，而虚其厅。盖像生时让国揖逊之地也，厅前设斋房七楹，扁其东曰盥荐，扁其西曰齐明。东则为夏宿之榻也，西则为冬宿之堦也。使命之来宿者皆宿此云。堂后为清风台，高筑十余丈，而卫以石，由东阶而上数十步，曲折向北而将入门，门外之扁曰高蹈风尘，入门向北十余步，抵短墙之内俯临滦河，然后曲折向西，寻短墙而行，未十步入台门，门内扁曰百代山斗，是门与西门相对，西门之扁曰万古云霄，西门之外从阶而升，循墙而入，亦如东之山斗门，入其中为清风台，构三间阁，虚其北以临清江北，檐之内悬额曰：清风高节。阁内南壁匾额曰：碧水青山。又有“北海之滨”、“清风徐来”等扁。滦河之水徙西北长山之下，水涨时则湾回于台之西隈，故明沙如雪。今则玉流澄潭，徙西北蔡回于台北，短墙之下，漫衍分流，中峙小屿，屿行弥长，可数百步，屹如小山，与台正对。岛屿之上，孤竹君庙也。獠以垣墙，丹碧倒水，欲往观而适无舟可渡也。徙山斗门而出，循阶而下，向东北未十步，又有一小门，扁曰：万顷沧波。门傍设短墙，俯墙而唾落于河水，其胜筑亦如台上。石门之下，甃石为路，属之于下，以便游览者。<sup>17)</sup>

郑士信的记述相当详细，首先说明夷齐庙所处的地理方位，然后以由外而内空间顺序十分清晰地描写了当时夷齐庙的建筑格局以及包括楹联匾额在内的布局陈设等，令读者颇有身临其境之感。作者在记录时，时而从自己的立足地点以定点观察法、时而依所处空间位置的转移以移步换景法勾画所看到的景象。从记述中可以看到，庙内格局，与前相同，入城门到正殿依旧是三进院落。庙内建筑，正殿五楹，其东西两庑各有七楹，此与商辂《清节庙碑记》所记“正堂三间”相比，规模有所扩大。另外，相对于1574年许葑和赵宪所游历之夷齐庙，城门内增修有一道屏墙，墙上书有“清风百代”，外庭院增建有碑阁；正殿后的揖逊堂左右增设斋房；清风台上原本的采薇亭则从亭发

17) (朝鲜)郑士信：《梅窓先生朝天录》，《燕行录全集》第9卷，第314-318页。

展成为三间阁；而部分门匾题字也出现变化，如二进门所题“廉顽立懦”不见，仅存“伯夷叔齐”，再如正殿三大匾为前之所无。

基本上，这些朝鲜使臣的记载展现出明代夷齐庙规模不断扩大的具体情况，以及不同时期包括楹联题额在内的内部结构和陈设的许多细节，这是中国史料所缺乏的内容。我们看到，使臣对夷齐庙的记述并不仅仅局限在庙本身，很多时候涉及到孤竹祠等周边的景致。到了清代，朝鲜使臣的相关文字描述更为丰富，虽然个人的记录有详略之不同，但综合起来，它们是我们追寻夷齐庙及其周边相关地景有清一代复杂兴衰过程以及内部陈设的极好材料。如1656年出使的麟坪大君李濬(1622-1658)在其《燕途纪行》中留下明末清初彭士圣重修前夷齐庙的景象。可以看到，此时的夷齐庙有破落之态，不过自进入城门到正殿已是四进的格局，与1610年相比，正殿前新增有一道门，“是三间朱漆板门，内外俱有悬板，外曰：西山北海，曰：明朝封祀，曰：吕尚微箕；内曰：古之贤人，曰孤竹清风”<sup>18)</sup>；正殿后原来的揖逊堂不见，存有一亭；内庭和清风台上有顺治时所立之碑；等等。很明显，顺治年间庙曾被重修，但具体情况在中国文献中少有文字留下。再如1686年吴道一(1645-1703)《丙寅燕行日乘》的记录告诉我们，时清风台上高阁的匾额题为“清风阁”；1720年李宜显(1669-?)描绘了正殿内伯夷、叔齐的塑像：“顶平天冠，垂冕旒，穿画龙纹广袖白袍，踞坐朱榻之上。面貌俱极丰厚，但施以粉，似乖真面肉色也”<sup>19)</sup>，1721年李正臣(1660-1727)描绘两者塑像“戴冕执圭，俨然端拱”<sup>20)</sup>，让我们得以一窥当时所供奉伯夷、叔齐的具体形象，两者还对正殿内所置放的香炉、石瓶、匾额以及殿外所立的八块石碑颇多描述；1777年李埤(1737-1795)的《燕行纪》记录正当重修时夷齐庙的景象：依旧是四进的格局，不过正殿前的那道门“内外楣，皆刻清节庙三字”<sup>21)</sup>，殿内东西两壁石刻有乾隆御题诗与和亲王诗律，殿外只有五块石碑；1778年李德懋(1741-1793)的《入燕记》不仅记述正在此处营建的行宫“有楼有台，亦有廊阁，而窗棂玲珑，以楠木紫檀花梨刻牡丹。卍字栋宇，涂二青，泥金朱红，极其奢丽。而雕刻之，皆江南巧工也”<sup>22)</sup>，更是十分详细地记录了所用各类工匠的人数、价钱和整体建筑的工期。而通过1790年徐浩修(1736-1799)、1793年李在学(1745-1806)等人的记录，可以知道夷齐庙恢复成入城门后三进的格局、揖逊堂则内置有“乾隆御题诗笔两碣”，等，这应该是1778年整修之后的格局。

需要指出的是，使臣作为个体，他们的记载有时存在漏记和误记的地方。如朴趾源(1737-1805)的《夷齐庙记》中就没有记述到入城门就能看到的书有“清风百代”四字的

18) (朝鲜)李濬：《燕途纪行》，《燕行录全集》第22卷，第112-113页。

19) (朝鲜)李宜显：《庚子燕行杂识》，《燕行录全集》第35卷，第423页。

20) (朝鲜)李正臣：《燕行录》，《燕行录全集》第34卷，第269页。

21) (朝鲜)李埤：《燕行纪事》，《燕行录全集》第52卷，第520页。

22) (朝鲜)李德懋：《入燕记》，载氏著《青庄馆全书》卷66，서울：술출판사，1981年国译本，第11册，第90页。

土墙；金正中1791年记述夷齐庙正殿说“入其殿，板上书：古之贤人，左碑孔子曰…，右碑<sup>23)</sup>曾子曰…，之间孟子曰…，东壁有乾隆御制诗…”<sup>24)</sup>，如此看来孔子、曾子、孟子三碑置放在正殿内，然而从徐浩修、李在学等前后出使使臣的纪录看，此三碑其实是立于正殿前的阁屋内，所以这应该是作者混淆误记的情况。尽管如此，综合行纪中的相关记载，朝鲜使臣对夷齐庙地理空间的描绘可谓翔实，阅读这些内容，我们完全可以复原不同历史时期夷齐庙的景象。

### 三、夷齐庙的文化场域

上述较写实性地描绘夷齐庙及其周边的地理景观之外，朝鲜使臣记述此地，颇多感慨，也常常吟诗抒发自己的情愫。明代，朝鲜使臣到此地，凭吊伯夷、叔齐，尤感叹他们的“清风高节”。1574年，许筠、赵宪一行入京匆匆，没有时间游览夷齐庙，但经由庙以南的所谓孤竹城遗址时，感叹“旧日之迹，今已夷漫涤荡，无一可寻，而独清风爽然，万古如昨”。<sup>25)</sup> 回程时，他们冒大雨终于找到并参观了夷齐庙。许筠记使行到正殿“行再拜礼，瞻仰回思，心神飒爽”<sup>26)</sup>，后登清风台，“望永平府之野，烟树掩翳，依稀然有遗世独立之思”<sup>27)</sup>。赵宪在游览后更是赋诗两首：“胸中都是绝毫私，高节长扶万古彝。愿得清风熏一仰，醒然起我懦顽资”；“拜瞻孤竹二贤人，深慕当年两得仁。弊屣任看尊富位，芳薇扶起古今伦。清风激处顽夫耻，旧恶忘时薄俗淳。东海小生钦仰久，临墟犹觉爽心神”<sup>28)</sup>。他们到此拜祭，感慨的是伯夷、叔齐的仁义清节、谦让不争，赞扬两者的公心、清廉和礼让之义。

类似的感慨在明代还能看到不少。如1577年崔笠出使，回程途中有《永平清节祠次韵》一首：“峻节高风死亦生，支撑宇宙一亭亭。当时但识三纲重，此子非须万世名。自后纷纷几圣暴，从他屑屑较权经。首阳山下滦河上，庙貌森严敕额名”<sup>29)</sup>，这里强调夷齐的“峻节高风”，认为应当尊崇的是这种精神，而不是重在赞扬夷齐当时守“三纲”的具体行为，因为时代变迁，此举不过只会为一时所称道。1581年，崔笠再次出使时又有《夷齐庙次韵》：“饿死西山不自悲，千秋慕义寄高祠。隔河孤竹君灵在，长有清风来往吹”<sup>30)</sup>，则将对伯夷、叔齐清风节义的尊崇延及到孤竹君。

23) 参见(朝鲜)徐浩修：《燕行纪》，《燕行录全集》第51卷，第264-267页；(朝鲜)李在学：《燕行日记》，《燕行录全集》第58卷，第204-207页。

24) (朝鲜)金正中：《燕行录》，载《燕行录全集》，第74卷，第155-156页。

25) (朝鲜)许筠：《荷谷先生朝天纪》，《燕行录全集》第6卷，第181页。

26) (朝鲜)许筠：《荷谷先生朝天纪》，《燕行录全集》第6卷，第301页。

27) (朝鲜)许筠：《荷谷先生朝天纪》，《燕行录全集》第6卷，第301页。

28) (朝鲜)赵宪：《朝天日记》，《燕行录全集》第5卷，第289页。

29) (朝鲜)崔笠：《丁丑行录》，《燕行录全集》第4卷，第413页。

当然，使臣还称颂夷齐“君臣之义”的行为。1548年崔演(1503-1564)入京至孤竹城遗址，“行李忽急”，未得入夷齐庙一拜，写下“望夷齐庙二首”，曰：“采薇高节孰堪争，昭揭纲常日月明。守义岂云资也隘，得仁元自圣之清。尊崇贲饰千年庙，廉义钦闻百世名。再过未能成一拜，临岐嗟悼谩含情”；“叩马陈辞是义人，要令万世正君臣。伯能逊国知尊命，弟亦推兄见重伦。论圣称清真识圣，得仁何怨自求仁。闻风千载思亲炙，恨不升阶荐涧苹”<sup>31)</sup>。诗是站在维护“纲常”的立场上盛赞夷齐高节、守义、廉义的品德，尤其强调两人“叩马而谏”的君臣之义和“逊国尊命”的兄弟伦常。1569年，李济臣谒夷齐庙，也是吟诗一首曰：“尚镌孤竹在荒城，庙宇千寻石岸平。父子君臣兄弟义，乾坤夷夏古今名。一家遗像当时表，万代长风昨日清。满掬深波盈握蕨，洗干尘肺改精明”<sup>32)</sup>，可见得吟诗者对夷齐“父子君臣兄弟义”的肯定。1577年，金诚一入明，后在其《朝天纪行》诗中写道：“河边孤竹有孤城，百代纲常惟弟兄。清高遗像起我顽，再拜陡觉心惶惶。徘徊半日不忍去，更上采薇凭前楹”<sup>33)</sup>，表达了他对夷齐维护纲常之举的惶惶相惜之心。

我们知道，中国历代对于夷齐事迹、夷齐精神都存在着多种解读。汉刘向在《立节》中说“伯夷叔齐饿死于首阳山而志逾彰，不轻死亡，安能行此”，又说“伯夷叔齐杀身以成其廉”，说明夷齐所具有的士人气节。唐韩愈的《伯夷颂》着意于伯夷“耻耻食其(周)粟，饿死而不顾”的忠义精神，说他是“虽饿死，尤有义而不惧”之一身立教。皇浦湜则对夷齐持保留态度，认为夷齐和柳下惠所行较之圣人，“皆一方之士也”。宋王安石在《伯夷论》中更是指责韩愈对夷齐的称颂，认为伯夷“叩马而谏”“亦理有不存者也”。而苏轼以“见利而不动者”称赞伯夷、叔齐。朱熹说到伯夷的“叩马之心”和太公的“孟津之心”，以“二者道并行而不相悖”论之。<sup>34)</sup>

实际上，明代也有少数朝鲜使臣对夷齐“让国守义”、“不食周粟”以及“叩马而谏”的行为持保留态度。郑昆寿(1538-1602)曾于1592作为陈奏使入明，1597年他作为谢恩兼辨诬陈奏使再次出使明朝，途中拜祭夷齐庙，并留下《谒夷齐庙辞》：

仰天俯地，人立乎其间兮，所贵以其有君臣、父子之纲纪。天子之尊，圣人之德兮，顾舍是何？以天伦、父命，我不知其轻重兮，视弃其国如弃弊屣。逃矣！西土之人兮，胡为乎孟津之涘。彼八百虽多，亦奚为兮，千万人吾往之矣。试叩马听我邈邈兮，(以)暴易暴，孰非孰是。神农虞夏之已没兮，呜呼！曷归靡所底止。周有粟吾其

30) (朝鲜)崔笠：《辛巳行录》，《燕行录全集》第4卷，第430页。

31) (朝鲜)崔演：《西征录》，《燕行录全集》第3卷，第198-199页。

32) (朝鲜)李济臣：《清江先生集》卷1，《(标点影印)朝鲜文集丛刊》第43册，韩国民族文化推进会，1997年，第499页。

33) (朝鲜)金诚一：《鹤峰先生文集续集》，《(标点影印)朝鲜文集丛刊》第48册，韩国民族文化推进会，1997年，第182页。

34) 参见欧阳健：《伯夷精神之解读》，《厦门教育学院学报》，第6卷第3期(2004.9)。

食诸兮，西山之薇蕨甚美。天下万世之无君兮，呜呼！噫嘻！生不如死。君臣父子之纲纪，赖夫子以定兮，夫子所以为夫子。茫茫宇宙特立独行兮，兄及弟矣，二人而已。德为圣人，为百世师兮，顽夫懦夫，皆为之兴起。后千祀而相感兮，景慕夫子，实由乎天降之衷。问征夫而来寻兮，稽首夫子之闕宫，遂为之歌曰：有河浩浩，有山崇崇，一区孤竹，万古清风。<sup>35)</sup>

可以看到，虽然作者肯定夷齐守君臣、父子之纲纪，但在夷齐和太公之间，却颇有无所适从之感。李恒福(1556-1618)1598年以辨诬陈奏行正使入明，途中拜祭夷齐庙，写下长诗《谒清节祠》，诗有句云：“西方美人称圣德，曷丧遗民咸颂祷。风云唤起钓鱼翁，涿鹿奇功犹压倒。珪璋八百孟津渡，天命人心归有道。云亡还有不死者，太史遗编后人考”<sup>36)</sup>，可见他对夷齐的否定态度。他在诗的序文中这样写到：“伯夷之道隘，非圣人居身之所珍。然余窃高其让国守义，不食周粟。每读迁史，未尝不废书而叹息”<sup>37)</sup>。

不过虽然如此，明代这种持保留态度的声音并不多有，明代朝鲜使臣多是肯定夷齐的清节、忠义，尤其是对其守君臣之道的赞扬到壬辰倭乱后似乎更显强烈。李晔光(1563-1628)，1597年和1611年分别以进慰行正使和冬至兼奏行副使身份两次入明。第一次出使他写下《夷齐庙》诗：“今古滦河水，名因二子奇。城寒孤竹国，山远采薇时。香火千年庙，清风百世师。客来重起敬，再拜读残碑”<sup>38)</sup>，仅表达对夷齐的尊敬。第二次出使他又有《夷齐庙》诗：“凜然遗塑旧祠宫，犹想双清气象同。伦纪君臣兄弟际，姓名天地古今中。城悬北海当年月，野响西山百世风。往事伤心孤竹国，夕阳无语水流东”<sup>39)</sup>，还有《咏夷齐二首》：“未信殷仁只有三，同时二子是真男，当初让国元微事，汤武千秋也自渐”；“已分捐生叩马前，采薇非是为身全。区区欲把西山土，保得殷家一片天”<sup>40)</sup>。很明显这里表现出他对夷齐谨守君臣纲纪的无限敬仰。

如果说倭乱后朝鲜使臣的相关诗作更多称颂夷齐的为国忠节和春秋义理，是和朝鲜出于对明朝派援军抗倭的“再造之恩”意识而强调对明义理有关<sup>41)</sup>，那么明清交替之后，使臣瞻拜夷齐庙，其感发多少都带着“尊明攘清”的意识。任相元(1638-1697)1687年出使，到永平府吟诗两手：“旷原遥接塞云阴，汉日荒屯未易寻。猎骑归时明远火，村庐密处隔平林。山河壮势连夷夏，征戍悲歌自古今。不必更观飞

35) (朝鲜)邢昂寿：《栢谷先生集》卷1，《(标点影印)朝鲜文集丛刊》第48册，韩国民族推进会，1997年，第406页。

36) (朝鲜)李恒福：《朝天录》，《燕行录全集》第9卷，第50页。

37) (朝鲜)李恒福：《朝天录》，《燕行录全集》第9卷，第48-49页。

38) (朝鲜)李晔光：《朝天录》，《燕行录全集》第10卷，第188页。

39) (朝鲜)李晔光：《续朝天录》，《燕行录全集》第10卷，第236页。

40) (朝鲜)李晔光：《续朝天录》，《燕行录全集》第10卷，第237页。

41) 参见(韩)이성형：《燕行錄의 伯夷·叔齊 관련 漢詩 研究：壬亂收拾期를 中心으로》，《漢文學論集》，第31輯(2010.8)，第177-212页。

将石，千秋孤竹起人欷”；“滦河漾绿遶城隅，雄镇从来制北胡。雪里叠山环远碧，烟中衰柳际平芜。防秋旧迹台空在，让国遗风庙自孤。勘叹召公开社地，竟无巾帻饰头颅”<sup>42)</sup>。赵文命(1680-1732)1725年以谢恩兼陈奏行书状官身份入京，途中有《夷齐庙》两首：“一曲滦河水，岿然半畝宫。千年俨遗像，六月飒清风。但识经常大，宁辞饿死穷。兵前应愧色，叹息渭川翁”；“历历城垣孤竹国，遗祠无语立荒皋。一身独任三纲重，万代争瞻二子高。松籁爽如添韵操，河流争欲洗腥臊。祇今定有西山蕨，不敢随人荐涧笔”<sup>43)</sup>。都可以看到他们在称颂夷齐之时所带有的怀念明朝的情怀。

更甚的是，朝鲜使臣在拜祭夷齐后会效仿夷齐采薇而食之举，以从朝鲜带来的干厥为羹，表达他们的思明之心，彰显他们不忘《春秋》之义。金昌业(1658-1721)1713年入清，他在其《老稼斋燕行日记》中记载使臣的这种行为已成惯例<sup>44)</sup>。1780年朴趾源燕行在夷齐庙午餐，有“薇鸡之蒸”，后被告知朝鲜使臣入清途中，“夷齐庙例为中火站，必供薇厥，无论四时”<sup>45)</sup>。1791年金正中随冬至兼谢恩使出行，他记载使团游览夷齐庙后，也照例食蕨羹<sup>46)</sup>。不过对此，三人都颇感可笑。朴趾源更是记录了坊间不屑于此举的几则笑谈，感叹明清交替之后，如今“遗老尽矣，复以伯夷之薇致此纷纭”<sup>47)</sup>。

实际上，到18世纪，对于夷齐事迹，有不少朝鲜文人表示怀疑。朴趾源在其《伯夷论》一开始就说：“伯夷之谏武王不见于经，此齐东野人之言。而司马迁取之以为之史，此不足信也。”<sup>48)</sup> 金昌翁(1653-1722)认同王安石的观点：“至夷齐谏伐事，则七圣皆迷，总输于荆公一只眼。始出于庄周寓言，马迁传之，韩愈颂之，流传千百年，牢不可破，至荆公而方碎其说。”<sup>49)</sup> 丁若鏞(1762-1836)也不相信伯夷“叩马而谏”、“采薇而食”之说：“微子受封而不耻，箕子陈道而不疑，何独伯夷叩马而谏、采薇而食，以致饿死乎？”<sup>50)</sup> 而对于伯夷谏伐和太公助武王伐纣，具有北学思想的朝鲜文人多持两是的态度。如朴趾源认为，即便司马迁所记录的夷齐故事是真实的，但其中以伯夷为是而以太公为非的观点值得讨论。因为在他看来伯夷谏伐与武王伐纣“同道”，所谓“伯夷之非武王非非其举也，明其义而已矣；武王之不封伯夷，非忘之也，显其义而已矣。其虑后世天下，同也。”<sup>51)</sup> 朴齐家(1750-1805)在《伯夷太公不相悖论》中则写道：“伯夷之忧，万世之忧也。太公之心，天下之心也。横之为经，竖之为权。仁人之心，同出于至诚惻怛，无一毫私意于其间，则为用虽殊，其义则同，非若黑白之可

42) (朝鲜)任相元：《燕行诗》，《燕行录全集》第28卷，第45-46页。

43) (朝鲜)赵文命：《燕行录》，《燕行录全集》第37卷，第55页。

44) 参见(朝鲜)金昌业：《老稼斋燕行日记》，《燕行录全集》第32卷，第509页。

45) (朝鲜)朴趾原著，朱瑞平校点：《热河日记》，上海：上海书店出版社，1997年，第93页。

46) 参见(朝鲜)金正中：《燕行日记》，《燕行录全集》第74卷，第400页。

47) (朝鲜)朴趾原著，朱瑞平校点：《热河日记》，第93页。

48) (朝鲜)朴趾源：《燕岩集》卷3，论，首尔：庆熙出版社，1966年，第64页。

49) (朝鲜)金昌翁：《三洲集》卷33，目录己亥，三月。

50) (朝鲜)丁若鏞：《與犹堂全集》第二集经集第五卷，孟子要义，公孙丑第二，伯夷柳下惠章。

51) (朝鲜)朴趾源：《燕岩集》卷3，论，首尔：庆熙出版社，1966年，第65页。

辨，薰蕕之相别也。彼君子此亦君子，彼贤人此亦贤人，天下之所谓二老也，千古之所谓两是也。”<sup>52)</sup>

18世纪倡导北学清朝的朝鲜文人多有燕行的经历。途中他们瞻拜夷齐庙，一方面追崇夷齐“礼让为国”、“不食周粟”的清风大义之举，表现出其对“尊明”义理的坚持，另一方面也感叹清朝对夷齐庙的多次修缮以及皇帝亲自拜祭之举，从中体会清朝政府对中华文化的继承和社会的繁荣和稳定。主张两是说与北学思想不无联系<sup>53)</sup>。

## 结语

作为行纪资料，燕行录不仅描绘使臣所游历的地理景观，而且记述他们经由此地的所思所感。前论大量有关夷齐庙的记述，其中既有十分逼肖的详细描写，也有许多作者借景抒情、融情于景的内容，这些资料一方面极大地补充了中国史料在时间延续性和细部现场描绘上的不足，另一方面也让我们看到不同时期朝鲜人的中国文化认识。对于朝鲜使臣而言，夷齐庙不仅是他们途中所经由的地理空间场景，而且还具有现实关怀的象征意义。使臣投射在夷齐庙的感发，是与当时中国的历史境遇、中国与朝鲜半岛的关系以及朝鲜社会本身紧密相连。同样的场景在不同的时代触发出不同的感慨。所以通过对不同时期朝鲜使臣对夷齐故事的不同解读，我们能够深入认识不同时期的中国和朝鲜半岛关系。

---

52) (朝鲜)朴齐家：《贞蕤集》，果川：韩国国史编纂委员会，1961年，第260页。

53) 参见(韩)이현식：《연암 박지원 문학 속의 백이 이미지 연구》，《東方學志》第123辑，第331-369页；(韩) 이흥식：《조선후기 백이 수용의 한 양상》，《한국고전연구》第23辑，第67-100页。

# 朝鮮 燕行錄에 기록된 夷齊廟

楊雨蕾 (浙江大學)

孤竹國은 殷代 灤河 하류지역에 분봉된 중요한 제후국으로, 『史記』 索隱篇은 “湯正月丙寅, 封支庶墨臺氏於孤竹.”라고 기록하고 있다. 孤竹國의 구체적인 지역 범위, 사회생활 및 역사적 변천은 문헌과 고고학 자료의 부족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한 많은 논란이 있다.<sup>1)</sup> 그러나 伯夷와 叔齊가 “禮讓爲國”, “叩馬而諫”하고 “不食周粟”, “采薇首陽”한 고사는 매우 널리 전해져 내려왔다. 역대 군왕과 문인, 시인들이 이를 칭송하는 글을 매우 많이 남겼고, 두 사람의 유적지에 사당을 짓고 제사를 올렸으며 비각과 시문을 남겼다.<sup>2)</sup> 명·청대 조선 사신은 중국에 들어와 조공을 하기 위해 孤竹城의 遺址가 있는 永平府를 반드시 지나야 했고, 종종 이곳에 있는 夷齊廟를 방문하기도 했기 때문에, 연행록에는 조선 사신이 夷齊廟에 대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낀 바가 담겨 있다. 본고는 이들 기록을 분석하고, 관련된 중국 측 사료를 참조하여, 燕行使가 남긴 기술의 특징을 논하고, 伯夷와 叔齊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분석할 것이며, 더불어 이를 통해 “燕行錄”의 사료적 가치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 1. 시대적 특징

1472년 成俔(자는 馨叔, 호는 虛白堂, 1439-1540)은 進賀사절의 漢訓質正官의 신분으로 명나라로 사행을 떠났고 그 기간 동안에 『過孤竹古城』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天倫爲重萬金輕, 湛樂和平弟與兄. 讓國一朝敦大義, 采薇千載著高名. 祠堂寂寞春空在, 城郭荒蕪石已平. 悵悵臨風傷往事, 灤河西畔夕陽明.”<sup>3)</sup> 1500년 質正官로 명에 다녀 온 李荇은 永平府의 孤竹城 遺址를 지나갈 때,

\* 논문의 사료 부분은 번역하지 않음(역자).

1) 何光岳, 「孤竹의來源和遷徙」, 『黑龍江民族叢刊』, 1991-2, pp.60-63.

2) 董耀會 主編, 『秦皇島曆代志書校注 永平府志』, 北京, 中國審計出版社, 2001, p.1417.

“永平道傍有石刻，曰：孤竹君古城。”라고 언급했다.<sup>4)</sup> 이 둘은 조선 사신의 중국 사행 기록 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 孤竹城 遺址가 언급된 사례이다. 이후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사신의 여행기에서 孤竹國의 유지에 관련된 기사는 계속 이어졌다. 필자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燕行錄”에 실린 관련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연행시기	지은이	연행록 명칭	내용
1472	成俔	觀光路	詩 ( 過孤竹古城 )
1500	李荇	朝天錄	文
1537	丁煥	朝天錄	文
1539	權檣	朝天錄	文
1544	鄭士龍	甲辰朝天錄	詩 ( 永平府 ) 注
1548	崔演	西征錄	詩 ( 望夷齊廟 2首 )
1569	李濟臣	清江先生文集	詩 ( 謁夷齊廟 )
1572	許震童	朝天錄	文
1574	趙憲	朝天日記	文
1574	許筠	荷谷先生朝天記	文
1577	金誠一	金誠一朝天日記	文
1577	崔笠	丁丑行錄	詩 ( 永平清節祠次韻 )
1581	崔笠	辛巳行錄	詩 ( 夷齊廟次韻 )
1589	尹根壽	朝天錄	詩 ( 吊夷齊廟 2首, 그외 詠夷齊廟 )
1594	崔笠	甲午行錄	詩 ( 次台韻夷齊廟 )
1595	閔仁伯	朝天錄	文
1597	權挾	石塘公燕行錄	文
1597	許筠	丁酉朝天錄	詩 ( 夷齊廟 )
1597	李晬光	朝天錄	詩 ( 夷齊廟、次夷齊廟板上韻 )
1598	李恒福	朝天錄	詩 ( 謁清節祠 )
1598	李廷龜	戊戌朝天錄	詩 ( 清節祠、次重過清節祠韻 )
1598	黃汝一	銀槎錄詩, 銀槎日錄	詩 ( 謁清節祠弼雲用西嶽廟韻、重過清節祠韻 ), 文
1599	趙翊	皇華日記	文
1601	李安訥	朝天錄	詩 ( 謁夷齊廟、夷齊廟作、清節祠、題夷齊廟 ), 文
1602	李廷馨	朝天錄	詩 ( 謁夷齊廟 )
1602	李民成	壬寅朝天錄	文
1603	樸而章	朝天錄	詩 ( 夷齊廟、謁夷齊廟、題夷齊廟 )
1605	李馨鬱	燕行日記	文
1608	蘇光震	朝天日錄	文 ( 夷齊廟 )
1609	柳夢寅	朝天錄	詩 ( 夷齊廟 )
1610	黃士佑	朝天錄	文
1610	鄭士信	梅窓先生朝天錄	文
1611	李晬光	續朝天錄	詩 ( 夷齊廟、詠夷齊 2首 )
1614	金中淸	朝天詩	詩 ( 謁夷齊廟有感 )
1620	黃中允	西征日錄	文 ( 追述曆史 )

3) 成俔, 『虛白堂詩集』, 권4(『標點影印』韓國文集叢刊』, 第14冊, 韓國民族文化推進會, 1997, p.270).

4) 李荇, 『朝天錄』(林基中 編, 『燕行錄全集』第2卷, 首爾, 東國大學出版社, 2001, p.288).

1620	李廷龜	庚申朝天錄	詩 (夷齊廟有感)
1636	金埴	朝天日錄	文
1645	成以性	燕行日記	文
1646	李景奭	燕行錄	詩 (謁夷齊廟)
1651	黃豆	燕行錄	詩 (清節祠, 次正使清節祠韻)
1652	申濡	燕台錄	詩 (謁夷齊廟)
1653	沈之源	癸巳燕行日程	文
1656	麟坪大君 李渲	燕途紀行, 燕行詩	文, 詩 (清聖廟)
1660	薑栢年	燕京錄	文 (伯夷廟荒廢)
1666	南龍翼	燕行錄	詩 (謁清節祠)
1668	樸世堂	西溪燕錄	文
1669	成後龍	燕行日記	文
1677	孫萬雄	燕行日錄	文
1682	金錫胄	搗椒錄	詩 (清風台, 夷齊廟)
1682	韓泰東	兩世燕行錄	文
1685	崔錫鼎	椒餘錄	詩 (題清節祠)
1687	任相元	燕行詩	詩 (謁夷齊廟)
1689	金海一	燕行續錄	詩 (渡灤河望夷齊廟)
1690	徐文重	燕行日錄	文
1693	柳命天	燕行日記	文
1694	吳道一	丙寅燕行日錄	文
1695	李世白	雩沙集	詩 (謁清節祠)
1697	崔奎瑞	良齋集	詩 (次書狀清節祠韻)
1708	이상	燕行日錄	詩 (謁清節祠次正使韻, 清節祠次副使韻)
1712	閔鎮遠	燕行錄	文
1712	崔德中	燕行錄	文
1712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文
1713	韓祉	兩世燕行錄	文
1719	趙榮福	燕行日錄	文
1720	李宜顯	庚子燕行雜識	文
1721	李正臣	燕行錄	文 (매우 상세)
1723	黃晟	癸卯燕行錄	文
1724	權以鎮	燕行日記	文 (새로 수정됨)
1729	金舜協	五友堂燕行錄	文
1731	趙尚綱	燕槎錄	詩 (夷齊廟, 清風台)
1732	李宜顯	壬子燕行日記	詩 (謁清節祠, 次副使清節祠韻)
1732	韓德厚	承旨公燕行日錄	文
1737	李喆輔	燕槎錄 丁巳燕行日記	詩 (夷齊廟) 文
1740	洪昌漢	燕行日記	文
1745	趙觀彬	燕行詩	詩 (夷齊廟)
1749	趙顯命	燕行錄	詩 (夷齊廟)
1754	俞拓基	燕行錄	文
1755	이상	燕行日錄	文
1766	洪大容	湛軒燕記	文

1777	李士甲	燕行記事	文, 詩 ( 淸聖廟 )
1778	李德懋	入燕記	文
1778	蔡濟恭	含忍錄	詩 ( 夷齊廟 )
1780	盧以漸	隨槎錄	文
1780	樸趾源	熱河日記	文
1782	洪良浩	燕雲紀行	詩 ( 灤河淸節祠 )
1785	미상	燕行日錄	文
1786	沈樂洙	燕行日乘	文
1790	徐浩修	燕行記	文
1791	金正中	燕行錄	文
1793	李在學	燕行日記	文
1797	徐有聞	戊午燕錄	文
1801	李基憲	燕行錄	文
1803	李海應	薊山紀程	文
1808	樸思浩	燕薊紀程	文
1812	金景善	燕轅直指	文
1828	佚名醫官	赴燕日記	文
1829	薑時永	翰軒續錄	文
1848	李遇駿	夢遊燕行錄	文, 詩 ( 七絕三首 )
1850	權時亨	石湍燕記	文, 詩
1853	薑時永	翰軒三錄	文
1855	徐慶淳	夢經堂日史	文
1856 ?	미상	燕行錄	文
1860	樸齊仁	燕行日記	文
1860	申錫愚	入燕記	文 ( 淸節廟記, 灤河行宮記 )
1862	李恒憶	燕行日記	文
1866	柳厚祚	燕行日記	文
1869	成仁浩	遊燕錄	文
1876	林翰洙	燕行錄	文
1887	李承五	燕槎日記	文

永平府 夷齊廟의 역사 연혁에 대해서 『史記正義』가 인용한 『括地志』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唐代 孤竹城은 “在盧龍縣南十二里”였고,<sup>5)</sup> 당시 “已無其跡”한 상태였지만 夷齊廟와 孤竹君의 무덤 3개가 남아 있었다. 明代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弘治 14년에 편찬된 『永平府志』에 근거하면, 洪武 9년(1376), 同知 梅圭이 원래 孤竹故城에 있던 사당을 永平府城 내 동북쪽 구석으로 옮겼다. 景泰 5년(1454), 知府 張茂이 이를 孤竹故城에 복원했다. 成化 9년(1473), 永平 知府 王璽은 사당을 건립한 후 상주를 올려 “淸節”이라는 이름을 사액 받았다. “淸節祠” 혹은 “淸節

5) 강희 18년 『永平府志』에는 “『括地志』에 이르기를 고죽성은 盧龍縣 남쪽 12리 위치에 있다. 肥如縣은 唐 武德 2年 이름을 盧龍縣으로 바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淸 光緒 5年 『永平府志』에는 “肥如城은 府의 서북쪽 30리 위치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孤竹城은 “府의 서쪽 15리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보이는 바와 같이 『括地志』의 盧龍縣은 명청시기의 盧龍縣이 아니다. 孤竹城 遺址는 바로 오늘날 河北省 盧龍縣에 있다(李學勤, 『試論孤竹』, 『社會科學』, 1983-2 참고).

廟”라는 명칭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明代 商輅의 『清節廟碑記』에는 지방관이 자신의 녹봉을 털어 사당을 정비하면서 “重建正堂三間，翼以兩廡，門二重，神庫、廚、齋房爲間各三.”라고 한 기록이 있다.<sup>6)</sup> 弘治 10년(1497), “知府吳傑重新祠宇廊廡廚庫，繪絺神像，環繞以牆，植木於外，命人居而守之.”라는 기록이 있다.<sup>7)</sup> 夷齊廟는 “嘉靖二十六年(1547), 郡守張玘重修，規制大備”한<sup>8)</sup> 후 다시 몇 차례의 重修를 거쳤다. 隆慶 6년 (1572)년 知府 辛應乾이 重修하고, 萬曆 11년(1583) 兵備道 雷以仁과 永平知府 任愷의 주도로 重修했으며, 萬曆 27년(1599) 知府 徐准과 曹代蕭가 주도하여 重修했다.

清代에 이르러, 지방 정부는 또다시 夷齊廟를 몇 차례 보수하였다. 康熙 4년 (1665) 知府인 彭士聖은 사당 건물이 이미 수명이 다한 것을 보고 이를 복구했다. 『重修清節祠碑記』의 내용에 따르면 비록 당시 모금한 액수는 부족했지만 한차례 큰 비가 내려 목재와 인부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내려가는 천우신조로 순조롭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수리가 끝난 후의 夷齊廟는 “門樓，殿堂，臺廡，庫廚，齋房撤撤易，煥然一新.”하게 되었다.<sup>9)</sup> 훗날 강희제가 夷齊廟를 친히 방문하여 御製詩와 序를 남겼다. 康熙 40년(1701), 蔡維實이 重修하였다. 乾隆帝는 伯夷와 叔齊를 매우 존경하여 盛京의 祖陵을 배알하는 4차례의 동순 중 乾隆 8년과 19년 2차례 夷齊廟에 머물러 『夷齊廟詩並序』, 『夷齊廟即事』, 『夷齊廟四景』 등의 저작을 남겼다. 乾隆 43년(1778) 夷齊廟에 대한 또 한 차례의 대규모 修建이 동순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嘉慶帝 역시 이곳으로 순행을 와서 시를 남겼다. 명대와 비교했을 때 청대 夷齊廟의 규모 증가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의 건축물은 증가했고, 이는 민국 시기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남아있었다.<sup>10)</sup>

이로 보건대, 명·청시기 夷齊廟는 흥쇠를 거듭하였다. 그렇지만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孤竹國과 夷齊廟에 관한 내용이 중국에 온 조공 사절의 기록에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왔다. 조선 사절은 이 지역을 지나면서 시 혹은 문장으로 이에 대한 기술을 더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였고, 그 흥쇠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伯夷와 叔齊의 고사를 조선에 전파하여 영향을 이끌어 내는 것에 더욱 큰 관심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명대에는 詩賦의 내용이 풍부하고, 청대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더욱 많다. 이는 물론 청대 夷齊廟의 흥성과 관련이 있지

6) 李茂樹 等, 『盧龍縣志』(民國二十年鉛印本), 『中國方志叢書』華北地方 145, 台灣成文出版社, 1967, p.129).

7) 董耀會 主編, 『秦皇島歷代志書校注 永平府志』(明萬曆二十七年校注本), 北京, 中國審計出版社, 2001, p.41.

8) 董耀會 主編, 『秦皇島歷代志書校注 永平府志』(明萬曆二十七年校注本), p.41.

9) 李茂樹 等, 『盧龍縣志』(民國二十年鉛印本), 『中國方志叢書』華北地方 145, 台灣成文出版社, 1967, p.132.

10) 上揭書 참고.

만, 이는 마땅히 주로 명·청 양대 조선 사신들의 사행기가 사용한 체제가 서로 달랐던 것에서 비롯된 결과로 봐야할 것이다.

## 2. 夷齊廟의 지리 공간

앞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 사신이 남긴 孤竹國 혹은 夷齊廟에 관한 기록은 詩賦와 묘사, 양쪽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그 중에서 詩賦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중점이 맞춰져 있고, 묘사는 보고 들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주로 사신들의 묘사에 나타난 夷齊廟의 지리 공간의 내용적 특징을 설명하겠다.

직접 이곳을 방문한 외부 인사로서 적지 않은 조선의 사신들이 夷齊廟의 위치와 주변의 경치, 묘당 내부의 구조, 배치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1539년 사행을 나선 權檣(1478-1548)은 『朝天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남겼다.

夷齊廟在灤河上流土城中. 城門書 : 孤竹城, 下書 : 仁賢舊居. 中門書 : 敕賜清節廟. 東西小門, 一書 : 天地經常, 一書 : 古今師範. 內有樓門, 門楣書 : 上古逸民, 下書 : 伯夷叔齊. 樓上巨碑, 未遑登眺. 內庭有閣, 刻孔孟曾三聖贊言, 爲三碑鼎立之, 閣門書孔孟稱賢. 庭之左右碑閣, 時人所述. 內有神門, 書明朝廟祀, 圍以石欄, 鋪以大磚. 塑像儼然, 瞻拜肅然, 左右立庖廚長廊, 庭亦有碑. 廟後牆門, 刻古賢肇跡. 門內楣書灤河上流, 內構揖遜堂, 左右立齋明之廊, 後築清風台. 台上采薇亭, 亭門有二, 東書 : 高蹈風塵, 西書 : 大觀寰宇. 入門漸高, 又有二門, 左書 : 百代山仰, 右書 : 萬古雲霄. 倚亭舉目, 極爲洞豁. 河中小島, 新修孤竹君廟亭. 東有下河之門, 鑿岩爲梯, 邊樹木蘭. 扶執上下, 下步水上, 仰見層壁.<sup>11)</sup>

1547년 張珙이 이전에 夷齊廟의 구조를 바꾼 것에 대해 중국 측 문헌은 明商輅와 『清節廟碑記』와 지방지 등의 문헌에서 간단히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 않았다. 위에서 인용된 글을 통해 당시 夷齊廟가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성문에 들어선 후 廟堂 앞에는 中門과 樓門 두 군데에 정원이 설치되어 있다. 神門은 廟門에 해당한다. 樓門과 神門 사이의 정원과 神門 안쪽의 정원에는 모두 비석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분명치 않다. 廟堂의 뒤편에는 “揖遜堂”과 “清風臺”가 있고 “清風臺”위에는 “采薇亭”이 있다. 萬曆 27년(1599) 『永平府志』에 기재된 바에 근거하면, 嘉靖 42년(1563) 兵備道 溫景葵가 주도하여 사당 뒤편 灤河 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에 伯夷와 叔齊의 부모를 기념하

11) 權檣, 『朝天錄』(『燕行錄全集』 第2卷, p.288).

는 “孤竹君祠”를 추가로 건립하였다. 그러나 權穰이 직접 방문하여 기술한 내용에 따르면 그가 오기 이미 오래 전에, 섬에는 孤竹君廟亭이 새로 건립되어 있었다.

1547년 張玘이 夷齊廟를 중수한 것을 중국 측 사료는 “規制大備.”라고 표현했지만, 1572년 다시 한 번 重修가 이루어진 후 夷齊廟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중국 측 사료에는 더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언급한 “規制大備” 상황에 대해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許筠(1551-1588)이 1574년 명나라에 사신으로 왔다가 남긴 『荷谷先生朝天記』에는 1572년 重修한 이후의 夷齊廟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한 묘사가 남아 있다. 그는 入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夷齊廟를 방문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남겼다.

抵夷齊廟，有城扁曰：孤竹國，賢人舊裏。由城門而入。廟前牌樓曰：敕賜清節祠。左牆門曰：古今師範，右牆門曰：天地綱常。大門額曰：廉頑立懦，伯夷叔齊。上建永平府申明祀典之碑，覆以重屋。左右壁鐫累代尊崇二子首末。中門額曰：百世之師。門列三石碑，中記孔子語，東記曾子語，西記孟子語。東偏門曰：廉頑，西偏門曰：立懦，廟門題曰：明朝封祀，知府張玘所書。庭中有二碑，東，翰林侍讀袁煒撰；西，翰林檢討郭鑿撰，皆在嘉靖庚戌。正堂曰：清聖祠，安塑像二坐。像前豎位版，一曰：昭義清惠公，即伯夷也。一曰：崇讓仁惠公，即叔齊也。東西夾以長廊站台，迤以石欄。階下列碑甚多，一元御史中丞馬祖常撰；一成化甲午吏部尚書商輅撰，太常寺卿劉珣書；一嘉靖庚戌行人張廷綱撰；一永平府申明祀典之碑，知府王璽等立；一嘉靖庚戌，提學御史院鶻遣盧龍知縣等以薇二品玄酒二盞致祭而撰文。直正堂之後，又由逸民肇跡門，爲揖遜堂。堂前東爲盥薦門，西爲齊明門。堂之北是爲清風台，台上建采薇亭。東西累石爲砌以上，東扁小門曰：高蹈風塵；西曰：大觀寰宇。亭前左右石門，亦刻：百世山門，萬古雲霄八大字。亭扁曰：清風高節，曰：北海之濱。一廟之勝萃於此。灣河自北而來，到台下分爲二派，有石嶼正當其心，上構墨氏廟，即孤竹君也。下流折而南去。洲渚縈紆，波瀾湛淨，杳有奧邃深遠之意，真關內奇絕之地也。<sup>12)</sup>

사신단의 質正官인 趙憲(1544-1592)이 남긴 『朝天日記』 중에도<sup>13)</sup>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사당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시기 夷齊廟의 규모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 같다. 성문을 들어선 후, 廟堂의 正殿 앞에 대체로 牌樓, 大門, 中門 3개의 정원이 있다. 權穰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牌樓는 中門의 앞에 있고 題書는 “敕賜清節祠”로 바뀌었다. 大門은 樓門 앞에 있는 것으로 제목에 “廉頑入懦”라는 글귀가 더해졌다.<sup>14)</sup> 中門은 원래 비각이 고쳐지어진 것이다. 廟門은

12) 許筠, 『荷谷先生朝天紀』(『燕行錄全集』第6卷, p.301).

13) 趙憲, 『朝天日記』(『燕行錄全集』第5卷, pp.287-289).

14) 이 부분에 대해서 許筠의 기록에는 “上古逸民” 4글자가 없지만, 趙憲의 『朝天日記』에는 있다고 기재했다.

重修되었고 張珙이 題字를 썼는데 원래의 “明朝廟祀”를 “明朝封祀”로 고쳤다. 그 외에 동서 양쪽의 편문에 “廉頑”과 “入儒”라는 제목을 달았다. 殿牌의 앞에는 비석 두 개를 새로 세웠는데, 때는 嘉靖 경술년(1550)이다. 大殿의 양쪽의 계단 아래에는 또한 몇 개의 비석이 있는데 그 비문은 원대에서 명대 成化年間에 이르는 시기에 새겨진 것이다. 殿堂의 안에는 伯夷와 叔齊의 塑像과 牌位가 있다. 그 외에 揖遜堂 앞에 동서로 鬯薦門과 齊明門이 새로 열렸다.

우리는 嘉靖 9년(1530)부터 明 世宗이 孔廟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였음을 알고 있다. 그 내용은 공자에게 주어진 양호를 철회하고, “大成殿”을 “先師廟”로 개칭하였으며 “啓聖祠”를 증설하여 공자 부자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한편, 爵稱을 삭탈하여 위치를 諸儒 중 하나로 만들고, 塑像을 옮기거나 파괴하고, 祭祀에 다시 木主를 사용하게 하고 章服을 없앴으며 祭器를 간략화 하는 것을 포괄한다.<sup>15)</sup>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이후 명대 내내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바로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일찍이 戚繼光의 휘하에 있던 郭造卿(1532-1593)은 “達於禮”라고 하며 夷齊廟의 位號를 바르게 고치고 爵祀와 塑像을 없앨 것을 건의했다. 그는 “夷齊既爲百世師，則祠視先師孔子等矣.”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大禮既議後，永平守臣宜請從孔廟例，木主稱逸民先聖伯子，逸民先生叔子。而孤竹君廟當稱曰啓仁。”라고 말했다.<sup>16)</sup> 상술된 조선 사신의 기록을 보면 張珙이 重修하여 “規制大備”했다고 한 것은 주로 廟堂 내에 伯夷와 叔齊의 위호를 증가시키고, 이를 분별하여 “昭義淸惠公”과 “崇讓仁惠公”(“淸惠”와 “仁惠”란 元朝의 황제가 칙명을 내린 것)으로 삼은 것으로, 결코 塑像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 외에 淸風臺의 뒤쪽 灤河 중간의 작은 섬에는 또한 “墨氏廟”가 축조되어 있었는데, 이는 바로 『永平府志』에 나오는 “孤竹君祠”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權檣은 여기 앞에 새로 세워진 “孤竹君廟亭”이 있다고 기록했는데, 이 두 가지는 분명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이후 夷齊廟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긴 조선 사신은 1610년에 사행을 갔던 鄭士信(1558-1619)이다. 이때 夷齊廟는 1599년에 한차례 重修된 상태였지만, 중국 문헌에는 이번에도 이 重修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鄭士信의 기록은 이 부분의 결함을 보완해 준다. 夷齊廟와 그곳으로 가는 길에 대한 기술을 더욱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은 저자가 글을 길게 쓰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行十餘裏始到孤竹古城。有山峙於西南，而其瓏阜之足平衍而北走，門斷於灤河爲千尺斷岸，孤竹古城居其案頭者也，未至城而平原上樹木散布，行數十步而抵城門，城

15) 『明世宗實錄』 卷119, p.4; 黃進興, 『優入聖域：權力·信仰與正當性』, 陝西師範大學出版社, 1998, pp.151-161.

16) 『秦皇島曆代志書校注 永平府志』(康熙二年修康熙十八年續), 中國審計出版社, 2001, p.93.

之形樣僅如我國縣城，即是孤竹君舊城形址而不加廣拓者也。城之雉堞則皆湮沒不修，而城門則修設虹門，又鋪磚石爲路，門扉亦加薄鐵，題城門之外額曰孤竹城，又題其下曰賢人舊裏。入城門百餘步而抵廟，大門懸板金書，其扁曰敕賜清節祠，又大門外越邊築屏牆，與門相對而大書其陰曰：清風百代。門外之西樹一碑，書曰至今稱聖，由大門而入，亦磬石作虹門，題曰伯夷叔齊，門上亦構屋而豎碑，從門內西邊由層階而上門樓豎碑處，則碑居中而東西壁皆有石刻，書古今曆代褒贈封爵御敕及春秋祭式，大門內左右庭畔又作虹門，東門則扁曰天地綱常，西門則扁曰古今師範，庭有兩碑，皆構屋以庇之。大門之內直路皆以細鍊石。夾路左右中則以水磨石填築成路其左右側柏古松成行由此直路行十餘步又構三間閣扁曰百世之師，中有三碑，中間一碑，則書孔子稱夷齊不念舊惡章，子貢問答章，此碑則以黃字書之，東間之碑則書曾子稱伯夷之語，西間之碑則書孟子之言，兩碑則皆以青書之。由左右夾門而入焉。西夾門則扁曰立懦，東夾門則扁曰廉頑，門內廣庭亦側柏古松成行。庭北爲正殿五楹。正間扁曰：到今稱聖，其東扁曰：千古清風，西邊曰：清風百世，合三大扁也。殿前階砌皆以細鍊石築成，階上左右前面皆繞以石欄，於階下有東西兩廡各七楹，庭中有大石碑七八，正殿中安兩賢塑像，面色如生，皆加冕旒禮服，像前設香卓，塑像之前各立粉版而黃書之。東位伯夷，之前則書曰：崇讓仁惠公；西位叔齊之前則書曰：敦義清惠公。卓子則共一卓，卓上中央安一香爐，以黃石刻爲之，似石非石，蓋次玉者也。爐形如大門，高則倍門。餘等三人展謁禮拜於真像前，毛發如豎，心神清爽，若無一點塵滓者，然百世之下尚有如此，而況親炙之者乎。正殿之後又有揖遜堂，爲屋凡三大間，而虛其廳。蓋像生時讓國揖遜之地也，廳前設齋房七楹，扁其東曰盥薦，扁其西曰齊明。東則爲夏宿之榻也，西則爲冬宿之堦也。使命之來宿者皆宿此雲。堂後爲清風台，高築十餘丈，而衛以石，由東階而上數十步，曲折向北而將入門，門外之扁曰高蹈風塵，入門向北十餘步，抵短牆之內俯臨灤河，然後曲折向西，尋短牆而行，未十步入台門，門內扁曰百代山門，是門與西門相對，西門之扁曰萬古雲霄，西門之外從階而升，循牆而入，亦如東之山門門，入其中爲清風台，構三間閣，虛其北以臨清江北，簷之內懸額曰：清風高節。閣內南壁匾額曰：碧水青山。又有“北海之濱”、“清風徐來”等扁。灤河之水徙西北長山之下，水漲時則灣回於台之西隈，故明沙如雪。今則玉流澄潭，徙西北縈回於台北，短牆之下，漫衍分流，中峙小嶼，嶼行彌長，可數百步，屹如小山，與台正對。島嶼之上，孤竹君廟也。獠以垣牆，丹碧倒水，欲往觀而適無舟可渡也。從山門門而出，循階而下，向東北未十步，又有一小門，扁曰：萬頃滄波。門傍設短牆，俯牆而唾落於河水，其勝築亦如臺上。石門之下，磬石爲路，屬之於下，以便遊覽者。<sup>17)</sup>

鄭士信의 기술은 상당히 상세하다. 우선 夷齊廟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 설명한 후, 바깥에서 내부 공간의 순서로 당시 夷齊廟의 건축 형식과 주연과 편역을 포함한 내부 배치 등을 매우 분명하게 묘사하여 독자로 하여금 마치 직접 그곳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鄭士信은 기록을 할 때, 당시 자신이 받을 받고 있는

17) 鄭士信, 『梅窓先生朝天錄』(『燕行錄全集』第9卷, pp.314-318).

지점을 기준으로 삼아 관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당시 있었던 공간의 위치 변화에 근거하여, 걸음을 걸으면서 눈에 보이는 경관의 변화를 묘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기술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 廟의 내부 구조는 이전과 동일하여 성문을 들어선 후 正殿에 이를 때까지 과거와 마찬가지로 3곳의 정원이 있었다. 廟 내부의 건축물은 正殿이 5채이고 그 동서 주랑에 각각 7채의 건물이 있어, 商輅가 『淸節墓碑記』에 기재한 “正堂三間”과 비교하면 규모의 확대가 있었다. 그 외에 1574년 許筠과 趙憲이 방문한 夷齊廟와 비교하면 성문 안에 屏牆이 하나 증축되었고, 그 위에는 “淸風百代”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 바깥쪽 정원에 碑閣이 하나 증설되었고, 正殿 뒤의 揖遜堂좌우에 齋房이 증설되었다. 淸風臺 위에는 원래의 采薇亭이 있었는데, 이것이 발전하여 3간의 殿閣이 되었다. 일부 문에 달려 있던 편액의 글자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두개의 출입문에 새겨졌던 “廉頑入懦”는 보이지 않고 “伯夷叔齊”만 남아 있었다. 또 正殿에 있는 3개의 큰 편액도 이전에는 없던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조선 사신들의 기록에는 명대 夷齊廟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장된 구체적인 정황과 서로 다른 시기에 주련과 편액을 포함한 내부 구조와 배치의 상세한 부분까지 드러나 있는데, 이는 중국의 사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다. 우리는 夷齊廟에 관한 조선 사신의 기록이 사당 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우 많은 경우 孤竹祠 등 주변 경치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대에 이르면 이와 관련된 조선 사신들의 묘사가 더욱 풍부해진다. 비록 개인의 기록은 기술의 상세함이 일정하지 않지만, 종합해봤을 때 이들 기록은 우리가 夷齊廟와 그 주변의 건물들이 청대를 거치는 동안 겪은 복잡한 흥망성쇠와 내부 배치의 변화 과정을 조사하기에 매우 좋은 자료이다. 예를 들어 1656년 사행을 떠났던 麟坪大君 李濬(1622-1658)은 『燕道紀行』에 명말 청초 彭士聖이 重修하기 이전 夷齊廟의 풍경을 남겼다. 이 시기에 夷齊廟는 몰락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진입하는 성문에서 正殿에 이르기까지 이미 4채의 건물이 있는 구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610년과 비교하면 正殿 앞에는 문이 새로 하나 늘어났는데, “是三間朱漆板門, 內外俱有懸板, 外曰: 西山北海, 曰: 明朝封祀, 曰: 呂尚微箕; 內曰: 古之賢人, 曰 孤竹淸風.”라고 한다.<sup>18)</sup> 正殿의 뒤편에 원래 있던 揖遜堂이 사라지고 정자 하나만 남았으며 內庭과 淸風臺 위에는 順治年間に 세운 비석이 있는 등, 順治年間に 사묘는 이미 重修되었지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이 중국 문헌에 남아 있는 경우는 매우 적다. 또, 1686년 吳道一(1645-1703)이 『丙寅燕行日乘』에 남긴 기록은 우리에게 당시 淸風臺 위에 있던 높은 누각에 “淸風閣”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었음을 알려준다. 1720년 李宜顯(1669-?)은 正殿 내에 伯夷와 叔齊의 조각상을 다음

18) 李濬, 『燕途紀行』(『燕行錄全集』第22卷, pp.112-113).

과 같이 묘사했다. “頂平天冠, 垂冕旒, 穿畫龍紋廣袖白袍, 踞坐朱榻之上. 面貌俱極豐厚, 但施以粉, 似乖真面肉色也.”<sup>19)</sup> 1721년 李正臣(1660-1727)은 두 사람의 조각상을 “戴冕執圭, 儼然端拱.”라고 묘사하여<sup>20)</sup> 우리로 하여금 당시에 모셔진 伯夷와 叔齊의 구체적인 형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또 李宜顯과 李正臣 두 사람은 正殿 내부에 놓여 있는 향로와 돌로 된 향아리, 편액 및 正殿 밖에 위치한 8개의 석비 등 상당히 많은 것을 묘사했다. 1777년 李埤(1737-1795)의 『燕行記』는 막 重修를 한 시기의 夷齊廟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옛날 방식대로 4채의 건물이 있는 구조였지만 正殿 앞에 있는 그 문은 “內外楹, 皆刻清節廟三字”인<sup>21)</sup> 상태였다. 正殿 내부의 동서쪽 벽에는 모두 乾隆御題詩와 친왕의 詩律이 새겨져 있고 외부에는 5개의 석비만 남아 있었다. 1778년 李德懋(1741-1793)의 『入燕記』는 바로 이곳에 지어진 행궁에 대해 “有樓有臺, 亦有廊閣, 而窗櫺玲瓏, 以楠木紫檀花梨刻牡丹. 卍字棟宇, 塗二青, 泥金朱紅, 極其奢麗. 而雕刻之, 皆江南巧工也.”라고 묘사했을 뿐 아니라,<sup>22)</sup> 여기에 쓰인 工匠의 숫자, 소모된 비용과 전체 공사 기간 등을 매우 상세히 기록하였다. 1790년 徐浩修(1736-1799), 1793년 李在學(1745-1806) 등의 기록을 통해<sup>23)</sup> 夷齊廟가 회복되어 입성 후 3채의 구조를 취하고 揖遜堂 내부에 “乾隆御題詩筆兩碣”이 있다는 것 등을 알 수 있다. 이는 분명 1778년 정비가 끝난 후의 상태이다.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신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록에 때로는 누락이나 오류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樸趾源(1737-1805)의 『夷齊廟記』 중에는 성문에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淸風百代”라는 글귀가 있는 담장이 기술되지 않았다. 金正中은 1791년 夷齊廟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入其殿, 板上書: 古之賢人, 左碑孔子曰… , 右碑曾子曰… , 之間孟子曰… , 東壁有乾隆御制詩…”<sup>24)</sup> 이 내용에 따르면 孔子, 曾子, 孟子的 세 사람의 비석이 正殿 안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徐浩修와 李在學 등 그 전후시기의 사신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그 세 비석은 사실 正殿의 바깥에 있는 閣屋 안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이는 분명 金正中이 상황을 착각했거나 잘못 기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행기록 중에서 관련 기록을 종합하면, 조선 사신의 夷齊廟의 지리 공간에 대한 묘사는 상당히 자세하고 믿을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서로 다른 역사 시기 夷齊廟의 모습을 완전히 복원할 수 있다.

19) 李宜顯, 『庚子燕行雜識』(『燕行錄全集』第35卷, p.423).

20) 李正臣, 『燕行錄』(『燕行錄全集』第34卷, p.269).

21) 李埤, 『燕行紀事』(『燕行錄全集』第52卷, p.520).

22) 李德懋, 『入燕記』(李德懋, 『靑莊館全書』卷66, 서울, 솔출판사, 1981, p.90).

23) 徐浩修, 『燕行紀』(『燕行錄全集』第51卷, pp.264-267; 李在學, 『燕行日記』(『燕行錄全集』第58卷, pp.204-207).

24) 金正中, 『燕行錄』(『燕行錄全集』, 第74卷, pp.155-156).

### 3. 夷齊廟의 문화 영역

위에서 언급했던 夷齊廟와 그 주변의 지리적 경관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했던 경우 외에 조선의 사신들은 이곳을 기록할 때 상당히 감격한 상태였으므로 상당히 자주 시를 낭송하여 자신의 정서를 표출했다. 명대에 조선 사신들은 이곳에 도착하면 伯夷와 叔齊를 추모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淸風高節”에 감탄했다. 1574년 許筠과 趙憲 일행은 入京하기에 급급하여 夷齊廟를 유람할 시간이 없었지만 廟 남쪽의 소위 孤竹城 遺址를 경유할 때 “舊日之跡，今已夷漫滌蕩，無一可尋，而獨淸風爽然，萬古如昨.”라고 탄식했다.<sup>25)</sup> 돌아올 때 그들은 큰 비를 만나 결국 夷齊廟를 찾아 구경했다. 許筠은 正殿에 간 상황을 기록하여 “行再拜禮，瞻仰回思，心神颯爽”라고 하였고,<sup>26)</sup> 다음에 淸風臺에 올라서는 “望永平府之野，煙樹掩翳，依稀然有遺世獨立之思.”라고 하였다.<sup>27)</sup> 趙憲은 유람 후 다음과 같은 賦와 詩를 지었다. “胸中都是絕毫私，高節長扶萬古彝。願得淸風熏一仰，醒然起我懦頑資”，“拜瞻孤竹二賢人，深慕當年兩得仁。弊屣任看尊富位，芳薇扶起古今倫。淸風激處頑夫恥，舊惡忘時薄俗淳。東海小生欽仰久，臨墟猶覺爽心神.”<sup>28)</sup> 그들은 이곳에 도착하여 제사를 올리고, 伯夷와 叔齊의 ‘仁義淸節’과 ‘謙讓不爭’에 감탄하며 그들 두 사람의 ‘公心’과 ‘淸廉’, ‘禮讓之義’를 찬양했다.

이와 유사하게 감탄한 사례는 명대에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577년 崔笠은 사행에서 돌아오던 중 『永平淸節祠次韻』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峻節高風死亦生，支撐宇宙一亭亭。當時但識三綱重，此子非須萬世名。自後紛紛幾聖暴，從他屑屑較權經。首陽山下灤河上，廟貌森嚴敕額名.”<sup>29)</sup>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伯夷와 叔齊의 “峻節高風”이다. 이런 종류의 정신은 마땅히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伯夷와 叔齊가 당시 “三綱”의 구체적 행위를 준수하였다는 점을 그다지 무게를 두어 찬양하지 않았다. 시대의 변화 때문에 이는 일시적인 칭찬을 받을 만한 일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1581년 崔笠이 다시 한 번 사행을 했을 때 다시 『夷齊廟次韻』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餓死西山不自悲，千秋慕義寄高祠。隔河孤竹君靈在，長有淸風來往吹.”<sup>30)</sup> 즉 伯夷와 叔齊의

25) 許筠, 『荷谷先生朝天紀』(『燕行錄全集』第6卷, p.181).

26) 許筠, 『荷谷先生朝天紀』(『燕行錄全集』第6卷, p.301).

27) 許筠, 『荷谷先生朝天紀』(『燕行錄全集』第6卷, p.301).

28) 趙憲, 『朝天日記』(『燕行錄全集』第5卷, p.289).

29) 崔笠, 『丁丑行錄』(『燕行錄全集』第4卷, p.413).

30) 崔笠, 『丁丑行錄』(『燕行錄全集』第4卷, p.430).

‘淸風節義’에 대한 존숭이 孤竹君에게 이어진 것이다.

물론 사신들은 여전히 伯夷와 叔齊가 행한 ‘君臣之義’를 칭송했다. 1548년 崔演(1503-1564)은 入京 때부터 孤竹城 遺址에 이를 때까지 “行李忽急”했고, 夷齊廟에 들어가 절을 올리기도 전에 “望夷齊廟二首”를 지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采薇高節孰堪爭, 昭揭綱常日月明. 守義豈雲資也隘, 得仁元自聖之淸. 尊崇賁飾千年廟, 廉義欽聞百世名. 再過未能成一拜, 臨岐嗟悼謾含情.”; “叩馬陳辭是義人, 要令萬世正君臣. 伯能遜國知尊命, 弟亦推兄見重倫. 論聖稱淸真識聖, 得仁何怨自求仁. 聞風千載思親炙, 恨不升階薦澗蘋.”<sup>31)</sup> 시에서는 “綱常”을 수호하는 입장에 서서 伯夷와 叔齊의 ‘高節’, ‘守義’, ‘廉義’의 덕목을 성찬하고, 더 나아가 두 사람의 “叩馬而諫”하는 君臣之義와 “遜國尊命”하는 兄弟倫常을 강조했다. 1569년 李濟臣도 夷齊廟를 방문한 후 시를 한 수 읊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尙鑄孤竹在荒城, 廟宇千尋石岸平. 父子君臣兄弟義, 乾坤夷夏古今名. 一家遺像當時表, 萬代長風昨日淸. 滿掬灤波盈握蕨, 洗幹塵肺改淸明.”<sup>32)</sup> 李濟臣의 伯夷와 叔齊의 “父子君臣兄弟義”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살필 수 있다. 1577년 金誠一이 명에 들어간 후, 『朝天紀行』에 남긴 시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河邊孤竹有孤城, 百代綱常惟弟兄. 淸高遺像起我頑, 再拜陡覺心惺惺. 徘徊半日不忍去, 更上采薇憑前楹.”<sup>33)</sup> 여기에는 金誠一이 伯夷와 叔齊가 綱常을 지킨 것을 아끼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우리는 이미 伯夷와 叔齊의 행적과 그 정신에 대해 역대로 중국에서 매우 다양한 해석이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漢代 劉向은 『立節』에서 “伯夷叔齊餓死於首陽山而志逾彰, 不輕死亡, 安能行此”라고 말하였고 또, “伯夷叔齊殺身以成其廉”라고 하여 伯夷와 叔齊가 士人으로서의 기개를 갖추었다고 설명했다. 唐代 韓愈의 『伯夷頌』은 伯夷의 “獨恥食其(周)粟, 餓死而不顧”한 충의정신에 집중하고 있고, “雖餓死, 尤有義而不懼”를 통해 그가 ‘一身立教’하였음을 이야기했다. 皇甫湜은 伯夷와 叔齊에 대해 보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伯夷, 叔齊와 柳下惠의 행위를 성인과 비교하여, “皆一方之士也”라고 인식했다. 宋代 王安石은 『伯夷論』에서 다시금 伯夷와 叔齊에 대한 韓愈의 칭송을 질책했다. 그는 伯夷와 叔齊가 “叩馬而諫”했지만 “亦理有不存者也.”라고 여겼다. 그러나 蘇軾은 “見利而不動者”라고 하여 伯夷와 叔齊를 칭찬했다. 朱熹는 伯夷의 “叩馬之心”과 太公의 “孟津之心”을 함께 언급하며 “二者道并行而不相悖”라고 이를 논했다.<sup>34)</sup>

31) 崔演, 『西征錄』(『燕行錄全集』第3卷, pp.198-199).

32) 李濟臣, 『淸江先生集』卷1(『標點影印』朝鮮文集叢刊』第43冊, 韓國民族文化推進會, 1997, p.499).

33) 金誠一, 『鶴峰先生文集續集』(『標點影印』朝鮮文集叢刊』第48冊, 韓國民族文化推進會, 1997, p.182).

34) 歐陽健, 「伯夷精神之解讀」, 『廈門教育學院學報』6-3, 2004.

사실상 명대에도 소수의 조선 사신들은 伯夷와 叔齊의 “讓國守義”, “不食周粟”, “叩馬而諫”의 행위에 대해 보류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鄭昆壽(1538-1602)는 일찍이 1592년 陳奏使로 명에 들어갔고, 1597년 그는 謝恩使兼辨誣陳奏使로 다시 한 번 명에 들어갔는데, 도중에 그는 夷齊廟에 제를 올리는 동시에 『謁夷齊廟辭』를 남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仰天俯地，人立乎其間兮，所貴以其有君臣·父子之綱紀。天子之尊，聖人之德兮，顧舍是何？以天倫、父命，我不知其輕重兮，視棄其國如棄糞屨。嗟矣！西土之人兮，胡爲乎孟津之涘。彼八百雖多，亦奚爲兮，千萬人吾往之矣。試叩馬聽我邈邈兮，(以)暴易暴，孰非孰是。神農虞夏之已沒兮，嗚呼！曷歸靡所底止。周有粟吾其食諸兮，西山之薇蕨甚美。天下萬世之無君兮，嗚呼！噫嘻！生不如死。君臣父子之綱紀，賴夫子以定兮，夫子所以爲夫子。茫茫宇宙特立獨行兮，兄及弟矣，二人而已。德爲聖人，爲百世師兮，頑夫懦夫，皆爲之興起。後千祀而相感兮，景慕夫子，實由乎天降之衷。問征夫而來尋兮，稽首夫子之闕宮，遂爲之歌曰：有河浩浩，有山崇崇，一區孤竹，萬古清風。<sup>35)</sup>

비록 鄭昆壽는 비록 伯夷와 叔齊가 君臣과 父子의 綱紀를 지킨 것을 긍정했지만 伯夷-叔齊와 太公 사이에서 다소 어찌할 바를 모르는 느낌이 있다. 李恒福(1556-1618)은 1598년 辨誣陳奏使行의 正使로 명에 들어가서 도중에 夷齊廟에 제를 올리고 『謁清節祠』라는 긴 시를 썼다. 시구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西方美人稱聖德，曷喪遺民鹹頌禱。風雲喚起釣魚翁，涿鹿奇功猶壓倒。珪璋八百孟津渡，天命人心歸有道。云亡還有不死者，太史遺編後人考。”<sup>36)</sup> 이를 통해 伯夷와 叔齊를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시의 서문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썼다. “伯夷之道隘，非聖人居身之所珍。然餘竊高其讓國守義，不食周粟。每讀遷史，未嘗不廢書而歎息。”<sup>37)</sup>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대 이와 같은 보류적 태도의 목소리는 결코 많지 않았고 명대 조선의 사신들 중 많은 수는 伯夷와 叔齊의 ‘清節’, ‘忠義’를 긍정했다. 특히 ‘君臣之道’를 지킨 것에 대한 찬양은 임진왜란 이후에 더욱 강렬해진 것 같다. 李晬光(1563-1628)은 1597년에는 進慰行正使, 1611년에는 冬至兼奏行副使의 신분으로 두 차례 명에 들어갔다. 처음 사행을 갔을 때 그는 『夷齊廟』라는 시를 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今古灤河水，名因二子奇。城寒孤竹國，山遠采薇時。香火千年廟，清風百世師。客來重起敬，再拜讀殘碑。”<sup>38)</sup> 여기서 그는 단지 伯

35) 鄭昆壽, 『栢谷先生集』卷1(『標點影印朝鮮文集叢刊』第48冊, 韓國民族推進會, 1997, p.406).

36) 李恒福, 『朝天錄』(『燕行錄全集』第9卷, p.50).

37) 李恒福, 『朝天錄』(『燕行錄全集』第9卷, pp.48-49).

38) 李晬光, 『朝天錄』(『燕行錄全集』第10卷, p.188).

夷와 叔齊에 대한 존경만을 표현했다. 두 번째 사행에서 그는 다시 『夷齊廟』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凜然遺塑舊祠宮，猶想雙清氣象同。倫紀君臣兄弟際，姓名天地古今中。城懸北海當年月，野響西山百世風。往事傷心孤竹國，夕陽無語水流東。”<sup>39)</sup> 또 『詠夷齊二首』를 지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未信殷仁只有三，同時二子是真男。當初讓國元微事，湯武千秋也自漸。”；“已分捐生叩馬前，采薇非是爲身全。區區欲把西山土，保得殷家一片天。”<sup>40)</sup> 이를 통해 그는 매우 분명하게 伯夷와 叔齊가 군신의 기강을 지킨 것에 대해 무한한 존경과 숭앙의 마음을 표현했다.

만약 임진왜란 이후 조선 사신들이 伯夷와 叔齊의 ‘爲國忠節’과 ‘春秋義理’를 칭송하는 시를 더욱 많이 지었다면, 이는 명조가 지원군을 보내 일본군을 물리친 이른바 “再造之恩”을 의식하여 명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게 된 것과 연관된 것이다.<sup>41)</sup> 그렇다면 명·청 교체기 이후 사신이 夷齊廟를 참배한 것은 모두 어느 정도는 “尊明讓清” 의식을 표현한 것이다. 任相元(1638-1697)은 1687년 사행에서 永平府에 도착하여 다음과 같은 두 수의 시를 남겼다. “曠原遙接塞雲陰，漢日荒屯未易尋。獵騎歸時明遠火，村廬密處隔平林。山河壯勢連夷夏，征戍悲歌自古今。不必更觀飛將石，千秋孤竹起人欽。”；“灤河漾綠遶城隅，雄鎮從來制北胡。雪裏疊山環遠碧，煙中衰柳際平蕪。防秋舊跡台空在，讓國遺廟自孤。勘歎召開社地，竟無巾幘節頭顱。”<sup>42)</sup> 趙文命(1680-1732)은 1725년 謝恩使兼陳奏行書狀官의 신분으로 入京하는 도중에 『夷齊廟』라는 제목의 시 두 수를 지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曲灤河水，巋然半畝宮。千年儼遺像，六月颯清風。但識經常大，寧辭餓死窮。兵前應愧色，歎息渭川翁。”；“歷歷城垣孤竹國，遺祠無語立荒皋。一身獨任三綱重，萬代爭瞻二子高。松籟爽如添韻操，河流爭欲洗腥臊。祇今定有西山蕨，不敢隨人薦澗茭。”<sup>43)</sup> 이상의 시를 통해 그들이 伯夷와 叔齊를 칭송할 때 가지고 있었던 明朝를 회상하는 감정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심한 경우 조선 사신들은 伯夷와 叔齊를 참배한 후에 그들이 고사리를 캐 먹었던 것을 모방하여 조선에게 가지고 온 고사리로 국을 끓여 먹었다. 이로써 명조를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이 『春秋』의 義를 잊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金昌業(1658-1721)은 1713년 청에 들어와 남긴 『老稼齋燕行日記』에서 사신들의 이와 같은 행위가 이미 하나의 관례가 되어 있음을 기재했다.<sup>44)</sup> 1780년 朴

39) 李晔光, 『續朝天錄』(『燕行錄全集』第10卷, p.236).

40) 李晔光, 『續朝天錄』(『燕行錄全集』第10卷, p.237).

41) 이성형, 「燕行錄의 伯夷·叔齊 관련 漢詩 研究 : 壬亂收拾期를 中心으로」, 『漢文學論集』第31輯, 2010, pp.177-212.

42) 任相元, 『燕行詩』(『燕行錄全集』第28卷, pp.45-46).

43) 趙文命, 『燕行錄』(『燕行錄全集』第37卷, p.55).

44)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燕行錄全集』第32卷, p.509).

趾源은 여행 중에 夷齊廟에서 점심으로 “薇雞之蒸”을 먹었고, 이후 조선 사신은 청 나라에 들어가는 도중에 “夷齊廟例爲中火站，必供薇厥，無論四時”이라는 지시를 받았다.<sup>45)</sup> 1791년 金正中이 冬至兼謝恩使行을 따라나섰을 때, 그는 사신단이 夷齊廟를 유람한 뒤, 전례에 따라 고사리 죽을 먹었음을 기록했다.<sup>46)</sup> 그러나 이에 대해 세 사람은 모두 상당히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다. 朴趾源은 또한 민간에서는 이를 대단하게 여기기는 고사하고 몇몇은 우스갯거리로 삼는다고 기록하며 “遺老盡矣，複以伯夷之薇致此紛紜”라고 명·청 교체기 이후의 현실을 탄식하였다.<sup>47)</sup>

실제로 18세기에 이르면 적지 않은 조선의 문인들이 夷齊의 사적에 대해 회의감을 표시하였다. 朴趾源은 『伯夷論』에서 처음부터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伯夷之諫武王不見於經，此齊東野人之言，而司馬遷取之以爲之史，此不足信也.”<sup>48)</sup> 金昌翁(1653-1722)은 王安石의 관점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至夷齊諫伐事，則七聖皆迷，總輸於荊公一只眼。始出於莊周寓言，馬遷傳之，韓愈頌之，流傳千百年，牢不可破，至荊公而方碎其說.”<sup>49)</sup> 丁若鏞(1762-1836) 역시 伯夷가 “叩馬而諫”하고 “采薇而食”했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微子受封而不恥，箕子陳道而不疑，何獨伯夷叩馬而諫，采薇而食，以致餓死乎?”라고 하여,<sup>50)</sup> 伯夷가 武王의 정벌을 만류한 것과 太公이 武王을 도와 紂王을 토벌한 것에 대해 복학사상을 가진 조선 문인들이 취하던 兩是論의 태도를 취했다. 朴趾源이 생각한 것처럼 司馬遷이 기록한 伯夷와 叔齊에 관한 고사가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伯夷의 행동을 옳은 것으로, 太公의 행동을 그른 것으로 보는 관점은 토론할 필요가 있다. 그가 보기에 伯夷가 정벌을 만류한 것과 武王이 紂王을 정벌한 것은 “同道”였다. 따라서 “伯夷之非武王非，非其舉也，明其義而已矣。武王之不封伯夷，非忘之也，顯其義而已矣。其慮後世天下，同也.”라고 하였다.<sup>51)</sup> 樸齊家(1750-1805)는 『伯夷太公不相悖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伯夷之憂，萬世之憂也。太公之心，天下之心也。橫之爲經，豎之爲權。仁人之心，同出於至誠惻怛，無一毫私意於其間，則爲用雖殊，其義則同，非若黑白之可辨，薰蕕之相別也。彼君子此亦君子，彼賢人此亦賢人，天下之所謂二老也，千古之所謂兩是也.”<sup>52)</sup>

18세기 北學을 주도한 조선의 문인 중 많은 수가 여행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여행 중에 夷齊廟를 참배하며 한편으로는 伯夷와 叔齊의 “禮讓爲國”，“不

45) 朴趾源 著，朱瑞平 校點，『熱河日記』，上海，上海書店出版社，1997，p.93.

46) 金正中，『燕行日記』(『燕行錄全集』第74卷，p.400).

47) 朴趾源 著，朱瑞平 校點，『熱河日記』，p.93.

48) 朴趾源，『燕岩集』卷3，論，서울，慶熙出版社，1966，p.64.

49) 金昌翁，『三淵集』卷33，目錄己亥，三月.

50) 丁若鏞，『輿猶堂全集』第二集經集第五卷，孟子要義，公孫丑第二，伯夷柳下惠章.

51) 朴趾源，『燕岩集』卷3，論，서울，慶熙出版社，1966，p.65.

52) 樸齊家，『貞菴集』，과천，韓國國史編纂委員會，1961，p.260.

食周粟”의 ‘淸風大義’한 행동을 추송하고 “尊明”의 의리를 견지하고 있음을 표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청조가 夷齊廟를 여러 차례 보수하고 황제가 직접 제를 올린 행위에 감탄하면서, 이를 통해 중화문화에 대한 청 정부의 계승의식과 그 사회적 번영과 안정을 체감했다. 양시론의 주장은 북학 사상과 관계가 없지 않다.<sup>53)</sup>

#### 4. 결론

사행을 기록한 자료로서 연행록은 사신이 지나간 지역에 대한 지리적 경관을 묘사할 뿐 아니라 동시에 그들이 그곳을 경유할 때의 생각과 감상도 기록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다량의 夷齊廟와 관련된 기술 중에는 실제 모습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한 것도 있지만, 매우 많은 저자가 경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감정을 경치와 융합시키는 내용도 기술했다. 이들 자료는 한편으로 중국 측 사료에 부족한 시간적 연속성과 세부적인 현장 묘사 등을 크게 보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다른 시기 조선 문인들의 중국 문화에 대한 인식을 살필 수 있게 한다. 조선 사신들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夷齊廟는 비단 그들이 사행에서 경유하는 지리적 공간일 뿐 아니라, 또한 현실적 관심과 관련된 상징적 의미를 갖추고 있었다. 사신들이 夷齊廟에 투사한 감정은 당시 중국의 역사적 상황은 물론 중국과 조선 반도의 관계 및 조선사회 자체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동일한 장소라고 해도 서로 다른 시기에는 서로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시기 조선 사신들의 夷齊古事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른 시기 중국과 조선 반도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53) 이현식, 「연암 박지원 문학 속의 伯夷 이미지 연구」, 『東方學志』 第123輯, pp.331-369; 이홍식, 「조선후기 伯夷 수용의 한 양상」, 『한국고전연구』 第23輯, pp.67-100.



#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관점에서 본 중국의 무역구조 -1620년대 팽호 점거 시기와 대만 점거 초기 기록을 중심으로-

한지선 (전남대 사학과 역사문화센터)

- I. 머리말
- II. 중국 통상 시도와 두 개의 문
- III. 연해통제와 팽호 충돌
- IV. 협상의 진행과 관료
- V. 제3의 협상파트너, 상인
- VI. 맺음말

## I. 머리말

16세기 중반 명은 조공무역의 원칙에서 벗어나 月港을 개방하고 마카오의 포르투갈 정주를 인정하며 나름의 무역원칙과 관례들을 축적시켜 갔다. 월항무역과 마카오 무역은 연해민들의 무역요구와 포르투갈의 통상요구가 이루어낸 성과이면서 명조의 입장에서는 조공무역이 형해화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해상통제 방법을 모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620년대에 이르러 네덜란드가 본격적으로 중국연해에 진출하였고 일본의 에도막부는 기독교를 금지하고 영국과 스페인의 일본입항과 거주를 금지했다.<sup>1)</sup> 번영을 구가하던 월항은 점차 관세수입 방면에서 쇠락의 기미가 감지되었으며<sup>2)</sup> 泉州府의 夏門, 安平 등지가 부상하기 시작했다.<sup>3)</sup> 마카오의 포르투

1) 荒野泰典, 『江戸幕府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東京:2003)

2) Chang Pin-Tsun, Maritime Trade and Local Economy in Late Ming Fukien, *Development and Decline of Fukien Province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Netherlands, 1990, p.70. 張彬村의 분석에 따르면 복건 월항의 무역은 1620년대 최고 정점에 있었다. 처음 해장이 개

갈인들은 중국 관료들의 묵인 혹은 동의 아래 무비를 강화하고 성곽을 확장시켰으며 기타 국가와 중국의 직접무역을 방해했다.<sup>4)</sup> 명의 통상과 연해 관리 체계는 더 경쟁적이고 변칙적인 상황들과 만나면서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었다.

기왕에 명말의 무역 실상에 관한 연구는 적지 않다. 그 가운데 네덜란드와 중국 간의 무역<sup>5)</sup>이나 마카오·월항·나가사키 등지의 무역환경<sup>6)</sup> 혹은 정지룡 등 해구들의 활동과 네트워크<sup>7)</sup>를 조명하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검토가 이루어졌다. 네덜란드의 팽호 점거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연구를 비롯, 팽호·대만의 귀속과 관할 및 군대배치<sup>8)</sup>, 교섭과 협정 내용<sup>9)</sup>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위의 연구들은 네덜란드의 통상 요구 과정에서 명의 무역구조에 접근할 수 있지만 대개 네덜란드와의 협상이나 전쟁의 주체를 ‘명’ 혹은 ‘명 정부’를 설정하여 중국의 연해관리 전반을 설명하곤 했다. 그 결과 네덜란드의 팽호 철수 역시 연해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 관철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조공체계의 외연에 머물렀던 네덜란드의 입장에서 실제적인 교섭 상대는 연해의 행정관이나 군관, 해구나 상인들이었으며 사실상 이들이 네덜란드가 접촉했던 명의 실체였다. 17세기 세계는 교역과 교류 속에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고 네덜란드는 동인도회사를 내세워 자카르타를 거점으로 향료무역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했으며 중국과 일본의 무역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했다.<sup>10)</sup> 이를 위해 네덜란드는 원론과 제도 보다는 주어진 연해의 무역환경 내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찾아야 했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시각에서 중국의 무역 실현 과정을 검토한다면 제도적 측면에서가 벗

방되었을 때 3000냥에 달하던 세금은 1615년까지 27000냥까지 증가했고 이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 3) 廈門의 발전에 대해서는 聶德寧, 「明清之際福建의民間海外貿易港口」(『中國社會經濟發展史研究』1992-4期(廈門), pp.40-41) 참조.
- 4) 李慶新, 『明代海外貿易制度』, 社會科學文獻出版社(北京:2007), p.414; 包樂史, 莊國士·程紹剛譯, 『中荷交往史(1601~1989)』, 路口店出版社(네덜란드:1989), p.40.
- 5) 陳小沖, 「十七世紀上半葉荷蘭東印度公司的對華貿易擴張」, 『中國社會經濟史研究』1986-2期(福建); 李金明, 「十七世紀初荷蘭在澎湖·臺灣的貿易」, 『臺灣研究集刊』1999-2期(北京).
- 6) 曹永和, 「環中國海域交流史上的臺灣和日本」, 『臺灣風物』41-1期(臺北:1991).
- 7) 林偉盛, 「荷蘭貿易與中國海商(1635-1662)」, 『國立政治大學歷史學報』17(臺北:2000); 李德霞, 「17世紀初荷蘭在福建沿海的騷擾與通商」, 『海交史研究』2004-1期(福建); 永積洋子, 「由荷蘭史料看十七世紀的臺灣貿易」, 『中國海洋發展史論文集』(臺北:1999); 한지선, 「鄭芝龍의 海上制覇過程」, 『明清史研究』34(서울:2010); 萬明, 「商品、商人與秩序——晚明海上世界的重新解讀」, 『古代文明』2011-3期(吉林).
- 8) 陳小沖, 「1622~1624年的澎湖危機-貿易·戰爭與談判」, 『思與言』31(臺北:1993); 何孟翼, 「被動的應對:萬曆年間明政府處理澎湖兵防問題之探討(1597~1616)」, 『碇石』61(臺北:2010).
- 9) 林偉盛, 「荷蘭人居澎湖始末(1622-1624)」, 『國立政治大學歷史學報』16(臺北:1999).
- 10)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진출과 활동에 관해서는 하네다 마사시, 『동인도회사와 아시아의 바다』, 선인(서울:2012); 티모시 브룩, 『베르메르의 모자』, 추수밭(서울:2008); 주경철, 『대항해시대』,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참조.

어나 연해의 구체적인 실상을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팽호 점거 전후시기를 중심으로 동인도회사의 사료를 통해 중국의 무역구조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무역·통상에 작용하는 세 가지 축으로써 ㉠ 중국의 통상 및 해상통제의 원칙, ㉡협상의 주체인 관료, ㉢무역의 당사자인 상인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사료로서 주로 활용한 것은 2010년 江樹生에 의해 대만에서 간행된 『荷蘭臺灣長官致巴達維亞總督書信集』 I 권과 II 권이다.<sup>11)</sup> 동인도공사의 각종 사무를 담당했던 바타비아의 총독과 평의회는 아시아에서 활동한 내용을 네덜란드 소재의 동인도회사 평의회로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따라서 각지의 상관 자료들은 바타비아로 수합되고 보고되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원시자료가 대량 존재한다.<sup>12)</sup> 『長官書信集』은 1620년대 팽호와 대만에서 활동했던 레이어슨, 송크, 데 위트, 누이츠 등 선대의 책임자 혹은 대만 장관들이 바타비아에 보낸 보고서한으로 바타비아성의 일지에 요약, 반영됐다는 점에서 원시자료의 원시자료인 셈이다. 이 사료는 1620년대 VOC 선대를 이끌었던 자들의 중국 연해에서의 경험이나 충돌과 협상에 관한 기록이 자세하여 주변부의 시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熱蘭遮城日誌(第一冊)』<sup>13)</sup>, 『巴達維亞城日記』<sup>14)</sup>와 함께 程紹剛의 『荷蘭人在福爾摩沙(1624~1662)』<sup>15)</sup>, 캠벨의 *Formosa Under the Dutch*<sup>16)</sup>를 검토하였다. 程紹剛의 책은 바타비아의 보고서 가운데 대만관련 자료를 수합하였는데 중국 접촉 기록이 상당히 자세하다. 또한 VOC의 팽호 점거 시기 약 1년간의 기록을 담은 본테코우의 『東印度航海記』<sup>17)</sup>와 林偉盛이 번역한 「雷理生(Cornelis Reyersen)司令官日誌(1622)」<sup>18)</sup>도 참고하였다.

11) 江樹生 主譯, 江樹生 主譯, 『荷蘭臺灣長官致巴達維亞總督書信集』 I · II, 國史館台灣文獻館(臺北:2010), 이하 『長官書信集』 I · II로 간칭.

12) 程紹剛, 『荷蘭人在福爾摩沙』 臺灣研究叢刊(臺北:2000), 導論 참조.

13) 江樹生譯註, 『熱蘭遮城日誌(第一冊)』, 台南市政府(臺南:1999).

14) 村上直次郎, 『バタヴィア城日記1』, 平凡社(東京:1970).

15) 程紹剛, 『荷蘭人在福爾摩沙』 臺灣研究叢刊(臺北:2000).

16) Wm. Campbell, *Formosa Under the Dutch: Described From Contemporary Records, With Explanatory Notes and a Bibliography of the Island*, 南天書局(臺北:2001).

17) 威·伊·邦特庫(een reis van Bontekoe), 『東印度航海記』, 中外關係史名著譯書, 中華書局(北京:1982).

18) 林偉盛 譯, 「雷理生(Cornelis Reyersen)司令官日誌(1622)」, 『臺灣文獻』54-3, (臺北:2003) p.140.(이하「司令官日誌」)

## II. 중국 통상 시도와 두 개의 문

1602년 네덜란드에서는 아시아 무역의 출혈적인 경쟁을 막기 위해 동인도공사(Verenigde Oostindische Compagnie 이하 간칭VOC)를 세웠다. 그리고 1603년 2월 VOC 소속의 함대가 대니에서 포르투갈의 카트리나호를 나포했는데<sup>19)</sup> 약탈한 선박에서 중국 생사 1200베일과 30라스트(1last≒2톤)에 달하는 자기를 획득했다. 이 화물은 그해 8월 암스테르담에서 매우 큰 호응을 받으며 유럽 각지로 판매되었다. 매도된 화물은 생사의 가치만 VOC 총 자본액의 1/3에 해당하는 225만 길더에 달했다. 1603년에도 공사는 마카오 인근에서 일본을 향하던 포르투갈 선박을 공격하여 생사만 총 140만 길더를 벌어들였다.

VOC 측은 향료의 이윤에 못지않은 자기와 생사에 주목하기 시작했지만 네덜란드의 중국통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VOC 성립 이전에도 1601년 9월 오우데(Oude Compagnie)라는 무역회사 소속의 두 척의 배가 마카오 인근에 접근하여 통상을 요구하였으나 포르투갈의 방해로 실패로 돌아갔다. VOC가 성립하자 바르비크(Wijbrand Van Waerwijck:麻韋郎, 韋麻郎)는 동인도회사의 함대를 이끌고 파타니에 머물며 중국과의 통상을 모색했다. 그는 1604년 마카오로 출항했으나 폭풍으로 인해 포기하고 팽호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의 시도는 浯嶼와 澎湖 두 수채에서 조성된 명조의 함대에 에워싸여<sup>20)</sup> 아무런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철수했다.<sup>21)</sup> 그리고 1607년 6월에도 네덜란드왕의 편지를 가진 마트리프(C. Matelieff)가 주장 입구의 오른 편에 위치한 Lanthou(南頭)<sup>22)</sup>에서 관원에게 예물을 보내고 무역을 요구했지만 역시 실패했다.

중국과의 접촉에서 VOC가 주목한 곳은 주장 입구였다. 주장 입구는 동남아의 여러 국가들에게 조공의 형식으로 입항을 허가했던 곳이었다. 바르비크도 1604년 삼의 조공사신단 입항시에 VOC소속의 몇 사람을 파견하여 중국과 통상을 하고자 했다.<sup>23)</sup> 이 시도는 후원하던 왕이 죽으면서 무산되고 말았지만 바르비크 역시 중국의 통상 제도 안에서 무역을 실현하려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바르비크는 광주 접근이 실패한 뒤 팽호에 들어가 중국과의 무역을 시도

19) 19) 카타리나호(Santa Catharina) 사건은 항해가 반 허모스크가 1603년 2월 말라카해협에서 카타리나호를 약탈한 사건이다. 1602년 4월 반 허모스크(範·赫姆斯克)가 조와 서쪽 해안에서 포르투갈 대범선을 사로 잡았는데 그 선박의 항해문건에서 1601년 마카오의 포르투갈인들이 17명의 네덜란드인들을 살해하여 중국정부에 넘겨주고 4개의 생존자들이 인도 고아에 넘겼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에 보복하려 했다. (包樂史, pp.34~35).

20) 何孟興, 「論明萬曆澎湖裁軍和沈有容退荷事件之關係」 『臺灣文獻』62-3 (臺北:2011), p.145.

21) Wm. Campbell, p.26.

22) Lantouw 즉, 광동 광주만 右岸, 지금 深圳의 왼편인 南頭寨를 의미한다.

23) 包樂史, p.38.

했다. 바르비크는 팽호에 머무르며 복건의 세사 高案로부터 은자 4~5만을 내면 네덜란드인들과 합작하겠다는 답신까지 받았지만 그 후로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다.<sup>24)</sup> 바르비크에게 복건과 팽호의 정보를 제공한 자는 Impo(恩浦)라는 자인데 중국사료에서는 李錦이라는 인물이 그와 유사하다.<sup>25)</sup> 李錦은 海澄縣 출신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장주만한 곳이 없으며 주둔하고 수비할 수 있을 것”<sup>26)</sup>이라고 하며 바르비크에게 팽호도를 점령하고 高案에게 통하라고 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었다. 그가 팽호에서 주둔을 권한 것은 통상하기가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1567년 海澄縣 일향이 중국인들에게 개방되자 장주 일대에 상인들이 모여들고 대외 무역도 활발했다. VOC 입장에서는 주강 입구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중국인들의 출항이 자유로웠던 장주의 주변에 근거지를 건설하고 무역을 시도하려 한 것이다.

당시 VOC가 파악한 대로 주강 입구와 월항은 중국의 대외무역의 관문이었다. 하지만 팽호 일대는 명조가 임진왜란 이후 군대를 주둔시켜 관할하던 통치권 내의 영역<sup>27)</sup>이었으므로 팽호에 근거지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명은 이 두 지역을 “閩市有往無來 粵則與諸夷互市”<sup>28)</sup>의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즉, 閩市로 지칭되는 장주의 월항은 중국인들의 출항만 허용되었을 뿐 외국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었고, 광주가 유일하게 외국인들이 호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광주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 외국인들의 무역은 금지되었다. 1607년 광동의 지방관과 협상을 진행했던 마트리프는 광주만이 외국인이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하며 무역의 기회를 찾으려 한다면 반드시 광주로 가야한다고 했다.<sup>29)</sup> 즉, 주강 입구는 중국의 무역제도 범위 내에서 VOC가 중국에 접근할 수 있었던 유일한 문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조 하에 마카오에 자리잡은 포르투갈은 명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 시장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다. 1627년 대만장관으로 부임했던 누이츠(Pieter Nuyts:納茨)는 마카오 무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마카오의 포르투갈인들은 중국과 함께 무역한지 11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특수한 비용을 지불하고 두터운 예물을 바치고 몇 차의 사절을 파견한 이

24) 包樂史, p.38

25) 恩浦(Impo)와 『東西洋考』의 李錦은 둘다 네덜란드의 관습에 익숙하며, 팽호에 자리 잡을 것, 뇌물을 통해 고채와 접촉할 것 등에 관해 정보를 주었다. 당시 상인 潘秀, 郭震 등도 李錦과 함께 네덜란드의 팽호 진출을 도왔다(包樂史, p.39).

26) 張燮, 『東西洋考』, 卷6「外夷考·紅毛番」.

27) 팽호지역이 “장주와 천주를 방어하는 門戶”라는 인식은 사료에서 다수 확인된다. 팽호 방어와 관할 연혁에 대해서는 何孟興, 「被動的應對：萬曆年間明政府處理澎湖兵防問題之探討(1597~1616)」, 참조.

28) 『明神宗實錄』, 권509, 만력41년 6월 庚戌. “閩市有往無來 粵則與諸夷互市”

29) 包樂史, p.40.

후에 중국정부는 비로소 마카오의 거주를 허락했다. (이들은) 매년 두 차례 광주에 이르러 물건을 사들이는데, 확실히 이러한 통상에서 마닐라 상인 혹은 우리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획득한다. 그들은 획득하는 상품의 질량을 다른 사람들 것보다 좋게 하고 더 많게 할 수 있었으며, 자신들의 특수한 요구에 따라 제품을 만들고 비단의 넓이·길이·무늬·중량을 규정하여 일본·동인도 및 포르투갈 시장의 요구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sup>30)</sup>

누이츠는 포르투갈이 중국과의 오랜 통상 역사를 추적하여 우월한 무역지위를 획득했다고 보았다. 포르투갈인들의 마카오 정주는 가정연간 왜구 문제가 심각해지고 국내·외 해외무역의 요구가 증가하자 이들을 해구·왜구와 구분하여 거주하게 하면서 시작되었다.<sup>31)</sup> 마카오의 포르투갈인들은 명의 지방정부에 의해 통치되고 지배당하는 구조였지만<sup>32)</sup> 또한 통상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확보했으며 군사적 역량도 강화할 수 있었다.<sup>33)</sup> 이들은 광주에서 확보한 상품을 가지고 중국-일본, 중국-마닐라를 잇는 중계무역을 장악하여 유럽의 다른 경쟁자들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실현했다. 그리고 그들은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상대인 네덜란드인의 출현을 극도로 경계했다. 네덜란드가 중국에 통상할 수 있는 문은 사실상 닫혀있었던 것이다.

물론 VOC가 중국산 화물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반텐·파타니 등지에서 중국 상품을 전매했고 중국 상인들도 반텐 등지로 대량의 자기와 생사를 운반하여 판매했다. 그러나 VOC는 생사와 자기를 간접적인 거래로 확보했으며 이렇게 들여온 자기는 대개 질이 떨어지고 가격 경쟁력도 없었다.<sup>34)</sup> 이에 네덜란드측은 1919년 아시아 무역기지로써 바타비아를 건설하고 16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중국무역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 III. 연해통제와 팽호 충돌

-1622년 3월 바타비아의 총독 쿤과 인도평의회<sup>35)</sup>는 레이어슨을 사령관으로 하는 12척의 함대를 중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sup>36)</sup> 함대의 목표는 포르투갈의 무역

30) Campbell, p.53.

31) 石元蒙, 『中西文明의最初碰撞』, 『歷史研究』, (廣州) p.140.

32) 萬明 『試論明代澳門的治理形態』, 『中國邊疆史研究』 1999-2期 (北京), p.41.

33) 천계 4년 오문에 성을 쌓고 대포 수습 문을 설치하려고 하자 중국 관원들의 저지를 받았다. 그러나 숭정 초 네덜란드의 침략에 대비하여 광동지방관들의 동의 아래 성을 쌓고, 포대 증설했는데 당시 마카오 성채의 전체 길이는 1380丈에 달하였다(李慶新, pp.413~414).

34) 당시 네덜란드의 자기, 비단류의 거래와 한계에 대해서는 陳小沖 (1993), p.126~135 참조.

35) 동인도회사 바타비아 총부 의원들의 의회.

지위를 탈취하고 중국과의 통상을 위해 마카오나 장주 부근에 성과 보루를 쌓아 근거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sup>37)</sup> VOC 측은 마카오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을 통해 포르투갈인들이 12개의 포대를 배치하려다가 중국인들의 허가를 받지 못해 공사를 지속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내고 마카오 급습을 결정했다.<sup>38)</sup> 그의 함대는 연해 도착 이틀 후 마카오를 공격하여 격렬한 전투를 벌였지만 136명이 죽고 126명이 중상을 당하는 등 상당한 전력을 잃었다. 레이어슨은 마카오의 병력과 대포 등의 방위역량이 바타비아에서 파악했던 정보보다 훨씬 견고하고 강력한 것을 깨달았다.<sup>39)</sup> 한편, 레이어슨은 Lanthou(南頭)에 평화기를 든 병사를 파견하며 중국인들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결국 레이어슨은 아무런 성과없이 마카오에서 물러나야 했다.<sup>40)</sup>

마카오의 접근이 실패한 뒤 7월11일 레이어슨의 함대는 팽호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1624년 8월까지 2년여에 걸친 VOC의 팽호 점거와 복건 연해 봉쇄의 목적은 팽호에서의 자유로운 통상<sup>41)</sup>과 중국인의 마닐라 출항 저지에 있었다. 레이어슨은 이를 위해 팽호에 성채를 쌓고 중국 상인들을 끌어들이며 무역을 일으켰다. 또한 그들은 중국인들의 마닐라 도항을 저지하며 연해를 약탈하고 봉쇄했다.

네덜란드인들의 요구는 팽호지역을 수비하던 王守備<sup>42)</sup>를 통해 중국측에 전달되었다. 이에 대해 1622년 10월 1일 ‘福州와漳州의 3명의 최고 관리’<sup>43)</sup>들은 답신을 보내 ‘명의 국토’인 팽호에서 무역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과 팽호가 아닌 무역에 적합한 지역을 물색하라고 요구했다.<sup>44)</sup> 이러한 중국 측의 요구는 10월 13~15일 무렵 ‘장주의 최고 관리’<sup>45)</sup>가 파견한 사신이 참여한 팽호 협상,<sup>46)</sup> 1623년 복주협상 그리고 이후 네덜란드인들이 팽호에서 물러날 때까지 일관되었다. 연해 관리들은 팽호가 “국왕의 영토”<sup>47)</sup>이므로 외국인이 중국의 영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

36) 『司令官日誌』, p.140.

37) 程紹剛, pp.7~9.

38) 程紹剛, p.7.

39) 『長官書信集』1, 1622년, 9월 10일.

40) 『長官書信集』1, 1622년, 9월 10일; 『司令官日誌』, p.164.

41) 『長官書信集』1, 1623년 3월 5일, p.35.

42) 원문의 Ongsoepij를 江樹生은 王守備의 음역으로 보고 팽호 수비하던 王夢雄일 것이라고 한다.

43) 레이어슨은 팽호를 점거한 초기 명의 관직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듯 ‘복주와 장주의 세 명의 최고위 관리’라고만 표기되어 있다. 江樹生은 뒤에 복주협상에 참여한 인물을 Gouv Teoja를 都爺라고 표기하고 순무로 보았으니 복주의 최고관리는 巡撫 商周祚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레이어슨이漳州河에서 지속적으로 통상을 요구한 정황이나 海道副使, 督餉館 관리의 역할과 비중을 고려한다면 네덜란드와의 통상 문제에 결정권을 가진 것은 巡撫, 海道副使와 장주의 督餉館 관리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李慶新에 따르면 해도부사는 연해 위소의 관군과 병항 및 군무를 담당하였고 복건의 순무는 복주에 해도부사는 장주에 주차하였다(李慶新, pp.189~191).

44) 『長官書信集』1, 1622년 10월 8일.

45) 漳州的 최고관리는 海道副使라고 보인다.

46) 『長官書信集』1, 1622년 11월 20일.

을 견지했다. 즉, 이들은 네덜란드의 팽호 점거를 통상문제가 아니라 영토, 영역의 침범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레이어슨의 함대 일부는 바타비아의 명을 기다린다는 핑계로 철수를 미루고 성루를 보수했으며 다시 연해를 봉쇄했다.<sup>48)</sup> 이에 대해 1623년 8월 도입한 순무 南居益은 팽호의 네덜란드인들에게 납치한 중국인들을 놓아주고 팽호를 떠날 것을 요구하며 강력한 해금을 실시했다. 1624년 바타비아에는 당시의 해금을 아래와 같이 기록했다.

군문은 팽호도에 있는 네덜란드 선박에 대하여 중국 국내에 오지 못한다는 것을 통지한다. 또한 중국인들은 어업을 위칭하여 北港의 네덜란드인과 무역하기 때문에 중국 정크선이 해당지역으로 가는 것을 금한다. 군문의 상석 고문이 일찍이 어떠한 사람도 모두 네덜란드인과 교역할 수 없으며 그들과 무역을 인정받으면 희망자는 모두 해당 지역(대만)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네덜란드 선박이 팽호도에 정박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을 위해 누구라도 모두 북항으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감시원이 정크선을 검시할 때 선박 안에 쌀과 소금 이외에 비록 어떠한 물건이라도 발견되지 않아도 그들이 밀무역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정크선들은 마땅히 잠시 내지에 머물러야 하고 북항으로 개항할 수 없다. <sup>49)</sup>

위의 내용은 바타비아 일기에 기록된 해금 관련 기록의 일부이다. 레이어슨이 1624년 1월 15일자 서신에서 해금 고시문을 첨부하여 보낸 적이 있는데 바타비아에서 이를 발췌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기록에서 언급된 北港은 대만 남부의 安平이다. 이 고시문 내용에 따르면 본 해금이 실시되기 전 중국 연해민들은 어업 등의 생계를 위해서 대만으로 출항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연해민들이 대만 출항을 빙자하여 팽호의 네덜란드인들과 밀거래를 진행하자 팽호 뿐만 아니라 대만에서의 무역과 도항을 전면적으로 불허하기에 이른 것이다. 레이어슨의 서신에 따르면 해금은 순무의 명으로 발효된 것으로 중국인들이 네덜란드와는 어떤 곳에서도 무역을 할 수 없도록 했고 이 명령을 위반한 자들은 일률적으로 사형에 처하고 화물은 몰수하도록 했다.<sup>50)</sup>

당시 해금은 1623년 9월 28일 (天啓 3년 9월 5일)<sup>51)</sup> 발효된 것으로 해를 넘겨 장기화 되면서 팽호의 여건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팽호는 본디 황무지가 많고 초목 또한 없으며 염분이 많은 물 이외에 다른 것이 나지 않는<sup>52)</sup> 지역으로 외부의 물과

47) 『長官書信集』1, 1622년 10월 8일.

48) 1622년 10월 18일~1623년 5월11일 장주 봉쇄와 약탈의 기록은 林偉盛 (1999), pp.12~13 참조.

49) 『巴達維亞城日記』, 1624년 2월 16일.

50) 『長官書信集』1, 1624년 1월 25일.

51) 曹永和, 『臺灣早期歷史研究』, 聯經(臺北:1979), p.29.

52) 『巴達維亞城日記』, 1624년 4월 2일.

식량의 공급이 끊어지게 되자 이질 등 질병에 노출되고 신선한 식물과 단백질 섭취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병사들은 급속히 쇠약해졌다. 게다가 계절풍으로 인한 냉기까지 더해져 사병들의 건강은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sup>53)</sup> 이러한 상황에서 무역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웠다. 레이어슨은 “자신들이 가져온 많은 자금이 아직 팽호에 남아있지만 아무런 필요가 없다”<sup>54)</sup>고 하며 그곳의 자금을 바타비아로 송부할 뜻도 비쳤다.

해금과 함께 중국 측은 무력을 동원하여 팽호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팽호 점거 초기 네덜란드인들에 대해 방어적 수세적이었던 태도는 巡撫 南居益이 도입한 뒤 강경하게 전환되었다. 1624년 8월 레이어슨에 이어 함대 사령관으로 부임한 송크(Martinus Sonck: 松克)는 중국 연해의 사정이 바타비아에서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보고했다. 즉, 바타비아에서는 중국과의 전투가 중국 연해에서 일어난다고 여겼는데 현지에 와서 보니 중국인들의 정크선 병사들이 팽호까지 이르러 철수를 요구하며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VOC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이 동원한 병력은 1만명에 달하며 정크선도 200여 척이 넘었다. 바타비아에서는 이러한 국면이 모두 중국 국왕의 특명으로 이루어졌으며 복건·광둥 각성에서 이명을 받들어 이행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sup>55)</sup>

해금과 대규모 군사적 압박에 직면한 레이어슨은 장주하나 혹은 중국 연해 인근의 적당한 지방이나 도서를 무력으로 탈취·점령한다 하더라도 통상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히려 대규모 수비군을 주둔시켜야 하기 때문에 공사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sup>56)</sup> 송크 역시 레이어슨의 무력 도발은 네덜란드인을 해적으로 인식시킬 뿐이라고 하며 무력에 의한 통상 시도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다. 즉, VOC는 팽호 충돌 과정에서 무력으로는 중국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얻어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 IV. 협상의 진행과 관료

VOC의 팽호 점거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 이유는 이들이 중국의 관할 권역인 팽호를 점거하자 통상문제가 정치적·군사적 사안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대개 연해 지방관들은 정치적·군사적 사안에 대해 중앙의 결정과 원칙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중앙으로 호송된 水手와 병사들의 석방 문제의 경우, 전쟁 중 사로잡

53) 『長官書信集』1, 1624年 1月 15日.

54) 『長官書信集』1, 1624年 1月 15日.

55) 『巴達維亞城日記』1625年 4月 9日.

56) 『長官書信集』1, 1624年 2月 20日.

은 외국인은 교환하지 않는다는 전례에 따라 처리된 이상 네덜란드는 궁정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했다.<sup>57)</sup> VOC의 입장에서는 중앙과의 소통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안이 ‘궁정’ 즉, 중앙으로 넘어가게 되면 타협불가능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곤 했다.<sup>58)</sup>

네덜란드인들에게 군문과 지방행정관들이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요구한 것은 팽호에서 물러나고 중국연해에 접근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중국 측 입장은 복건순무 商周祚가 1623년 2월 24일자로 올린 다음의 주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개 비록 내지에서 호시하는 예가 없고 閩商에게 교류파(바타비아)의 집조를 발행한 것은 본디 紅夷(네덜란드)와 교역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구례를 준수하는 것을 중지하고 전에 집조를 원래 그 지역에서 장사하던 舊商에게 발급하여 다시 교류파(바타비아)에서 교역하도록 하고 우리 내지에서 호시하지 못한다는 명목으로 팽호에서 신속히 떠나 귀국하도록 해야합니다. 만일 그들이 필시 (총독의) 서신을 기다린다는 핑계로 거절하면 또한 해외 별항으로 물러난 이후에 하도록 하되 다만 우리의 汛守의 땅이 아니면 그들이 택하여 정박하게 해야합니다.<sup>59)</sup>

위의 상주조의 주접 내용에서 제시된 네덜란드에 대한 원칙은 3가지이다. 첫째, 바타비아의 무역은 예전 집조를 발행했던 것에 의거해 허가하고 둘째, 중요 요충지와 내지에서의 호시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셋째, 네덜란드인들을 군사적 요충지가 아닌 해외의 다른 지역에 정박하게 한다는 것으로 대만으로 유인할 뜻을 보였다.

그런데 상주조가 재임하는 동안 네덜란드 측과 진행된 협상에서는 통상 부분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다음 표는 협상 과정과 주요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명 관원과 네덜란드의 협상 과정

접촉/협상 일자	접촉 배경	협상 방법 및 협상 참여자	주요 내용
1622.10.1	팽호의 王守備와 상인 黃明佐가 4척의 전선을 타고 팽호에 도착	복주·장주의 3명의 최고관리의 서신을 전달	-팽호는 국왕의 영토이므로 외국인은 이곳에서 거주할 수 없다. -다른 적합한 장소를 모색하라.
1622.10.13	중국측 관리가 공문서를 가지	최고관리가 파견한 관원, 상인	-이 곳을 떠나 바타비아, 기타지방으로 갈 것.

57) 『巴達維亞城日記』, 1634년 4월 19일.

58) 『巴達維亞城日記』, 1634년 12월 4일.

59) 台灣銀行 編, 『明季荷蘭人侵據澎湖殘摺』, 行政院研究發展考核委員會(台北), 1997, p.1.

(팽호협상)	고 와서 전달	黃明佐, 양수비	-10~12척의 정크선을 바타비아로 보내줄 것. 화물의 가격을 즉시 결정해도 좋다고 함. -淡水와 같이 중국의 영역이 아닌 곳으로 갈 것 *총독으로부터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함. *황명좌 등에게 네덜란드 측의 통행증 발급을 결정
1623.2.11. (복주협상)	Hong cong cong 이 팽호에 이르자 Meldert를 사신으로 파견	상인 Meldert 등이 복주에 이르러 군문 도둑과 협상	-중국 사법의 관할 밖의 지역을 모색할 때까지 팽호에 머무른다 -네덜란드 측을 안내할 수수를 파견한다. -연해민이 네덜란드인들과 무역할 수 있도록 한다. (100여척의 선박 파견) -중국인의 마닐라에 출항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시 네덜란드가 공격을 가할 수 있다. -만약 네덜란드인들이 팽호에 남아있게 되면 무역을 단절한다.
1623.11.3. (하문협상)	프랑스의 선단이 장주하 하류 보 타섬에 정박	상인 薛伯泉이 전권을 가진 사람과 함께 접근하여 협상을 진행	-충분한 견사등을 대만으로 운송해 준다 -VOC의 무역허가증 발급에 동의한다 -중국인이 마닐라군도나 동포채 샴, 파타니 등 기타 지방으로 항해할 수 없다. -4~6척의 정크선을 바타비아로 파견한다.

1622년 10월 13일 팽호협상에서는 네덜란드측이 바타비아로 돌아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10~12척에 달하는 정크선에 각종 화물을 실어 바타비아로 보내줄 수 있으며, 팽호에서 가격의 물건까지 협상해도 좋다고 했다. 그리고 타수를 보내 황금이 많고 식량이 풍부한 淡水라는 지역으로 인도하도록 하겠으며 이곳으로 중국에서 다량의 각종 상품을 운반해 주겠다고 했다.<sup>60)</sup>

순무 상주조 시기의 협상 방향은 1623년 2월 11일 레이어슨이 파견한 상인 멜더트(Meldert)와의 복주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sup>61)</sup> 당시 군문의 도둑은 만약 다른 지방으로 간다면 각종 상품을 보내줄 수 있으며 심지어 “매년 100여척의 선박에 달하여 네덜란드인들이 다 사들이지 못할”<sup>62)</sup> 정도의 상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멜더트 일행은 팽호 무역은 거절당했지만 중국의 타수를 보내 적당한 장소를 모색해 주겠다는 것과 각종 화물을 보내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며 양식 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또한 중국 선박에 대해서 공사가 발행

60) 『長官書信集』1, 1622년 11월 20일.

61) 『長官書信集』1, 1623년 3월 5일; 『雷理生(Cornelis Reyersen)司令官日誌(1622)』 pp.253~254.

62) 『長官書信集』1, 1623년 3월 5일.

한 통행증을 소지한 경우만 항해할 수 있게 하고 만약 통행증이 없이 마닐라에 출항하는 경우에는 공격해도 된다는 확답까지 받았다.<sup>63)</sup> 1623년 초 복주 협상은 VOC가 팽호를 떠나 대만으로 가지 않는 한 무역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sup>64)</sup> 하지만 협상의 책임자인 군문 都督과 都爺는 중국의 정크선 등 무역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물론 중국 측 제안은 네덜란드인들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1623년 11월의 하문협상은 결렬 이후 프랭스(Christiaan Francx: 高文律) 등 30여명이 잡혀 처형당했다는 점에서 중국측의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크선 파견의 카드를 상당히 자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sup>65)</sup> 원래 집조는 동서양 50장 범위에서 각 番에 선박 2~3척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만력 19년 周宥의 건의로 필리핀에 16척을 확정하고 다른 국가들은 약 1척 정도만을 할당하여 총 88매가 발급되었다.<sup>66)</sup> 이후 순무 許孚遠이 占陂·柔佛 등지에 1매씩 더 발행하여 110여 매로 증가됐고<sup>67)</sup> 다시 만력 25년에는 137매의 선인이 발급되었다.<sup>68)</sup> 앞서 상주조의 주점에 따르면 바타비아의 도항 허가는 월항에서 발행되었던 집조와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대만에 발행한 집조는 월항의 체제와는 달랐다. 허부원은 만력 17년 周宥가 의론한 규정을 인용하여 대만지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동양과 서양은 모두 88척이다. 또한 小番이 있어 鷄龍·淡水으로 부르는데 인접한 北港은 고기잡는 곳으로 기이한 보화는 없으나 거리가 가장 가깝다. 廣東·福寧, 浙江과 함께 北港 船引은 같은 예로 하며 제한한 수는 없으니 해마다 4~5척 혹은 7~8척으로 같지 않다”<sup>69)</sup>

위 사료에 따르면 鷄龍·淡水 등 대만 지역은 小番이라 하여 동양과 서양의 제변에 출입하는 선박과 구별되었다. 특히 가까운 北港의 경우 무역을 진행할만한 귀중한 특산물이 없었던 곳으로 연해민들에게 어업활동이 허가되었고 광둥·복

63) 『長官書信集』1 1623년 3월 5일.

64) Wm. Campbell, p.32~33

65) 이후의 기록이긴 하나 1634년 12월 바타비아는 군문이 “이전 해도에서 발생한 바의 3장의 항도 허가 집조를 완전히 승인하고 또한 4장을 첨가하여 자기의 관함으로 서명”(『巴達維亞城日記』, p.143.)하여 중국상인들이 대만에서 자유로이 무역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고 기록했다. 즉, 군문의 도독이 도항허가의 집조의 승인 등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었으며 집조의 발행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66) 『明神宗實錄』, 권210, 萬曆17年 4月 丙申.

67) 顧炎武, 『福建 洋稅考』, 『天下郡國利病書』, 四部叢刊三編, 上海書店, (1935)

68) 『明神宗實錄』 권316, 萬曆25, 11月 庚戌.

69) 許孚遠, 『海禁條約行分守漳南道疏』, 『敬和堂集』卷7, 臺北漢學研究中心, (1990).

건·절강 연해에 출항하는 예에 의거하여 선인의 매수 역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즉, 대만지역은 연해 일대의 항구와 다름없이 간주되어 중국인의 도항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연해 관원들이 대만으로 옮기도록 요구한 것은 그들의 통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책을 제시한 셈이다.

게다가 이 집조에 대한 세금도 관료의 자의에 의해 부과되기도 했다. 1623년 2월의 복주협상에서 20여척의 정크선을 바타비아에 파견하기로 하자 협상을 도왔던 상인 黃明佐는 바타비아가 너무 멀기 때문에 상인들이 도항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회담을 주재했던 都翁는 바타비아로 가는 정크선의 화물에 과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후에도 바타비아의 기록에는 정지룡이나 개인 상인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견사 등 기타 화물을 운송한 일도 보인다.<sup>70)</sup>

연해관원들은 집조의 발행, 세금 징수 등 자신들이 권한을 적절히 활용하며 협상을 진행했다. 군문 도둑이 협상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근무기간 내에 전쟁이나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였기 때문이다. 전쟁이나 반란이 발생하면 전투 결과뿐만 아니라 국고의 재원 소모 등을 이유로 해당 관료들이 문책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평화롭게 무역이 진행된 경우 단기간에 국고를 풍족하게 할 수 있었으므로 전쟁보다는 통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sup>71)</sup> 또 다른 이유로는 전쟁보다는 무역이 각종 예물을 수수할 수 있다는 점도 있었다. VOC측은 이후 무역을 진행하는 동안 하급관료에서 고위관료에 이르기까지 각종 예물과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다만 지방의 행정관과 군관들은 중앙의 정치적 군사적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역 요구를 수용하고자 했다. 그리고 무역의 협상에는 상인, 신사 등 지역민들의 무역 요구 역시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 V. 제 3의 협상파트너, 상인

상주조 재임 시기 VOC는 협상 조건에 대해 비교적 만족스러워했지만 순무, 해도부사, 그리고 총병관이 새로 교체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새로운 도둑, 즉 총병관은 어떠한 정크선도 팽호 혹은 기타 네덜란드인이 거주하는 모든 지역에서 네덜란드와 교역할 수 없다고 포고했다. 이는 신임 순무 남거익의 의지로서 네덜란드에 대해 대만에서의 거주까지도 불허한다는 방침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네덜란드에게는 팽호와 大員(安平)에서 철수하여 바타비아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sup>72)</sup> 또 다른 변화는 협상을 주관하던 전임 해도부사와 복건순무가 이직한 뒤 Hong chinchong

70) 『巴達維亞城日記』, 1634년 12월 4일.

71) 『巴達維亞城日記』, 1625년 4월 6일.

72) 『長官書信集』1. 1623년 9월26日.

Koopaet Son<sup>73)</sup>등 팽호를 왕래하며 네덜란드인들에게 우호적이었던 하급관원들이 모두 감옥에 갇힌 것이다. 이로 인해 네덜란드는 “중국내 친구가 하나도 없는”<sup>74)</sup>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네덜란드의 입장에서는 일단 지속적으로 관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했는데 주로 활약한 인물이李杻과許心素였다. 물론 상주조 임기시에도薛伯泉(Cipzuan), 黃明佐(Wangsan), 陳士英, 池貴 등과 같은 부유한 상인들이 실무자들과의 접촉을 주선하거나 서신의 교환사절로서 레이어슨의 서신에 이름을 올렸다. 장주의 상인이었던 황명좌는 복주와 장주의 관료들을 만나며 협상을 이끌었으며, 1623년 11월 상인薛伯泉은 대략 300명의 중국 상인들이 복주의 Combon(軍門)에 네덜란드와 무역을 허가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VOC측에 평화를 요청하기도 했다.<sup>75)</sup> 이들이 네덜란드인들을 위해 노력한 것은 해상의 치안불안과 해금으로 인한 물리적 손실 때문이었다. 황명좌의 경우 네덜란드의 연해 봉쇄와 무력시위로 인해 방옥, 정크선 등이 소각되는 등 심각한 손실을 입은 전력이었다.<sup>76)</sup> 또한薛伯泉 등의 해상들은 해금으로 무역이 전면 중단되자 “이미 전쟁에서 많은 것을 잃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마 폐허가 될 것”<sup>77)</sup>이라고 하며 해상의 안정과 무역 재개를 요구했다.

이단은 남거의 도입 이후부터 활동이 두드러졌다. 팽호의 네덜란드인들은 연해 관원들과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1624년 8월 15일 總爺에게 VOC측의 사신을 파견했다. 그러나 해당 총야는 네덜란드 측의 교섭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당시 총야는 하문의 총병 유자고로서<sup>78)</sup> 네덜란드를 상대로 한 통상교섭의 전권을 위임받아 팽호에서의 완전한 철수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며 대화를 거부한 것이다. 이로부터 며칠 뒤 이단은 자신의 수하를 파견하며 유자고에게 대화를 청했다. 그러자 유자고는 향후 이단을 통해서만 네덜란드 측의 의향을 파악하겠다고 밝혀왔다.<sup>79)</sup> 이때부터 이단은 VOC와 중국측의 유일한 교섭 통로가 되었다.

이단은 팽호와 복건을 오가며 수차례 서신을 전달했을 뿐 아니라 팽호 철수 협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1624년 8월까지 네덜란드는 줄곧 VOC 직원이 파견된 지역에서 무역을 허가할 것과 중국 상인들이 기타 지방에서 무역하지 못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즉, 바타비아, 대만 등지에서 네덜란드에게 무역을 보장하며, 중국인

73) Hong chinchong와 Koopaet Son의정식이름은 찾기 어려운데 江樹生은 이 둘을 같은 인물로 보았다. Hong chinchong은 앞서 협상을 주선한 Hong congcong과 같은 인물로 보이는데 발음 표기가 달라 확신하기 어렵다.

74) 『長官書信集』1. 1623년 9월26日.

75) Campbell, p.32.

76) 『長官書信集』1 1623년 3月 5日.

77) 『東印度航海記』, p.99

78) 원문의 Sosa는 總爺라고 음역하고 總兵 俞咨臯라고 번역했는데 이를 따른다

79) 『長官書信集』1. 1624년 11月 5日.

들의 마닐라 등지의 도항을 금하라는 것이었다. 이단은 이 두 가지 요구에 대해서 네덜란드가 팽호에서 철수하면 교역 통상은 가능하겠지만 중국인들이 기타 지방에서 무역하는 것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sup>80)</sup>이라고 답변하며 중국측이 마닐라 도항 금지 요구를 받아들일 리 없다는 점을 충고했다. 또한 그는 중국인들이 무력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제의가 장차 전반적인 협상진행을 방해할 것이라는 점도 설득했다.<sup>81)</sup> VOC측은 결국 이단의 의견을 수용하여 교섭의 파행을 막기 위해 이를 고수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단은 총병 유자고로부터 최종적으로 네덜란드인들의 대만 무역과 중국의 정크선 파견의 약속을 받아냈다.<sup>82)</sup> 네덜란드는 대만에서의 무역 보장에 대해 순무의 정식 비준 문건은 받지 못했으나<sup>83)</sup> 군문 및 대관의 묵인 속에 무역이 진행될 수 있었다.<sup>84)</sup>

이단의 활동은 관원들과의 결탁 속에서 가능했다. 그는 관원들이 糧食을 보내오면 금전으로 답하는 형태로 뇌물을 바치며 廈門 도둑이나 부근의 대관들과 관계를 맺었다.<sup>85)</sup> 그는 또한 1625년 순무 남거익으로부터 초무의 대상으로 검토되었다.<sup>86)</sup> 앞서 남거익은 연해민 무역 금지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해상을 통제했지만 네덜란드와의 무력 충돌로 인한 치안불안과 지역 상인들의 출항이 중단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장기화할 수는 없었다. 그는 紅夷들이 대만에 수척의 선박을 정박하게 되면 여송에 드나드는 상인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또한 이들이 네덜란드의 이익을 차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sup>87)</sup> 즉, 그가 네덜란드에 대해 경계한 것은 마닐라 무역 등 연해 지역의 무역 보호의 차원에서였다. 이단에 대한 회유도 네덜란드를 고립시켜 연해민들의 무역 질서를 안정시키려고 의도한 것이었다. 이단은 네덜란드에 대해 의심하던 연해관원들에게 그들의 목적이 통상에 있음을 주지시키며 네덜란드의 대만 무역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VOC가 대만으로 물러난 뒤 상인들의 역할과 비중은 더욱 증가했다. 네덜란드인들은 중국 연해에 접근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인해 충분한 화물을 획득할 수도 없었고 화물의 수량 가격을 흥정할 수도 없었다. 화물을 구입하거나 가격을 결정하는 등 모든 일은 전적으로 상인과의 타협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네덜란드 측은 관료들과 협상을 할 수도 없었으므로 대부분의 중국 관련 일은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80) 『長官書信集』1, 1624년 11월 5일.

81) 『巴達維亞城日記』, 1625년 4월 9일.

82) 『長官書信集』1, 1624년 12월 12일.

83) 程紹剛, p.46.

84) 『巴達維亞城日記』, 1625년 4월 6일.

85) 『巴達維亞城日記』, 1625년 4월 6일.

86) 『明熹宗實錄』, 卷53, 天啓5년 4월 戊寅.

87) 『明熹宗實錄』, 卷53, 天啓5년 4월 戊寅.

일부 해상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해 처리해야 했다.

특히 허심소의 경우 1625~27년 무렵 중국의 무역구조 내에서 보다 지능적으로 활동하며 하문 등지에서 독자적인 활동영역을 구축했다. 대만의 VOC는 밀무역이나 집조를 발급받은 적법한 선박의 화물로는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고 심지어 수개월 동안 무역을 진행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1625년 가을 네덜란드는 중국 상인들이 화물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입장에서 먼저 자금을 보내 중국 상인들을 유인해 오기로 했다. 허심소는 이 일을 의뢰받아 화물 값을 먼저 받고 6주 이내 1담 135냥의 가격으로 250담의 생사를 넘겨주기로 했다. 허심소는 그 이전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무역을 성사시키곤 했으니<sup>88)</sup> 먼저 물건 값을 넘겨주는 방식은 이미 관행이 되었다고 보인다. 이외에도 허심소는 네덜란드에게 각 종 상품의 구매시기나<sup>89)</sup> 연해의 고위 관원들에게 예물을 보낼 시기<sup>90)</sup> 등에 대해 충고하며 정보의 제공자이자 확인자로서 활동했다.

허심소는 총병관 유자고의 지원 아래 하문 把總으로 임명되면서<sup>91)</sup> 더욱 독점적인 기회를 얻었다. 허심소의 활동은 지방의 고위관료들과의 결탁에 있었으니 이에 대해 네덜란드 측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군문과 도독이 임기 3년동안 어떻게든 뇌물을 받고 임기 만료 후에도 원래의 이익을 향유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大員에서 네덜란드와 교역하는 것을 금지한 상태이지만 허심소가 교역을 독단하여야 더 쉽게 뇌물을 받을 수 있었다.<sup>92)</sup>

위의 기록에 따르면 허심소가 고위 관원들의 환심을 사는데 쓴 뇌물은 중국 무역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허심소는 사령관 데 위트에게 상인 한 사람을 보내고 공사의 대리상이라고 하며 다만 그들과의 교역만을 인정하고 다른 상인들은 공사와 교역할 수 없게 했다.<sup>93)</sup> VOC 측은 상품의 가격, 통상방법 등에 대해 허심소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허심소는 지역의 최고 관리들이 인정한 대표였고 이들 관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다. 그의 도움 없이 네덜란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sup>94)</sup>

1629년 사령관 누이츠는 허심소와의 교역이 아무런 이익도 가져오지 않는다고

88) 『長官書信集』1, 1625年 10月 29日.

89) 『長官書信集』1, 1625年 10月 29日.

90) 『長官書信集』1, 1625年 10月 29日.

91) 『長官書信集』2, 1627年 7月 22日

92) 『長官書信集』2, 1627年 9月 7日.

93) 『長官書信集』2, 1627年 9月 7日.

94) 『長官書信集』1, 1626年 3月 4日.

보고했다. 예컨대 허심소와 거래시에 장주에서 생사 1담에 150냥의 은관을 지불했는데 시가로는 115냥 20전에서 115냥 25전이면 살 수 있으며 기타 화물도 모두 이와 같은 비례로 살수 있다는 것이다.<sup>95)</sup> 허심소는 천주와 대만의 반나절 거리를 오가면서 대략 30%~50%의 이윤을 실현했다. 이 때문에 네덜란드가 확보한 화물은 필리핀과 일본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기 어려웠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허심소의 특수한 지위로 인해 여러모로 무역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네덜란드에게 금기의 영역이었던 중국 복건 연해와 장주하에 정박할 수도 있었다. 1626년 2월 허심소로부터 예정된 200담의 생사가 대만에 도착하지 않자 네덜란드는 중국연해에 접근할 수 없다는 조약을 어기고 장주 부근의 烈嶼에 도착했다. 네덜란드는 허심소의 선박으로부터 약속된 생사를 넘겨받고, 다시 허심소의 요구로 70담의 생사를 한 담에 135냥에 사들였다. 중국 현지에서 비단 1담이 100냥 정도에 거래되었지만 VOC 측은 연해에 접근해서도 허심소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이후 네덜란드의 연해 접근의 기회와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네덜란드는 군문과 중요한 관리들만 만족시키면 항해 안전을 유지한다는 핑계 아래 장주하 내에 정박할 수 있었으며 또한 중국 상인들을 대만으로 불러들여 교역할 수 있게 된 것이다.<sup>96)</sup> 1627년 6월 해도가 창궐하자 복건 관부에서는 네덜란드인이 장주만으로 들어와 화물을 운반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海盜 一官을 토벌하면 중국인들의 대원·바타비아 통상을 자유롭게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VOC 측은 결국 1628년 정지룡과 협의하여 장주만에 이르러 물량을 확보했으며<sup>97)</sup> 1630년대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연해에서 상품을 확보했다.

허심소는 정치·군사적 통제와 통상 관리의 두 영역이 혼재한 가운데 네덜란드의 무역요구를 해소하고 관료들의 이해관계를 반영시키면서 중계역을 수행했다. 때문에 VOC는 이단에 대해서는 ‘실패한 海寇’<sup>98)</sup>로 평가했지만, 반면 허심소 이후에는 중계역을 내세우는 형식을 유지,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허심소가 정지룡의 소요로 인해 문책을 당하자 VOC는 그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택해야 무역을 지속할 것이라고 하며 더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대리상을 모색하려 했다.<sup>99)</sup> 이후 정지룡이 허심소의 지위를 탈취, 승계하게 되었으니 허심소의 활동으로부터 중계역은 역할과 기능에서 독자성을 띠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95) 程紹剛, p.192.

96) 程紹剛, p.19.

97) 『長官書信集』2, 1628年 10月 26日.

98) 『長官書信集』1 1625年 10月 29日.

99) 『長官書信集』2, 1627年 9月 7日.

## VI. 맺음말

17세기 중국은 통상을 위해 두 개의 문을 두었지만 하나는 처음부터 중국인만을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포르투갈이 장악하고 있었다. 때문에 VOC는 중국에 대해 통상을 실현하는 방법이 ‘뇌물’이나 ‘전쟁’ 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전쟁’은 중국인에게 네덜란드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켰을 뿐이었다. 또한 단순한 ‘뇌물’의 방식 역시 팽호에서의 무역과 중국인의 마닐라 무역 단절이라는 그들의 목적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측면에서 주효하지 못했다. 네덜란드인들에게 허가가 없는 연해의 어떤 지역에서도 호시할 수 없다는 원칙은 금기에 가까웠다. VOC가 마카오 이외의 연해에 근거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도 해금과 군사적 압박에 의해 무력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네덜란드가 팽호에서 철수한 것을 두고 연해 지역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이 철저히 관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VOC의 시각에서 볼 때 양자 간의 충돌의 이면에서는 통상에 관한 한 네덜란드 측이 만족할 만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네덜란드는 바타비아와 대만으로의 통상과 중국인의 마닐라 도항 금지를 약속받기도 했다. 물론 상주조에 이은 남거익이 이러한 협상조건을 모두 승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남거익 역시 연해사회의 질서와 관행을 철저히 외면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이단·허심소와 같은 해구와 접촉했으며 심지어 이들을 초무하여 외교·통상의 통로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대개 연해의 행정관이나 무관들은 정치적 혹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원론적인 부분을 관철시키면서도 전쟁에 의한 해결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리고 연해사회의 평화란 현실적으로 지역의 이해관계와 부합해야 했다. 밀무역으로 성장한 이단과 허심소는 국법과 연해의 현실 속에서 관료들에게 접근하며 제한된 영역을 교묘하게 넘나들었다. 이들은 지방관들과 협상의 한 축을 이루면서 연해사회의 관행 아래 무역공간을 만들어 갔으며 명말의 무역과 해상통제의 중심축으로 등장했다.

설사 네덜란드에게 조공의 형식이 허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네덜란드가 만족할 만한 통상이 이루어졌으리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청이 입관한 뒤 VOC는 입조에 성공했지만 결과가 매우 실망스러웠던 점을 고려할 때 네덜란드가 광주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호시만을 허락받았을 것이다. 명은 해상의 무역요구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 과제는 연해사회에 고스란히 남겨졌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외의 혼란으로 명조가 연해의 통제력을 상실했던 탓도 있지만 제한된 양만을 허가하던 종전의 무역 기조로는 17세기 세계의 일제화로 촉발된 연해 지역의 무역 요구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복건 연해의 무역질서는 지역사회의 무역 요구나 해외의 통상 요구 속에서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고 있었고 연해의 관료와 상인들은 그 주체로서 명말 중국의 무역의 한 축을 이루었다.

# Freedom and control in international trade of the early-modern East Asia

岩井茂樹(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 報告の観点と目的

- ユーラシア大陸 (the Eurasian Continent) 東部には中心と周辺とからなる階層構造があった。それは文明黎明期に起源し、近世の時代まで続いた。
- 中心は一貫して中華の領域であり、外夷諸国がその周辺をなした。
- 中華の皇帝が「天子」として、華と夷とからなる天下の頂点に位置するという秩序理念が存在していた。
- 文化的価値における華夷観念や、儀礼的な臣従関係の表現としておこなわれた朝貢の制度が、この秩序理念から派生した。
- 14世紀後半、明王朝は朝貢と貿易とを不可分とする朝貢一元体制の実現を目指した。「日本国王」の冊封と鄭和の南海遠征とはこの体制の拡張を示す。
- 朝貢一元体制は、王権間の協約にもとづく貿易独占のしくみとして機能していたが、これは16世紀前半に至って動揺した。

2

## 報告の観点と目的

- この動揺は、日本銀の増産を一因とする経済ブームが中心と周辺との貿易を拡大させたことに起因した。
- 16世紀中葉の北虜南倭の危機は、明の朝貢一元体制と貿易拡大との矛盾の爆発として理解できる。
- この矛盾を緩和したのは、朝貢貿易と相反する性格をもつ互市の成長と充実とであった。
- 互市とは辺境における統制された貿易の制度であるが、16世紀を通じて、朝貢と無関係におこなわれる互市が徐々に拡大した。
- 互市における統制は、貿易のために往来する外国人を隔離することがその一手段であった。こうした統制による安全保障への配慮と、商業貿易を拡大させる自由とを両立させる巧妙な制度を確立することが18世紀東アジア諸国の課題であった。

3

- 1. 貿易と商人への制限
  - 東アジアの港市における貿易施設と規制を概観する
  - 相違点と共通性はどこにあるか？
- 2. “商人ギルド(guild)”か否か？
  - 広州 (Canton) における独占と競争の問題を検討する
- 3. 「牙行」型商務モデル
  - 伝統中国における代理人(agent)の機能を議論する
- 4. 参入と退出の自由と、清朝の門戸開放政策
  - 自由貿易の形成において、中国の貿易システムがもつ吸引力がいかん作用したか議論する

4

## 1. 貿易と商人への制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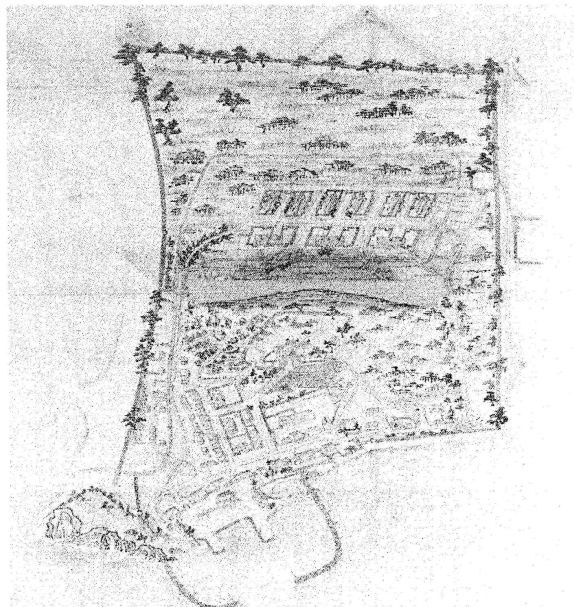
- 東アジアの港市における外国商人のための施設は、国際貿易を制限する制度を体現していた。
- 釜山と長崎では壁に囲繞された街区が外国商人に割りあてられた。
- 広州（Canton）では、十三行街を囲む物理的な壁は存在しなかったが、制度的な障壁がいくつかの分野において外国商人の行動を制限してい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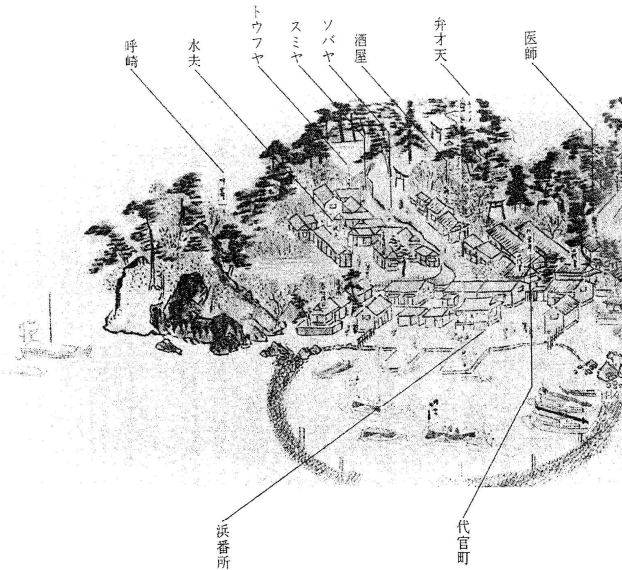
5

釜山港の倭館（和館）は1607年に朝鮮王朝と徳川政権が外交関係を回復したときに建設された。

1678年、朝鮮政府は右図のような大規模な倭館をあらたに建設した

図版は [鶴田 2003:394]よ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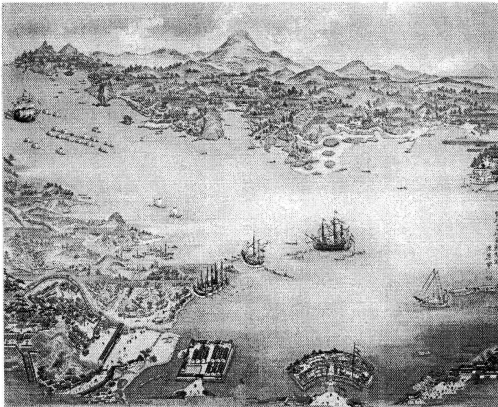




この新倭館は専用の船着き場，神社，診療所，各種店舗などを壁で囲まれた町のなかに配置した。対馬から来た日本人商人と役人は，壁の中で生活することを求められた。朝鮮の地方官府は部隊を配備して日本人を監視した。

図版は [鶴田 2003:397]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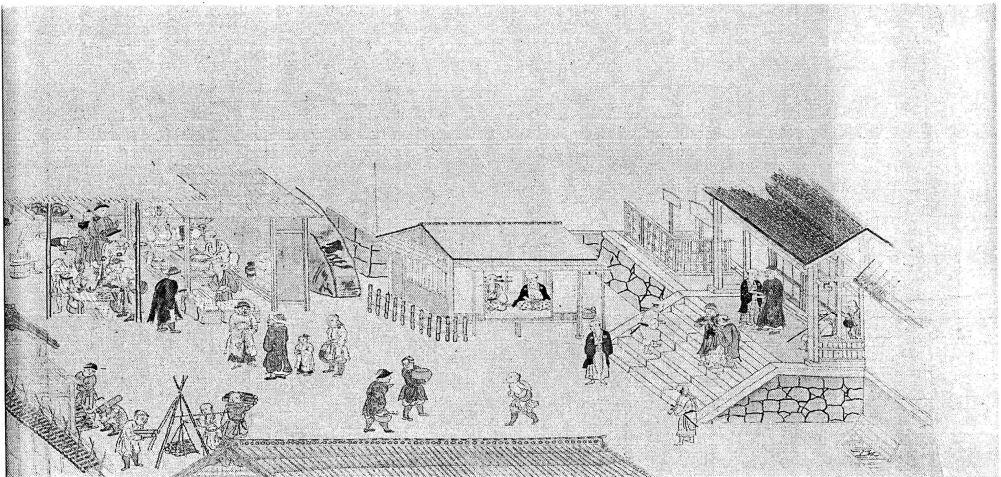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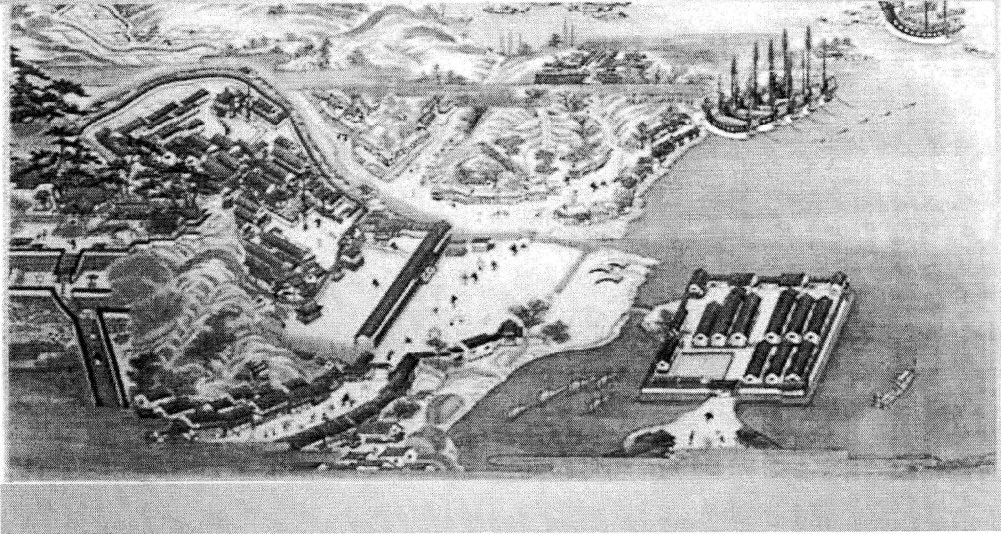


2. 長崎港之図 石門山応挙筆 1圖 (長崎港)

1641年，徳川幕府はオランダ東インド会社にたいし，長崎港の出島に移ることを命じた。1689年には長崎の町民に命じて唐人館を建設させた。唐人館は最多で2000人ほどの収容能力をもち，壁と空堀に囲まれ，長崎の市外に位置した。

オランダ船の水夫らは上陸を許されず，船上にとどまることを求められた。中国人水夫は上陸して唐人館に滞在したが，貿易のために来た外国人は，自由を奪われていた。唐人館には取り締まりに従わない唐人を放りこむ牢屋が付設されていた。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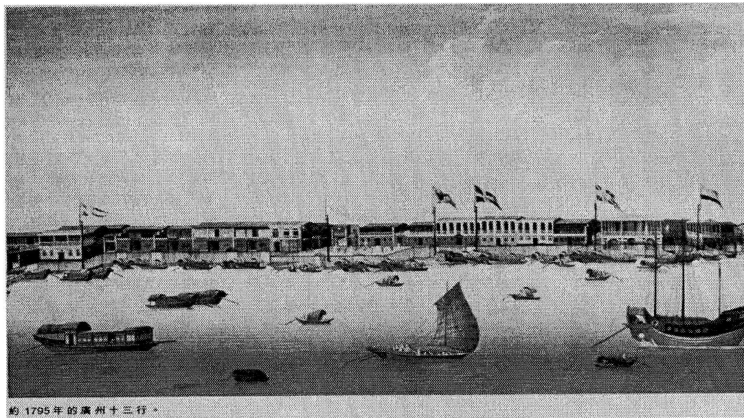
左が唐人館，右の埋め立て地が唐船の荷物を保管する倉庫  
(現在の新地中華街)。



12. 唐館内貿易之図 筆者不詳 1巻 (長崎県立長崎図書館)

唐人館には門が一つしかなく，二人の侍が常時出入りを監視していた。

広州の城外，珠江に面した「十三行 Thirteen Factories」と呼ばれる街区が各国・各地域から来た西洋人商人の居留地として形成された。すべての建物は中国人の行商が所有して外国人に賃借させた。中国人はこれらの建物を夷館と呼んでいた。



約 1795 年の廣州十三行。

11

## 共通点と相違点

- 通詞・通事や商人，特定の官員などを除き，外国人と本国人が交際することを制限した。
- 外国人が城内（市内）に立ち入ることを妨げた。
- 管理する官庁は，ある時は規制を緩め，ある時は厳格に執行することを通じて，外国人の行動を制御しようとした。

12

中国への朝貢使節を滞在させる施設と、17世紀以降に出現した外国商人のための館舎とのあいだには、どのような類似点があるのだろうか。

明政府(1368-1644)は朝貢施設のための施設を北京および3つの港に設置した。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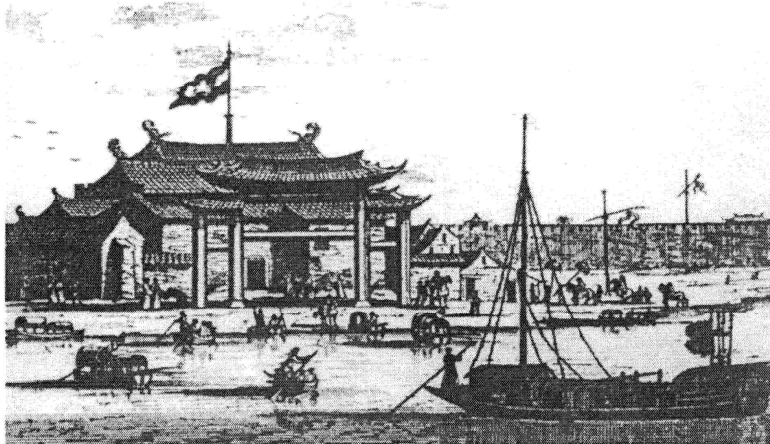
### 朝貢使節のための館舎

北京	すべての朝貢国	會同館 Huitong-guan	會同: assembly
寧波*	日本国の使節	安遠驛 Anyuan-yi	安: ease; calm 遠=遠夷: foreign barbarians
福州	琉球国の使節	柔遠驛 Rouyuan-yi	柔懷: placate; tame; conciliate
広州 (カントン)	主としてシャム(暹羅)国	懷遠驛 Huaiyuan-yi	驛=驛館: Station house

\*16世紀中葉に日本が朝貢を停止したのちに寧波の安遠驛は廃止された。他の館舎は清代にも利用された。

14

広州城外にあった懷遠駅の外観 : 宿泊施設を付設した官庁であった



广州馆舍和对外贸易中心怀远驿 15  
 约顺治十二年(1655年)

### 共通点と相違点(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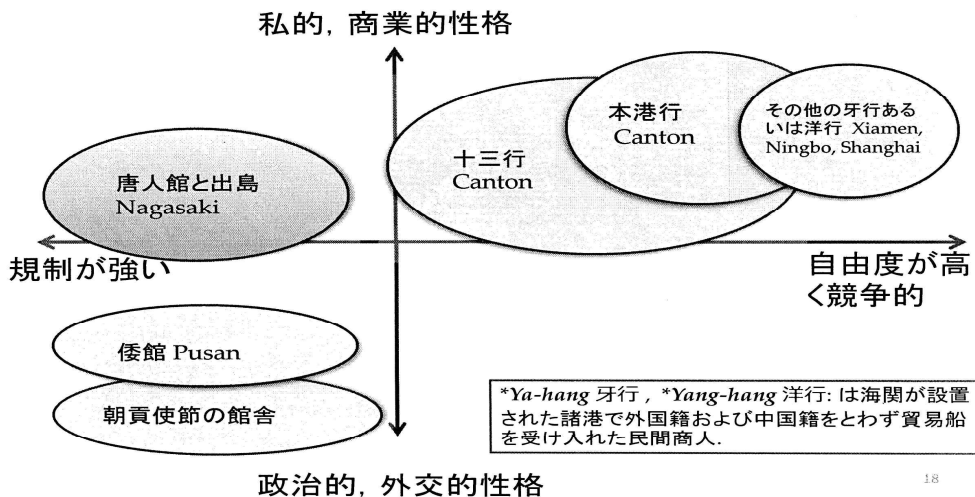
- 朝貢使節のための館舎と釜山の倭館とはともに受け入れ側の政府が建設した。
- 長崎の唐人館と出島は政権の命令によって建設された。しかし、長崎の町民と商人が建設費用を出資し、外国人から賃借料を徴収してその収入としていた。
- 広州(Canton)の十三行(夷館)は中国の行商(洋行)が所有する商業資産であった。まったくの私産であったため、珠江の畔に十三行の建物が建設された経緯を示す資料はほとんどない。

## 共通点と相違点(2)

- 朝貢使節の館舎，および釜山の倭館，長崎の唐人館と出島はそれぞれ特定の国の商人のみを受け付けた。朝貢の場合は王権による独占，倭館は対馬宗氏による独占，出島はVOCによる独占であった。唐人館は信牌を受領した商人のみが貿易を許された。中国国内では信牌の売買がおこなわれ，徳川政権も信牌の名義人以外の人物が信牌を行使することを認めしたが，長崎の唐船貿易の規模が縮小するにともない官府とつながりをもつ商人が優勢をしめた。
- 広州 (Canton) の十三行は西洋諸国\*およびインドの商船であれば，いかなる国と地域からの船であっても受け入れた。また「本港行」と呼ばれる別の行商は，中国船およびシャムなど東南アジア諸地域からの商船の貿易相手となった。
  - 唯一の例外はロシア。露清間の条約に陸上の貿易経路についての合意があることを根拠として清政府はカントンへのロシア船来航を拒否した。

17

## 貿易のための施設の特性



18

## 2. “商人ギルド(guild)” か否か？

- H. B. Morse は英国東インド会社(EIC)の文書のなかに、1720年に “the most considerable Chinese Merchants of the City of Canton” が “the control of the foreign trade” を目的として結んだ 13箇条からなる合同を見いだした[Morse 1926 :1-163ff]。Morse はその組織が “Merchant Guild” であると主張した。その組織は Co-hong / Conghong (公行) として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
- 1720年の合同は、東インド会社の管貨人らの抵抗にあい、翌年には行商たちが “could not agree among themselves” となって効力を失った。 [Morse 1926 :1-170].

19

- 1760年に Conghong が外国商人の代理人・保証人となる商人の組織として再結成された。1771年にこのConghongは解消された。Morse は1782年に Conghong が確立され1842年の南京条約発効まで存続したと主張した。しかし、岡本隆司の研究はこの組織は Conghong (公行) ではなかったとの説を提起した[Okamoto 1999:91-97, 497n(79)].
- 広州の外洋行 (十三行) が同業団体をなし、十三行街に隣接する場所に Congsoo / Gongsuo 公所という議事・集会のための施設を保有していたことは確かである。
- この団体がギルド (Guild) として機能していたのか否かという問題が検討されるべきである。 [Fujiwara 2009].
- 貿易商品の価格はこの「ギルド (Guild) 」に有利なように意図的に定められていたのだろうか。

20

いわゆる地方商人(Local traders, private traders)として1817～1819年に広州(Canton)で貿易に従事した英国人商人の証言を聞いてみよう。

Mr. John Aken.

4 March 1830.

1932. Through whom did you generally transact your business at Canton?—The Hong merchants.

1933. Did you ever find any difficulty in trading with the outside merchants?—Not the least.

1934. You have often traded with them?—With both.

1935. In what way do you select the Hong merchant with whom you shall trade?—We generally, on our arrival, agree with those that will give us the most for our cargo, and the person that takes the cargo is the person that becomes security to the government.

1936. Did you give him any advantages in your dealing to induce him to become the security merchant?—Nothing.

1937. Do you pay him any fee?—None.

1938. Do you find that some of the merchants are always willing to become security for the ships arriving there upon those terms?—Always.

21

out only to the admeasurement of the ship?—That is all.

1962. Is there, or not, a facility in transacting business in the port of Canton?—Great facility.

1963. Do you conceive there is as great facility in transacting business in the port of Canton as in any other port with which you are acquainted?—I think more.

1964. As much as there is in India?—A great deal more.

1965. Is there as much facility in transacting business in Canton as in ports in England?—Yes, and a great deal more.

1966. Why is it that you should say there is more facility?—You have nothing to do but with one man, and when you once get your bargain made you have no trouble whatever.

1967. Are the cargoes of ships easily discharged?—Very easily. We do not lie very near to Canton; we are about eight miles from Canton, at a place called Whampoa.

1968. Then they are discharged by means of lighters?—They are.

1969. And loaded in the same way?—Yes.

1970. Do you conceive that the Hong merchants are liberal in their dealings or otherwise?—Very liberal.

*First Report from the Select Committee on the Affairs of The East India Company(China Trade), BPP 1830-7-8.*

22

- Akenは広州 (Canton) でギルド(guild)による独占や価格操作に遭遇したことはなかった。彼の船の貨物の価格は何者かによって管理されることなどなく、十分に競争的な市場のなかで決定されていたのである。
- 十三行の行商とだけでなく、Aken はそれ以外の“the outside merchants” (散商, 洋貨舗) とも取り引きをしていた。彼らは行商とは認められず、たとえConghong というギルド(guild)が実在したとしても、その成員ではあり得ない。
- また、行商間での競争も熾烈であった。1780年に乾隆帝は広東の巡撫から以下のような上奏を受け取った。

23

- 向來外番各國夷人載貨來廣，各投各商交易，行商惟與來投本行之夷人親密，每有心存詭譎，爲夷人賣貨，則較別行之價加增，爲夷人買貨，則較別行之價從減，祇圖夷人多交貨物，以致虧本，遂生借銀換票之弊。臣等雖嚴行示禁，該行商等，因無定例，亦視爲故套，非奉明立科條，終難禁遏。(「廣東巡撫李湖等奏摺」『粵海關志』卷25，頁4)
- 従来、外番各国の夷人らが貨物を舶載して広州に来ると、それぞれ行商のもとに投宿して交易してきました。行商は自分が受託した夷人とのみ親密となり、狡賢い思いから、夷人にかわり商品を売り捌くときには別の行商よりも高い価格を提示し、夷人にかわって商品を調達する際には別の行商よりも低い価格を提示して、夷人と多くの貨物を取り引きすることを狙ったあげく、赤字をだして、(外国商人から) 銀子を借り、手形を書き換えて(決済を先送りする) はめになっております。臣らがきびしく禁止しても、定則がないために、行商たちは無視するのです。(朝命を奉じて) 明確に法例を定めないと、禁止することは困難です。

(Yue-haiguan-zhi, vol.25, p.4)

24

### 3. 「牙行」型商務モデル

- 1830年英国議会の専門委員会の委員が, John Aken に質問した:  
*“Why is it that you should say there is more facility?”*
- Aken は端的に回答した:  
*“You have nothing to do but with one man, and when you once get your bargain made you have no trouble whatever.”*
- Aken が自由に選択した行商がすべての商業取引と行政上の手続きを代行してくれた。このため彼は珠江の畔でのんびりと滞在を楽しむ以外に何もしなくて済んだのだった。
- 広州 (Canton) の行商は牙行の一種であった。この類型の代理/請け負い商人は, 近世の中国の港市および内地の大きな市場町にひろくみられた [Fu 1957:200,231; Okamoto 1999:81]。また, 華人商人は国外の港市に牙行を展開することもあった。

25

- 牙行のほとんどは旅館と商品倉庫を備えて遠来の客商の宿主 (居停主人) となった。牙行は自分の客のために商品の売買をするとともに, 納税や船引 (渡航許可証) 取得などの行政手続きに当たった。また官府の側が牙行がその客商の保証人になることを求めることもあった。広州 (Canton) ではそれは保商 (security merchant ) と呼ばれていた。
- 広州 (Canton) の十三行の行商は, 西洋およびインドの商人相手に特化した牙行であった。それは洋行や洋商とよばれることもあった。
- 広州 (Canton) には別の牙行の組織があった。
- 本港行は広東の商人およびシャム (Siamese) 商人, 海外華人商人を受け入れた。
- 福潮行は福建と潮州 (広東省最北, 言語はむしろ福建に近い) の商人を受け入れた [Hamashita 1990:56; Okamoto 1999:130ff]。

26

- 中国の貿易船の寄港地のいくつかには、「牙行」型商務モデルが広がっていたと推定される。1610年、浙江省で日本への「通番」集団が逮捕された。

又有閩人揭才甫者，久寓于杭，與杭人張玉宇善，出本販買紬絹等貨，同義男張明覓船戶施春凡與商夥陳振松等三十餘人，于七月初一日開洋，亦到五島，投牙一官、六官零賣。施春凡、陳振松等尚留在彼，而玉宇同林清等搭船先歸。此由寧波開船發行者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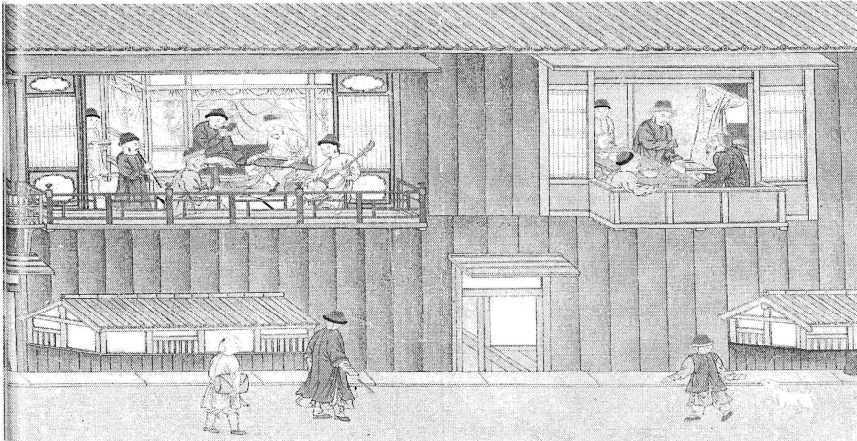
(王在晉「通番」『越鐫』卷21, 頁20)

…福建人の揭才甫という者があり，久しく杭州に寓居し，杭州人の張玉宇と親しくなり，資本を出して紬や絹などの商品を買付け，義男の張明が船戸の施春凡を探しだし，同行の商人陳振松ら三十数人で七月一日に出帆した。やはり五島に到着し，牙行の一官，六官のところに投宿して（商品を）小売りした。施春凡、陳振松らはなお五島に留まり，張玉宇と林清らは乗船して先に（寧波に）戻った。これが寧波より出帆して渡航した者たちである。

27

- 長崎では1689年に唐人館が建設されるより前は，来航した中国系商人たちは，それぞれ市中の商人のところに投宿していた。日本側はそれを「小宿」(koyado) ないしは「宿町」(yadomachi)と呼んでいた。
- 小宿や宿町の商業機能は，広州をはじめとする港市の牙行のそれと同様である。小宿や宿町の経営者には，中国人や華裔が含まれていたであろう。
- 長崎の唐人館は中国系貿易商のための牙行が統合された施設であったと見ることができよう。唐人館は長崎の市民が総体として運営していた。統合の結果，長崎では政権が外国商人を管理することは容易であった。広州では，外国人管理の責任や債務保証を十三行全体に負わせる仕組みであったが，それぞれの行商は個人経営であり，相互に競争関係にあったため，十三行の組織は不安定であった。政権から特許を得ていたが組織的な独占や価格統制は不可能であり，外国人の管理においてもしばしば問題が生じた。

28



長崎の唐人館では、唐人たち（商人と水夫）は暇をかこち、娯楽にこそむしかなかった。広州における John Aken をはじめとする西洋・インドの商人らも同様であっただろう。十三行の夷館は規模が限られていたこともあり、清朝政府は水夫は黄埔に停泊した船上に滞在させた。

29

#### 4. 参入と退出の自由と清朝の“門戸開放”貿易政策

- 1830年に英国議会の専門委員会で証言した商人たちは、広州（Canton）の貿易状況を次のように評価した。
  - *“Canton is the most easy place in the world to transact business at. . . .”*
  - *“Greater facilities in transacting business in Canton, than in any part of India . . . .”*
  - *“The supercargoes choose their Hong merchants according to their interests . . . .”*
  - *“There is no difficulty in finding security [保商] for American ships . . . .”*
- 当時、自由貿易の最大の障害物であったEICの利害関係者は、広州（Canton）の状況を必ずしも喜ばなかった。他の西洋諸国の商人はもとより、最小限の資本とわずから経験しかない小規模な地方商人ですら競争から排除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からである。広州（Canton）では、すべての商人が *“Greater facilities”* を得ることができた。

30

- 1757年以降, すべての西洋およびインドの商船は広州でのみ貿易するよう強制され, しかも外国人にたいする管理は次第に厳しくなっていた。それにも関わらず, 中国の国際貿易は拡大基調にあり, けっして衰退することがなかった。
- 牙行の吸引力とその商務のやり方がこれを可能にした要因の一つであったと評価することはできないだろうか。
- 牙行を核とする中国の貿易システムにおいて, 取り引きをする双方の側に独占が存在する餘地はほとんどなかった。これが中国の港市における競争的な市場の基本的な制度であった。
- 当時において自由貿易を拡大させる力の一つとして, この「牙行」型商務モデルが作用したと評価することはできないであろうか。
- 「牙行」は仲介者として機能した。この機能は互市の制度における統制と自由との両立を保証しただけでなく, 民間人による貿易と官府による外交とを隔離する機制を提供した。[Murao 2013, Iwai 2010b]

31

#### 参考書目

- Chen 1998: 陳東有『走向海洋貿易帶——近代世界市場互動中的中国東南商人行爲』江西高校出版社
- Cheong 1997: W. E. Cheong, *Hong Merchants of Canton: Chinese Merchants in Sino-Western Trade, 1864-1798*, Richmond.
- Fan 2008: 范金民「販番販到死方休——明代後期(1567-1644年)的通番案」『東吳歴史学報』18
- Fujiwara 2009: 藤原敬士「18世紀中葉の広州における行外商人の貿易参入に関する布告の分析」『東洋学報』91巻3号
- Guo 2005: 郭德焱『清代廣州的巴斯商人Parsee Merchants』中華書局
- Hamashita 1990: 濱下武志『近代中国の国際的契機——朝貢貿易システムと近代アジア』東京大学出版会
- Harada 2010: 原田博二「長崎と広州」荒野泰典ら編『日本の対外関係 6 近世の世界の成熟』吉川弘文館
- Hashimoto 2013: 橋本雄『“日本国王”と勘合貿易』NHK出版
- Iwai 2009a: 岩井茂樹「帝国と互市——16-18世紀東アジアの通交」籠谷・脇村編『帝国とネットワーク』世界思想社
- Iwai 2009b: 「廣州與長崎——清廷透視中的互市與海外華人」 in Evert Groenendijk, Cynthia Viallé, Leonard Blussé, *Canton and Nagasaki Compared 1730-1830 Dutch, Chinese, Japanese Relations*, Institute for the History of European Expansion, Leiden.

32

- Iwai 2007 : 岩井「清代の互市と“沈黙外交”」, 夫馬進編『中国東アジア外交交流史の研究』京都大学学術出版会
- Iwai 2010a : 岩井「“華夷変態”後の国際社会」荒野泰典ら編前掲書
- Iwai 2010b : 岩井「朝貢と互市」『岩波講座 東アジア近現代史 第1巻 東アジア世界の近代 19世紀』岩波書店
- Okamoto 1999 : 岡本隆司『近代中国と海関』名古屋大学出版会
- Morse 1926 : Morse, H. B., *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Oxford : Clarendon Press.
- Murao 2013 : 村尾進「“特に一所を設けて” —碓石鎮総兵陳昂の奏摺と長崎・広州—」『中国文化研究』第29号 (天理大学)
- Tsuruta 2003 : 鶴田啓「釜山倭館」, 荒野泰典編『江戸幕府と東アジア』(日本の時代史14) 吉川弘文館
- Van Dyke 2005 : P. A. Van Dyke, *The Canton Trade : Life and Enterprise on the China Coast, 1700-1845*, Hong Kong U.P.
- Zhang 2009 : 章文欽『廣東十三行與早期中西關係』廣東經濟出版社



# Freedom and control in international trade of the early-modern East Asia

岩井茂樹(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 報告의 觀點과 目的

- 유라시아 대륙(the Eurasian Continent) 동부에는 중심과 주변으로 이루어진 계층 구조가 있었다. 그것은 문명의 여명기에 기원하여, 근세의 시대까지 이어졌다.
- 중심은 물론 中華의 영역이었고, 外夷 여러 나라가 그 주변을 이루었다.
- 中華의 황제가 '天子'로서, 華와 夷로 이루어진 天下의 정점에 위치한다는 질서 이념이 존재하였다.
- 문화적 가치에서의 華夷 관념이나, 의례적인 臣從 관계의 표현으로서 행해진 朝貢의 제도가 이 질서 이념으로부터 파생했다.
- 14세기 후반 明 왕조는 朝貢과 貿易을 불가분으로 삼는 朝貢 일원체제의 실현을 지향했다. '日本國王'의 冊封과 鄭和의 南海 원정은 이 체제의 확장을 보여준다.
- 朝貢 일원체제는 왕권 간의 협약에 기반한 무역 독점의 구조로 기능하였지만, 이것은 16세기 전반에 이르러 동요하였다.

2

## 報告의 觀点과 目的

- 이 동요는 일본 銀의 증산을 하나의 원인으로 하는 경제 호황이 중심과 주변의 무역을 확장시킨 것에 기인하였다.
- 16세기 중엽 ‘北虜南倭’의 위기는 明의 朝貢 일원체제와 무역 확대 간 모순의 폭발로 이해할 수 있다.
- 이 모순을 완화시킨 것은 朝貢 무역과 상반된 성격을 지니는 互市の 성장과 충실이었다.
- 互市란 변경에서의 통제된 무역 제도이지만, 16세기 내내 朝貢과 관계없이 행해진 互市가 서서히 확대되었다.
- 互市에서의 통제는 무역을 위해 왕래하는 외국인을 격리시키는 것이 그 수단이었다. 이러한 통제에 의한 안전 보장에의 배려와 상업 무역을 확대시키는 자유를 양립시키는 교묘한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18세기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과제였다.

3

- 1. 貿易과 商人에 대한 制限
  - 동아시아 港市의 무역 시설과 규제를 개관한다.
  - 차이점과 공통성은 어디에 있는가?
- 2. “商人 길드(guild)” 인가, 아닌가?
  - 광저우(Canton)에서의 독점과 경쟁의 문제를 검토한다.
- 3. 「牙行」型 商務 모델
  - 전통 중국에서 代理人(agent)의 기능을 논의한다.
- 4. 진입·퇴출의 자유와 淸朝의 문호 개방 정책
  - 자오무역의 형성에서 중국의 무역 시스템이 지니는 흡인력이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논의한다.

4

## 1. 貿易과 商人에 대한 制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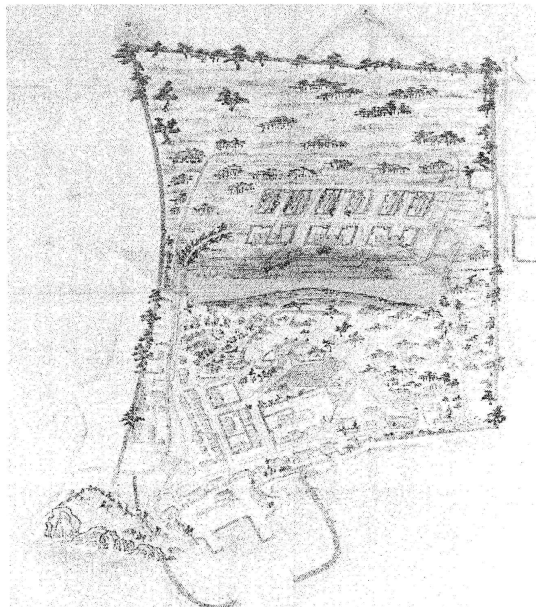
- 동아시아의 港市에서 외국 상인을 위한 시설은 국제무역을 제한하는 제도를 체현하고 있었다.
- 부산과 나가사키에서는 벽으로 둘러싸인 街區가 외국 상인에게 할당되었다.
- 광저우(Canton)에서는 十三行街를 둘러싼 물리적인 벽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제도적인 장벽이 몇 가지 분야에서 외국 상인의 행동을 제한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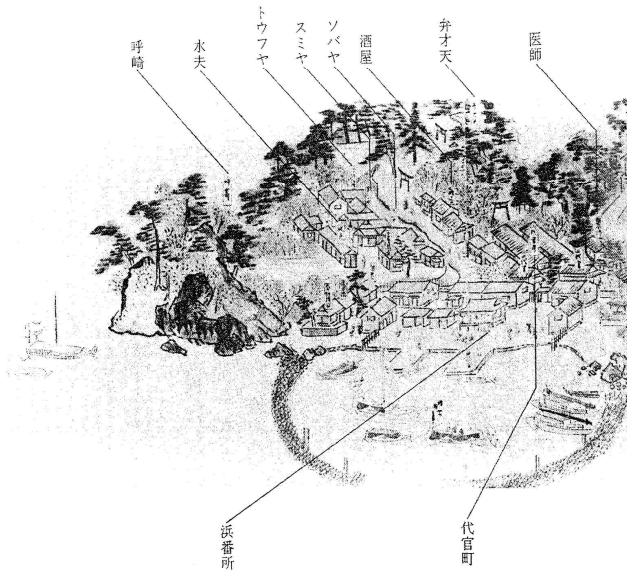
5

부산항의 倭館(和館)은 1607년 朝鮮 왕조와 도쿠가와 정권이 외교관계를 회복했을 때 건설되었다.

1678년 朝鮮 정부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대규모의 倭館을 새로 건설하였다.

도판 출처: [鶴田 2003: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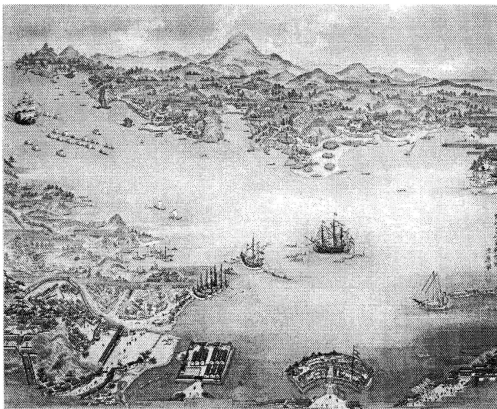




이 새로운 倭館은 전용 선착장, 神社, 진료소, 각종 점포 등을 벽으로 둘러싸인 마을 안에 배치하였다. 쓰시마로부터 온 일본인 상인과 관리는 벽 안에서 생활할 것이 요구되었다. 朝鮮의 지방 관부는 부대를 배치하여 일본인을 감시하였다.

도판 출처: [鶴田 2003:397]

7



2. 長崎港之圖 松田山心筆 1圖 (長崎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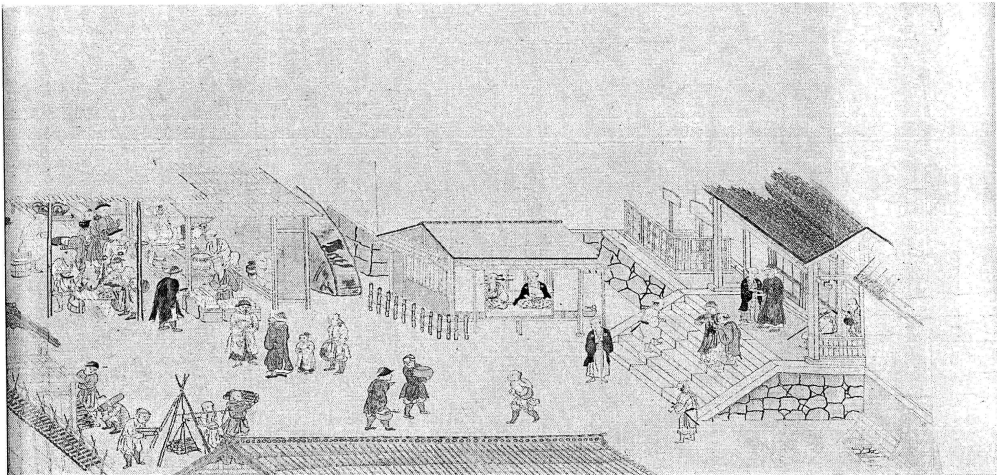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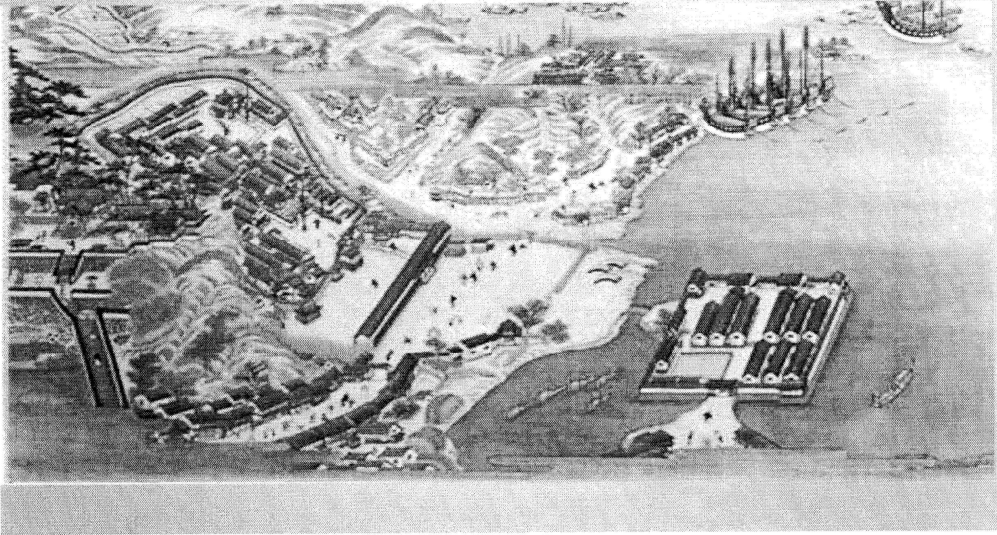
1641년 도쿠가와 막부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 대하여 나가사키항의 出島로 옮길 것을 명하였다.

1689년에는 나가사키의 시민에 명하여 唐人館을 건설하게 하였다. 唐人館은 최대 2000명 가량의 수용 능력을 지녔고, 벽과 참호로 둘러싸였으며 나가사키 시외에 위치하였다.

네덜란드 선박의 水夫들은 상륙이 허락되지 않아 배 위에 머물 것이 요구되었다. 중국인 水夫는 상륙하여 唐人館에 체재하였지만, 무역을 위하여 온 외국인은 자유를 박탈당하였다. 唐人館에는 단속 규정에 따르지 않는 唐人을 가두는 감옥이 부설되어 있었다.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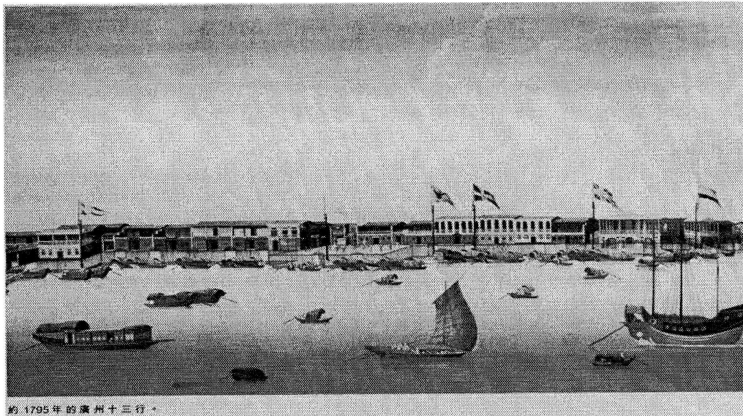
왼쪽이 唐人館, 오른쪽의 매립지가 唐船의 荷物을 보관하는 창고 (現在의 新地中華街)



12. 唐館内貿易之図 筆者不詳 1卷 (長崎県立長崎図書館)

唐人館에는 門이 하나밖에 없고,  
두 사람의 사무라이가 항상 출입을 감시하고 있었다. <sup>10</sup>

광저우의 성 바깥의 珠江에 면한, 「十三行 Thirteen Factories」이라고 불린 街區가 각국·각 지역으로부터 온 서양인 상인의 거류지로 형성되었다. 모든 건물은 중국인 行商이 소유하여 외국인에게 임차해 주었다. 중국인은 이들 건물을 夷館이라고 불렀다.



11

## 공통점과 차이점

- 通詞·通事나 商人, 특정 官員 등을 제외하고, 외국인과 본국인이 교제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 외국인이 城內(市内)에 들어오는 것을 꺼렸다.
- 관리하는 관청은, 어떤 때는 규제를 느슨하게, 어떤 때는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을 통하여, 외국인의 행동을 제어하고자 하였다.

12

중국에 온 朝貢 사절을 체재하게 하는 시설과, 17세기 이후 출현한 외국 상인을 위한 館舍 간에는, 어떠한 유사점이 있는 것일까.

明 정부(1368-1644)는 朝貢 사절을 위한 시설을 北京 및 세 곳의 항구에 설치하였다.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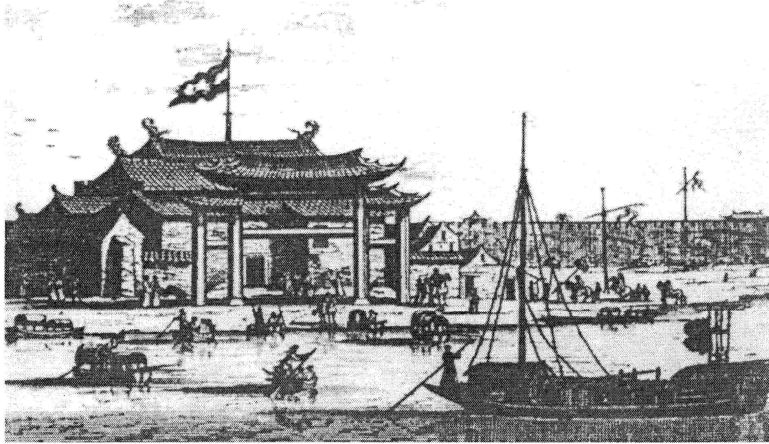
### 朝貢 사절을 위한 館舍

北京	모든 朝貢國	會同館 Huitong-guan	會同: assembly
寧波*	日本國 使節	安遠驛 Anyuan-yi	安: ease; calm 遠=遠夷: foreign barbarians
福州	琉球國 使節	柔遠驛 Rouyuan-yi	柔懷: placate; tame; conciliate
廣州 (Canton)	주로 삼(暹羅)國	懷遠驛 Huaiyuan-yi	驛=驛館: Station house

\* 16세기 중엽 일본이 朝貢을 정지한 뒤 寧波의 安遠驛은 폐지되었다. 다른 館舍는 清代에도 이용되었다.

14

광저우 성 바깥에 있던 懷遠驛의 외관 : 숙박 시설을 부설한 관청이었다.



广州馆舍和对外贸易中心怀远驿  
约顺治十二年(1655年) 15

## 공통점과 차이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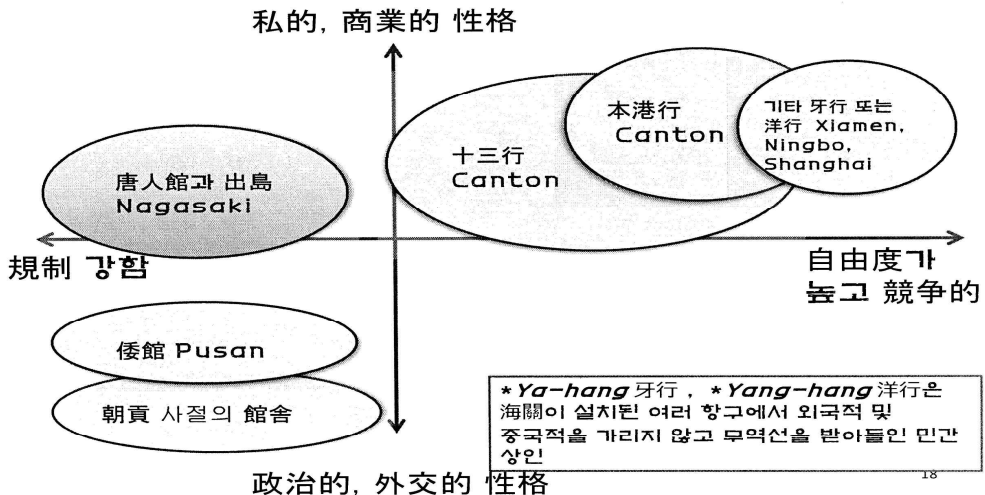
- 朝貢 사절을 위한 館舍와 부산의 倭館은 모두 받아들이는 쪽의 정부가 건설하였다.
- 나가사키의 唐人館과 出島는 정권의 명령에 의해 건설되었다. 그러나 나가사키의 시민과 상인이 건설 비용을 출자하고 외국인으로부터 임차료를 징수하여 그 수입으로 삼았다.
- 광저우(Canton)의 十三行(夷館)은 중국의 行商(洋行)이 소유하는 상업 자산이었다. 완전한 私産이었기 때문에 珠江 연안에 十三行의 건물이 건설된 경위를 보이는 자료는 거의 없다.

## 공통점과 차이점 (2)

- 朝貢 사절의 館舍 및 부산의 倭館, 나가사키의 唐人館과 出島는 각각 특정 국가의 상인만 받아들였다. 朝貢의 경우는 왕권에 의한 독점, 倭館은 쓰시마 宗氏에 의한 독점, 出島는 VOC에 의한 독점이었다. 唐人館은 信牌를 수령한 商人만 무역을 허가받았다. 중국 국내에서는 信牌의 매매가 행해졌고, 도쿠가와 정권도 信牌 名義人 이외의 인물이 信牌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했지만, 나가사키 唐船 무역의 규모가 축소함에 따라 官府와 끈을 유지한 상인이 우세를 차지하였다.
- 광저우(Canton)의 十三行은 서양 여러 나라\* 및 인도 상선이라면 어떤 국가와 지역의 선박이라도 받아들였다. 또 「本港行」이라고 불린 다른 行商은 중국 선박 및 삼 등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온 상선의 무역 상대가 되었다.
  - 유일한 예외는 러시아. 러시아와 淸 간의 조약에 육상의 무역 경로에 대한 합의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淸 정부는 러시아 선박의 광저우 입항을 거부하였다.

17

## 무역을 위한 시설의 특성



## 2. “商人 길드(guild)” 인가, 아닌가?

- H. B. Morse는 영국 동인도회사(EIC)의 문서 가운데, 1720년 “the most considerable Chinese Merchants of the City of Canton”이 “the control of the foreign trade”를 목적으로 맺은 13개 조로 이루어진 合約을 발견하였다. [Morse 1926: 1-163ff] Morse는 그 조직이 “Merchant Guild”라고 주장하였다. 그 조직은 Co-hong / Conghong (公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 1720년의 合約은 동인도회사 管貨人들의 저항에 부딪혀, 이듬해에는 行商들이 “could not agree among themselves” 하게 되어 효력을 잃었다. [Morse 1926: 1-170]

19

- 1760년 Conghong이 외국 상인의 代理人·保證人으로 이루어진 상인 조직으로서 재결성되었다. 1771년 이 Conghong은 해체되었다. Morse는 1782년에 Conghong이 확립되어 1842년의 난징조약 발효까지 존속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岡本隆司의 연구는 이 조직이 Conghong (公行)은 아니었다는 설을 提起하였다. [Okamoto 1999: 91-97, 497n(79)]
- 광저우의 外洋行(十三行)이 동업단체를 이루고, 十三行街에 인접한 장소에 Congsoo/Gongsuo 公所라고 하는 議事·集會를 위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던 것은 확실하다.
- 이 단체가 길드(Guild)로서 기능하고 있었는가, 아니었는가라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Fujiwara 2009]
- 무역 상품의 가격은 이 「길드(Guild)」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결정되었던 것일까.

20

이른바 地方 商人(Local traders, private traders)으로서 1817~19년  
광저우(Canton)에서 무역에 종사한 영국인 상인의 증언을 들어 보자.

Mr. John Aken.

4 March 1830.

1932. Through whom did you generally transact your business at Canton?—The Hong merchants.

1933. Did you ever find any difficulty in trading with the outside merchants?—Not the least.

1934. You have often traded with them?—With both.

1935. In what way do you select the Hong merchant with whom you shall trade?—We generally, on our arrival, agree with those that will give us the most for our cargo, and the person that takes the cargo is the person that becomes security to the government.

1936. Did you give him any advantages in your dealing to induce him to become the security merchant?—Nothing.

1937. Do you pay him any fee?—None.

1938. Do you find that some of the merchants are always willing to become security for the ships arriving there upon those terms?—Always.

21

out only to the admeasurement of the ship:—That is all.

1962. Is there, or not, a facility in transacting business in the port of Canton?—Great facility.

1963. Do you conceive there is as great facility in transacting business in the port of Canton as in any other port with which you are acquainted?—I think more.

1964. As much as there is in India?—A great deal more.

1965. Is there as much facility in transacting business in Canton as in ports in England?—Yes, and a great deal more.

1966. Why is it that you should say there is more facility?—You have nothing to do but with one man, and when you once get your bargain made you have no trouble whatever.

1967. Are the cargoes of ships easily discharged?—Very easily. We do not lie very near to Canton; we are about eight miles from Canton, at a place called Whampoa.

1968. Then they are discharged by means of lighters?—They are.

1969. And loaded in the same way?—Ycs.

1970. Do you conceive that the Hong merchants are liberal in their dealings or otherwise?—Very liberal.

*First Report from the Select Committee on the Affairs of The East India Company(China Trade), BPP 1830-7-8.*

22

- Aken은 광저우(Canton)에서 길드(guild)에 의한 독점이나 가격 조작에 조우한 일은 없었다. 그의 배에 실린 貨物의 가격은 누군가에 의해 관리되는 일 따위 없이, 충분히 경쟁적인 시장 안에서 결정되고 있었던 것이다.
- 十三行의 行商뿐만 아니라, Aken은 그 이외의 “the outside merchants” (散商, 洋貨舖)과도 거래를 하였다. 그들은 行商으로 인정되지 않았기에, 설사 Conghong이라는 길드(guild)가 실재했다고 하더라도, 그 成員은 될 수 없다.
- 또한, 行商 간의 경쟁도 치열하였다. 1780년에 乾隆帝는 광둥순무로부터 다음과 같은 上奏를 받았다.

23

- 向來外番各國夷人載貨來廣，各投各商交易，行商惟與來投本行之夷人親密，每有心存詭譎，爲夷人賣貨，則較別行之價加增，爲夷人買貨，則較別行之價從減，祇圖夷人多交貨物，以致虧本，遂生借銀換票之弊。臣等雖嚴行示禁，該行商等，因無定例，亦視爲故套，非奉明立科條，終難禁遏。(「廣東巡撫李湖等奏摺」『粵海關志』卷25，頁4)
- 종래 外番 각국의 夷인들이 貨物을 배에 실어 광저우에 오면, 각각 行商의 아래에 投宿하여 交易해 왔습니다. 行商은 자신이 受託한 夷人 하고만 親密하게 되어, 고향한 생각으로부터, 夷人 대신에 상품을 팔아 치울 때에는 다른 行商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夷人 대신에 상품을 조달할 때에는 다른 行商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夷人과 많은 화물을 거래하는 것을 노린 끝에, 적자를 내어, (외국 상인으로부터) 銀子を 빌리고 어음을 대신 써 주는(결제를 미루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臣 등이 엄히 禁止해도, 定則이 없기 때문에, 行商들은 無視하는 것입니다. (朝命을 받들어) 明確히 法例를 정하지 않으면, 禁止하는 것은 困難합니다.

(Yue-haiguan-zhi, vol.25, p.4)

24

### 3. 「牙行」型 商務 모델

- 1830년 영국 의회의 전문위원회 위원이 John Aken에게 물었다:  
*“Why is it that you should say there is more facility?”*
- Aken은 간단하고 분명하게 대답하였다:  
*“You have nothing to do but with one man, and when you once get your bargain made you have no trouble whatever.”*
- Aken이 자유롭게 선택한 行商이 모든 상업 거래와 행정상의 수속을 대항해 주었다. 이 때문에 그는 珠江 연안에서 한가롭게 체재를 즐기는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 광저우(Canton)의 行商은 牙行의 일종이었다. 이 유형의 代理/請負 상인은, 근세 중국의 港市 및 内地의 큰 市鎮에서 널리 보였다. [Fu 1957: 200, 231; Okamoto 1999: 81] 또한, 華人 상인은 국외의 港市에 牙行을 여는 일도 있었다.

25

- 牙行의 거의 대부분은 여관과 상품 창고를 갖추어 멀리서 온 客商의 宿主(居停主人)가 되었다. 牙行은 자신의 손님을 위하여 상품의 매매와 함께, 납세나 船引(渡航 허가증) 취득 등 행정 수속을 맡았다. 또 官府 측이 牙行에게 그 客商의 保証人이 될 것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광저우(Canton)에서는 그것이 “保商(security merchant)” 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 광저우(Canton) 十三行의 行商은, 서양 및 인도 상인을 상대로 특화된 牙行이었다. 그것은 洋行이나 洋商으로 불린 일도 있었다.
- 광저우(Canton)에는 다른 牙行의 조직이 있었다.
- 本港行은 광둥의 상인 및 샴(Siamese)의 상인, 해외 華人 상인을 받아들였다.
- 福潮行은 福建과 潮州(광둥 성의 가장 북쪽, 언어는 오히려 福建에 가까움)의 상인을 받아들였다. [Hamashita 1990: 56; Okamoto 1999: 130ff]

26

- 중국 무역선의 기항지 몇 군데에는, 「牙行」型 商務 모델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추정된다. 1610년 浙江省에서 일본을 향하는 「通番」 집단이 체포되었다.

又有閩人揭才甫者，久寓于杭，與杭人張玉宇善，出本販買紬絹等貨，同義男張明覓船戶施春凡與商夥陳振松等三十餘人，于七月初一日開洋，亦到五島，投牙一官、六官零賣。施春凡、陳振松等尚留在彼，而玉宇同林清等搭船先歸。此由寧波開船發行者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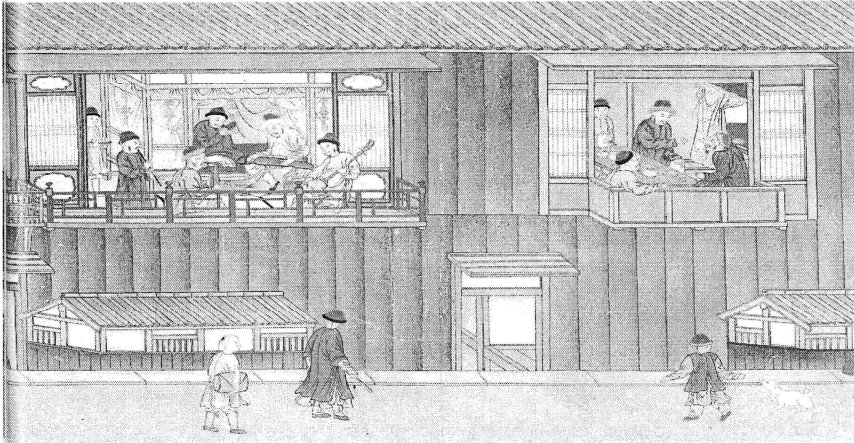
(王在晉「通番」『越鐫』卷21, 頁20)

···福建 사람揭才甫라는 자가 있어, 오랫동안 杭州에 寓居하여, 杭州 사람 張玉宇와 친하게 되어, 資本을 내서 紬나 絹 등 商品을 사들여, 義男 張明이 船戶인 施春凡을 찾아내어, 同行의 商人 陳振松 등 삼십여 인과 7월 1일에 출항하였다. 역시 五島에 도착하여, 牙行인 一官, 六官의 처소에 投宿하여 (상품을) 소매하였다. 施春凡、陳振松 등은 아직 五島에 머물고, 張玉宇와 林清 등은 乘船하여 먼저 (寧波에) 돌아왔다. 이것이 寧波로부터 출항하여 渡航한 자들이다.

27

- 나가사키에서는 1689년 唐人館가 건설되기 이전은, 내항한 중국계 상인들은 각각 市中 商人의 처소에 投宿하고 있었다. 일본 측은 그것을 「小宿」(koyado) 내지는 「宿町」(yadomachi)이라고 불렀다.
- 小宿이나 宿町の 상업 기능은, 광저우를 비롯한 港市에서 牙行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小宿이나 宿町の 경영자에는 중국인이나 華商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 나가사키의 唐人館은 중국계 무역 상인을 위한 牙行이 統合되었던 시설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唐人館은 나가사키 市民이 총체로서 운영하고 있었다. 統合의 결과, 나가사키에서는 정권이 외국 상인을 관리하는 일이 용이해졌다. 광저우에서는 외국인 관리의 책임이나 채무 보증을 十三行 전체에 부담시키는 구조였지만, 각각의 行商은 개인 경영이고, 상호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十三行의 조직은 불안정하였다. 정권으로부터 특허를 얻었지만 조직적인 독점이나 가격 통제는 불가능하였고, 외국인에 대한 관리에서도 종종 문제가 생겼다.

28



나가사키의 唐人館에서는, 唐人(商人과 水夫)들은 한가로움을 핑계로 오락에 힘쓰는 수밖에 없었다. 광저우에서 John Aken을 비롯한 서양·인도의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十三行의 夷館은 規模가 제한되어 있기도 하여, 清朝 정부는 水夫는 黃埔에 정박한 船上에 滯在하도록 했다.

29

#### 4. 진입·퇴출의 자유와 清朝의 “門戶開放” 무역 정책

- 1830년 영국 의회의 전문위원회에서 증언한 상인들은 광저우(Canton)의 무역 상황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 “*Canton is the most easy place in the world to transact business at. ...*”
  - “*Greater facilities in transacting business in Canton, than in any part of India ...*”
  - “*The supercargoes choose their Hong merchants according to their interests ...*”
  - “*There is no difficulty in finding security [保商] for American ships ...*”
- 당시 자유무역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TIC의 이해관계자는, 광저우(Canton)의 상황을 반드시 좋아하진 않았다. 다른 서양 여러 나라의 상인은 물론, 최소한의 자본과 일천한 경험밖에 없는 소규모 지방 상인조차 경쟁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광저우(Canton)에서는, 모든 상인이 “*Greater facilities*”를 얻을 수 있었다.

30

- 1757년 이후, 모든 서양 및 인도의 상선은 광저우에서만 무역하도록 강제되었고, 게다가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차츰 엄격해져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제무역은 확대 기조에 있었고, 결코 쇠퇴하는 일이 없었다.
- 牙行의 흡인력과 그 商務의 방식이 이것을 가능케 한 요인의 하나였다고 평가할 수 없을까.
- 牙行을 핵으로 하는 중국의 무역 시스템에서, 거래를 하는 쌍방에 독점이 존재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 이것이 중국의 港市에서 경쟁적인 시장의 기본적인 제도였다.
- 당시에 자유무역을 확대시키는 힘의 하나로서, 이 「牙行」型 商務 모델이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까.
- 「牙行」은 중개자로서 기능했다. 이 기능은 互市の 제도에서 통제와 자유의 양립을 보증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의한 무역과 관부에 의한 외교를 격리하는 機制를 제공하였다. [Murao 2013, Iwai 2010b]

31

#### 參考書目

- Chen 1998 : 陳東有 『走向海洋貿易帶——近代世界市場互動中的中國東南商人行爲』 江西高校出版社
- Cheong 1997 : W. E. Cheong, *Hong Merchants of Canton : Chinese Merchants in Sino-Western Trade, 1864-1798*, Richmond.
- Fan 2008 : 范金民 「販番販到死方休——明代後期（1567-1644年）的通番案」 『東吳歷史學報』 18
- Fujiwara 2009 : 藤原敬士 「18世紀中葉の広州における行外商人の貿易参入に関する布告の分析」 『東洋學報』 91卷3号
- Guo 2005 : 郭德焱 『清代廣州的巴斯商人Parsee Merchants』 中華書局
- Hamashita 1990 : 濱下武志 『近代中國の國際的契機——朝貢貿易システムと近代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 Harada 2010 : 原田博二 「長崎と広州」 荒野泰典ら編 『日本の對外關係 6 近世の世界の成熟』 吉川弘文館
- Hashimoto 2013 : 橋本雄 『“日本國王”と勘合貿易』 NHK出版
- Iwai 2009a : 岩井茂樹 「帝國と互市——16-18世紀東アジアの通交」 籠谷・脇村編 『帝國とネットワーク』 世界思想社
- Iwai 2009b : 「廣州與長崎——清廷透視中的互市與海外華人」 in Evert Groenendijk, Cynthia Viallé, Leonard Blussé, *Canton and Nagasaki Compared 1730-1830 Dutch, Chinese, Japanese Relations*, Institute for the History of European Expansion, Leiden.

32

- Iwai 2007 : 岩井「清代の互市と“沈黙外交”」, 夫馬進編『中国東アジア外交交流史の研究』京都大学学術出版会
- Iwai 2010a : 岩井「“華夷変態”後の国際社会」 荒野泰典ら編前掲書
- Iwai 2010b : 岩井「朝貢と互市」 『岩波講座 東アジア近現代史 第1巻 東アジア世界の近代 19世紀』岩波書店
- Okamoto 1999 : 岡本隆司『近代中国と海関』名古屋大学出版会
- Morse 1926 : Morse, H. B., *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Oxford : Clarendon Press.
- Murao 2013 : 村尾進「“特に一所を設けて” —碓石鎮総兵陳昉の奏摺と長崎・広州—」 『中国文化研究』第29号 (天理大学)
- Tsuruta 2003 : 鶴田啓「釜山倭館」, 荒野泰典編『江戸幕府と東アジア』(日本の時代史14) 吉川弘文館
- Van Dyke 2005 : P. A. Van Dyke, *The Canton Trade : Life and Enterprise on the China Coast, 1700-1845*, Hong Kong U.P.
- Zhang 2009 : 章文欽『廣東十三行與早期中西關係』廣東經濟出版社